

한라산 총서 VII

한라산 이야기

## 목차

### 제1장 한라산이야기

1. 우러를수록 더 높아지는 한라산 13
2. 한라산 최고봉의 이름은 ‘혈망봉(穴望峰)’ 18
3. 백록담은 얼마나 깊은가 22
4. 한라산 속의 ‘이어도’ 28
5. 한라산과 칠성대 33
6. 구린굴과 굴빙고(窟氷庫) 39
7. 제주의 위급을 알렸던 ‘왕관암’ 43
8. 산을 ‘벌른’ 계곡 47
9. 한라산의 비경, 영실 51
10. 제주 불교의 발상지, 수행굴 55
11. 수행굴과 ‘겐테’박사 59
12. 천하를 굽어보는 조망대 63
13. 불로초(不老草)·불사향(不死鄉)의 한라산 67
14. 매로 변한 한라산신 71
15. 정조 임금과 제주 유생의 한라산 문답 74
16. 신안(神眼)을 가졌던 석학 고흥진 77
17. 탐라사절(耽羅四絶) 81
18. 한라산 아래 첫 마을 87
19. 한라산의 원풍경(原風景)은 어떠했을까 92

20. 제주의 명품 ‘남방아’ 97

21. 사람(人)·말(馬)·불(佛)·곡(穀)을 닮은 한라산 100

## 제2장 한라산과 문학

1. 한라산, 그 영원한 상상력의 공간 107

2. 옛 글 속의 한라산 110

유배인의 눈에 비친 한라산 / 111

유람의 공간으로서의 한라산 / 118

신광수와 한라산 / 130

제주 유림들의 한시 속에 나타난 한라산 / 133

3. 제주작가들의 심상공간으로서의 한라산 135

마음의 고향 혹은 정신의 상징 / 135

한라산 절경을 노래함 / 138

백록담과 영실 그리고 선작지왓 / 138

한라산의 사계 / 142

설문대할망의 산, 한라산 / 147

4. 사람의 산, 한라산 149

오성찬의 「한라산」, 그 방목의 공간 / 149

한라산의 얼굴 / 153

무너지는 한라산 / 156

5. 한라산, 그 아름다움과 비애 158

제주작가들이 본 4·3과 한라산 / 159

현기영, 기억속의 한라산 / 165

4·3과 겨울산에서의 생활 / 168

김석범 『화산도』의 한라산 / 171

외지작가들이 본 4·3과 한라산 / 172

6. 외부인의 눈에 비친 한라산 176

정지용의 백록담, 그리고 생태계를 노래함 / 176

서정과 상상력의 공간 / 182

고은과 한라산 / 192

이은상의 한글 기행산문 / 195

7. 이방인의 눈에 비친 한라산 197

겐테의 기행문을 통해본 한라산 인식 / 197

8. 평화와 통일의 상징, 한라산 202

조정래 『태백산맥』 속의 한라산, 그리고 통일의 노래 / 203

9. 한라, 그 마음의 고향 208

### 제3장 한라산을 품고 사는 사람들

1. 꽃자왈과 제주인의 삶 213

꽃자왈의 개념과 분포 / 213

전통적인 생활양식과 꽃자왈 / 217

4·3 사건과 꽃자왈 / 221

2. 약초할머니의 삶과 약초이야기 226

약초를 캐러 다닌 이야기 / 226

약초할머니의 삶 / 236

약초이야기 / 244

참고문헌 255

사진 목차 258

그림 목차 261

표 목차 261

색인 262

## 제1장 한라산이야기

### 1 우러를수록 더 높아지는 한라산

누구나 한라산을 안다고 한다. 제주 사람들에게 한라산은 아침저녁으로, 마치 내 집 앞뜰이나 마을 어귀를 돌아보듯 바라보며 살아가는 대상이다. 그러기에 누구나 한라산을 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한라산을 잘 알고 있는 것일까.

1841년 제주목사로 부임한 이원조의 일화를 소개한다. 그는 제주에 부임한 뒤 며칠 동안 망경루(제주목관아 내에 있었던 누각)에 머물렀다. 그런데 망경루에서 바라보는 한라산은 마치 책상 사이에 있는 듯 심히 높지 않고 험준해 보이지 않아 가까이서 완상(玩賞)할 만했다. 얼마 뒤 그는 해지는 풍경을 구경하기 위해 목관아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는 사라봉에 올랐다. 괴이한 것은 사라봉을 올라가면 갈수록 한라산이 점점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마치 “공자를 우러르면 우러를수록 더욱 높고, 뚫으려면 더욱 굳어져서 진정으로 우뚝 서 있는 모습을 보려면 안연(顔淵)과 증자(曾子)와 같은 자질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과 비슷하였다.”는 것과 같은 느낌이었을까.

공자는 많은 제자들을 거느려 그 수가 3,000 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그 중에서도 안연은 공자가 가장 아끼는 제자로 알려져 있다. 그가 일찍 죽자 공자는 “하늘이 나를 파멸시키는구나.” 하고 슬퍼할 정도였으니 얼마나 아끼던 제자였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증자는 공자가 최고의 덕으로 내세웠던 ‘인(仁)’의 전승과 보급에 앞장섰던 수제자였다. 안연과 증자의 수준이어야 공자를 안다고 할 수 있듯이 한라산 역시 그런 산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한라산을 안다는 것은 그것을 말하는 사람에 따라 그 깊이와 범위가 다를 수밖에 없다. 어쩌다 영실 등반코스를 따라 한라산을 등정했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걸었던 영실 주변과 등산로에서 조망했던 오름과 들판, 둥그렇게 감아 도는 해안선과 바다를 연상하며 한라산을 이야기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여느 산들처럼 한라산 역시 계절에 따라 아침과 저녁, 비나 눈이 오는 날, 개인 날, 구름이 많고 적음에 따라 그 모습을 달리한다. 한마디로 변화무쌍하다. 이는 얼핏 낮게 보이면서도 해발 2,000m에 가까운, 남한 최고봉이어서 더욱 그렇다. 수십 년 전만 해도 제주사람들은 한라산을 먼저 올랐던 사람들로부터 주의사항을 듣고는 했는데, 그 중의 하나가 한라산을 오를 때 큰소리를 내지 말라는 것이었다. 이는 한라산신을 노하게 해 갑자기 비바람이나 안개를 불러오는 빌미가 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 만큼 한라산의 기상은 시시각각 달라지고, 그에 따라 산의 모습도 달라진다. 그 때마다 한라산의 색깔과 분위기가 달라져 자애로운 어머니 품처럼 포근한 느낌이었던 내면이 갑자기 표독스러운 여인처럼 변했다가 다시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온화한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경관도 그렇다. 등반코스를 따라 한라산을 오르며 경관이 단조롭다는 아쉬움을 갖고 있는 이들이 있을지 모른다. 남한 최고봉이라는 이름에 비해 산의 굴곡이 별로 없다고 여길 수도 있다. 하지만 한라산의 진면목은 감추어져 있다. 현재의 한라산 등반로는 관음사코스와 영실코스를 제외한다면 등산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최초의 한라산 등정기라 할 수 있는 『남명소승(南溟小乘)』의 임제가 한라산을 올랐던 등반로는 기록으로 볼 때 옛 영실등반로였다. 이 등반로 역시 1960년대까지만 해도 제주 남서부지역 주민들이 한라산 방목을 위해 소와 말들을 올렸던 길이었다. 이처럼 등산목적보다는 소와 말을 안전하게 방목시키기 위해 이용했던 길이다 보니 대부분의 등반로는 안전하기는 하지만 빼어난 경관을 제대로 조망할 수

없는 것이다.

대체로 명산으로 이름을 얻고 있는 산들의 아름다운 경승은 계곡미를 통해 나타난다. 금강산의 옥류동, 묘향산의 만폭동 등이 그것이다. 이는 오랜 세월에 걸쳐 급류가 산을 깎아내면서 기암과 괴석, 높낮이가 심한 절벽을 빚어내기 때문이다. 한라산 절경 역시 하천과 계곡에 숨겨져 있음은 물론이다.

한라산에는 한천의 발원지인 탐라계곡, 외도천~무수천의 상류지대이자 계곡형태가 Y자 형태를 갖고 있다고 해서 붙여진 Y계곡과 지류인 한라계곡, 신례천 중류지대에 위치한 수악계곡, 효돈천의 중류지대에 있는 백록계곡 등 여러 곳이 있다.

탐라계곡은 한라산의 북면에서 시작돼 급경사를 이루며 하류로 이어져 한천을 이룬다. 탐라계곡은 가운데 능선을 중심으로 동탐라~서탐라계곡으로 나뉘어진다. 동탐라계곡은 아직도 그 내부를 들여다 본 이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신비하고 장엄한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높이가 무려 50m에 가까운 이끼폭포를 비롯해 중간 중간에 크고 작은 폭포들을 거느리고 있어 태고적 신비스러움을 안겨준다. 더구나 그 주변의 수십m 되는 험한 절벽들은 사람들을 압도하며 발길을 스스로 돌리게 한다.

탐라계곡이 산복 최대 하천으로서의 위용을 자랑한다면 산남은 효돈천 상류지대에 위치한 서산벌근대로 자웅을 겨룬다. 제주의 '그랜드캐니언'이라고 할 만큼 웅장한 위용을 뽐내는 서산벌근대는 암벽을 뚫으며 형성된 계곡이 마치 거대한 용틀임을 연상케 한다.

서산벌근대의 지류로서 효돈천과 함께 제주섬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영천의 중류지대에는 백록계곡이 있다. 이 계곡은 사철 물이 흘러 일제강점기부터 이 지역주민들의 상수로 이용해 왔던 수원지이기도 하다. 폭우가 쏟아진 뒤 서귀포시 영천동의 입석동 입구에서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 수백m에 걸쳐 암반을 타고 흐르는 급류가 수십 군데에 만들어 놓은 크고 작은 폭포를 만날 수 있다. 무수천과 외도천의 발원지대인 Y계곡도 빼놓을 수 없다. 이 계곡을 따라 가다 보면 마치 잘 가꾸어진 거대한 정원을 걷는 듯한 느낌이 든다. 시원할 정도로 넓은 하천폭과 절벽은 해발고도에 따라 차츰 높이와 넓이를 더하면서 다양한 경관을 보여 준다. Y계곡 경관의 하이라이트는 무수천교에서 불과 수km 떨어진 곳에 자리잡은 '진달래소'라는 데 이의를 달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진달래소는 소(沼) 주변 절벽에 진달래가 많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높이와 지름이 60~70m에 이르는 거대한 원통형의 소(沼)이다. 인근 주민들에게도 잘 알려지지 않던 비경이 제주도민들에게 널리 소개된 것은 한라일보가 추진한 '한라산 대탐사'를 통해서이다.

이들 계곡의 비경은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 대부분 베일 속에 가려져 있다. 한라산 등반로 중 일부 구간에 하천과 계곡을 포함시킨 다양한 코스를 구상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계곡의 빼어난 경관처럼 한라산에는 감추어져 있는 이야기들이 많다. 어떤 이야기들은 전설과 설화로, 어떤 이야기는 수수께끼로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져 온다. 조그만 유물과 대수롭지 않은 현상이 화두를 꺼내는 곳도 있다. 이들 이야기는 깨진 그릇의 자잘한 파편처럼 흩어져 있어 조각을 보며 전체의 모습을 유추해 내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이들 파편과 같은 유물과 기록, 설화의 조각들을 퍼즐처럼 짜 맞추다 보면 하나의 상(像)이 나타나고, 그것은 흥미로운 한라산의 이야기로 되살아나는 것이다.

한라산이 아름다운 것은 지질과 동·식물 등 자연자원이 풍부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 속에 묻혀 있고 동지를 치고 있는 한라산과 관련된 술한 이야기들이 곳곳에 남아 있어 더욱 흥미롭다. 제주 선인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한 권의 역사서 속에 한 줄의 기록으로, 민담 속의 한 장

면으로, 후세들에게 상상력을 자극하는 수수께끼의 화소로 남겨 놓았다.

## 2 한라산 최고봉의 이름은 ‘혈망봉(穴望峰)’

백록담은 한라산의 최고봉인가. 물론 아니다. 천지(天池)가 백두산의 최고 지점이 아니듯이 백록담도 그렇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종종 백록담을 한라산 정상인 것처럼 표현한다. 이는 정상을 일컫는 마땅한 이름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산을 자주 찾는 산악인들이나 학자, 그리고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한라산의 최고봉을 뜻하는 봉우리 이름을 고문헌에서 찾거나, 그게 없다면 도민들의 중지를 모아 새로 지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논의가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사실 명산이라 일컫는 산 중에 최고봉의 이름이 없는 산은 찾아보기 힘들다. 외국의 산들은 차치하고라도 백두산의 장군봉, 설악산의 대청봉, 지리산의 천왕봉처럼 이름을 날리는 산은 모두 최고봉의 이름을 갖고 있다. 그런데 남한 최고봉으로서 민족의 영산이라고 부르는 한라산에 최고봉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다는 것은 아쉽고 어색한 일이다.

왜 한라산에는 최고봉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 것일까. 우선 지형적으로 볼 때 한라산 정상이라고 딱히 부를 만한 높은 봉우리가 없다. 한라산은 부악(釜岳) 또는 두무악(頭無岳)이라고도 부른다. 정상부가 마치 솜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인 이름이다. 두무악 역시 머리가 없는 산처럼 보인다는 말이다. 솜처럼 생겼든, 머리가 없는 산으로 여겼든, 이는 한라산 정상부의 형태를 잘 묘사하고 있다.

백록담을 둘러싸고 있는 분화구 외륜부는 성곽처럼 보이는데, 동·서면이 높고 남·북면은 상대적으로 낮다. 전체적으로 남서사면이 가장 높지만 얼핏 보면 솜처럼 기복이 커 보이지 않는 것이다. 누가 보더라도 가장 높은 지점이 어디라고 짚기가 애매한 지형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옛 선인들은 한라산 정상을 말할 때 흔히 ‘상봉(上峰)’ 또는 ‘절정(絶頂)’이라고 섞어 불려 왔다.

최초의 한라산 등반기를 남긴 임제의 『남명소승』에는 “절정에 도달하였다. 구덩이 같이 함몰되어 못(註: 백록담)이 되었고, 둘 사닥다리로 둘러싸여 (후략)”라고 했는가 하면, 같은 등반기에서는 “상봉을 따라 두타사(頭陀寺)로 내려 왔다.”는 기사가 보인다.

그렇다면 한라산 최고봉을 부르는 이름은 전혀 없었는가. 고문헌을 뒤적여 보면 한라산 최고봉에 관한 기록이 간헐적으로 보인다. 1609년 제주판관으로 부임한 뒤 한라산을 올랐던 김치(金緻)의 「유한라산기」를 보면 “한낮이 되어서야 비로서 정상 위에 도착하여 혈망봉(穴望峰)을 마주하고 앉았다. 봉우리에는 한 개 분화구가 있어 전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름이 붙은 것이다.”라는 기사가 보인다. 여기에서 언급한 혈망봉은 최고봉인 특정지점의 봉우리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분화구 주변을 설명하는 표현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1841년 3월부터 1843년 6월까지 제주목사를 지냈던 이원조(李源祚)의 『탐라지(耽羅誌)』 「형승조(形勝條)」를 보면 혈망봉이 분화구 전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한라산 최고지점 일대를 뜻하는 봉우리임을 밝히고 있어 주목된다. “穴望峰=在白鹿潭南邊峰 有一竅可以通望 梢東又方巖 其形方正 如人鑿成”, 즉, “혈망봉 = 백록담 남쪽 변두리에 있는 봉우리에 한 구멍이 뚫려 있는데 사방을 다



둘러 볼 수 있다. 조금 동쪽에는 또 방암이 있는데 그 모양은 네모나 있고 마치 사람이 쪼아서 만든 것 같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혈망봉이 백록담이 아니라 특정 지점의 봉우리임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다. 또 1800년대 말엽 남만리(南萬里)가 지은 『탐라지(耽羅誌)』 「형승조(形勝條)」에도 동일한 내용이 수록돼 있다. 그런가 하면 1954년 9월에 펴낸 『증보 탐라지(增補耽羅誌)』 「명승고적조(名勝古蹟條)」의 기록은 혈망봉이 한라산의 최고 지점을 뜻하는 이름임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즉, “혈망봉 = 한라산 절정(絶頂)에 재(在)하다. 사방을 가히 통망(通望)할 수 있다. 동쪽에는 방암(方巖)이 있다. 그 형(形)이 방정(方正)하여 사람이 쪼아 만든 것 같다.”고 표현하고 있다. 한라산의 가장 높은 곳이 바로 혈망봉임을 거듭 밝히고 있는 것이다. 현존하는 고지도상에 혈망봉을 그려 넣은 지도는 드물다. 그러나 1702년(숙종 28) 이형상목사가 화공을 시켜 그린 『탐라순력도』 중 「한라장축(漢拏壯壘)」에는 한라산 정상부에 백록담과 함께 ‘穴望峰’을 뚜렷하게 표기하고 있어 당시에 산 정상을 혈망봉으로 불렀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자료는 빈번하게 인용돼 온 것은 아니지만 한라산 최고봉을 일컫는 이름이 있었음을 반증하는 기록들이다.

그러면 ‘혈망봉’이라는 이름은 왜 지금까지 일반인들에게 전해지지 않는 것일까. 그것은 혈망봉으로 불려졌던 ‘구멍이 뚫린, 그래서 사방을 다 둘러 볼 수 있는 봉우리’의 존재유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도 최고 지점인 절정에서 20~30m 정도 떨어진 남서쪽에는 마치 거대한 장검(長劍)을 세운 듯한 바위들이 산체의 외륜을 감싸고 있다. 풍화작용에 의해 깎이고 무너지며 이루어진 형태이다. 이들 거대바위 중 옛날에는 윗 덮개가 있어 구멍처럼 보였던, 그러나 지금은 무너져 버린 ‘혈망봉’ 바위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한라산의 최고봉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은 한라산의 또 다른 가치를 발견하는 일이다. 이제 한라산 최고봉의 잊혀진 이름을 다시 불러주자. 그러면 한라산은 제주인은 물론 국내·외인들에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

### 3 백록담은 얼마나 깊은가

제주인들은 한라산 기슭에서 태어나 평생을 살다 다시 그 곳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예로부터 제주인들의 한라산에 관한 관심과 애정은 각별하다. 백록을 타고 다니는 신선에 관한 이야기라든지, 한라산신인 설문대할망의 전설 등도 결국 한라산에 관한 제주인들의 외경심에서 잉태되었다 할 것이다.

이러한 한라산이 근래 들어 등반객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곳곳이 훼손되고 있으며, 백록담 역시 몸살을 앓고 있다. 한 달 정도의 가뭄이 지속되면 바닥을 드러내는 날이 많아지고 있고, 강우량이 많은 계절에도 담수량은 예전에 비해 크게 줄어들고 있다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백록담의 물을 오랫동안 가두어 두기 위한 담수화와 분화구 내 복구대책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백록담이 고갈되고 있다는 우려와 담수화에 관한 논의는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하지만 이에 관한 자료는 매우 빈약한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백록담 복구와 담수화에 관한 논의 역시 마치 장님이 코끼리의 한 부분을 설명하듯 겉도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면 지금의 백록담은 과연 과거에 비해 얼마나 고갈되고 있는 것일까. 사람들의 발길이 거의 없었고, 그래서 답압(踏壓)에 의한 사면 붕괴가 없었던 옛날의 백록담은 어떠했을까. 그런 점에서 옛 선인들이 남긴 백록담에 관한 기록은 비록 단편적이라 할지라도 백록담의 원형이 어떤 모습인가를 유추 해석하고, 백록담 복원을 위한 논의에 큰 도움이 되는 귀중한 자료라 할 수 있다.

먼저 1500년대의 기록을 보자. 1578년 임제 백호가 제주의 경승을 둘러 본 뒤 남긴 『남명소승』의 기록을 보면 “한라산 절정에 이르니 구덩이와 같이 함몰되어 못이 되었고, 둘레가 7~8리 가량 되었다. 아래(백록담)를 굽어보니 물은 유리와 같고 깊이는 측량할 수가 없었다.”고 했다.

그로부터 23년 뒤인 1601년 안무어사로 제주에 내려 온 청음 김상헌은 그 해 9월 한라산신제를 올리기 위해 한라산을 오르는데, 그가 남긴 『남사록(南統錄)』에는 “정상은 함몰되어 꼭 솔과 같다. 사면에는 향그러운 넝쿨풀로 뒤덮여 있는데, 가운데에 두 개의 못이 있다. 얕은 곳은 종아리가 빠지고 깊은 곳은 무릎까지 빠진다.”고 했다. 그는 이어 “지지(地誌)에 보면 깊이를 헤아릴 수 없고, 사람이 떠들면 비바람이 사납게 일어난다고 하는데, 이는 잘못 전해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면서 『남명소승』에 “백록담의 깊이를 측량할 수 없다.”고 한 기록에 대해 “이것도 역시 멀리서 바라보고 적은 말”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이게 400여 년 전의 기록이다.

그로부터 8년 뒤인 1609년 제주판관으로 내려와 이듬해까지 재직했던 김치가 그 해 4월에 올랐던 등반에 대한 기록을 보면, “사면의 봉우리가 성곽과 같이 빙 둘러어져 있고, 가운데에 못이 하나 있는데, 깊이가 한길 남짓(註：2m 정도)이다.”라고 했다. 300여 년 전인 1702년 제주목사로 부임한 병와 이형상은 그 해 3월 한라산을 등정한 기록을 『남한박물(南宦博物)』에 남겼다. 백록담에 관한 기록을 보면 “둘레는 10여 리나 되고, 깊이는 800 척이나 되는데, 그 밑에는 백록담이다. 원경의 둘레는 400 보이고, 수심은 수장(註：수m)에 불과하다. 지지에 깊이를 알 수 없다고 한 것은 잘못 알려진 것”이라 했다.

1841년 제주목사로 왔던 이원조는 그 해 7월 한라산을 오른 뒤 『탐라록(耽羅錄)』에 “백록담의 깊이를 헤아리면 장(註：1장은 10척의 길이로 약 2m)이 되지만, 물이 겨우 정강이를 적시는 얇은 경우가 전체 바닥의 5분의 1정도”라고 해 수심과 못의 둘레를 어느 정도 추정케 하

고 있다.

또 1873년 제주에 귀양 왔다가 1875년 2월에 방면되자 한라산을 올랐던 면암 최익현은 「유한라산기(遊漢拏山記)」에 “정상에 이르러 갑자기 가운데가 함몰된 곳이 있으니 이른바 백록담이었다. 얇은 곳은 무릎까지, 깊은 곳은 허리까지 찼다.”고 했다.

지금부터 100여 년 전인 1901년 5월 한라산을 오른 독일인 지리학자인 지그프리드 겐테의 기록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그는 서양인으로는 최초로 한라산을 올랐고, 한라산의 높이를 1,950m라고 처음 측정한 지리학자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의 기록에는 “나는 지름이 약 400m인 의외로 작은 분화구가 약 70m 높이의 가파른 벽들로 둘러싸여 있음을 알아냈다. 바닥에는 겨울눈에 다 덮이지 않고 남겨진, 큼직한 웅덩이보다 약간 더 큰, 작은 호수가 빛나고 있었다. 제주사람들의 주장에 따르면 그 호수는 깊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깊고, 지하 세계로 통하는 입구가 그 호수에 있다고 한다. 그러나 나는 화산이 폭발할 때 생긴 깊은 틈새일 것으로 보이는 것을 전혀 발견할 수가 없었다.”고 백록담을 스케치하고 있다. 여기에서 겐테는 백록담을 “큼직한 물웅덩이보다 약간 더 큰 작은 호수”라고 설명하고 있다. 일제강점기인 1937년 등정했던 노산 이은상은 『탐라기행』에서 “백록담은 정상 움푹 패인 곳에 크고 작은 두 개로 되어 있다.”고 했다.

이처럼 백록담에 관한 기록은 1500년대부터 일제강점기까지 연대별로 남아 있다. 이들 내용을 정리하면 못의 깊이는 얇은 곳은 정강이에서 무릎 정도며 깊은 곳은 허리에 차는데, 일부의 기록은 한길(약 2m), 또는 수장(수m)이나 된다는 표현도 있다. 또 못의 형태를 보면 400 년 전 김상헌의 기록과 일제강점기 이은상의 기록은 두 개로 형성돼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에 비해 나머지 일곱 사람의 글에는 이런 표현이 없어 겐테의 기록처럼 백록담은 “웅덩이보다 약간 더 큰 작은 호수” 형태를 보인 날이 많았던 게 아닌가 추정할 수 있다.

이처럼 500 년 전의 기록에서 최근 60여 년 전까지의 기록을 놓고 보면 백록담 원형의 모습은 지금과 크게 다를 바 없으나 담수량은 역시 예전보다 적어지고 있다고 여겨진다. 하나의 호수 형태보다 두 개의 물웅덩이와 같은 현상이 자주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1960년대 이후 등반객이 크게 늘어나 답압(踏壓)에 의한 백록담 경사면의 붕괴가 가속화되면서 ‘백록담의 물그릇’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면, 지금의 백록담 담수량은 고문헌의 기록과 어떤 차이를 보일까. 한라일보 ‘한라산학술대탐사단’은 지난 1998년 12월부터 2005년 봄까지 한라산탐사 활동을 벌여 왔다. 이 과정에서 백록담 담수량 측정조사가 이루어진다.

첫 시도는 1999년 9월에 이루어졌다. 조사에는 탐사위원과 한라일보 취재팀, 대한지적공사, 한국농촌공사 제주도본부 관계자 그리고 KBS제주방송총국 기자 등 10여 명이 동행했다. 당시 제주에는 태풍이 연달아 내습하면서 폭우가 계속 쏟아졌고, 백록담도 만수위를 보이고 있어서 담수조사에는 최적기였다. 어리목과 영실 등산로를 따라 윗세오름에 오를 때만 해도 쾌청하던 날씨는 갑자기 기상이 악화되어 정상에 오를 때는 짙은 안개로 사방을 분간하기 어렵게 됐다. 정오 무렵 백록담에 도달한 조사단은 4시간 가까이 차가운 비바람 속에서 버티다 끝내 하산해야 했다. 1차 조사는 그렇게 실패로 끝났다. 그 후 여러 차례 담수조사를 시도했지만 그 때마다 한라산 기상은 자욱한 안개로 커튼을 드리워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는 사이 제주사회에서는 백록담 담수화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논의의 핵심은 백록담 수위 변화에 따른 정밀조사로 모아졌다. 더 이상 백록담 조사를 미룰 수가 없게 됐다. 2003년 7월 탐사단은 백록담 담수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조사 시점은 장마가 종료된 직후로 잡고, 한라산연구소와 대한지적공사 제주지사, 한국농촌공사 제주도본부 관계자들과 수 차

레 협의 끝에 7월 24~25일까지 이틀에 걸쳐 담수조사가 이루어졌다. 한라산 정상 강우량은 우기로 접어든 6월 10일부터 7월 24일까지 총 44일 중 37일 동안 1,652.5mm의 강우량을 보이고 있었다. 태풍 등의 특징적 기상환경을 제외하고는 백록담에 가장 많은 담수를 보유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한라산연구소 고정군 박사와 한국농촌공사 제주도본부 안중기 박사, 한라일보 강시영 기자 등을 주축으로 15명으로 구성된 공동조사단(단장 : 강문규 한라산학술대탐사 단장 /송상옥 한라산연구소장)에 의해 마침내 백록담의 신비가 하나씩 드러났다. 백록담의 만수위, 그러니까 집중 호우에 의해 가장 많은 양의 물이 고였을 때의 최대 담수위는 4.05 m, 담수량은 56,500 t 으로 밝혀졌다. 물론 이 조사 수치는 강우량에 의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그러나 2003년 여름 1,652.5mm의 비가 내렸을 때 최대 만수위는 4.05m였다는 기준점을 처음으로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 것이다.

#### 4 한라산 속의 '이어도'

인류가 이상향을 꿈꾸어 온 것은 오래 전부터의 일이다. 유토피아(Utopia)가 중세유럽인들에게 널리 퍼졌던 이상사회라고 한다면 무릉도원(武陵桃源)은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인들이 오랜 세월 꿈꾸어 왔던 이상향이라고 할 수 있다.

제주도(濟州島)에도 예부터 민담과 민요를 통해 이상향으로 전해 내려오는 섬이 있다. 이어도가 그 곳이다.

이어 이어 이어도 하라

이어 허민 나 눈물난다

(후략)

이 노래가사는 물질하던 해녀들이 부르던 민요의 한 구절이다. 이 민요에 등장하는 이어도는 이승에서의 삶이 지겹도록 고달플 때 고단한 심신을 달래고 행복하게 해 줄 수 있는 '저 너머의 섬'으로 여겨져 왔다. 그 곳에 가면 고달프게 일하지 않아도,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편히 쉴 수 있다고 해녀들은 믿어 왔다. 칠성판을 등에 지고 다니는 것처럼 물질을 하며 살아가야 했던 해녀들의 고단했던 삶의 이야기가 이어도 전설로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어디 해녀들뿐이겠는가. 이는 돌 많고 바람 많은 거친 들녘을 개척하며 살아야 했던 도민 모두의 이상향이기도 했다.

이어도로 간 사람들은 다시는 제주 섬으로 돌아오지 못한다고 한다. 그래서 이어도는 쓰러린 삶을 살아야 했던 제주인들이 마지막에 도달할 수 있는 귀의처(歸依處)로 여겨져 왔다. 이어도의 전설은 문학작품에 투영되면서 이어도가 어떤 곳인지를 보다 선명하게 그려내고 있다.

아무도 이어도에 간 일이 없다 / 그러나 누구인가는 갔다 한다 / 가서는 영영 돌아오지 않았다 한다 / 이어도 어디 있나 / 물결처럼 골짜기 / 동남방 동남방으로 / 눈썹 불태우는 수평선뿐이다.(후략)

고은(高銀)의 시 「이어도」는 부재인가 하면 실재이고 실재인가 하면 부재인, 그러면서도 한번 가면 영영 돌아올 수 없는 불귀(不歸)의 섬으로 그려지고 있다. 이청준(李清俊)의 소설 『이어도』는 이어도를 죽음의 섬이면서 구원의 섬으로 그렸다. 결국, 죽음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는 이상향이다. 현실에서의 부재가 차라리 '황홀한 절망'을 안겨주는 모습으로 그려지는 것이다. 제주인들은 수평선 너머의 해중(海中)에 존재하는 것으로 여기는 이상향을 그리면서도 한편으로는 한라산을 신선들의 세계로 그려냄으로써 한라산 속에 '또 다른 이어도'를 만들어내고 있다.

한라산은 다른 산들과 달리 신선에 관한 이야기가 많은 곳이다. 민족의 성산(聖山)인 백두산이나 삼신산(三神山)의 하나로 알려진 금강산과 지리산도 결코 한라산만큼 신비스러운 산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어떤 연유 때문인가.

한라산은 예부터 금강산(봉래), 지리산(방장)과 더불어 삼신산(三神山)의 하나로 일컬어져 왔다. 진(秦) 시황 때는 동남동녀 5백 명을 실은 대선단을 영주산으로 여겼던 한라산에 보내 불로초를 찾도록 한 전설도 전해진다. 한라산이 외부세계에 일찍부터 신비스러운 산으로 알려지게 된 것은 이 때문이다. 삼신산은 원래 섬에 있는 산으로 인식되어 왔고, 더구나 삼신산의

하나인 한라산은 육지와 멀리 떨어져 쉽게 접근할 수 없었던 것도 사람들에게 더욱 신비감을 자아내는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여기에 서복(徐福 또는 徐市) 선단이 한라산을 찾아 왔다가 서귀포 바닷가 암벽에 서불과지(徐猨過之: 일설에는 徐福過此)라는 마애각을 남겼다는 이야기가 널리 전해지면서 삼신산 불사향(不死鄉)은 바로 한라산이라고 해석해 왔던 것이다. 이와 함께 제주섬 내부에서도 신선들이 먹었다는 불로초에 관한 이야기와 백록을 탄 신선 등 많은 전설이 빚어지면서 한라산을 더욱 영산(靈山)으로 인식시키는 요인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이처럼 한라산을 신비롭게 하는 신선사상이 가장 잘 남아 있는 곳이 바로 한천계곡에 자리잡은 방선문(訪仙門)이다. 영주십경(瀛洲十景)의 하나인 '영구춘화(瀛丘春花)'로도 널리 알려진 방선문(들렁귀)은 문자 그대로 '신선이 사는 곳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뜻이다. 가운데가 뿔뿔히 바위에는 누군가가 커다란 글씨로 '訪仙門(방선문)'이라는 마애명을 편액(扁額)처럼 새겨 놓았다. 그 옆에는 '登瀛丘(등영구)'라는 제명의 시가 음각돼 있는데, 곧 '신선이 사는 선계(仙界)로 오른다'는 의미이다. 이야기는 계속된다. 선문으로 들어서면 '환선대(喚仙臺)'라 새겨진 바위가 보인다. 선계로 들어선 방문객이 신선을 찾는다는 뜻이다. 부름에 응했는가, 방문객은 마침내 신선과 조우하게 된다. 그 곳이 바로 '遇仙臺(우선대)'라는 글귀가 새겨진 넓고 길다란 바위이다. 신선을 만난 방문객은 무엇을 했을까. 그게 궁금하면 방선문 계곡을 따라 좀 더 하류로 내려가야 한다. 그 곳에는 용연이 있는데, 취병담(翠屏潭) 또는 '선유담(仙遊潭)'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문자 그대로 꽃과 나뭇가지가 병풍처럼 둘러쳐진 물위에서 신선처럼 유희를 즐기며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을 제주선인들은 이처럼 한라산 계곡에 펼쳐 놓은 것이다. 한라산 속 '또 하나의 이어도'인 셈이다.

해중의 이어도를 찾는 노력은 그간 몇 차례에 걸쳐 실제로 이루어졌다. 부산 피란 시절인 1951년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명령으로 언론인 홍종인 등이 참여한 가운데 해군조사단이 탐색에 나섰으나 실패로 끝났다. 그로부터 10여 년 후에는 서울대 학술조사단이 해군함정의 도움을 받아 탐색에 나섰고, 1973년 6월에는 서귀포에 거주하는 한광섭 씨(당시 70세)가 파랑도에 관한 점용허가를 신청함에 따라 교통부 수로국에서 탐색에 나서게 된다. 당시 한 씨는 "파랑도는 북위 32도10분, 동경 125도에 위치해 있으며, 두 개의 암초로서 큰 것이 520ha, 작은 것은 390ha인데, 자원개발상 가치가 있으니 점유허가를 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랑도는 해도(海圖)에 소코트라(SOCOTRA)라는 이름으로 표시된 채 아직까지 실재 위치를 찾아내지 못했던 수중섬을 1984년 KBS 파랑도 탐사단이 찾아냈다고 발표하면서 또 다시 세인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KBS탐사단이 발견한 소코트라의 위치는 이미 10여 년 전 한 씨가 지목한 지점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한 씨가 점유 허가를 요청했던 파랑도의 실체가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KBS의 탐사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파랑도를 놓고 당시 전국의 메스컴은 전설로 전해 내려오던 환상의 섬 이어도가 아니냐고 보도함으로써 관심과 화제를 불러모았다. 하지만 당시 탐사에 나섰던 제주대 모교수는 "이 암초가 제주도민들이 이상향으로 그려오던 이어도는 아닌 것 같다."는 말로 제주도민들의 정서와 반응을 대변했다. 파랑도는 최근 해양과학기지가 들어서면서 국토의 한 끝을 늘리고, 국민들에게 태풍 등의 기상정보를 신속하게 알리는 첨병 구실을 하고 있다.

이어도는 아직까지 그 실체가 확인되지 않아 전설 속의 섬으로만 남게 되었다. 하지만 이상향을 찾으려는 제주인들의 꿈은 신선이 되고자 했던 제주 선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결코 사그라지지 않을 것이다.

## 5 한라산과 칠성대

제주도 관련 고문헌에는 칠성대(‘七星台 또는 七星壇’)에 관한 자료가 심심치 않게 나타난다. 이원진 목사가 펴낸 『탐라지』등에는 “주성(州城)안에 돌로 쌓았던 옛터가 있다. 고·양·부 삼성이 처음 이 땅에 나와 삼도(三徒)를 나누어 차지하고 북두성(北斗星) 모양으로 대를 나누어 살았으므로 칠성도(七星圖)라 이름하였다 한다.”고 소개하고 있다. 칠성대에 관한 기록은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노봉집(蘆峯集)』, 『탐라지초본(耽羅誌草本)』 등에도 남아 있다.

제주목사를 지낸 노봉 김정이 남긴 ‘월대(月臺) 칠성도(七星圖)’에 관한 기록을 보면 “나라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기 위해 북두칠성 모양으로 일곱 군데에 단을 쌓았다고 하는데 칠성대라고 한다.”고 했다. 칠성대의 기능과 설치 형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탐라지(耽羅誌)』 「고적조(古蹟條)」에는 “칠성도에 대해 주성 내에 있는데 석축의 자취가 있다. 삼성이 처음 나와서 탐라를 삼도로 나누어 차지하고 북두성모양을 본떠서 여기에 살았으므로 인해 칠성대라고 불렀다.”고 하였다.

이 같은 기록을 보면 칠성도는, 지금의 제주시 주성 내에 있었고, 석축으로 북두칠성 모양을 본떠 7개소에 세워졌으며, 삼성의 출현 후 나라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나라를 삼도(三都)로 나눈 후 세웠음을 알 수 있다.

칠성대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석과 내용은 만농(晩農) 홍정표(洪貞杓 : 전 중앙문화재위원)가 『탐라성주유사』에 게재한 「탐라사에 관한 기고」에 수록돼 있다. 이 글에서 만농은 ‘삼을나’가 대촌(大村·현 제주시)에 거처를 정한 후 북두칠성이 배열된 형상을 본받아 칠성대를 쌓았는데, 그것은 삼을라의 추장이 중심이 되어 각 부족의 번영과 나라의 융성을 위하여 제사를 지내기 위한 봉제(奉祭)의 제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만농은 “이와 같이 세시(歲時)에 삼을나 씨족이 제를 올렸으나 세월이 흐름에 따라 자손들이 번창, 도 전역에 분산·거주하게 되면서 거리와 불편을 참작하여 집집마다 뒤뜰에 자그마한 칠성단을 마련, 자기 집에서 제를 올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후 고려말기 불교가 전래되면서 사찰에 칠성단을 마련하게 되면서 사회의 변천과 생활의 변화에 따라 차츰 집안의 칠성단을 없애는 곳이 많아졌다고 해석하고 있다. 즉, 지금도 제주도 일부 농촌의 가정에 남아 있는 칠성에 관한 속신이 칠성단(칠성대)에서 유래하고 있음을 지목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만농은 북두칠성 형태의 의미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북두는 탐라 삼을나의 신앙의 표상으로 모든 부족이 충심으로 우러러 신봉해야 할 대상이며, 강한 집정력을 종적·횡적으로 전개해서 그 권력구조의 중추적 대역으로 통치한 것”이라는 것이다. 즉, 칠성단은 부족신앙의 제단인 동시에 국태민안에 대한 기원과 함께 부족의 통합을 상징하는 신표(信標)로서의 기능도 가졌음을 말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한라산에도 칠성대가 있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가 보인다는 점이다. 1999년 12월 한라일보에 보도된, 전라도 제주 양씨 가문의 족보에 수록된 목판본 『제주도지』를 보면 흥미로운 내용이 수록돼 있다. 제주목관아와 주성(州城) 내의 칠성대, 삼성궁전(三姓宮殿)이라고 표시한 그림이 그려 있다. 제주를 떠나 전라도에 등지를 튼 제주 양씨 후손들이 자신들의 뿌리인 탐라국과 고·양·부 삼성으로서 탐라국을 일구었던 가문에 관한 긍지를 담은 지도이다. 지도를 보면 제주불교의 발상지라 할 수 있는 ‘존자암’과 함께 한라산 정상부 일대에 ‘칠성대’ 명칭이 그림과 함께 표시돼 있다. 고·양·부 삼성, 또는 탐라국과 관련된 자료임을 추정케 한다.

그런가 하면 1609년 제주판관으로 도입했던 김치(金緻)의 한라산 등반기에도 칠성대가 언급되고 있다. 김치(1577~1625)의 기록에 따르면 “수행동을 지나서 10여 리를 가자 칠성대에 닿았다. 칠성대로부터 동쪽으로 5리쯤 가자 석벽이 깎아 세워지고 반공(半空)에 기둥처럼 지탱하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곧 상봉이었다.”는 기록이 보인다.

한편 몇몇 고지도에는 한라산 정상부근 지점에 ‘십성대(十星垓)’를 표기하고 있어 칠성대와 상관계가 주목된다. 1861년 김정호에 의해 제작된 대동여지도(大同輿地圖)와 동여도(東輿圖)가 그것으로, 이 지도에는 한라산 혈망봉, 수행굴과 함께 십성대(十星垓)가 나타나고 있다. 2001년 11월 한라산학술탐사단은 오랜 세월 기록상으로만 남아 있던 수행동굴을 영실 동남쪽 허리에 있는 해발 1,450m 부근에서 발견한 바 있다. 수행동(修行洞)은 수행동굴을 뜻하기도 하고, 수행동굴이 있는 영실 골짜기 전체를 지칭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영실에서 옛 등반로를 따라 약 30여 분 올라가다 동남쪽 방향으로 약 100여 m를 들어가면 옛 선인들이 많은 기록으로 남겼던 수행동굴이 나타난다.

먼저 김치 판관의 기록을 보면 수행동(수행굴 또는 영실골짜기)에서 10여 리를 가자 칠성대에 닿았고, 칠성대로부터 5리쯤 지나자, 석벽이 깎아 세워지고 반공(半空) 속에 기둥처럼 지탱하고 있는 상봉(上峰 : 꼭대기 봉우리)에 도달했다.

이 기록에 따르면 칠성대는 수행동에서 약 10리를 지난 지점에 있다는 말이다. 1리가 대략 400m라고 한다면 약 4km 떨어진 지점에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그 곳이 어디인가. 영실(수행골짜기)에서 본다면 바로 ‘탐괘’ 일대다. 현재의 영실 등반로를 따라 올라가다 숲길을 벗어나면 한라산 상봉이 보이게 되는데 그 곳이 ‘선작지왓’ 초입 지점으로 탐괘가 있는 곳이다. 이곳에서 남서쪽을 보면 커다란 암석으로 이루어진 암상이 보이는데 이것이 탐괘다. 규모가 크지 않은 굴을 제주도에서는 ‘괘’라고 하는데 탐괘는 탐처럼 쌓인 바위에 사람 몇몇이 비바람을 가릴 만한 괘가 있다고 해서 붙여진 것이다. 탐괘는 가로 10m, 세로 3~4m, 높이 4~5m 안팎의 암석군으로 마치 돌무더기와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다. 탐괘 주변에는 동남쪽 방향으로 이와 같은 거대한 암석군이 흩어져 있다.

반면 수행동을 수행동굴로 본다면 탐괘에서 동북쪽으로 대략 2km 정도 떨어진 누운오름 일대로 추정할 수 있다. 누운오름은 윗세오름의 하나로 윗세대피소 바로 서남쪽에 있는 야트막한 오름을 말한다. 이 곳에서 남쪽 일대에 펼쳐진 선작지왓을 굽어보면 탐괘를 비롯한 거대한 암석군이 한눈에 들어온다. 김치 판관이 언급했던 칠성대가 이 곳 일대를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하지만 칠성대는 별무리 형태를 띠고 있는 표현이라는 점에서 특정 지점이 아닌 칠성대가 펼쳐져 있는 일대를 지칭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면 대동여지도 등에 나타나는 십성대(十星垓)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산악인이면서 지질학을 연구하고 있는 현원학은 선작지왓 일대에서 보름간 촬영을 했는데, 탐괘처럼 우뚝선 암괴들의 배열에 관한 흥미로운 기사를 다룬 바 있다. 그는 한라산 정상에서 선작지왓 일대를 바라보면 국자 모양(북두칠성)으로 암괴들이 자리하고 있는 모습이 관찰된다는 것이다. 그 형태는 선작지왓 남측에서 시작하여 북으로 이어지다가 서쪽으로 가고, 서쪽의 탐괘에서 북쪽으로 바뀐다는 것이다. 이들 탐괘 같은 암괴는 10~12개 정도 흩어져 있는데 대체로 주걱과 같은 북두칠성형태를 보인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선작지왓 일대의 암괴군으로 볼 때, 칠성대와 십성대는 결국 숫자만 다른, 같은 의미의 지명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한라산 속의 칠성대는 왜 세워졌으며, 주성 내의 칠성대와는 어떤 연관이 있는가. 제주시내, 즉 주성 내에 세워진 칠성대는 부족의 안녕을 기원하던 봉제의 제단이다. 그렇다면



한라산 속의 칠성대는 어떤 의미로 설정한 것일까. 도교로부터 출발한 칠성신앙은 불교와 융합되면서 민간에서는 칠성신을 기우(祈雨)의 대상인 비의 신으로, 또는 재물의 신, 무병장수의 신 등으로 모시고, 감생설화로도 이어져 왔다.

그렇다면 한라산 칠성대는 기우 또는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탐라국 선인들의 기복(祈福)·기우(祈雨)를 위한 신앙처는 아니었을까. 한라산은 신선들이 사는 신령스런 공간으로 한라산신이 지키고 있는 곳이며, 여기는 예부터 무병장수를 상징하는 남극 노인성이 보인다고 전해지는 곳이다. 한라산신제가 조선조 초 이약동목사에 의해 지금의 산천단으로 내려오기 전까지 한라산에서 치러졌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산신을 위한 제사터로도 추정할 수 있다.

주성 내의 칠성대에서의 치제(致祭)는 큰 별자리에서 이루어졌다고 전해진다. 그러면 한라산 칠성대의 봉제터는 어디일까. 뿔세오름의 하나인 누운오름에 오르면 정상부에 커다란 직사각형 형태의 암석 4개가 우뚝 서 있다. 첫 눈에도 자연 형태의 암석이 아니라 누군가 세운 바위가 아닌가 의심을 갖게 되는 바위다. 이들 바위는 너비는 1m 남짓하고 높이는 2~3m 된다. 이 커다란 바위를 산악인들은 ‘노인성바위’라고 부르기도 한다. 장수의 별인 노인성을 바라보는 대라는 뜻이다. 이 대에 서면 선작지왓의 거대한 암석군이 눈앞에 펼쳐지고 바로 동쪽으로는 한라산체가 우뚝하게 나타난다. 봉제의 제단은 물론 노인성을 조망하기에도 가장 적합한 지형이다. 한라산 칠성대는 탐라국시대 선인들의 정신 세계와 한라산에 관한 인식을 들여다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깊이 있는 연구를 필요로 하는 이야기이다.

## 6 구린굴과 굴빙고(窟氷庫)

한라산 속에는 선인들의 지혜로움을 보여주는 유적이 적지 않다. 그 중에서 ‘구린굴’은 특히 눈여겨볼 만한 곳이다. 『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신라시대부터 얼음을 저장했던 석빙고가 만들어졌고, 그 후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장빙제도(藏氷制度)가 도입돼 전국으로 확산됐다.

그러면 제주에도 장빙제도가 존재했을까. 이원진 목사가 펴낸 『탐라지』의 창고편을 보면 “빙고는 한라산 바위굴 속에 있는데 얼은 얼음은 한 여름에도 녹지 않으며, 쪼개어 급용(給用)하고 다른 창고에 저장하지는 않았다.”는 기록이 있다. 육지부의 석빙고와 달리 제주인들은 산 속에 있는 굴을 이용해 겨울에 얼음을 저장했다가 여름에 꺼내 사용했다는 뜻이다. 이런 기록은 고문헌 몇몇 곳에서도 확인된다.

그러면 얼음을 저장했던 굴은 어디일까. 『탐라지』 기록을 볼 때 굴은 제주목관아와 가까운 산 속에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일반 백성들이 아니라 목사나 관찰사 등이 거처하는 제주목관아에 얼음을 급용하기 위한 빙고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제주시가 지난 1999년 12월에 펴낸 『제주시일원 천연동굴 분포조사보고서』를 보면 제주목관아가 소재했던 지금의 제주시권에 있으면서 한라산 속에 있는 굴은 700~800m의 구린굴과 해발 600m에 위치한 평굴, 두 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을 살펴보면 평굴은 외부로부터의 접근이 쉽지 않고 굴 내부로 들어가려고 할 경우 출입자가 옆드려 들어가야 한다. 사람들의 출입이 자유로운 곳도 아니고, 얼음을 저장하기에도 적당치 않은 곳이다.

반면 구린굴은 도내에 산재한 굴 중에는 수행굴(해발 1,400m 부근) 다음으로 고지대에 있어 얼음을 캐고 저장하기에 적당한 곳이다. 더구나 구린굴은 관음사코스에 바로 접해 있어 접근성이 매우 용이하다.

한라일보 한라산학술대탐사팀은 지난 1998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3~4차례 구린굴을 탐사한 바 있다. 이는 ‘하천과 계곡’ 탐사의 일환으로 실시된 병문천 탐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제주시 3대 하천의 하나인 병문천은 해발 1,530m 지점에서 발원한 뒤 세 갈래로 나누어져 내려오다 1,000m 지경에서 다시 합류하면서 본류를 형성한다. 구린굴은 이들 합류지점에서 150~200m 하류지점에 위치해 있다. 국립공원관리사무소 관음사 등반안내소에서 약 1.5km 정도 올라가면 등산로 바로 서쪽에 하천이 무너지면서 일부 구간이 지하로 뚫려 있는 공간이 나타난다. 한라산국립공원에서는 등반객들의 추락위험을 경고하는 팻말을 붙여 놓고 있는데, 이 곳이 바로 구린굴 입구이다.

구린굴은 하천의 바닥아래 형성돼 있다. 즉, 구린굴은 하천 바닥 바로 밑 지하에 형성돼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동굴 형태에서 볼 수 있듯이 구린굴은 동굴이 무너지며 하천으로 변하고 있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는 제주 유일의 굴이다. 구린굴은 제주도 하천의 생성요인을 규명하는 데도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하천의 하도(河道)를 결정짓는 요인은 화산열곡, 유수의 침식작용 및 지하수 방향 그리고 용암의 붕괴 등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구린굴을 갖고 있는 병문천은 바로 용암동굴의 붕괴로 형성됐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학술적으로 중요한 연구자료가 되는 굴이라 할 수 있다.

구린굴을 보면 현재 굴 형태를 갖고 있는 총 280여 m 중 입구 부분인 북쪽에서 남쪽 방향으로 이어지는 68m의 구간에 5~38m의 간격을 두고 모두 네 군데의 동굴천장이 무너져 내려 얼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천장이 무너져 내린 동굴바닥은 오랜 세월 물이 흐르면서 유속에 의해 하상(河床)처럼 매끄럽게 마모됐는가 하면 하천 상류에서 밀려 온 자갈과 모래가 쌓여 있다.

천장과 벽면은 여전히 동굴이지만 바닥은 이미 하천으로 변한 것이다. 함몰된 천장의 너비는 작게는 2~3m, 큰 것은 6m 남짓하다. 병문천 상류계곡이 동굴 붕괴로 형성됐음을 보여주는 곳은 굴 내부만이 아니다. 구린굴에서 하류로 내려오는 200m 구간에는 높이 7.5m, 너비 14m 크기의 1차 함몰지점이 나타나는 것을 시작으로 10여 군데에서 같은 현상을 볼 수 있다. 더구나 하천 양쪽 암벽은 지금도 동굴 내부처럼 표면이 거칠다. 동굴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다.

구린굴 내부는 어떤 상태를 보이고 있는가. 굴의 총 길이는 216m, 진입로의 너비는 대략 3m를 넘지 않는다. 진입로 양쪽에는 굴을 이용하기 쉽게 누군가가 오랫동안 돌들을 양쪽 언저리로 가지런히 정리한 흔적이 나타난다. 내부도 평탄작업을 한 것처럼 잘 정리돼 있는데, 가장 안쪽에는 높이 2~3m, 넓이 50~70여 평 정도 되는 광장이 형성돼 있다. 입구에서부터 일정한 크기로 자른 나무토막들이 깔려 있어 눈길을 끌게 하는데, 어떤 물건을 끌어 나르기 위한 용도가 아닌가 하는 추측을 불러일으킨다. 만약 구린굴이 굴빙고 역할을 했던 곳이라면 바로 구린굴 바로 위 지점에 있는 하천에서 얼음을 캔 뒤 굴 속 깊은 곳에 있는 넓은 광장에 저장했을 것이다. 평평하게 정돈된 진입로와 일정한 크기로 잘라낸 나무토막들은 얼음을 운반하기 쉽게 만들어진 도구이며 환경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왜 빙고는 사용이 지속되지 못했을까. 그것은 구린굴의 특성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굴 내부의 몇몇 곳은 2~3층으로 형성돼 있고, 지하수의 수로는 물론 2층 굴에는 작은 연못도 있다. 이 곳 역시 동굴 위인 하천에서 침투하는 누수에 의한 침식과 균열현상이 보인다. 하천화가 진행 중에 있는 것이다. 굴 속 가장 깊은 곳, 그러니까 얼음을 저장하는 창고[氷庫] 구실을 했던 곳을 보면 천장 곳곳에 균열된 틈새를 타고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고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굴 내부에 틈새가 생겨나는 것은 외부에서 물과 공기가 유입됨을 뜻하고, 이는 저온을 유지해야 하는 얼음 창고로서의 치명적 결함을 의미한다.

구린굴 밖으로 나와 주변을 살펴보면 선인들이 남긴 집터와 숯 가마터 흔적이 보인다. 얼음을 캐어 저장하고, 급용하는 일을 맡았던 사람들이 살았던 집터는 아닐까. 숯 가마터와 같은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숯을 구웠던 이들은 얼음을 저장·급용하는 일 외에도 틈틈이 숯을 구워 관에 공급하거나 일반인들에게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방편으로 삼았던 것인지도 모른다. 육지부와는 달리 천연의 동굴을 빙고로 활용했던 선인들의 지혜는 동굴의 하천화와 함께 막을 내리며 희미한 자취만을 남기고 있을 뿐이다.

## 7 제주의 위급을 알렸던 ‘왕관암’

백록담에서 관음사코스를 따라 조금 내려오면 왕관릉 북쪽 선단부에 표고 1,660m의 왕관바위가 우뚝 솟아 있다. 한라산의 가장 아름다운 자태를 보여주는 경승의 하나이다. 그 곳에서 북쪽을 향해 바라보면 천하를 굽어보는 것과 같은 탁 트인 조망감을 맛볼 수 있다. 주변에는 한라산 특산식물로서 세계적으로 성가를 높이고 있는 구상나무가 울창하고, 그 밑에는 옛 선인들이 불로초라고 여겼던 시로미덩쿨이 무성하다. 선인들이 상찬했던 선경(仙境)을 떠올리게 하는 곳이다. 서쪽으로는 장구목과 삼각봉의 우뚝한 모습이 왕관릉과 더불어 웅장한 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왕관암에는 또 다른 이름이 있다. 고 김종철 선생은 『오름 나그네』에서 왕관암의 옛 이름은 ‘연딿돌’로, 연디는 연대(煙臺)를 지칭하는 제주방언이라고 언급했다. 봉수와 연대는 고대로부터 이용돼 왔던 통신수단의 하나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인 1150년에 처음 제도화되고, 이후 조선시대인 1419년 더욱 체계적으로 정비된다.

제주도에도 이 무렵 모든 봉수와 연대가 새롭게 구축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1439년(세종 21) 제주 도안무사(都安撫使) 한승순이 “봉화와 후방은 주(州)의 동쪽 김녕부터 주 서쪽 판포에 이르는 10개소와 대정현 서쪽 차귀부터 동쪽 거옥에 이르는 5개소, 정의현 서쪽에서 북쪽 지말산에 이르는 7개소에 한 봉화마다 5명을 나누어 정합니다. 또 연대(煙臺)를 쌓는데 높이와 너비가 각각 10척입니다.”라고 보고한 글이 보인다. 그리고 “후방인에게는 병기 및 기(旗)·각(角)을 가지고 올라가게 하여 적변(賊變)이 있을 것 같으면 봉화를 올리고, 각을 불어서 서로 전하게 하여 알린다.”고 했다. 만약 적이 섬에 상륙하면 육군이 이를 격파하고, 다음은 협공하며 임기응변으로 정세를 보다가 왜적을 쫓아가 잡는 것이 상책이라는 글도 나타난다. 제주섬의 특성을 살린 방위전략인 셈이다.

제주도의 봉수와 연대에 관한 고찰은 향토사학자인 고 김봉옥 선생의 「제주도의 방어유적」에서 다뤄지고 있다. 그런데 이 자료에는 왕관암과 연대에 관한 언급이 없다. 그러면 왕관암은 과연 연대였는가. 조선조 이형상 목사가 남긴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를 보면 한라산 정상과 가까운 동북쪽 높은 언덕에 불꽃 형태의 그림이 그려져 있다. 그림의 위치로 볼 때 탐라계곡의 동북쪽, 그러니까 왕관릉과 비슷한 지점에 연대가 있었음을 뒷바침하는 자료이다.

그러면 제주성 내에서 걸어 반나절 넘게 걸어야 도달할 수 있는 한라산 높은 지대에 연대(또는 봉수)를 설치한 이유는 무엇일까. 한라산 정상에서 북쪽으로 내달리다 우뚝 멈춰선 것처럼 보이는 왕관바위에 올라 앞을 내다보면 그 의문은 금방 풀리게 된다.

「제주도의 방어유적」에 따르면 제주에는 50여 개의 봉수와 연대가 있었다. 이들 연대와 봉수는 해안과 중산간지대를 연결하면서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낮에는 연기로, 밤에는 불꽃으로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들 봉수와 연대에서 가장 빠르게 위급함을 알려야 하는 최종 보고처가 제주목관아였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제주 자체만으로 대처하기 힘든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조정에 신속히 전달하기 위한 통신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배로 출항해 가는 것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것이 제주~추자도(楸子島)~남해안을 잇는 비상연락체계였다. 추자도에는 지금도 연대가 남아 있는데, 제주에서의 비상상황을 육지부로 전달하는 징검다리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다.

하지만 추자도와 남해안에서 볼 때 제주에서 피워 올리는 횃불과 연기를 보려면 지대가 높은 곳에서 봉화를 올려야 한다. 낮은 곳에서 올리는 봉화는 한라산에 가려 식별하기가 어렵다.

한라산 정상 위로 연기와 불꽃이 보여야 제주의 위급한 신호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왕관암은 연대 또는 봉수대로서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다.

왕관암에 서면 제주의 산북지방이 한눈에 들어오고 추자도를 비롯한 남해안이 어슴푸레 다가온다. 목소리를 내며 손짓하면 누군가 응답할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킬 만큼 가까운 느낌을 준다. 이러한 거리감은 추자도와 남해안에서 한라산을 볼 때도 마찬가지이다.

석양을 받으면 왕관바위는 그야말로 황금빛으로 물들어 ‘금빛왕관’처럼 빛난다. 왕관암, 왕관릉의 이름은 여기에서 유래했다. 하지만 노을빛을 받아 황금빛 왕관처럼 빛나는 모습은 또한 활활 타오르는 봉화대의 불꽃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하지만 한라산 속의 봉수·연대가 왕관릉이 아니라 삼각봉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는 면암 최익현이 남긴 「유한라산기(遊漢拏山記)」에 보이는 기사 등을 근거로 하고 있다. 1875년 지금의 관음사등반코스로 탐라계곡을 따라 한라산을 올랐던 면암은 정상으로 향하던 중 “서쪽으로 조금 나아가니 깎아지른 절벽이 수천 길이다. 이른바 삼한(三韓) 때 봉수(烽燧)의 터라 하나 가히 증거 할 수 없다.”는 글을 남겼다. 이 기록을 볼 때 수천 길에 이르는 절벽은, 지금의 등반로로 본다면 왕관릉이다. 그런데 면암은 서쪽으로 조금 나아가니 깎아지른 절벽이 나타났다고 했다. 왕관릉은 탐라계곡의 동쪽에 있고, 서쪽은 개미목과 삼각봉으로 이어지는 방향이다. 당시 면암은 제주의 선비들과 함께 한라산을 올랐는데 그들이 이 곳을 삼한시대의 봉수 터라고 소개했음을 짐작키 어렵지 않다. 따라서 『탐라순력도』에 나타나는 봉수대의 위치가 어느 곳을 지시하는 지는 앞으로 더 많은 조사연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내용이다.

## 8 산을 ‘벌른’ 계곡

한라산을 자산(慈山)이라고 한다. 산이 난폭한 맹수들을 거느리지 않고 있는데다 산세 또한 어머니처럼 자애로운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산을 오르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산세를 보며 한라산이 평범한 산이라고 부르는 이들도 종종 있다. 사실 성판악코스나 어리목코스처럼 비교적 굴곡이 없는 등반로를 이용하는 이들은 남한 최고봉다운 빼어난 경관이 없다고 생각을 할 법도 하다.

그렇다면 한라산은 별 특색이 없는 평범한 산인가. 대부분의 산들이 그렇듯이 한라산도 장엄하고 빼어난 경관은 대부분 계곡 속에 감추어 두고 있다. 다만 이들 계곡은 등반코스가 아닌 데다 산악인들처럼 오랫동안 산을 오르내렸던 이들을 제외하고는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았을 뿐이다.

한라산에는 여러 계곡이 있다. 산북에는 한천의 발원지대인 탐라계곡을 비롯해 무수천(광령천)의 상류인 Y계곡, 어리목능선을 끼고 돌아가는 한라계곡 등이 있고, 산남에는 창고천 하류의 안덕계곡과 신례천 중류지대의 수악계곡 등이 있다.

그런데 계곡의 이름을 갖지 않으면서도 훨씬 장엄한 계곡이 있다. 바로 효돈천의 산벌른내가 그 곳이다. 하늘이 맑게 개인 날 서귀포시내에서 한라산을 올려다보면 정상 바로 아래 움푹 패인 지점이 눈에 뚜렷이 들어온다. 마치 산을 쪼개 놓은 듯한 모습인데, 이 곳이 바로 산벌른내다. ‘벌른’은 어떤 사물을 둘로 나누거나 깨뜨렸을 때 쓰는 제주말이다. 그렇다면 산벌른내는 산을 두 개로 나눈 하천이라는 뜻이다. 도대체 계곡이 얼마나 넓고 깊었으면 거대한 산을 두 개로 갈랐다고 했을까.

효돈천의 큰 줄기인 산벌른내는 두 갈래로 나뉘어져 있다. ‘산벌른내’와 ‘서(西)산벌른내’가 그것인데, 이 두 계곡을 합쳐 흔히 산벌른내라고 부른다. 지형도나 육안으로 볼 때 더 크고 웅장하게 보이는 계곡은 ‘서산벌른내’이다.

산벌른내는 서귀포시민들이 한라산을 이야기 할 때 종종 등장하는 화두가 된다. 그들은 폭우가 쏟아진 뒤 어느 날 경험했던 놀라운 장면을 잊지 못한다. 한라산 정상 가까운 남쪽 기슭에 하얀 포말을 일으키며 떨어지는 폭포가 그것인데, 얼마나 폭포가 장대하면 어림잡아도 십수km 떨어진 서귀포시내에까지 눈에 잡히는 것일까 하는 놀라움을 느끼게 된다. 그러면서 도대체 그 폭포는 어떤 폭포이며, 어떤 코스로 갈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으로 꼬리를 물게 된다. 이러한 궁금증은 한라산 학술대탐사팀의 산벌른내 탐사로 베일을 벗게 됐다.

탐사팀이 산벌른내를 찾은 것은 지난 1999년 10월 말이었다. 그 해 7월 25일 바다와 맞닿은 하류에서부터 시작된 효돈천 탐사는 12차례를 넘기면서 어느덧 발원지로 다가가고 있었다. 이제 가장 험난한 산벌른내 구간만을 남겨 놓은 것이다. 10월 29일 윗세오름대피소에서 하룻밤을 묵은 탐사팀은 노루샘과 광활하게 펼쳐진 아고산대의 선작지왓을 거쳐 산벌른내로 향했다. 등산로는 물론 없다. 지형도와 나침반에 의지하여 눈향나무와 조릿대, 사스레피나무 군락지를 힘겹게 뚫고 나오니 서산벌른내 중간 지점인 벼랑에 도달할 수 있었다. 해발고도는 1,550m. 아래를 내려다보니 100m가 훨씬 더 되어 보이는 아찔한 절벽이다. 저절로 탄성이 나온다. 그것도 잠깐, 절벽 아래로 내려갈 걱정이 앞선다. 로프를 이용해 찾아보지만 여의치 않아 다시 한참 하류로 이동해 나무가 우거진 벼랑을 타고 하천바닥에 내려서니 해발고도는 1,300m로 푹 떨어진다.

고개를 돌려 계곡 내부를 살펴보니 높이는 어림잡아 100m를 넘어서고 하상의 폭도 200여 m는 넉넉히 뒹직하다. 경비행기가 충분히 날 수 있는 폭과 깊이였다. 아! 이런 공간이 한라산에

있었다니.... 탐사팀은 이 곳을 '제주의 그랜드 케니언'이라 명명하는 것으로 감상을 대신했다. 벼랑에 뿌리를 내려 온갖 자태를 뽐내는 나무와 풀, 그것들이 만추의 계절을 맞아 펼치는 각양각색의 단풍은 황홀경 그 자체였다.

산별른내의 가치가 어디 그뿐이라. 산별른내는 빼어난 경관만이 아니라 한라산 형성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곳이라는 사실도 확인됐다. 한라산이 얼마나 많은 용암분출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물증들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절벽을 둘러보면 마치 시루떡처럼 암석이 겹겹이 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화산분출로 인해 용암이 시차를 달리해 계속 같은 장소를 덮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것을 용암단위라고 한다. 탐사팀은 암벽의 용암단위(lava unit)를 46개까지 세고는 더 이상 노력을 멈추었다. 육안으로 100m가 넘는 절벽의 용암흐름을 정밀하게 관찰한다는 것은 어차피 무리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장비를 제대로 갖추고 정밀 조사한다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그것은 한라산이 얼마나 많은 폭발과 용암분출을 통해 형성됐는지를 구명하는 의미 있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종합적인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산별른내는 한라산의 식생연구에도 매우 중요한 자료를 간직하고 있는 생태공간이다. 이 날 김찬수 박사(산림청 난대림연구소·식물)가 한 공간에서만 한국특산식물 32종과 환경부지정보호식물 9종, 산림청지정 희귀·멸종위기식물 24종을 무더기로 발견하는 기쁨을 누렸다. 이로써 산별른내가 한라산의 화산활동과 지질구조, 특산·멸종위기·희귀식물을 파악 연구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지대임이 새롭게 밝혀진 것이다.

이처럼 산별른내에 많은 희귀식물들이 자생하는 것은 이 곳이 사람들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험한 곳인데다 가파른 절벽으로 인해 노루 같은 동물들의 출입이 거의 불가능한 험한 지형이기 때문이다. 특히 방목지대에 흔히 있어 온 화입, 즉 인위적 산불로부터도 잘 보호되어 자연적·인위적 피해요인이 거의 없었다. 한마디로 산별른내의 험준한 지형은 식물들에게 일종의 피난처 구실을 하고 있는 것이다.

산별른내가 어떤 곳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곳을 다녀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산별른내 주변에는 1960~1970년대까지만 해도 한라산 남북 종주코스로 이용됐던 남성대 등반길이 있었다. 하지만 산별른내와는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고 지형이 매우 험해 실제로 산별른내를 답사했거나 통과했던 이들은 매우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서귀포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산악회 회원들의 이야기에서도 확인된다. 그래서 산별른내에 대한 자료와 정보는 쉽게 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산악인들이나 일부 극소수 사람들이 간직하고 있는 몇몇 일화들이 산별른내에 관한 이미지로 자리잡고 있을 뿐이다. 그 중의 한 토막은 이렇다. 하루는 한 청년이 식물 채집 차 홀로 산별른내에 갔다가 고생했던 이야기를 어머니에게 들려 주었다. 그러자 어머니는 “산별른내에 빈손으로 가면 되느냐.”고 역정을 내 시더라는 것. 험한 곳을 가는데 산신령께 치성도 드리지 않았다는 뜻이다. 어느 산악인의 말은 더 심하다. “그 곳은 칠성판을 지고 가야 하는 곳”이라는 것이다. 즉, 죽음을 각오하고 가야 할 만큼 험한 곳이라는 의미임은 물론이다.

## 9 한라산의 비경, 영실

영실은 한라산 경관 중 가장 널리 알려진 곳이다. 비경만이 아니라 온갖 전설이 전해 내려오는 현장이며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유적이 산재해 있다. 영실에 관한 기록은 500년 전인 1545년 제주를 찾았던 임제가 남긴 『남명소승』이 처음이라 할 수 있다. 임제는 과거에 급제한 뒤 제주판관으로 재임하고 있던 부친을 뵙기 위해 제주에 내려오게 된다. 그는 제주에 온 뒤 섬을 한바퀴 돌며 접한 한라산을 비롯한 풍광과 산물 등을 시문으로 남겼다. 영실에 관한 기록도 한라산을 등정하기 위해 존자암에 머칠동안 머물며 영실을 둘러 본 뒤 남긴 글이다.

영실은 한라산 백록담 서남쪽으로 선작지왓을 지나 해발 1,300여 m 지점에 위치해 있다. 지금은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잇는 제2횡단도로를 따라가다 영실로 진입하는 도로를 통해 접근이 가능하다. 영실 주위에는 수많은 기암괴석들이 여러 형상으로 솟아 있어 장관을 이룬다. 한라산의 계곡은 어리목계곡을 제외하고는 모두 건천(乾川)이다. 그런데도 여기서는 사철 물이 흘러 청아한 물소리를 들을 수 있다. 병풍바위 부근에서 발원한 샘은 서북방향으로 흐르다 영실을 벗어나며 남쪽으로 잠류(潛流)한다. 이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북서쪽으로는 병풍바위가 웅장한 형태를 갖추고 있고, 동남쪽으로는 기암괴석들이 능선 위에 솟아 있다. 마치 돌부처 형상을 하고 있어 천불봉(千佛峰) 또는 오백나한(五百羅漢)이라 하고, 어떤 이들은 마치 위풍당당한 장수들이 열병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오백장군(五百將軍)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처럼 영실 내부는 물이 사철 흐르는 골짜기를 따라 양쪽에 절벽과 기암괴석들이 전개되는 형태를 갖추고 있어 사람들은 이를 영실계곡이라 불러 왔다.

그러나 지난 2000년 3월 7일자 『한라일보』는 1면에 ‘영실은 계곡 아닌 제주 최대 분화구’라는 기사를 보도했다. 한라산학술탐사단이 화산지질학 전공자인 부산대학교 윤성효교수와 함께 영실 지형도, 항공사진 자료를 토대로, 현장조사를 거쳐 확인됐다는 내용과 윤 교수의 기고문도 실렸다.

조사 결과 영실은 장축 850m, 단축 800m 규모의 원형이며, 외륜은 현무암에 중앙은 조면암 돔을 형성하고 있는 분화구로 둘레 약 2km, 깊이 350m에 이른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진 것이다. 오랫동안 ‘V’자 형태의 계곡으로만 알고 있었던 영실이 둥그런 형태의 분화구라는 보도는 세인들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영실은 등산코스를 따라 가노라면 영락없는 계곡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것은 중앙에 우뚝 솟은 오백나한의 암벽들로 인해 그 너머의 모습, 즉 영실 전체를 한눈에 조망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생긴 착시현상이다.

한라산학술탐사팀이 영실은 단순한 계곡이 아니라 분화구라는 관점에서 조사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1999년 8월부터 지질전문위원의 문제제기에 의해서이다. 이에 따라 제주의 지형·지질에 관한 자료들을 조사하던 중 안덕계곡의 유역을 조사하기 위해 주변에 위치한 군산(軍山)에 오르게 되었다. 2000년 2월 정상에 오른 탐사팀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백록담 서쪽에 거대한 분화구 형태의 영실이 시야에 들어 온 것이다. 그것은 마치 커다란 솥 같기도 하고, 기암괴석들이 즐비한 오백장군 석들은 둥그런 좌대 가운데 수석을 얹어 놓은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눈 덮인 한라산 속에 영실 외륜만 눈이 녹아 마치 검은 띠를 두른 것처럼 둥그런 분화구의 모습은 더욱 뚜렷했다. 탐사단은 외부전문가의 진단과 평가를 받기 위해 산림청이 항공촬영한 영실 지형도 등 관련자료를 수집한 뒤 화산지질학을 전공한 부산대 윤성효 교수에게 연락을 취하기에 이르렀다. 윤 교수는 급히 제주에 내려와 탐사팀과 함께 영실을 답사하고 관련자료 검토에 들어갔다. 윤교수는 “현재 등산로로 이용되고 있는 외륜구는 장석현무암이며,



화구 중앙에 위치한 오백장군 영실오름, 천불봉 등은 조면암 계통으로 후기에 솟아나 알봉의 형태로 남아 있는 것”이라 밝혔다. 영실이 지금까지 일반인들은 물론 전문가들에게도 기암을 거느린 계곡으로만 인식돼 온 것은 화구 중앙에 오백장군 기암 등 돔 형태의 구조가 분화구의 실체를 가리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 같은 조사 결과 영실 분화구는 백록담 분화구의 2배가 넘는 제주도 내 최대 규모이며, 25,000 년 전에 분출한 백록담보다 훨씬 먼저 형성된 분화구라는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 하지만 한라산학술탐사팀이 처음으로 영실을 계곡이 아닌 분화구로 본 것은 아닐 것이다. 영실이 분화구 형태를 보이고 있음은 적어도 안덕면 일대나 1100도로 휴게소 등을 찾았던 사람들이면 누구나 그렇게 느꼈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제주 선인들의 영실에 관한 예리한 안목과 풍부한 상상력이다. 영실에는 오백 명이나 되는 아들들을 위해 거대한 솔에 죽을 쑂다 빠져 죽은 설문대할망의 전설이 전해 온다.

옛날 어떤 부인(설문대할망 : 한라산의 여신)이 아들 500명을 데리고 살았다. 식구들은 많은데 흉년이 들어서 끼니를 이어가기 어려웠다. 어느날 어머니는 아들들에게 “어디 가서 양식을 구해 와야 죽이라도 끓여먹지 않겠느냐.”고 재촉했다. 그래서 500명 형제 모두가 양식을 구하러 집을 나섰다. 아들들이 동냥을 얻어 돌아 왔다. 어머니는 아이들이 양식을 얻어 오자 다시 아이들에게 땀나무를 구해오라고 한 뒤 얻어 온 양식을 큰 솔에 넣고 죽을 끓이기 시작했다. 500명이 먹을 죽을 끓이기 위해 그 어머니는 가마솥가를 돌아가며 죽을 저었다. 그러다가 잘 못해서 그만 죽 끓이는 솔에 빠져 헤어나지 못했다.

그런 사연도 모른채 나무를 하러 갔던 아들들은 배고픔을 참지 못해 죽을 퍼내어 맛있게 먹었다. 그러다가 이상한 뼈다귀를 발견했다. 이상하다 생각하던 아들들은 어머니가 안 보이는 것을 알고, 그제서야 사실을 알게 되었다. 먼저 그 사실을 안 막내는 하도 부끄럽고 안쓰러워서 집을 빠져 나와 서쪽으로 달려가다가 지금 한경면 고산리 앞 바다의 차귀섬에 들어가 몇 날 며칠을 울다 바위가 되었다. 집에 남은 형들도 너무나 비통해 울다 그 자리에서 모두 돌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지금 영실 오백장군은 사실은 499 장군인데 한 장군은 차귀섬에 있다고 전해 온다.

( 현길언의 『제주문화론』

중에서)

영실이 분화구라는 것이 새로운 사실로 밝혀지기 훨씬 옛날부터 제주선인들은 영실을 ‘V’자 형태의 계곡이 아닌, 거대한 솔 같은 형태를 갖고 있는 지형임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오백 명이나 되는 아들들이 먹을 죽을 쑂려면 이처럼 거대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영실 속에 솟아 있는 술한 기암들은 솔 속의 삐죽 삐죽 드러난 뼈다귀와 같은 존재로 해석, 이처럼 애달픈 전설을 만들어 낸 것은 아닐까.

## 10 제주불교의 발상지, 수행굴

영실은 예부터 제주인들에게 신성한 공간이었다. 이는 영실을 둘러싼 주변이 신성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낼 뿐 아니라 실제로 기구(祈求)의 터로 이용해 왔기 때문이다. 임제가 남긴 『남명소승』에 따르면 “절벽아래는 옛 제단 터가 있는데 그 옆에는 복숭아나무가 한 그루가 있다.”는 기록이 보인다. 지금부터 500년 전의 글인데, 당시에 제단이 있었던 곳을 옛터라고 부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적어도 고려시대 이전에 설치됐던 제단임을 짐작키 어렵지 않다. 『남명소승』에는 또 “흰사슴을 탄 노인이 사슴 떼와 함께 영실에 자라는 불로초를 따먹기 위해 나타난다.”는 전설과 한 절제사가 실제로 백록을 잡아 바쳤다는 기사도 보인다.

영실은 제주불교의 발상지라고도 할 수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의 「제주목 불우조(佛宇條)」에는 존자암에 대해 “재한라산서령 기동유석여승행도상 언전수행동(在漢拏山西嶺 其洞有石如僧行道狀 諺傳修行洞)”, 즉 존자암은 한라산 서쪽 기슭에 있는데 그 곳 동굴에 마치 스님이 도를 닦는 것과 같은 돌이 있어 세상에 수행동이라 전해졌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이원진목사의 『탐라지(耽羅志)』에는 앞의 기록을 인용하며 원래 존자암은 영실에 있었으나 지금은 서쪽 기슭에서 밖으로 10리쯤 옮겨졌는데, 대정현 지경이라 소개하고 있다. 또 1601년 한라산을 올랐던 청음 김상헌 안무어사는 『남사록(南統錄)』에 “또 수행굴을 지났다. 굴속은 20여 명이 들어갈 만하다. 옛날 고승 휴량이 들어가 살던 곳이다.”라는 기록을 남겼고, 1609년 한라산을 오른 김치 판관은 “영실의 동남쪽 허리에 석굴 하나가 있는데, 수행동이라 부른다. 옛날에 도승이 살았다고 하는데 부서진 온돌자국이 지금도 남아 있다.”고 했다. 이어 1702년 등정했던 병와 이형상 목사는 『남환박물(南宦博物)』에 “위에 수행동이 있다. 동에는 칠성대가 있어 좌선암이라 부른다. 이는 옛 스님이 말한 팔정 옛터인데, 이를 존자암이라고 부른다. (중략) 존자가 암을 짓기는 고량부 삼성이 처음 일어난 때 비로소 이루어졌고, 삼읍이 나누어진 때까지 오래도록 이어졌다. …지금은 스님이 없고 헐린 온돌만 남아 있다.”고 기록했다.

이들 몇몇 자료를 보면 존자암의 시원은 삼성의 출현과 때를 같이하는데, 그 위치는 처음 영실 동남쪽 허리에 있었다가 영실 서쪽 10리 밖 지금의 자리로 옮겨졌고, 원래 존자암 주변에는 칠성대와 좌선암이 있으며, 이 곳을 수행동(동굴 또는 골짜기)이라 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옛날 고승이 도를 닦았던 석굴이 있는데 곧 수행굴이며, 굴 안에는 20여 명이 들어갈 만하고, 지금은 부서진 온돌자국만 남아 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처럼 수행굴에 관한 기록은 옛 문헌에 자주 등장한다. 그러면 수행굴은 실제로 어디에 존재하는가. 2001년 12월 3일 한라산학술탐사팀은 도순천 발원지인 영실 탐사에 들어가게 됐다. 영실 탐사에 앞서 탐사위원들은 수행굴 탐사가 영실 지역 탐사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여러 고문헌에 등장하는 매우 중요한 유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수행굴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탐사위원이 없었다. 탐사팀은 한라산국립공원 관계자들에게 수행굴로 안내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 예상치 않던 답변이 나왔다. 수행굴을 모른다는 것이다. 그 반응은 한마디로 우리를 놀라게 했다. 탐사단 중에는 필자를 포함해 누구도 수행굴을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문헌 속에 너무도 많이 소개되는 곳인데다 영실 주변에 있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어 국립공원 직원들은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이다. 나중에 밝혀진 일이지만 국립공원 직원은 물론 산악인들도 이 곳을 아는 이들이 없고, 향토사에 관심 있는 이들도 이 굴을 찾으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라산 지킴이로 20여 년을 보낸 최고참 청원경찰을 비롯한 국립공원직원들은 탐사팀으로부

터 수행굴에 관한 설명을 듣고 혹시 몇 년 전 도별꾼들을 잡았던, 그래서 이름을 ‘도별굴’로 부르고 있는 그 굴일지도 모른다면 길을 안내했다. 영실 동남쪽 능선을 타고 30여 분을 오르더니 탐사팀에게 “이 부근으로 짐작되는데 10여 년 전 왔던 곳이어서 정확한 위치를 찾기 힘들니 각자 흩어져 찾아보자.”고 했다.

얼마 후 한 대원이 굴을 찾았다는 소리에 달려가 보니 커다란 바위와 나무들이 엉켜 있는 곳에 입구가 낮고 좁은 동굴이 보였다. 굴을 본 청경은 이 굴은 그가 찾던 ‘도별굴’은 아니라고 했다.(도별굴은 그 후 1년 4개월이 지난 2003년 5월 찾아갈 기회가 있었는데 수행굴로부터 100~200m 떨어진 동남쪽에 위치해 있었다.)

수행굴은 길이가 대략 20~24m, 최대 폭 5~7m 정도 되는, 마름모꼴형에 가까운 굴이었다. 굴 가운데는 가로와 세로 약 2m, 두께가 30cm 쯤 되는 자연 판석이 놓여 있는데, 바닥과 전면은 검게 그을려 있었다. 판석 가장자리는 아궁이 흔적도 남아 있었다. 요리를 하며 판석을 온돌처럼 따뜻하게 달구려 했음을 알 수 있다. 바로 옛 기록에 남겨진 ‘부서진 온돌자국’이었던 것이다. 동굴 구석에는 한 평이 채 안되지만 잘 정돈된 공간이 있었다. 그 자리는 온돌로 사용됐던 자리보다 약간 높은 위치인데다 가장 안쪽에 위치하고 있어 도(道)를 닦던 공간이 아닐까 하는 느낌을 주었다.

굴속에는 흥미로운 유물들이 많이 남아 있었다. 우선 시대를 달리하는 여러 형태의 기와편과 토기, 자기편이 발견됐다. 여러 시대에 걸쳐 사람들이 이 굴을 이용했음을 짐작케 하는 자료들이다. 굴 입구 왼쪽에는 여러 종류의 동물 뼈가 확인되고, 오른쪽은 취사공간으로 사용했는지 검게 그을린 화덕자리가 남아 있었다. 다만 그 곁에 폭삭 삭은 나뭇단이 오랜 세월 인적의 왕래가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누군가 이 굴을 이용했다면 그것은 잠자리 또는 피신처로 이용하기 위함이었고, 그러려면 가장 먼저 나뭇단을 태워 산속의 추위를 물리치려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수행굴이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잊혀져 찾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하나는 존자암이 영실 밖 서쪽 10리로 옮겨간 원인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존자암이 옮겨진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 중의 하나는 역시 사람이 오래 머물기 힘든 여건 때문일 것이다. 해발 1,300m에 있는 영실은 일년 중 여름철을 제외하고는 추위와 습기가 엄습해 사람들이 머물기 힘든 곳이다. 해발 1,500m에 있는 수행굴은 더욱 그렇다. 한라산에서의 산림도벌과 방목 금지도 한 요인이 되었을지하다. 이 굴을 사용했던 이들이 오랫동안 굴을 찾지 않으면서 굴의 위치와 존재도 함께 잊혀져간 것이다. 특히 4·3사건으로 한라산 입산이 금지된 것은 결정적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 11 수행굴과 ‘겐테’박사

수행굴이 흥미로운 것은 그뿐이 아니다. 탐사팀은 수행굴 한 귀퉁이에서 깨진 병조각을 발견했는데 서양풍의 조각을 한 잉크병이었다. 병 바닥에는 ‘Saifor’라는 제조회사명이 박혀 있었다.(나중에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이 회사 이름과 동일한 다국적 회사가 지금도 미국에 존재함을 확인했다). 이 굴 속에까지 외국제 잉크병을 가져와 사용했던 주인공은 누구인가. 탐사팀은 바로 지그프리트 겐테(Siegfried Genthe : 1870~1904)를 지목했다.

겐테는 누구인가. 독일출신인 그는 1901년 이재수난이 발생한 지 수주일 뒤 한라산을 등정하기 위해 제주도에 왔던, 당시 독일신문의 아시아특파원이자 지리학박사였다. 그는 영실 옛 등반코스를 이용해 한라산을 오름으로써 서양인은 물론 외국인으로서 한라산을 처음으로 등정한 인물이다. 특히 한라산을 등정한 뒤 2개의 다른 기구를 이용해 한라산 높이가 1,950m임을 최초로 측정하고, 이를 독일의 『컬른신문』(1901.10.13~1902.11.30)에 연재함으로써 한라산을 서양에 처음으로 소개한 인물이 됐다. 1668년 폭풍에 밀려 제주에 좌초한 뒤 훗날 『하멜 표류기』를 통해 제주도는 물론 한국을 서양에 최초로 알렸던 헨드릭 하멜처럼 한라산을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특별히 기억돼야 할 인물이다.

겐테박사가 제주탐험에 나선 것은 온 섬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이재수난(李在守亂)’이 진압된 1901년 5월이었다. 그는 이재수난에 대한 책임 규명을 위해 제주에 파견된 황실고문 샌츠를 통해 제주도와 한라산에 관한 정보를 얻은 후, 고종황실에서 제주목사에게 보내는 친서와 독일대사관의 협조 서한을 갖고 제주탐험에 나서게 된다.

제주에 도착한 그는 제주목사를 만나 한라산을 오른 뒤 사진을 찍고 높이를 측정할 뜻을 밝혔는데, 목사와 그의 시종들은 극구 만류했다. 한라산신의 노여움을 사게 될 것이라는 게 그 이유였다. 마침내 산 높이 측정과 사진 찍기가 결코 제주도민에게 고통스러운 일이 아님을 설명한 뒤에야 그는 제주목사의 후의로 12명의 수행원을 데리고 등정에 나서게 된다. 이에 앞서 제주목사는 포고문을 통해 외국인이 한라산을 등정한다는 사실과 그 목적을 밝히고 주민들이 경거망동을 하지 말도록 당부했다. 이 같은 조치는 이재수난 직후의 상황이라 외국인들에 대한 반감으로 인한 불상사를 예방하려는 조치였다고 할 수 있다.

겐테의 제주탐험에 관한 기록은 그의 유고집 『섬(濟州島) 탐험과 동해 중국에서의 표류』라는 제목의 책에 실렸다. 『한라일보』는 이 자료를 입수한 뒤 한라산 높이가 1,950m임을 밝혀낸 첫 측정자는 독일인 겐테 박사이며, 그는 기록상 한라산을 등정한 첫 번째 외국인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처음으로 보도했다.(『한라일보』 1995년 1월 17일자)

그의 제주도 여행기를 보면 영실 옛 코스를 따라 등정·하산 길에 하룻밤씩 굴에서 묵었던 기록이 있다. 신문기자였던 그는 그날 그날의 관찰을 기행문 형식으로 남겼는데, 수행굴 속의 잉크병 임자를 겐테라고 지명한 것은 이 때문이다. 당시 그는 안내자들과 굴에서 살고 있던 나무꾼 가족 등 30여 명과 밤을 묵으며 안내자들에게 자신이 갖고 온 술과 커피 등을 권하며 즐겼던 상황도 기록돼 있다. 그런데 탐사팀은 굴 밖 입구 한 귀퉁이에서도 ‘Canada Dry’라는 상표가 적힌 깨진 술병을 찾아내기도 했다.(깨진 잉크병과 술병은 보존을 위해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 내 ‘한라산연구소’로 넘겨졌다). 탐사팀이 휴대한 고도측정기에 따르면 수행굴은 1,550m쯤에 위치해 있었는데, 동굴전문가들에 의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동굴이라는 사실도 함께 밝혀졌다.

제주도에서 가장 오래된 불교유적이면서 외국인으로서 한라산을 처음으로 등정하고, 그 높이를 첫 측정한 겐테박사가 이틀 밤을 묵었던 수행굴, 그리고 우리나라의 가장 높은 지대에 위

치한 수행굴은 술한 의미를 간직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라산의 가장 중요한 유적이 아닐 수 없다. 『한라일보』 보도가 나가고 1년여 지난 뒤 독일대사관은 제주도청에 지그프리드 겐테 박사의 기념비를 한라산에 건립하고 싶다는 내용의 협조공문을 보내 왔다. 그러나 어떤 일인지 그 후 기념비 건립은 진척되지 않았다. 이재수난 직후 제주에 도착한 겐테박사의 여행기 중 일부가 제주도를 미개한 사회로 묘사했다는 문화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때문이라는 게 후일담이다. 사실이 그렇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한라산 높이를 첫 측정하고, 서양인으로서 첫 등정한 뒤 한라산을 서양에 처음 알린 겐테 박사는 한라산을 찾는 이들에게 기념할 만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 12 천하를 굽어보는 조망대

한라산은 1,950m의 산이다. 남한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라산 정상을 오르면 멀고 가까운 사위(四圍)가 한눈에 조망된다. 옛 어른들은 한라산을 거대한 조망처로 여겼다. 옛 지도를 보면 제주도 주위에 들어선 주변 지역의 정보가 세세히 그려져 있다. 1698~1703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광여도(廣輿圖)』 「제주목(濟州牧)」에는 일본, 중국의 지역과 전라도 지역까지 그리고 있다. 또한 1702년에 그려진 『탐라순력도』 중 「한라장축」을 보면 18세기에 지도제작으로 나타나는 24방위를 표시하고 있는가 하면 제주도와 주변 지역과의 방향거리 등을 나타내고 있다. 해남은 서쪽으로 970리며, 유구국(琉球國)은 오(午) 방향으로 5,000여 리 된다는 것이다. 이원조의 『탐라지도병지(耽羅地圖并識)』는 당시로서는 제주도 주변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

“청명한 가을날 이 곳 정상에서 아득한 서남쪽 하늘을 바라보면 화탈도(火脫島) 비슷한 산이 어슴푸레 보이는데 그 곳은 중국 절강상인(折江商人)들의 본고장인 송강부(松江府)의 금산이라 한다. 그리고 서북쪽에도 섬들이 총총히 보이나 그 곳이 어디인지 알려져 있지 않다.”, “이 곳 한라산에 오르면 북륙(北陸)의 여러 산, 즉 무등산, 월출산, 천관산, 달마봉, 대둔산, 만덕산 등이 역력히 바라보인다. 그리고 여기에서 해외 나라, 즉 일본 유구열도 및 안남(베트남), 교지(交址), 광둥(廣東), 복건(福建), 섬라(暹羅), 절강(折江), 산둥(山東), 영파(寧波), 개봉(開封), 송강(松江), 양(楊), 청(靑), 소(蘇), 항(抗)의 여러 주(州)가 비록 뚜렷하게 바라보이지는 않더라도 망망한 바다 속에서 안개처럼 나열한 모습이 점점이 볼 수 있어 광대하고 웅장함이 실로 신기하였다.”는 것이다.

한라산에 오르면 뚜렷하지는 않더라도 일본과 중국의 여러 성(省)과 주(州)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섬 안에서 수평선만을 바라보며 주위를 살피지 못해 답답해 하던 선인들이 이 한라산에 올라 탁 트인 시각으로 천하를 조망하는 기쁨과 흥분이 느껴진다. 옛 지도는 이러한 한라산 정상에서의 관찰과 인식을 바탕으로 그려졌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1901년 서양인은 물론 외국인으로서도 한라산을 첫 등정했던 지그프리드 겐테 박사의 소감도 다르지 않다.

숨을 헐떡이며 땀을 흘리며 기침을 하면서 분화구(백록담) 가장 바깥쪽 가장자리에 앉아 잠시 모든 피로를 잊는다. 왜냐하면 믿어지지 않을 만큼 크고 찬란한 파노라마가 돌연 산으로 된 섬 전체와 바다 저 멀리까지 끝없이 사방으로 펼쳐지기 때문(후략)이다. 비슷한 여건에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하고 감동적인 파노라마가 제주의 한라산처럼 펼쳐지는 곳은 분명 지구상에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한라산은 바다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고 모든 대륙으로부터 100km이상 떨어져 있으며 아주 가파르고 끝없는 해수면 위로 높이 치솟아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상에 서면 시야를 가리는 것이 아무도 없다.

겐테의 감동은 계속이어진다.

이렇게 대양 가운데 솟아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라. 그런 기상대 위에 서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탁트이는데 그 정도를 스스로에게도 설명하기 어렵다. 한라산 분화구의 가장자리에 섰을 때 어떤 느낌인지를 좀더 근사하게 비교하려면 헬골란트에 있는 암석섬의 30배가 되는 높이

를 상상해 보라. 그 정도면 여기 제주에서와 같은 파노라마가 펼쳐지게 될 것이다.

겐테는 처음으로 한라산 높이를 측정(1,950m)하고, 스케치하고, 촬영한 데 대해 감격하면서도 장엄하고 위대한 한라산을 체험할 수 있었던 데 대해 더욱 감격스러워 했다. “오랜 떠돌이 생활 속에서 결코 보지 못했던 아주 독특한 것, 아주 위대한 것을 체험”했다는 사실에 감격했다.

우리가 처음으로 대양을 대하거나 만년설로 덮여 있는 높은 산맥지대를 보게 될 때, 어떤 예술가가 대단한 말이나 색채나 또는 음조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올 때, 피라미드나 중국의 거대한 만리장성 등 어마어마한 인류의 걸작품을 처음으로 대할 때 느끼는 법인데 그것은 죽을 때까지도 지워지거나 퇴색되지 않고 그 강력한 감동이 마치 어제의 것이라도 되듯이 되살아날 수 있다.

한라산 정상은 사계(四界)를 조망하는 곳만은 아니다. 1930년대 한라산을 오른 노산 이은상의 등정기를 보자.

아! 지척의 정상. 최후의 돌뿌다귀를 마지막으로 밟고 서자, 우리는 약속한 듯이 두 팔을 뻗아 높이 들고 “만세! 만세! 한라산 만세!”를 외치고 또 부르짖는다. 남아의 쾌의(快意)를 누가 알겠느냐. 가슴에 차고 차다 터져 넘는 무한한 창공에 두 팔이 저절로 휘돌리고 고함이 저절로 터졌는데, 그리고도 억제 못할 감격은 까닭 없는 눈물이 되어 핑하고 솟는 것이다.

저 신비한 구름, 육합팔황(六合八荒 : 천지 사방과 국토의 팔방)을 두루 다니다 지금 여기 무슨 일로 이같이 엉키었는가. 선자(仙子)가 구름을 타고 상천대라천(上淸大羅天)으로 다닌다 하매, 내가 오늘 선자가 아니고 무엇이며, 나를 한번 호사시키려고 이 구름수레가 내 발밑에 걸린 것이 아니겠느냐, 현포자부(玄圃紫府 : 곤륜산 꼭대기에 있는 신선사는 집)도 여기요, 묘희성 안양국(妙喜城安養國 : 마음이 즐겁고 편안하며 몸을 쉬게 하는 곳)도 여기요, 사람의 머리가 생각한답시고 생각한 가장 크고, 가장 이상하고, 가장 평화롭고, 가장 신비하다는 모든 이상향이 이 같은 것을 말 함….

한라산 정상은 국내외인을 막론하고 어렵게 찾아온 등정자들에게 형언할 수 없는 감격과 추억을 안겨주는 곳이다.

### 13 불로초(不老草)·불사향(不死鄉)의 한라산

한라산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화소가 아마 불로초에 관한 전설일 것이다. 여기에 백록을 탄 신선에 관한 이야기가 더해지면서 한라산은 선향(仙鄉) 또는 불사향(不死鄉)의 땅으로 인식된다.

한라산이 선향(仙鄉)의 하나인 영주산으로 인식된 것은 아주 오래 전부터다. 삼신산은 흔히 진시황의 고사로만 알고 있으나 실은 오신산(五神山)의 고설(古說)이며 불로불사(不老不死)의 약을 구하러 시도한 자는 진시황 이전부터 있었다고 전해진다.

삼신산설은 『사기(史記)』 「봉선서(封禪書)」에 있는 설화로 제(濟)나라 위(威) 선왕 때 바닷가의 방사(方士: 비방을 지닌 도술가)들이 삼신설을 창도하여 발해 중에 봉래·방장·영주 등 삼신산이 있다고 퍼뜨렸다. 그 후 진시황과 한무제에 이르러 더욱 신봉하게 됐는데, 그 삼신산이 소재한 곳을 발해로 지목해 금강산은 봉래, 지리산은 방장, 한라산을 영주로 각각 부르게 됐다는 것이다.

최근 진시황과 불로초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진시황의 사신인 서불(徐嬴)이 실제 인물로 드러나고 있는데, 서불과차(西嬴過此)라는 서각을 서귀포 해안절벽에 새겼다는 전설이 지금도 이야기되고 있다. 서귀포라는 지명도 서불(徐嬴)이 서쪽으로 돌아갔다는 것에서 유래한 이름이다. 이러한 전설로 인해 예부터 선인들은 한라산에 불로초가 자생한다고 믿어 왔고, 그 불로초에 관한 이야기는 시와 문집 속에 술하게 남아 있다.

그러면 불로초는 어떤 약초를 뜻하는가. 이에 관해서는 설이 분분하다. 『남명소승』의 시를 보자.

한라산은 / 선록이 떼지어 논다네/ 몸은 눈처럼 하얗고/ 도화문(桃花紋) 점점이 박혔다지/ 세인은 만나볼 수 없거늘/ 머리 돌려 구름만 바라보겠네/ 아침엔 바위사이 지초를 먹고/ 저녁엔 계곡의 찬물을 마시고 / (중략)

여기서 백록이 먹는 지초는 오늘날에는 영지버섯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원조의 「탐라지도병지」에는 “한라산에는 영주실(瀛州實)이라는 신선과(神仙果)가 있으니 마치 노송의 열매 같기도 하다. 이 과실은 오장(烏將) 비슷하나 맛이 꿀같이 달다. 특히 눈이 내린 후에 먹으면 그 맛이 매우 절묘하다.”라는 글이 보인다.

임제가 『남명소승』에 남긴 글은 더욱 흥미롭다. 그는 제주에 내려 와 제주를 순방하게 되는데, 저물녘에 김녕포에 도착하게 되었다. 그런데 학발(鶴髮)에 송형(松形)으로 나이가 백세에 이른 노인들 십여 명이 마을 어귀에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놀란 임제가 노인들에게 다가갔다.

“노인네분들, 이 곳에 살면서 무슨 일을 하시고 자시는 것은 주로 무엇인가요?”라고 물었다. 그러자 한 늙은이가 말하길 “우리들이야 군적(軍籍)에 편입되기도 하고 혹은 고기잡고 배타는 일에 종사하기도 하여, 나이 육십 전에는 자주 관가의 부림을 당했더라오. 이제 늙어서 신역(身役)이 면제된 이후로 비로소 몸이 편안해질 수 있었습니다. 풍년이 들고 흉년이 드는 데 따라 죽이 되건 밥이 되건 먹으며, 해가 뜨고 지는 데 따라 나가서 일하고 들어와 쉬곤 하지요, 일을 벌이지 않고 욕심도 내지 않고 벼룩 한 벌, 솜옷 한 벌로 여기서 삼십 년 혹은 사십 년



을 지낸답니다. 산은 멀고 물은 깊어서 고기나 산채도 잘 얻을 수가 없어 단지 모래나 자갈 사이에서 불로초(不老草)를 캐어 맛난 음식을 대신해 먹을 따름입니다.”

임제가 신기하게 여겨 종자(從者)에게 불로초가 어떤 물건이냐고 묻자 종자는 “그 줄기는 등(藤)나무처럼 넝쿨이 지는데 움이 처음 나올 적에는 향기롭고 부드러워 먹을 만합니다. 이 섬 둘레로 어디나 다니지만 여기만큼 많이 생산되는 곳은 없습니다.”라고 답하는 것이다. 여기서 불로초는 등나무와 같은 넝쿨식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다.

영지버섯도 그 중의 하나다. 영지는 흔히 지초로 알려져 있다.

한라산이 불로 불사향으로 부르는 데는 남극노인성에 관한 이야기도 한 몫 한다. 충암 김정(金淨, 1486~1521)의 『제주풍토록』에는 “한라산 정상에 올라 남극노인성을 굽어보고(노인성의 크기는 셋별만 하고, 남극의 중심에 있으니 지상에 나오지 않으므로 만약 이 별을 보게 되면 장수한다는 상서로운 별이니 다만 한라산과 중국의 남악에서만 이 별을 볼 수 있다)”라 했다.

또 이원조는 「탐라지도병지」에서 “춘분 추분 날 남극노인성을 바라 볼 수 있음으로 해서 장수하는 사람이 많다. 남극노인성은 수성(壽星)을 뜻하는데 각항(角亢)에 해당하는 별자리로 『사기』에는 이를 남극노인성이라 부르고 이 별이 보이면 천하가 태평해진다.”고 했다.

이처럼 한라산을 신선들이 사는 땅, 사람들이 장수하는 데 필요한 불로·불사약을 구할 수 있는 산, 장수의 별인 노인성을 볼 수 있는 섬이라고 여겨왔다. 이런 인식이 한데 어우러져, 한라산과 제주도를 더욱 신비로운 섬으로 여기게 된 것이다.

## 14 매로 변한 한라산신

예부터 한라산은 신령스런 영산으로 여겨졌다. 사슴을 타고 백록담을 노닐던 신선들의 이야기와 한라산을 만들었다는 설문대할망에 이르기까지 숲과 골짜기마다 신화가 숨어 있다.

설문대할망은 제주의 창조신으로 일컬어진다. 그녀는 치마폭으로 흙을 움켜 한라산을 만들었다. 한라산 기슭에 널려 있는 술한 오름들도 설문대할망이 한라산을 만들 때 치마폭에서 떨어진 흙으로 만들어졌다고 전해진다. 그녀는 백록담에 걸터앉아 왼발은 우도에, 오른발은 차귀도에 걸쳐 빨래를 하기도 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는 사람들에게 제의한다. 명주로 옷 한 벌을 만들어 주면 육지와 제주섬을 잇게 해 주겠다는 것이다. 도민들은 쾌히 약속했다. 설문대할망의 옷을 지으려면 명주 백 동이 필요했다. 도민들은 연륙의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로 열심히 명주를 모았고, 설문대할망도 부지런히 흙과 돌을 모아 바다에 던지며 육지를 잇는 거대한 토목공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도민들이 그렇게 애썼음에도 명주는 99동밖에 모으지 못했다. 한 동이 부족한 것이다. 결국 설문대할망과의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고, 설문대할망의 연륙을 위한 작업도 중단됐다. 사람들은 북제주군 조천읍 해안가에 있는, 북쪽 바다를 향해 뻗어 나간 곳이 바로 설문대할망이 거대한 토목공사를 벌였던 곳이라고 여겨왔다.

한라산의 최대 비경으로 손꼽히는 영실의 오백장군도 설문대할망의 신화가 전해 오는 곳이다. 설문대할망은 슬하에 오백 명의 아들을 두었다. 어느 날 아들들이 사냥을 나가자 할망은 커다란 솔에 죽을 끓이다가 그만 솔에 빠져 죽게 되었다. 사냥을 다녀 온 아들들은 배고픔에 정신 없이 죽을 퍼내어 먹었다. 그런데 늦게 돌아 온 막내가 보니 이상했다. 어머니가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솔을 열어보니 뼈가 있는 게 아닌가. 막내는 그것이 어머니 뼈임을 직감했다. 슬피 울던 막내는 형들과 같이 있을 수 없다며 산을 내려 온 뒤 서쪽 바다에 뛰어드니 곧, 차귀도가 되었다. 형들은 영실에서 슬피 울다 석상으로 변해 버렸다. 그게 영실에 우뚝우뚝 솟아 있는 오백장군이다. 일설에는 설문대할망이 물장울 오름을 지나다 그만 발을 헛디뎠다 창(바닥)이 없는 산정호수에 빠져 죽었다고 하기도 한다. 어쨌든 한라산을 창조하고 오름들을 빚은 설문대할망은 죽어 한라산신이 되어 제주섬과 도민들을 지키는 수호신이 되었다고 선인들은 여겨왔다.

그런데 한라산신에게는 동생이 있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 따르면 고려 예종 때 송나라 관리인 호종단(胡宗旦)이라는 자가 있었다. 그는 산의 지맥과 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술사였다. 그런데 장차 고려에 큰 인물이 태어나 송나라를 위협에 몰아 넣게 될 것임을 알고 왕에게 보고했다. 그리하여 왕명을 받고 거짓으로 고려에 귀화한 호종단은 전국의 명산을 돌며 혈을 자른 뒤 마지막으로 제주의 혈맥까지 막고 잘랐다. 임무를 마친 그는 배를 타고 자기 나라로 향하였다. 그러자 노한 한라산신은 매(연)로 변해 배를 쫓아가 돛대 위를 몇 번 날더니 폭풍을 일으켜 호종단이 탄 배를 한림읍 비양도로 끌고 간 뒤 암초로 몰아넣어 죽게 하였다. 매로 변한 신은 원래 한라산신의 아우로, 태어나면서부터 성덕(聖德)이 있었고 죽어서는 한라산신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야기를 전해 들은 조정에서는 그 신통력을 우러러 광양왕(廣壤王)으로 봉하고 해마다 향과 폐백을 보내어 제를 지내도록 했다. 광양왕에 대한 제사는 조선조에 들어 와서도 계속됐다. 1702년 (숙종 28) 이형상 목사에 의해 철폐 됐으나 뒤에 부활되어 광양당에서 계속 제를 지냈다. 이 곳에는 제주시와 한라일보사가 벌인 유적지 표석세우기운동의 일환으로 기념표석이 세워져 있다.

그런데 『신동국여지승람』에는 “상고하건대 호종단이 (고려에) 와서 벼슬이 기거사인(起居舍人)에 이르러 죽었으니, (제주에) 가서 땅을 압양(壓壤)했다가 배가 뒤집혔다는 것은 믿을 수 없다.”고 했다.

## 15 정조 임금과 제주 유생의 한라산 문답

지금처럼 항공·해운교통수단이 발달한 시대에서는 그야말로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의 이야기지만 불과 1세기 전만 해도 제주도는 4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갇힌 섬에 지나지 않았다. 이처럼 사람의 왕래가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 물 사람들에게 제주도는 신비를 간직한 호기심의 대상이었다. 하물며 수백 년 전이라면 더 말할 나위 없을 것이다.

조선조 정조 임금도 그랬다. 그는 과거를 보기 위해 한양에 올라 온 제주의 선비들을 만나자 그 궁금증을 한꺼번에 토로했다. 한라산에서 제주도의 역사, 풍속, 백성들의 생활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은 참으로 방대했다. 그만큼 제주도와 한라산에 대한 지적 호기심이 폭발한 것이다.

『정조실록(正祖實錄)』 18년(1794) 4월 21일 기록을 보면 제주유생 12명이 정조 임금을 알현하게 된다. 이들은 문곡성 등 제주에서 1차 과시에 급제한 선비들로 본과를 보러 상경했었다. 제주유생을 만난 임금은 제주도 전반에 대한 궁금증을 토로하며 선비들에게 답을 구한다. 그 내용은 당시 제주도에 관한 조정의 인식과 지리적 정보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보여주는 점에서 흥미롭다.

정조임금은 “그대들에게 묻는데 고을 이름을 탐라라 한 것은 탐진(耽津)에 배를 대어 신라에 조공하였음에 따름인데 탁라(鶻羅)라고도 하고 탐모라(耽牟羅)라고 부르는 것은 어떤 때문인가. 탐(耽)이 나라의 이름이며 모(牟)는 어사(語辭)인가. (중략) 노인성을 본 사람은 장수한다고 한다. 노인성은 곧 항성(恒星)의 하나인데 세상에서는 남극(南極)의 중추가 되는 별이라고 한다. 어느 것이 틀린 말인가. (중략) 탐라적(塔羅赤)이 원나라의 사신이 되어 소, 말, 낙타, 노새, 양을 싣고 와서 수산평(水山坪)에 방목하였다. 그런데 낙타와 양이 지금까지 그 종자가 남았는가.(중략) 신인(神人)이 땅에서 솟아났다고들 말하고 한라산이 (높이가) 은하수와 같다고 하며 예로부터 삼성혈이 있고 붉은 옷을 입은 사자가 식량과 여인을 보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도 석함(石函)을 보냈던 자취가 있는가. 성주(星主), 왕자(王字)의 호칭이 있던 시대와 세계(世系)는 알 수 있으며 아막(阿幕)과 동서 양도를 설치한 전말은 상세한가.”라고 묻는다. 정조 임금이 제주를 찾았던 관리와 선비들의 기록에 나타난 사실(史實)과 지리정보 등을 대부분 섭렵했음을 짐작케 하는 질문들이다. 물음은 계속된다.

“운한(雲漢)을 잡을 것 같다 하여 진산(鎭山)의 이름을 한라산(漢拏山)이라 붙였다 하니 이 산에 내려 온 신선이 몇이나 되며 끝없는 바다와 석벽으로 둘러싸이니 물고기에 대한 전설도 또한 많은가. 방악(方嶽 : 한라산 정상)의 남쪽 봉우리는 신선이 내려와 놀기 때문에 언제나 향기가 은은하다고 덧붙여 말하고 (그곳의)나무로 비파(琵琶)통을 만들면 신선의 악기소리가 난다는 것은 청허(淸虛)한 이들이 하는 말일 터이고 흙의 성질이 기름지지 못하기 때문에 매양 새로이 밭을 일구러 다녀야 하고 방아 찧는 노래는 삼삼지구곡(參參之舊曲)과 같다고 『제주풍토록』(충암 김정이 제주유배 때 당시 상황을 기록한 책)에 기록되어 있다. 바다 가운데 삼신산은 정말 있는 것인가. (중략) 높은 봉우리에는 왕왕 물이 많이 고이는 못이 있다는데 조물주가 공력을 구름가에 어떻게 하였는고. ‘푸른 봉우리 점점이 멀리 보이는 곳 여기가 강남이라네’라는 곳(江南)은 이수(里數)가 정하여졌다고 하는데 몇 리나 되는가. 제생(諸生)들이 다 말하여 주면 내가 듣고 알아서 나의 비어 있는 곳을 채우려는 뜻에 부응하고, 또 내가 친히 살피려 한다.”고 맺었다.

실록에 나타난 정조 임금의 질문 내용을 보면 당시 임금을 비롯한 관리들에게 제주도와 한라산이 어떤 모습으로 비쳐지고 이해되고 있는지를 어느 정도 살펴볼 수 있다. 한라산을 비롯한

제주에 대한 해박한 지식은 실로 놀랍다. 소개되지 않은 많은 질문 중에는 군왕으로서 제주의 전반적인 실정과 관리들의 행태, 물자의 풍족 여부 등을 물어 보며 백성들을 걱정하는 심려가 곳곳에 보인다. 이러한 물음에 이어 임금은 오랫동안 마음 속에 갖고 있었던 제주도의 지리와 한라산에 대한 궁금증을 쏟아내고 있다.

정조 임금의 물음은 당시 조선조 관리들의 공통된 관심사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제주를 찾았던 관리와 유배인들은 정조 임금이 보였던 것과 같은 제주역사와 지리, 전설 등에 대한 궁금증과 인식을 기술하고 있으며, 이를 시문 등으로 남기기도 했다. 그간 역사연구 등에 의해 베일에 싸여있던 제주의 많은 부분이 밝혀지고 호기심이 충족되고 있지만 아직도 수수께끼로 남아 있는 부분도 적지 않다. 그래서 정조 임금의 물음은 오늘을 사는 제주지식인들에게도 여전히 한라산은 물론 제주연구에 대한 화두로 남아 있는 것이다.

## 16 신안(神眼)을 가졌던 석학 고흥진

제주의 역사를 알고자 하는 이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 있다. 그 것이 바로 1653년(효종 4) 8월 이원진(李元鎭)목사에 의해 발간된 『탐라지(耽羅志)』라는 데 이의를 달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탐라지』 편찬 이전에도 제주도에 관한 기록문헌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정이오(鄭以吾)의 『성주고씨가전(星主高氏家傳)』, 최부(崔溥)의 『표해록(漂海錄고)』, 김정(金淨)의 『제주 풍토록(風土錄)』, 김상헌의 『남사록(南統錄)』, 임제(林悌)의 『남명소승(南溟小乘)』 등이 출간되었고, 그 밖에 많은 시문이 남아 있다.

『탐라지』가 제주사 연구의 필독서로 높게 평가되고 있는 것은 제주도의 역사·지리·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를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정리해 놓았기 때문이다. 제주도 최초의 읍지인 동시에 한라산 연구에도 핵심적 자료가 되는 귀중한 자료다.

『탐라지』는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을 비롯하여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여러 문헌을 섭렵하고, 탐라의 역사·형승·지리·토산·방호·관아·교학·고적·인물·제영 등 광범위한 분야를 수록하고 있다. 통신·교통의 불편 등 여러 가지 사정이 어려웠던 당시 상황을 감안한다면 실로 대단한 작업이 아닐 수 없다.

『탐라지』가 출간된 뒤로 나온 여러 지지(地誌)들 거의 모두가 『탐라지』를 인용하며 새로운 사실을 부연 설명하는 형식으로 기술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사료적 가치를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 『탐라지』는 제주도 지지의 시초인 동시에 원전(原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에도 『탐라지』는 제주의 역사를 배우고 이해하려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숙독해야 할 안내서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사료적 가치는 절대적이다. 그야말로 『탐라지』를 모르면 제주도를 제대로 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탐라지』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탐라지』는 이원진 목사가 펴낸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목사는 1651년(효종 2) 7월 제주목사로 도임하였고, 많은 업적을 남겼다. 하멜 일행이 표착한 것도 이 목사 재임 중인 1653년 봄의 일이었다.

『탐라지』를 보면 편찬 동기가 소개되고 있다. 제주에는 많은 문헌들이 있었다고 전해지는데, 1435년(세종 17) 관아의 화재로 모조리 소실돼 탐라를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거의 전무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탐라지』 편찬은 이렇게 해서 빛을 본 것이다.

그런데 과연 방대한 자료들이 이목사에 의해 이루어졌는지는 의문이다. 향토사 연구가인 홍순만 제주문화원장이 『高典籍誌』에 게재한 고흥진에 관한 글을 보자.

이 목사는 학자들의 집안에서 태어났고, 할아버지인 이상연은 일찍이 성천부사(成川府使)를 지낼 때 『성천지(成川誌)』를 편찬한 일이 있었다. 그래서 지지(地誌)편찬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제주목사로 도임한 뒤 고문헌 등이 소실돼 역사 등을 알 수 있는 지지가 없음을 한탄하며 『탐라지』 편찬에 나선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탐라에 관한 여러 문헌을 섭렵하면서 제주의 역사·형승·지리·토산·방호·관아·교학·고적·인물·제영 등을 짧은 재임기간에 파악, 정리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탐라지』 편찬에 숨은 주역이 있었음을 짐작케 하는 정황이 다. 『탐라지』를 보면 저자가 이원진으로 되어 있고, 발문은 교수 신찬(申纘)이 맡고, 석학 고흥진(高弘進)이 감수한 것으로 되어 있다.

즉, 이 책은 이원진 목사에 의해 간행됐으나 그 내용은 고흥진으로 대표되는 제주의 여러 선

비들에 의해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탐라지』 「산천조」에 보면 70여 개의 오름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예를 들어 “성불악 : 현 북쪽 15리에 있다. 현성(縣城) 부근에서 이 오름에만 샘이 있다.”, 또 “고근산 : 현 동쪽 57리 정의현 경계에 있다. 산정에 큰 굴이 있는데 수직으로 내려가서 그 깊이를 측정할 수 없는데 주위가 17리다.(후략)” 등과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다. 교통이 불편하고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았던 당시에 이 정도로 오름의 위치와 거리, 형태를 파악하려면 짧은 기간에 한두 사람의 작업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탐라지』가 이원진 목사가 도입한 뒤 2년1개월 만에 편찬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고홍진을 비롯한 제주의 많은 학자들이 핵심적으로 참여하지 않고서는 이를 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고홍진은 어떤 인물인가. 그는 1602년(선조 35) 출생한 뒤 나이 17세 되던 해 제주에 유배 와 적거생활을 하던 간옹 이익(李翼)의 문하로 들어가 정주학(程朱學)을 배우게 된다. 그 뒤 지리학을 연구하여 감여술(堪輿術)에까지 능통하니 사람들은 그를 석학(碩學)이라 불렀다.

52세 때 『탐라지』 편찬에 참여한 그는 그로부터 10년 뒤인 1664년(현종 5) 63세 나이로 별유 시제어사(別遣試才御使) 윤심(尹深)의 시제(試題)에 응시, 급제한다. 그 뒤 2년 후에는 성균관에서 시행하는 식년시(式年試)에 급제, 성균관 전적(典籍)을 배수, 후학양성에 힘쓰다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는 감여술에 통달하여 지형·지세에 따른 많은 일화를 남겼는데, 사람들은 그를 도안(道眼) 또는 신안(神眼)으로 불렀으며, 탐라사절(耽羅四絶)의 제1인이라 칭하였다. 말년에 제주시 이호2동(속칭 오도롱)에서 향리 자제들을 훈학하다 1682년(숙종 8) 81세의 나이로 숨을 거두었다.

『탐라지』는 제주도의 모든 것을 정리하여 후세에 길이 전해지고 있거니와 특히 한라산을 비롯한 오름과 하천, 형승과 초목 등에 관한 기록은 한라산 연구에도 더 할 수 없는 귀중한 자료로 오늘날에도 중요한 안내서가 되고 있다.

## 17 탐라사절(耽羅四絶)

조선시대 제주에도 탐라사절(耽羅四絶)로 꼽았던 인물이 있었다. 고흥진, 진국태, 문영후, 양유성이 그들이다.

고흥진은, 앞서서도 보았듯이 제주읍 사람으로 사료에 의한 학문이 깊었으며, 또한 풍수지리(風水地理)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고 그에 능한 사람으로 유명하였다.

고흥진은 현종 5년(1664) 문과에 급제하여 성균관전적을 지냈으므로 고전적(高典籍)이라 불렀다. 그가 사실상 자료수집과 정리를 맡았던 『탐라지』를 보면 한라산을 비롯한 제주의 지리와 풍수에 탁월한 식견을 보여 사람들은 그를 도안(道眼) 또는 신안(神眼)이라 불렀다. 10년(1618)에 폐비론을 반대하다가 제주에 유배된 간옹 이익의 문하생으로 수학했으며, 효종 3년(1652)에는 목사 이원진이 『탐라지』를 저술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었다. 이원진은 제주에 도입한 후 고전적의 학식과 인격을 알고 가까이 친교를 맺었으며, 정주학과 감여술에 관해서도 함께 토론하며 더욱 깊은 신뢰를 맺게 되었다. 이러한 친교와 믿음을 바탕으로 전적공이 『탐라지』 편찬을 건의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당시 제주도에는 관아의 큰 화재로 온갖 문헌이 잿더미로 변한 상태여서 고사를 고증할 길이 없었다. 성균관 전적을 지내 누구보다 자료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그로서는 향토에 관한 문헌이 소실된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통탄할 일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주목사로 도입한 태호 이원진 목사와의 만남은 제주사(濟州史)에 기념비적인 업적을 남기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이원진 목사는 판사 지완(志完)의 아들로, 할아버지 상의(尙毅)는 문과에 급제한 뒤 이조판서, 좌찬성,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등 요직을 거친 뒤 여흥부원군(驪興府院君)에 오른 사람이다. 뿐만 아니라 종조부, 숙부들이 모두 당대의 이름난 학자들이었거나 관직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다.

이 같은 명문집안에서 성장한 이원진 목사의 내력과 성품을 충분히 알고 있는 전적공으로서는 소실된 탐라에 관한 지지(地誌)를 편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여겼을지 모른다.

당시 탐라는 1435년(세종 17)의 관부대화재로 탐라의 향토지리와 사적 서적 등 모든 자료가 소실된 뒤였다. 그로부터 240년 뒤인 1675년 제주목사로 도입한 이원진은 '이 고을에 도입한 뒤 백성들의 풍속을 살펴보고 기록이 없는 것을 개탄'하여 『탐라지』 편찬에 나서게 되는 것이다. 『탐라지』는 고려사와 각종 문헌과 사시(史記) 등을 깊이 탐구하여 「탐라건지 연혁」의 삼을나 순서를 밝히고, 또한 탐라전역을 답사하여 형승, 산천, 지형, 지질, 거리 등을 관측한 자료를 수록하고 있다. 여기에 역사·지리·풍속 등을 총망라하여 상세하고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탐라지』는 2년 여의 기간에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원진은 제주목사로 재임시 동헌 안의 군기고를 수리하여 세병헌이라 편액을 걸치고, 1652년 봄에는 차귀진을 설치한다. 그 해 가을에는 산지천의 홍수로 산지천 북·남수구가 무너지자 이듬해 봄까지 복구공사를 벌였다. 대정향교를 지금 자리인 대정읍 단산 기슭에 옮긴 것도 이 때였다. 그 해 봄 헨드릭 하멜 일행이 폭풍우를 만나 제주에 표착하자 이원진 목사는 이들을 제주읍성으로 데려와 이들에게 거처를 마련해 주고 각별히 보호한다. 『하멜표류기』에는 하멜 일행이 이원진 목사의 인품을 높이 표현하는 글이 기록돼 있다.

참고할 문헌자료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바쁜 업무를 수행하면서 한라산을 비롯한 제주 전역을 직접 답사하면서 자료를 정리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제주도에 관해 풍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이들의 도움 속에 『탐라지』 편찬작업을 벌였다고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다.

그러면 『탐라지』 편찬작업은 누구에 의해 이루어졌는가. 제주출신으로서 이 고장의 역사와 지



리, 풍속, 산천을 잘 알고 있는 고전적이 사실상 주도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일이다. 『탐라지』는 고전적이 이원진 목사를 만나 『탐라지』 편찬의 필요성을 건의하고, 이 목사는 제주 출신으로서 성균관 전적을 지낸 고홍진을 믿고 이를 맡긴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문영후, 양유성, 진국태는 어떤 인물들인가. 김찬흠이 집필, 제주문화원에서 펴낸 ‘제주인물사’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문영후(文榮後)는 학문과 재능이 뛰어나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역임하였지만 특히 그는 천문(天文)에 통하여 복서(卜筮) 잘하기로 유명했다고 한다.

그는 1664년(현종 5) 어사 윤심(尹深)에 의하여 시취(試取)되어 전라도 곡성현감을 역임하였으므로 문곡성(文谷城)이라고도 부른다. 그는 후에 고향으로 돌아와서도 도민의 생활을 걱정하고 돌보는 바가 많아 도민들의 신망을 받았다. 1681년(숙종 7) 좌수 오상현(吳尙賢)과 함께 도민의 부역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여겨 부역의 균등배분에 대한 무명지세(無名之稅)를 혁파하니 백성들의 삶을 편하게 했다. 1684년(숙종 10) 제주교수로 임명되었는데, 『구례도목(舊例都目)』에 의하면 교수는 판관보다 상위직급이므로 간혹 서열을 다투는 일이 있었다. 문영후는 교수로서 공식석상에서 판관 아래에 앉고 정의·대정현감의 윗자리에 앉으니 사람들이 이를 그를 보고 체통을 아는 사람이라고 우러러보았다.

문영후는 시문에 능하고 천문(天文)에 조예가 깊었으며 복서(卜筮 : 점괘나 산가지를 보는 일)을 잘 하여 미래의 일을 예언, 적중시켜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전설에 의하면 신우면(新右面 : 지금의 애월읍)에 문곡성이라고 부르는 이가 있었다. 본시 문영후인데 곡성현감을 지내어서 그렇게 불렸다. 용모가 무골형으로 풍채가 우뚝하고 힘도 센 장사였다. 문곡성은 장안에서 거리낌없이 주름잡아 조정에서는 이를 은근히 걱정했다. 그래서 당시 국지리(局地理)로 있는 소두산(蘇斗山)을 제주목사로 보내어 문곡성의 선묘(先墓)를 탐색하고 어떤 조치를 취하고자 하였다. 소 목사는 순력(巡歷)을 하면서 일부러 과납(科納 : 납읍)에 들러 묘를 본 뒤 문곡성의 부친을 만났다. 소 목사는 “아깝다! 이 묘는 호형(虎形)인데 그만 호랑이 눈썹가에 묻었구만! 눈알에 묻었다면 영웅이 날 것인데, 허허 안됐군!”하고 가버렸다. 그러자 문곡성의 부친은 생각하길 아들이 서울에서 큰 벼슬을 못하는 것이 묘 때문이라 보고 소 목사가 시키는 대로 내려 묻었다. 이후 문곡성은 영웅이 되지 못한 채 전라도 곡성현감에 제수됐고 얼마 안 돼 집안은 망해버렸다고 한다.

양유성(梁有成, 1684~1761)은 조선조 영조 때의 무신으로 제주시 화북동 거로마을에서 태어날 때 무지개가 하늘에 이어져 상서로운 기운이 가득했다고 한다. 그는 풍채가 준수하고 무술이 뛰어나 사람들로 부터 장차 장수가 될 그릇이라고 기대를 모았다. 당시 중국 절강성 오서신(吳書神)이 제주 정의현에 표도되었는데 행세가 자못 거만하였다. 그런데 그가 양유성을 만나자 엎드리며 말하기를 “당신이 중국에서 태어났으면 큰 장수가 되었을 것이요.”라고 평하며 그의 외모와 행동에 감복하였다고 전해진다. 양유성은 1712년(숙종 38) 28세의 나이로 무과에 급제한 뒤 전라도의 보성(寶城) 군수를 역임하기도 했다.

진국태(秦國泰, 1680~1745)는 조선조 정조 때의 의술인으로 제주목 우면(右面 : 지금의 한림읍) 명월리에서 진정적(秦廷績)의 아들로 태어나 세칭 월계(月溪) 진좌수(秦座首)로 불리었다. 그는 어릴 적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서당에 글공부를 하러 밤마다 다녔는데 처녀가 늘 나타나 어린 진좌수의 입에 구슬을 넣어 준 뒤 다시 찾아갔다. 하루는 스승이 소년 진좌수가 얼굴이 창백해 가는 것을 보고 자초지종을 캐물었다. 그런 뒤 “여의주를 입에 넣거든 바로 삼켜버려라. 그러면 모든 게 너의 뜻대로 되리라.”는 것이었다. 그대로 하고 당시의 상황을 스승에게 고하니 “네가 구슬을 삼킬 때 하늘과 땅을 아니보고 사람만 보았다니 ‘상통천문(上通天文)’,”

‘하달지리(下達地理)’는 되지 않겠지만 사람의 병을 너의 뜻대로 고칠 수 있겠다.”고 말하였다. 이 소년이 바로 훗날 자라서 월계 진좌수라는 명의(名醫)가 되었다. 그가 병을 신통하게 치료한 일화와 전설은 많이 전해지고 있다. 어느 해 서울에서 임금이 병이 나서 팔도의 명의들을 부르게 되었다. 전라감사(全羅監使)는 진좌수의 명성을 아는지라 곧 진좌수를 추천하였다. 진좌수는 평생 돈을 받지 않고 의술을 베풀며 수많은 인명을 구하였다. 그래서 가난한 진좌수는 의관도 변변히 갖추지 못한 채 궁궐에 들어갔다. 팔도에서 모인 명의들은 진좌수의 옷차림을 보고 곁에 앉지도 못하게 했다.

그런데 한 사람이 황급히 오더니 “아무개 정승의 집에서 왔는데, 어머니가 길쌈을 짜다 죽어 가니 방문(方文)을 하나 내어 달라.”고 했다. 팔도의 명의들은 서로 쳐다보기만 할 뿐 나서는 이가 없었다. 진좌수는 혼자 바깥에 앉은 채로 “쌀 일곱 알을 물에 담가 먹이지지요.”했다.

안에 앉은 의원들은 미친 녀석 취급을 했다. 얼마 후 그 사람이 다시 오더니 환자가 소생하여 정승이 모셔오라고 한다며 역지로 진좌수를 모셔갔다.

정승 집에서 사흘 간 융숭한 대접을 받은 뒤 진좌수가 임금에게 불려가게 됐다. 임금의 병은 등창병이었다. 팔도의원들이 약방문을 썼지만 차도가 없었다. 진좌수는 집 상마루에 있는 거미 일곱 집과 거미 일곱 마리를 잡아오게 하였다. 그것을 찢어서 임금의 등에 붙였다. 그러자 3일 만에 임금님의 등창병은 완전히 낫게 되었다.

임금은 크게 기뻐하여 그 의술을 높이 칭찬하고 벼슬을 주도록 하였다. 그러나 진 좌수는 연로한 어머니가 있어 고향으로 내려가길 원하자 임금이 “할 수 없으니 좌수 직함이라도 내려라.”고 하명하여 좌수가 된 것이다.

심제 김석익(金錫翼)이 그를 칭송하여 지은 장편시가 현재 전해지고 있다.

## 18 한라산 아래 첫 마을

인간들은 오래 전부터 의식주에 필요한 많은 재료를 산에서 채취해 왔다. 그래서 산으로부터 생산되는 물자를 채취해 팔며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과 그들이 거쳐하는 취락이 형성돼 왔다.

남북왕래가 잦아지면서 북한을 다녀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남한사회에서 잘 모르던 새로운 사실들도 나타나고 있다. 북한사회에서 백두산은 하나의 성지로 인식되고 있다. 백두산은 한반도의 시작점이자 민족의 시원을 이루고 있는 산이다. 북녘동포들은 여기에다 백두산을 항일빨치산 전적지로 성역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을 방문한 남한 사람들이 백두산에 들어가는 길은 지금까지는 거의 외길 코스이다. 즉, 평양에서 고려항공편으로 1시간 남짓 걸려 삼지연공항에 내린 뒤 삼지연을 거쳐 백두산에 오르는 길이다. 삼지연공항을 떠나 백두산 등정길로 나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이깔나무 숲이다. 침엽수이고 곧게 뻗어 자라는 수형이 제주도의 삼나무를 연상시킨다. 하지만 이깔나무는 삼나무와 달리 잎 같이 하는 침엽수로 삼나무보다 수고가 훨씬 높은 특징을 보여준다.

이깔나무는 백두산의 대표수종으로 곳곳에 울창한 수림을 형성하고 있다. 이깔나무 숲과 높다란 언덕의 허리를 뚫고 솟아나는 리명수폭포와 김일성 장군의 거대 동상이 세워진 삼지연을 지나 한참을 가면 백두산 하늘 아래 첫 도시인 혜산시가 나타난다. 혜산시는 이름 그대로 백두산의 혜택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도시라는 뜻이다.

북한 안내원에 따르면 이 도시는 목재가공이 주업이며 백두산 기슭에서 많은 임산자원을 캐어 파는 일을 하며 산다고 한다. 도로변에는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듯 목재가공공장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도시 이름으로 보면 혜산시가 백두산에 가장 가까운 도시라 할 수 있지만 해발 2,000m를 넘는 백무고원에도 집단농장이 있고, 최근에 지어진 주민들의 집단주거지가 있다. 북한정부가 식량난 해결을 위해 고랭지 감자재배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다. 백무고원 농장에서 조금 떨어진, 곤장덕이라는 지명을 가진 곳에 가면 전통민가들의 느낌을 주는 마을이 있다. 그 곳에 서면 질푸른 압록강이 흐르고, 그 너머는 중국의 장백현이다. 이 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과 북한의 협곡이 장관을 이룬다. 곤장덕의 지명 유래도 흥미롭다. 조선조 때 어느 관리가 중국과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한 표석을 옮기다 산세가 너무 험하고 옮기기가 힘에 부쳐 이 부근에 세우고 갔다. 그런데 나중에 사실이 밝혀져 그 관리가 곤장을 맞았던 언덕이어서 지명이 붙었다. 이 마을은 10여 가호로 이루어졌는데, 주변에는 토종닭과 오리 등 가축이 보이고 과일나무들도 심어져 있어 시골동네처럼 친근감을 주었다. 백두산 기슭에 있는 가장 높은 지대에 있는 마을의 하나이다.

그러면 조선족들이 많이 살고 있는 중국에서 본 백두산 아래 첫 동네는 어딘가. 중국 조선족 동포들이 밀집해 살고 있는 길림성 안도현은 백두산을 터전으로 살고 있는 지역이다. 안도현은 일제의 탄압을 피해 월경한 조선족들이 옹기종기 모여들면서 마을을 이루게 됐다. 주민들은 백두산 속의 약초와 땔감을 채집하고 사냥을 하며 살아 왔고, 지금도 사정은 그리 다르지 않다.

지척에 백두산을 두고 문명사회와 상당 부분 격리된, 해발 1,200m 고지에 내두촌이 있다. ‘하늘 아래 첫 마을’이라고 불리는 곳이다. 이도 백하를 지나 하늘 높이 곧게 자란 자작나무숲을 따라 백두산으로 향하다 보면 처음 왼쪽으로 난 오솔길을 만나게 된다. 바로 내두촌으로 향하는 길이다. 길 양쪽에는 크기가 비슷한 두 개의 산이 나란히 보이는데, 마치 여성의 가슴모양

과 같다 하여 내두산(內頭山)이라 했고, 마을 이름은 여기에서 유래했다.

내두촌은 1860년을 전후해 함경도일대에 약 10년간 흉년이 들면서 기아에 허덕이던 농민들이 하나 둘씩 넘어오면서 마을을 형성하게 됐다. 한인(韓人)들이 세운 마을인 것이다. 그 후 일제강점기에는 백두산의 밀림을 배경으로 독립운동가들의 은신처가 되고 일제와 맞서는 거점 역할을 하기도 했다.

지금도 이 마을의 주소득원은 백두산이 제공해 주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산삼이다. 어느 해는 주민들이 산삼 70뿌리를 캐와 마을이 산삼열기에 빠진 적도 있다고 한다. 이 마을의 또 다른 부업은 사냥이다. 20여 년 전보다는 못하지만 노루, 멧돼지, 꿩, 토끼 등이 사냥감인데, 호랑이를 잡았던 이야기도 전해진다.

내두마을은 1970년대까지만 해도 100 호에 이를 정도였으나 교통의 불편과 2세 교육문제 때문에 타지역으로 이주, 지금은 60여 호에 200여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그나마 이런 현상은 앞으로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여 언젠가는 ‘하늘아래 첫 마을’은 기억 속에서나 존재하게 될지 모를 일이다.

그러면 한라산의 첫 마을은 어딘가. 한라산은 예부터 제주인들의 삶의 터전이었다. 산이 높고 내면은 깊지만 사나운 짐승이 없어 사람들이 큰 위험 없이 찾을 수 있는데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많은 것을 제공해 주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해발 600m 이상의 지대가 대부분 국립공원과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돼 등반로를 제외하고는 사람들의 출입이 끊겼지만, 한라산 곳곳에는 제주선인들이 한라산을 이용했던 다양한 자취가 남아 있다.

우마를 가두기 위한 석축은 해발 1,700고지 일대에서도 찾을 수 있고, 숲 가마터 역시 군데군데 남아 있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기 전 사람들은 한라산 깊숙한 곳까지 올라와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재목을 몰래 캐고 갔다. 약초꾼들은 수시로 한라산을 채마밭처럼 다녔다.

그러나 도로가 없고 교통수단으로 말이나 보행에 의존했던 시절, 한라산을 다녀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산에서 원하는 것을 구하려면 그들이 사냥꾼이든, 나무꾼이든 며칠을 지내야 했다. 산 속 도처에 널려 있는 굴과 궤는 그들에게 좋은 안식처였을 것이다.

한라산 아래 첫 동네였던 능하동(陵下洞) 역시 이런 과정에서 생겨났을 것이다. 한라산 등반로의 하나인 관음사코스를 따라 해발 1,000m 정도에 이르면 서남쪽에 능하오름이 나타난다. 능하동의 지명은 여기에서 유래했다. 1900년대 초 한라산은 생태학자들의 주요 연구처였다. 그들 중 야마시दार는 동물학자는 동료와 함께 한라산의 동물과 곤충연구를 위해 능하동에 여러 날 머물게 된다. 그들은 낮에는 산을 돌아다니며 자원을 조사하고 어둠이 내릴 무렵이면 내려오는 일을 반복했다. 일종의 베이스캠프였던 셈이다. 1900년대 초까지 존재했던 능하동은 지금은 건물자취와 숲 가마터 흔적만 남기고 사라져 버렸다.

그러면 능하동을 일구었던 제주선인들은 왜 이처럼 지대가 높은 곳에 마을을 세웠던 것일까. 그것은 이 능하동 부근에 남아있는 숲 가마터와 마을에서 조금 내려간 지점에 위치해 있는 구린굴과도 연관이 있을 것이다. 구린굴은 옛날에는 얼음을 저장했다 여름에 꺼내 썼던 굴빙고 기능을 했던 곳으로 여겨지는 굴이다. 교통이 불편했던 옛날 얼음을 캐어 저장하는 일을 하려면 일꾼들이 머물며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숙소가 필요했을 것이다. 굴빙고가제주목관아에 공급하는 얼음을 저장했던 굴이라면, 이 곳에서 일하던 일꾼들 역시 관아에 소속됐던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이들이 숙식을 해결했던 집들 역시 제주목에서 관리했던 시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옛날에도 산에서 숲을 굽고 나무를 벌채하는 일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다. 관청의 허가 없이 집을 짓고 숲을 굽는 일은 상상하기 어렵다. 이러한 일을 하던 능하동은 일제강점기에 입산통제가 강화되면서 철거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 19 한라산의 원풍경(原風景)은 어떠했을까

한라산의 화산활동이 마지막으로 이루어진 것은 대체로 20,000여 년 전으로 학계에서는 보고 있다. 고려 목종 때인 1105년과 1112년 두 차례 화산 폭발이 있었지만 그것은 바다 속의 서산(瑞山; 비양도)이어서 한라산의 원형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는 볼 수 없다. 하지만 한라산의 지형과는 달리 식생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옛날의 한라산 숲의 규모가 어떻게 달라졌을까.

고려사를 보면 충렬왕 원년(1276년) 원나라가 일본을 정벌하기에 앞서 고려조정에 병선 200척을 만들도록 요구한다. 그러자 고려조정에서는 “탐라(제주)에는 배를 만들 나무가 많고, 탐라인들은 배를 잘 만들고 잘 부릴 줄 아니 제주에서 만들도록”했던 기록이 보인다. 한라산과 그 기슭에 배를 만들 수 있는 재목을 공급할 수 있는 울창한 숲이 형성돼 있었음을 추정케 하고 있다.

제주목사를 지냈던 병와 이형상이 남긴 『탐라순력도』와 그 자매편이라 할 수 있는 『남환박물』지는 구체적으로 한라산 식생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남환박물』은 『탐라순력도』가 그림으로 제주를 설명하고 있는데 비해 글로 제주도와 주변 도서 및 바다 등에 대해 상세히 서술한 지방지이다.

『남환박물』은 『탐라순력도』와 같이 이형상이 제주목사 재임 시 저술한 것으로서 제주목사에서 이임한 다음해인 1704년(숙종 30)에 발간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주’ 대신 ‘남환’이라고 붙인 것은 저자의 다른 서명(書名)에 『탐라기(耽羅記)』,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 등이 있으므로 그 중복을 피하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남환박물』은 내용구성이 일반 읍지(邑誌)와 차이가 있기는 하나 제주의 지방지로서 충실한 내용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숙종년간의 저술, 즉 300년 전의 제주지(濟州誌)라는 점에서 그 가치가 있다. 이는 당시의 기록을 통해 옛 제주의 모습을 조망할 수 있는데다 일제강점기와 광복 이후의 혼란기에서 발생한 4·3사건, 1960년대부터 본격화된 개발 이전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제주의 원풍경을 추정케 하는 귀중한 자료라 할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한라산의 식물대에 관한 구분이다. 한라산을 산림대(山林帶), 왜죽대(倭竹帶: 조릿대), 관목림(灌木林)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자신의 답사경험과 여러 자료 등을 기초로 해서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필자 병와는 4월25일에 새벽 길을 사교(舍較)로 40리 가서 경사가 급해지는 산저(山底)에 도달했으며, 이 곳에서부터 말을 타고 ‘수(藪)’라고 표현하는 산림대에 들어갔다. 수(藪)는 방언으로 ‘꽃이·花’라고 부르며 큰 것은 5.60리(註: 1리는 대략 400m), 작은 것은 10여 리 되는데, 산림이 울창하여 하늘을 볼 수 없을 정도라고 서술하고 있다. 사실 『탐라순력도』에는 수(藪)라고 표시된 곳이 녹색으로 넓게, 그리고 여러 곳에 그려지고 있어 중산간지대의 꽃(숲)이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광활하고, 매우 울창했음을 알 수 있다. 藪는 오늘날에는 꽃자왈 지대를 의미한다. 영주십경의 하나인 ‘고수목마(古藪牧馬)’도 수, 즉 꽃자왈 지대에서 방목하고 있는 말들의 평화로운 모습을 예찬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원시림 같은 중산간지대의 산림은 어떻게 변해 갔을까. 한라산과 그 일대 중산간지대 산림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은 고려시대 몽고가 제주도를 자신들의 목마장으로 삼으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몽고는 백 년 가까이 제주를 지배하면서 동과 서에 아막을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말 사육에 나

서게 되는데, 제주가 고려에 반환될 무렵의 목마수가 10만 두에 이를 정도였다. 이처럼 많은 말을 키우려면 넓은 초원이 필요했다. 그러므로 숲을 베어내고 불을 지르는 일은 국책사업으로 중시되고 있는 목장면적의 확대는 물론 목마에 해로운 해충의 번식을 막는 일석이조의 행위로 오히려 적극 권장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1970년대 들어 제주의 6대 폐습으로 지목돼 대대적인 추방캠페인을 벌일 만큼 화입은 제주의 오랜 전통이었다. 몽고에서 전래된 유품의 잔재인 것이다.

『탐라순력도』를 보면 한라산 기슭에 8개소의 화전마을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화전은 목마를 기르는 일을 하는 이들에게 특별히 허용됐던 제도였다. 이로 인해 한라산 기슭이 더욱 황폐화되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화전경작은 구한말에 이르러 금지되지만 마소들을 위한 화입은 여전히 이루어졌고, 국토산림 녹화사업이 본격화된 1970년대는 물론 1980년대 초까지 이어진다. 이처럼 방목을 위한 화입이 성행하던 시절에도 지금의 중산간지대에는 여전히 울창한 숲이 잔존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일제강점기 초기 제주를 방문해 한라산 식물을 최초로 조사하여 집대성했던 일본인 식물학자인 나카이의 기록에 따르면 지금의 남원을 의귀리에는 울창한 느티나무 숲이 있었으나 1900년대 초 일본인들의 목재를 위한 대대적인 벌목으로 사라진 기록이 남아 있다. 여기에도 대대적인 표고재배가 일본인들에 의해 이루어지면서 한라산의 원식생도 파괴됐다.

해방 후 혼란기에서 발생한 4·3사건도 도민들은 물론 한라산의 산림대에 적지 않은 피해를 가져왔다. 사건이 확산되면서 무장대들은 군경에 밀려 산으로 들어갔고, 이들은 기회를 보며 서로를 공격했다. 이에 따라 중산간지대에는 무장대의 습격에 대비한 진지가 곳곳에 설치되었고, 그 주변의 산림은 시야 확보를 위해 말끔히 제거되었다. 심지어 하천변에 울창하게 자라던 고목들 역시 침투하는 무장대들이 은폐하는 요인이 된다는 이유로 마을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제거되었다고 고로(古老)들은 증언하고 있다. 4·3사건 당시 해안으로 소개되었던 중산간 주민들은 사건이 진압되자 다시 마을로 돌아왔지만 집은 불태워 없어졌다. 그들은 다시 집을 짓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곳자왈과 하천, 심지어 한라산 기슭으로 재목을 구하러 나서야 했다. 지금은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 보호되고 있는 선흘리 동백동산의 경우, 마을의 학교를 세울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대대적인 벌목이 이루어졌다. 한라산과 그 기슭의 오름과 곳자왈 등지에 고목이 드문 것은 이 같은 여러 요인에 기인하는 것이다.

1960년대부터 제주에는 감귤원조성사업이 활발히 전개되면서 주민들 스스로 감귤묘목과 방풍림 조성에 나서게 되었다. 또한 산림녹화사업이 전개되면서 한라산을 비롯한 도전역은 다시 푸르름을 찾아가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골프장조성을 비롯한 대규모 관광시설이 들어서면서 또다시 중산간 녹지대가 급격히 훼손되고 있다. 전(前) 시대의 산림훼손은 화입과 벌채에 따른 것으로 복원이 가능한 일시적인 훼손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작금의 각종 도로시설과 위락단지 조성과 같은 대규모 시설은 반영구적인 시설로서 원형을 철저히 훼손한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 20 제주의 명품 ‘남방아’

병문천은 제주시 3대 하천의 하나이다. 한라산 북사면의 해발 1,500m 일대를 발원지로 하는 하천이다. 이 지대에 가 보면 지름이 1m 이상 되는 나무 몇 그루를 만날 수 있다. 이처럼 거대한 나무를 한라산에서 본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다. 무엇 때문일까. 한라산에는 수령이 짧은 수종만 자생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은 것이다.

제주도에는 남방아가 있다. 나무로 만든 방아인데 골동품가게 등을 둘러보면 지름이 1~1.5m 정도 되는 것들이 많다. 196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크기는 다소 크고 작음이 있어도 이런 남방아는 거의 집집마다 남아 있었다고 한다. 지름이 1m를 넘는 나무로 만든 남방아도 지금은 쉽게 구할 수 없다. 상당수가 1970년대 이후 육지부로 팔려나갔고, 제주에서는 여유가 있는 집안의 거실을 장식하는 골동품으로 귀중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수백 년 동안 제주선인들의 애환이 묻어 있는 남방아는 오늘날 선인들이 남긴 제주의 명품과 같은 존재가 되고 있는 것이다.

남방아는 제주도에서는 ‘굴무기낭’으로 불리는 느티나무로 만든다. 남방아는 곡식을 뿔기도 하지만 음식을 만들 때도 요긴하게 쓰이는 생활용구였다. 느티나무는 쉽게 썩거나 부패하지 않고 무늬가 아름답다. 그래서 남방아는 전통가옥의 마루와 문짝은 물론 궤와 같은 가구를 만드는 데도 최고의 용재로 여겨왔다. 느티나무로 만든 마루나 문짝, 궤들은 수백 년이 흘러도 여전히 온전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오늘날에도 장식용재로 아낌을 받고 있다.

느티나무가 다용도의 재목으로 널리 사용된 것은 그만큼 느티나무가 섬 전역에서 자생했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울창한 느티나무숲은 커녕 거목의 느티나무를 보기도 힘들다. 그토록 우람한 자태를 뽐내던 느티나무와 숲이 왜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것일까.

『제주도 식물조사보고서』를 펴낸 일본학자인 나카이 역시 이 같은 물음을 던진다. 1914년 제주를 찾은 그는 지금의 제주목관아에 설치됐던 제주군청이 거대한 느티나무 목재로 지어졌음을 보고 궁금증을 갖는다. 그래서 원주민에게도 물어보고, 십수 년 전부터 이 섬에 주재하던 프랑스 선교사(다케 신부를 지칭)에게 들은 바를 토대로 의문을 풀게 된다.

“그는 고사에 비추어 볼 때 옛날은 삼림이 많았고 촌락은 단지 해안 가까이에 존재하였다. 그러다 점차 화전을 만들게 되고 벌목을 하며 오늘에 이르렀다. 그러나 화전을 만드는 것은 여전히 엄금되고 남벌을 하는 것도 금지되고 있으나 화입과 남벌 행위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 선교사에 따르면 몇 십년 전까지만 해도 정의군 의귀리 주변이 모두 삼림이었으며 지름이 5척(대략 1.5m) 남짓한 거목들을 볼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금년 봄(1914년) 일본인의 벌채도 심하고 원주민 스스로 채취한 결과 현재는 벼랑처럼 쉽게 가까이 갈 수 없는 곳, 또는 한라산 위, 촌락으로부터 수십리 떨어진 곳에서만 나무숲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나카이의 글은 일제강점기 직전까지만 해도 울창한 느티나무숲이 도처에 남아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형태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조선시대 정의현 도읍지였던 성읍민속마을에는 국가지정 천연기념물 163호로 보호받고 있는 느티나무가 있다. 이 나무는 직경이 1.5m 남짓하고 나무 높이는 15m 정도 되며 수령 천 년을 헤아린다. 그래서 2000년도 새 천년을 맞는 밀레니엄행사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로 인정을 받기도 했다. 성읍리 느티나무가 현재까지 남아 있는 것은 이 나무가 정의고를 관아 곁에 있어 감히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보호수였기 때문일 것이다. 성읍리 느티나무는 옛 한라산의 울창한 느티나무숲을 반추케 하는 것이다.

## 21 사람(人)·말(馬)·불(佛)·곡(穀)을 닮은 한라산

제주에서는 하나의 금기시되는 화제가 있다. 자신이 자란 고장에서 보는 한라산을 최고라고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 이야기가 나오면 누구든 자기 마을에서 보는 한라산이 가장 아름답다고 말하게 되고, 주장이 지나치다 보면 서로 감정이 상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라산 경관 평가가 자칫 애향심차원으로 비화돼 언쟁이 벌어질 수 있음을 경계하는 말이다.

사실 한라산은 어느 지역에서 보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지 단정적으로 말하기가 어렵다. 제주시에서 바라보는 한라산은 정북 방면에서 보는 것이어서 가장 넓은 면적의 한라산체를 바라볼 수 있다. 동쪽과 서쪽 사면의 크고 작은 오름들이 한눈에 들어오고 전면에는 탐라계곡이 움푹 패어 있어 더욱 웅장하게 보인다. 심지어 백록담의 동저서고(東底西高)의 모습도 보인다. 서귀포시지역에서 보는 한라산은 마치 거대한 성채를 연상시킨다. 제주시처럼 먼 곳에서 조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위를 올려 보아야 하는 지형이다. 그만큼 급경사를 이루고 시야의 폭도 좁다. 하지만 눈 위로 우뚝하게 치솟으며 축조된 성채와 같이 웅대하면서도 아름답게 다가오는 것이다. 산정에 눈이 쌓이면 한라산의 자태는 더욱 미려하다. 산을 두 쪽으로 벌렸다고 해서 이름이 붙여진 산별른내를 바라볼 수 있는 것도 눈맛을 즐겁게 하는 별미이다.

동쪽에서 바라보는 한라산은 아득하다. 타원형의 제주도는 가운데 한라산을 두고 동서쪽은 200리가 되고, 남북은 100리 남짓하다. 그래서 동서쪽에서 바라보는 한라산은 아득하게 먼 느낌을 준다. 동쪽은 한라산의 서·남·북쪽에 비해 오름이 많다. 그래서 이 일대를 ‘오름의 왕국’으로 불러도 지나침이 없다. 동쪽에서 바라보는 한라산은 크고 작은 오름들이 한라산을 정점으로 치달아 오르는 듯, 어미닭이 병아리떼를 거느린 것과 같은 환상적인 느낌을 준다. 우도 팔경의 하나인 ‘천진관산(天津觀山)’도 동쪽에서 바라보는 한라산과 오름의 빼어난 경관을 찬탄하는 것이다.

서쪽에서 한라산은 어떻게 보일까. 먼저 서남쪽의 한라산은 오름이 많지 않아 시계가 탁트인 느낌을 준다. 눈을 들어 산을 쳐다보면 산정 바로 아래 엄청난 크기의 영실분화구가 보인다. 마치 거대한 솔처럼 둥그렇게 패인 영실은 다른 쪽에서는 접할 수 없는 경관이다. 서북쪽은 무수천의 상류인 Y계곡과 삼각봉, 한라산의 서쪽 능선들이 다양한 미각을 자아내며 웅장하게 펼쳐진다. 더구나 한라산 동남쪽으로 자락을 펼치며 산방산과 용머리해안, 서귀포의 단애, 성산포의 일출봉을 한라산과 함께 한꺼번에 조망하노라면 시인이 아니더라도 찬탄을 금치 못할 것이다.

동서남북으로 바라 본 한라산의 모습을 소개했지만 한라산의 경관은 읍·면별, 마을별로도 각각의 특징과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어느 마을, 어느 지역에서 보는 한라산이 최고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더구나 미감은 사람에 따라 다르고, 자신이 오랫동안 보아 온 산에 대한 독특한 정서가 깔려 있어 더욱 구별이 어렵다. 자기 마을에서 보는 한라산을 최고라고 자랑하지 말라는 이야기이다.

그렇다면 제주의 옛 선인들은 한라산을 어떻게 여겨 왔을까. 한라산을 예찬하는 글은 수없이 많다. 우리 국토는 백두산을 시원으로 남으로 달려 4,000리에 영암의 월출산이 되고, 또 남으로 달려 해남의 달마산(두륜산)이 되고, 달마산이 바다를 500리 건너 뛰어 추자도가 되었고, 또 500리를 넘어 와 한라산이 되었다고 설명한다.

면암 최익현의 「유한라산기」에 보면 “또 어떤 이는 말하기를 산 형국이 동은 마(馬), 서는 곡(穀), 남은 불(佛)이요, 북은 인(人)의 형상이라 하였다. 이는 근거가 없지만 산세가 굴신고저



(屈身高低 : 높고 낮게 굽어져 있음)의 형세를 따라 마치 달리는 것은 말과 같다 하고, 위암층벽(危巖層壁 : 위태로운 바위와 층층 솟은 절벽)이 죽 늘어서서 두 손을 마주잡고 읊하는 듯한 불(佛)과 같다 하고, 평포광원(平鋪廣遠 : 평평히 퍼져 멀리까지 넓음)하고 산만이피(散漫離披 : 흩어지고 여기저기 널리어 있음)함은 곡식과 같고, 공포향북(拱抱向北 : 공수하여 감싸인 듯이 북녘의 임금을 향하여 있음)하여 수려한 산세는 사람과 닮았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말은 동쪽에서 생산되고, 불당은 남쪽에 모였고, 곡식은 서쪽이 잘 되고, 인걸은 북쪽에서 많이 나서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자가 있다 한다.”고 했다.

한라산의 지형이 풍수지리적으로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든 東 - 馬, 西 - 穀, 南 - 佛, 北 - 人은 제주도의 산세와 인문·자연환경에 비추어 볼 때 어느 정도 수궁이 가는 표현이다. 한라산의 동쪽 능선은 서·남·북의 가파른 형태에 비해 완만하게 굽어지고 있어 말잔등을 연상시키는가 하면, 말사육도 대부분 동쪽지역에서 대규모로 이루어져 왔다.

제주의 서부지역인 한경면 고산평야와 서귀포시 강정지역은 제주의 곡창지대라고 불릴 만큼 쌀 농사가 번성했다. 산남은 제주불교의 발상지로 일컬어지는 영실 존자암과 오백나한을 거느린 영실, 거대사찰인 법화사 등이 존재하고, 산북은 인재가 많이 배출된다. 산북인 제주시에서 한라산을 보면 북벽 바로 아래 펼쳐지는 탐라계곡이 동과 서로 나뉘어지며 사람 ‘人’자를 형상화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조선조 때 펴낸 것으로 보이는 『과영주산세론(過瀛州山勢論)』도 눈여겨볼 만하다. “영주산(영주산 ; 한라산을 지칭)은 마치 백학이나 푸른 매와 같다. 주위 사방이 높이 바라보이고 마치 장군이 홀로 앉은 듯하다. 머리는 서쪽으로 향하고, 꼬리는 동쪽으로 내렸다. 고개를 돌려 태조산인 백두를 돌아보는 형국”이라고 했다. 지금도 제주시 쪽에서 한라산 정상을 중심으로 동·서로 내려서는 산세는 마치 장군이 앉아 있거나 거대한 독수리가 서쪽을 향해 금세 날아갈 듯한 형세를 취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

『과영주 산세론』은 또한 한라산을 동서남북으로 나눠 풍수지리를 설명하고 있다. 즉, “동쪽의 지세는 아미형을 닮아, 풍류에 의탁해도 가업을 이루며, 동쪽의 지맥은 소가죽 같아 사방이 우마로 가득하다. 서쪽의 형세는 창고와 같아 농사일을 하면 대성한다. 지맥은 검(劍)이나 창과 같아 능히 무인이 많이 난다. 남쪽의 지세는 매의 형국과 같아 날아야 먹이를 먹고, 앉아 있으면 굶는다. 지맥은 필봉이 연이어 문장에 밝은 크고 작은 학자가 연이어 난다. 산북의 지세는 호랑이 머리와 같아 천리의 먹이를 얻는 데 성공한다. 지맥은 범이나 호랑이와 같아 천리의 먹이도 조석으로 먹는다.”고 풀이하고 있다. 그러면서 남북의 날개가 짧으니 발복도 빠르지만 실패도 빠르며, 한라산은 대맥의 끝이니 막내가 대길한다는 것이다.

## 제2장 한라산과 문학

### 1 한라산, 그 영원한 상상력의 공간

한라산은 영원한 상상력의 공간이며, 사유의 지평이다. 한라산 자락의 사람들은 오랜 옛날부터 한라가 거느린 수천 수만의 얼굴로부터 자양분을 거둬들였다.

갑갑한 도시의 세계를 벗어나고 싶을 때, 현실의 부박한 삶을 부러놓고 싶을 때 우리는 그를 만나러 간다. 한라산은 그 산자락에 누운 우리네 삶의 배경이며, 문학·미술·음악 전 예술의 장르에 걸쳐 하나의 배경이 되었다.

그렇다면, 문학 속에서 한라산은 어떤 존재였을까. 인간의 유일한 인간다움은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데 있을 것이다. 그 상상력의 원천을 떠올리게 만드는 공간이 한라산이다.

저 멀리 수렵시대의 한라산신들이 떠돌던 곳, 한라산 아흔아홉골 흐르는 서사무가의 본풀이를 품고 있는 산. 한라산은 신과 사람이 뒤엉켜 유장한 언어를 쏟아낸다.

고려 말에서 조선조 말까지 수많은 정치범들이 격리되었던 이 절해고도의 나침반은 한라산이었다. 이 섬에 유배된 자들은 한라, 거기에 마음을 의탁했다. 그 유배지로 직함을 부여받아 제주섬으로 잠시 살려 왔던 권력자 관리들도 한라산에 사로잡혔다. 제주 유림들 또한 모든 것의 배경이된 한라산을 일필휘지, 한시로 노래했다.

무릇 제주섬을 모태로 둔 이 땅의 문인들이야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들은 한라를 위해 끝없는 헌사를 바쳤으며, 산의 표피적인 감상에서 벗어나 내적인 성찰을 하기 위해 산의 능선을 타듯 언어의 능선을 누볐다. 누구라도 이 산에 오른 자, 깊숙이 빠지지 않을 수 없었다. 생애에 단 한 번 한라를 오르코자 했고, 그 한 번의 꿈을 이룬 자는 운이 좋았다. 제주 밖의 사람들이 왜 제주를 찾았겠는가. 바로 한라산이 있어서이다.

한라산을 올랐던 옛사람들은 이 산에 깊숙이 매료되었다. 하여 그 꿈의 산, 한라를 찾아 바다를 건너온 이들은 그 매혹의 증거를 글로 써서 남겨 놓았다. 산과 하직하면서 그들은 작정한 듯 시를 적었고, 산문을 남겨 놓았다. 그들은 그 때 발견한 것들을 남겨 놓음으로써 후일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한라산의 풍경들과 정신의 진수를 만날 수 있게 했다.

허나, 글을 쓴 이들은 산의 넓고 우람하거나 오밀조밀함, 엄청난 변화를 주거나 하는 것 이상의 묘한 매력을 필력으로 온전히 담지 못함을 자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옛 문장을 따를 현대 문사들의 글은 그리 쉬이 보이지 않는다.

한라산 바람 신의 음덕을 입지 않았다고 한 이가 있다면, 그는 정말 모진 인간일 것이다. 만약 누군가 장엄 한라산 문학의 일부를 이뤘다고 한다면 그 문학적 감성의 팔 할은 이 산이 키워낸 것일 것이다. 작가가 한라산을 쓴 것이 아니라 한라산이 문학으로 온 것이므로. 한라산은 그 자체가 이미 문학이다.

또한, 한라의 얼굴은 응시하는 시선에 따라 각각 다르듯이, 이 지역 문인들의 눈에 비친 한라산과 바다를 건너온 문인들에게 비치는 한라산의 모습은 분명 달랐으리라.

과거와 현재의 시공간 속에서 과연 당대의 문장가들은 한라산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오늘의 작가들에게 한라산은 어떤 존재일까. 그리고 무엇을 그리고 있을까.

## 2 옛 글 속의 한라산

옛 한라산의 모습은 왕조시대 형을 살려와야 했던 유배객들이나 제주에 부임했던 목사 등 관직의 이름으로 잠시 기거했던 옛사람들의 글 속에서 수목담채 같은 풍취로 살아난다. 그윽한 문학적 향취와 정경 묘사가 도드라진 그들의 한라산 이야기는 경합하듯 화려하다. 그것은 하나의 기행문학이며 산악 기록문학이라 할 것이다. 아무도 겪지 못한 경험을 풀어 놓고 있는 그 글들은 싱싱한 산의 기운으로 넘쳐난다.

산악문학은 인간정신을 확장시킨다고 누가 그랬던가. 김치, 임제, 김상헌, 이형상, 이원조, 최익현, 이은상... 그들의 한라산 등정기는 빼어난 기행문학의 전형이라 할 만하다. 문장을 한다는 옛사람들이 남긴 한시와 기행산문에서 우리는 또 다른 한라산의 얼굴을 본다.

### 유배인의 눈에 비친 한라산

물 막힌 섬, 제주도는 살아서 죄를 묻는 이들에게 가장 가혹한 공간이었다. 죽임을 당해야 할 자 차마 죽이지 못해 귀양 보내던 곳, 최악의 유배지였다. 이 곳으로 유배를 오는 순간부터 유배인들은 살아서 돌아갈 일을 아득해 하며, 때로 자애로운 한라의 품에 안겨 마음을 수습해야 했다.

절망의 벼랑 위에선 자신을 돌아보며 죽지 않고 살아 있음을, 존재증명처럼 한시나마 견디게 해줬던 그 산은 내면의 해방구였는지 모를 일이다. 세상에 관여했던 현실 정치인이 유배지에서 부르는 ‘은둔자의 노래’에서 울적한 심사를 감지한다.

충암(靚庵) 김정(金淨, 1486~1521). 사림파의 개혁정치가 좌절되던 1519년(중종 14)의 기묘사화로 이미 죽임을 당할 주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훗날 유배왔던 복헌 김춘택이 “학문과 도덕이 유림의 사표였던 사람”이라고 했던 그는 조광조와 함께 투옥되었다. 금산으로 정배되었으나 진도로 옮겨지고, 다시 제주도로 안치되었다. 그에게 한라산은 절대고독의 공간이었다.

“한라산 북쪽에 달이 뜨니 / 바다는 예나 지금이나 근심스럽구나(漢拏山北月 / 溟海古今愁)”(『獨立』 일절)에서 비치는 심사처럼 견낼 수 없는 절해고도, 심해공간은 그를 극도의 절망감과 고독으로 무장하게 했다. 충암은 1년의 제주 유배 중에도 제주도의 동쪽 끝을 노래한 「우도가」 등 여러 편의 시를 지었고, ‘한라산 기우제문’을 지어주기도 했다.

하지만 “대저 오려 해도 오지 못하는 수도 있고, 오지 않으려 해도 면할 수 없는 것이 있으니 이 또한 운명이 미리 정해져 있는 듯하다. 어찌 탄식할 것이냐.”고 하며 체념 반으로 발을 디딘 땅이었다. 울적한 심사여선지 그는 이 섬에서 글 아는 자가 매우 적다거나 운무가 항상 음침하게 가리운다면서 스스로 불운해 했다. 그의 노골적인 편견은 날씨마저 탓하게 했으나 한라산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하였다.

닫힌 공간이 주는 그 막막함 속에서 한 올의 희망을 붙잡고 싶었던 그는 비장한 마음으로 한라산을 올라야 했다. 그 때는 공교롭게도 왕의 명령을 받아 스스로 죽어야 했던 바로 그 해였다. 그의 꿈은 산에 묻어야 했다. 484년 전, 젊은 충암이 발로 쓴 기록은 제주 유배의 산물로 남긴 『제주풍토록(濟州風土錄)』이다.

형벌에 매인 몸이지만 한라산에서는 월출산과 무등산 등 육지의 여러 산도 바라볼 수 있어 옛날 이태백이 이른바 구름은 대붕(大鵬)의 날개처럼 바다를 덮고, 파도는 큰 물고기가 빠져 들

어 가듯이 커다랗게 출렁거린다는 경지를 이 광경을 보고 느낄 수 있을 뿐이네.

심적인 불안감이야 말할 수 있으랴. 그것을 내색 않았던 이 행동하던 지식인은 “사나이로 태어나 이 큰 바다를 가로질러 이국적인 정서를 맛보는 것도 한번쯤은 해볼 만한 일”이라고 애써 위안한다. 이 또한 전생애 정해진 인연이 아닌가 하고 말이다. 그의 한라산 묘사는 촘촘했다.

그리고 이 섬 가운데는 큰 산(한라산)이 솟아 있는데 이 산도 역시 흙이 적은 돌산으로서 금강산과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다네. 지난 옛날 내가 많이 보아 오던 전의(全義)나 청주(淸州) 등지에 있는 것 같은 토산(土山)은 찾아볼 수가 없네. 또한 정상은 가마솥처럼 파인 채 진흙 구덩이로 되어 있어 멧부리가 없는 것이 이 곳 산들의 또 다른 특징이라네. 한라산 정상에 오르면 사방으로 푸른 바다를 볼 수 있는데 남극의 노인성도 여기서 바라볼 수 있다네.

절정에 오른 사람들은 누구나 노인성을 보고 싶어했다. 그 노인성이 어떤 별이더냐. “노인성의 크기는 셋별만 하고, 남극의 중심에 있으니 지상에 나오지 않으므로 만약 이 별을 보게 되면 장수한다는 상스러운 별이지만 한라산과 남악에서만 이 별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충암의 이 노인성 관찰은 후일 수많은 등산객들을 혹하게 하는 지침이 되었다. 노인성을 보면 오래 산다 했는가. 너도 나도 오래 살고 싶은 욕망은 하나였나 보다. 수많은 묵객들이 한라산을 우러러 반짝이는 신령스런 별 하나를 찾느라 애썼다. 그것을 타할 수 없다.

그러나, 충암에게 절실했던 노인성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그 때 그의 나이 불과 서른다섯 살, 학문이 채 이뤄지기도 전이었다. 개혁을 꿈꾸며 정치일선에 나섰던 그는 절명해야 했다.

다음 주목해야 할 이는 북헌(北軒) 김춘택(金春澤, 1670~1717)이다. 그와 제주와의 인연은 예사롭지가 않다. 그는 부친 김진구가 1689년(숙종 15)부터 1694년(숙종 20)까지 제주에서 적거하는 동안 부친을 따라와 체류했다. 그러나 그 자신이 유생 임보 등의 상소로 1707년(숙종 32)에서 1711년(숙종 37)까지 대를 이은 유배자의 신분으로 제주도로 살러오는 비운을 맞는다. 은거지 또한 부친이 적거하던 동천과 산지(山池)였다.

“훗날 누가 나를 기록해 주겠는가.”하고 자문하면서 향토지를 쓴 것을 보면 자신의 존재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당대에 그를 따를 문장가가 없으리란 자존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서포 김만중을 스승이자 작은 할아버지로 두었던 그였기에 더 그러했으리라.

그러나 그는 5년여에 걸친 제주 시절 속에서 한번도 한라산을 오르지 못했다. 그 연유를 알 길이 없다. 허나 그가 남긴 시문 곳곳엔 한라산에 대한 흥미를 빼놓지 않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내 비록 갇혀 있어도 위로가 안 되겠는가 / 가슴 속에 진정 한라산이 있으니”라는 말, 그 이상 무엇이 필요하랴.

“擎山高歷稱瀛蓬(한라산 또한 진정 신선계라네)” 혹은 술에 취해 장난삼아 지은 시 속에서도 “擎山海水長如春(한라산아, 바닷물아, 봄날처럼 영원하라)”이라 읊었다. 또한 가을의 흥취 속에서 그의 심사는 “萬里紫門海上村/擎山愁色對黃昏(만리 떠난 사립문의 바닷가 마을 / 한라산의 수심 띤 빛 황혼이 지네)(김춘택 「秋興其一」 중)으로 함축된다.

유배를 사는 북헌의 심사가 한라산에 짙게 드리워 있다. 그러한 저변이 더 짙게 깔린 한시는 이러하다.

只是人生長有愁

다만 인생은 긴 수심뿐

天時代謝自悠悠      천시가 대신 물리쳐 저절로 유유하네  
 擎山屹與吾相對      한라산 우뚝 솟아 나와 상대하니  
 也復經秋白盡頭      다시 가을 지나면 머리엔 하얀 눈이겠지  
 (雜吟其二 / 김익수 역)

마침내 그는 해배되어 떠날 수 있었다. 살아 돌아가기 어렵다는 섬에서 살아 돌아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격해 하면서 그러한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면서 쓴 시의 구절에서 그는 “仙山の 정상에 묵은 빗 값지 못하고”를 쓴 이유를 “나는 무릇 두 번 제주에 도착했지만 끝내 한 번도 한라산에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제 5구를 말한 것이다.”라 하고 있다.

이익(李瀾, 1559~1624)은 제주에 사는 동안 많은 제자들을 만든 사람이다. 그는 광해군 때 장령(掌令)으로서 상소문에 “태아를 거꾸로 하여”라는 문구 때문에 1618년(광해군 10)에 제주에 유배되어 고흥진, 김진용 등을 가르쳐 학문을 일으켰다. 그는 또 한라산을 통해 얼마나 정신의 고양을 꿈꿨던가.

영주산 꼭대기 바윗돌 위에  
 술 취하고 누웠더니  
 해는 지려 하는구나  
 산이 높으니 노인성도 딸 수 없고  
 바다 건너 멀리 있는 무등산도 찰 것 같네  
 호호탕탕 시원하게 한번 길이 노래하니  
 기운 격앙하여 해천(海天)도 좁아지네  
 어지러운 진세(塵世)에서 살 생각이 전혀 없어  
 차라리 백록 타고 선경에 있고 싶다  
 영주산 제일봉에 우두커니 홀로 서서  
 하늘 보고 바다 보니 아득하여 가이없네  
 성역(聖域)에서 실컷 놀며 앞뒤를 바라보니  
 동산(東山) 올라 노국(魯國) 작다함 이제 바로 믿겠네

“이 산은 그 혜택이 백성과 나라에 미치고 있는 것이니, 지리산이나 금강산처럼 사람의 관광이나 제공하는 산들과 비길 수 있겠는가. 오직 이 산은 유독 바다 한 가운데 있어 청고(淸高)하고 기온도 낮으므로, 뜻 세움이 굳고 근골이 건장한 자가 아니면 결코 오르지 못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 산에 오르는 사람이 또한 수백 년 동안에 관장(官長)된 자 몇 사람에게 불과했을 뿐이다.”

이렇게 한라산에 대한 외경심에 용암처럼 끓어오르는 감정을 누르지 못하고 기록으로라도 후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했던 이는 저 조선조 말의 유림, 면암 최익현(1833~1906)이다. 1873년(고종 10), 대원군의 폭정을 노골적으로 비판한 계유상소로 결국 대원군을 하야시켰지만 부자간을 이간시켰다는 이유로 제주도에서 1년 3개월을 보내게 된 면암. 그러나 그에게는 운이 따랐다. 1875년(고종 12) 2월 방면되고 나서였지만 꿈에도 그리던 한라산에 안길 수 있었던 것이다. 그의 나이 마흔 둘이었다.

제주도에서 최익현은 안으로는 송시열에게 몰두했다. 또한 밖으로는 한라산에 깊이 매료되었다. 그는 후일 “유배 중 가장 큰 소득이야말로 한라산 유람이었노라.”고 친구들에게 자랑했다.

김상헌의 『남사록』에서 얻어낸 정보로 그는 묘시(오전 6시)를 기다리며 남극에 있는 노인성을 보려고 별렀지만, 또 구름이 희롱을 부려 꿈을 이룰 수 없었다.

유장한 필치로 써내려간 「유한라산기」는 구비구비 서린 한라의 설화들을 깨어 새김질하고 있다. 또한 한라산에 오르고 있는 자신에 대한 한없는 자부심이 깃들어 있다. 그 산의 신령스런 기운은 그로 하여금 부처를 보게 한다.

“안개 속에서 우러러 보니 백록담을 에워싸고 있는 석벽이 대나무를 깨어 깎아 세운 성채와 같고, 높은 하늘을 어루만지고 있는데, 기기괴괴 형형색색이다. 이는 석가여래가 장삼을 입은 모습이다.”

그의 한라산 예찬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다시 10리쯤 가서 영실에 이르렀을 때, 그는 오백장군의 형상에 압도당한다.

높은 봉우리와 깊은 골짜기에 우뚝 우뚝한 괴석이 웅위하여 늘어서 있었는데, 도무지 다 부쳐 모습이요, 그 수효가 다못 백천으로 헤아릴 수 없었다. 이곳의 이름을 천불암 혹은 오백장군이 라 하였다.

한라산에 대한 깊은 애정이 느껴진다. 그 마음은 저절로 “허공에 떠 바람을 다스리고 신선이 되어 하늘에 오른다(憑虛御風 羽化登仙).”는 소동파의 「적벽가」를 떠올리게 하며, 어떻게 그 기분이 적벽에만 적합한 말인가 하고 반문하고 있는 것이다. 뿐이라. 주자(朱子)의 시 “낭랑하게 읊조리며 축융봉을 내려온다(朗吟飛下 祝融峯)”고 읊조리며 하산한다. 한라산을 맛본 면암, 그 역시 이미 소동파처럼, 주자처럼 느끼지 못할 까닭이 없었을 것이다.

한말의 대표적 지식인으로 고통스런 격변의 역사를 몸으로 받아들여야했던 명문장가 윤양 김윤식(1835~1922). 그는 을미사변의 연좌로 뒤늦게 종신유형을 받아 제주섬으로 귀양온다. 적객의 신세가 된 그는 제주 유배기간(1897~19010) 중에 쓴 『속음청사』를 통해 ‘역사적인 일기’를 세상에 내놓는다. 그의 한라산행은 수많은 선배 적객들의 글을 숙독하고 떠난, 준비된 길이었다. 그의 눈에는 오름의 풍광마저 순박하게 보였다. 따스한 시선이다. 그 때 느낀 그 자신의 문장은 이렇다.

오직 보이는 것은 하늘과 구름과 한라산뿐이었다. 산 밑까지 걸어서 이십 리, 상상봉까지는 칠십 리가 좋을 걸린다는 한라산은 눈이 허영게 덮인 우람한 자태를 보이고 있어서 한겨울에도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어쩌다 눈이 와도 금방 녹아버리는 이 곳 해변 속세와는 달리 함부로 범접 못할 신령스러운 비경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산세는 조금도 험준하지 않고 완만하고 너그러웠다. 동서로 끝간 데 없이 미미하게 뻗어 내린 산맥 밑으로 마소를 방목하는 목장이 질펀하게 펼쳐져 있어 내려 오는데, 양순한 암소가 엮드린 듯, 경주 고분이 솟아 오른 듯 평퍼짐한 야산들이 띄엄띄엄 평지에 솟아 있었다. 이어진 산맥도 없이 평지에 불룩 솟아 오른 이 야산들을 섬 사람은 산이라 하지 않고 오름이라는 부드러운 말로 부른다는데 이 암전하게 생긴 야산에게는 펍 어울리는 호칭인 듯 싶었다. 산세를 좇아 사람이 난다고 했으니 이 섬 백성들이 다른 변경 지방과 달리 풍속이 순박하다고 일컬어지는 것도 이러한 산세 때문인 듯 싶었다.

## 유람의 공간으로서의 한라산

유배객들과 달리 관직을 부여받고 제주바다를 건너온 이들에게 한라산은 아마 유람의 공간이었을 것이다. 아무리 유배1번지라 한들 잠시 머무르다 귀향할 곳이다. 전근이 아닌가. 도임기간 중 한라산 한 번 오르리라는 자신과의 약속을 하면서 말이다. 그러나 그것은 꿈꾼다고 될 일이 아니다. 날씨가 도와줘야 한다. 때문에 그들은 날씨가 개이면 하늘이 잠시 빌려준 것이라고 생각하며 한라산 유람을 했다.

1604년(선조 37) 제주구황어사(濟州救荒御使) 조성립(趙誠立, 1568~1638)은 제주에 와서 많은 굶주린 사람들을 구했다. 그는 꿈에도 한라산을 그렸던 모양이다. 얼마나 한라산을 품었으면 꿈 속에 한라산이 나타났을까. 그는 꿈 속에서 ‘옛님’이라 부르는 한 여인을 만난다. 그는 그 달콤한 여운이 가시기 전 “아, 이상하도다. 그래서 한 절구를 읊어 산을 구경한 자취를 남긴다.”며 글을 적는다.

부용성(芙蓉城) 속 꽃밭에서 헤어지니  
상전(桑田)이 동해 되도록 몇 번이나 물결이 뒤집혔나  
이번 선녀를 영주(瀛洲)길에서 만나  
등 위엔 선녀의 손톱에 굽힌 자국만 남았네  
(조성립 시)

1609년(광해군 1) 3월, 제주 판관으로 왔다가 1610년 9월 떠난 김치(金緻, 1577~1625). 그는 제주로 발을 들여 놓으면서부터 한라산을 만만하게 보았다. 다행이었다. 오르고자 하여도 함부로 제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한라산. 그를 한라산이 불렀다. “이미 탐라의 바다를 건너왔는데도 한라산을 보지 않는다면 이는 일부러 보지 않으려고 의도하는 거나 다름없다.”던 그였다. 살아서 한라산을 한번 오르고자 했던 자신의 뜻을 펼 수 있었던 삼십대의 그는『등한라산기(登漢拏山紀)』를 남겼다. 400여 년 전의 문장이다.

한라산을 멀리서 보았는지 “그리 심하게 높지 않고 큰 산과 거대한 기슭이 가로로 한 면을 누르고 있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속으로 “세상에서 이른바 영주(瀛洲)라는 것이 곧 이 산이다. 신선 사는 세 개의 산 가운데 하나인데, 어찌 이름과 실체가 서로 부합되지 않을까? 아니면, 사람 마음이 귀로 듣는 것만 귀하게 여기고 눈으로 보는 것을 천하게 여기는 것일까? 어찌 가서 탐험하고 따져 의혹을 깨뜨리지 않겠는가?”라고 하였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4월 8일, 드디어 열정적으로 산에 오르던 김치는 철쭉과 진달래가 바위 사이에서 빛을 내며 피어 있는 것을 보고 흡사‘그림 속에 있는 것 같은’착각에 빠져 들게 된다. 그의 순발력은“녹음 아래에서 청량한 바람이 삼삼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혼골(魂骨, 영혼과 뼈마디) 모두가 상쾌함을 갑자기 깨닫게 하였다.”는 말로 튀어나온다.

결국 한라산 정상에 선 김치. 그 때 그는 한라산에 선 자신의 존재가 우주로까지 확산됨을 느낀 모양이다. “참으로 신선의 골격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면 어찌 능히 이러한 유람을 갖추겠습니까?” 하는 수정(修淨)스님의 헌사까지 받았다. “홀췌 세상을 버리고 홀로 서서, 몸에 날개가 돌아 신선이 되어 오르는 듯한 기분은, 말이나 글로 가히 그려낼 수 없다. 지난날 마음 속에 의혹이 있었던 것도 말끔히 풀리고 비로소 그 실상이 있으므로 반드시 이름이 있음을 믿게 되었다.”고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는다.

옛 풍류객들이 그러했을까. 말 타고 혹은 내려서 걸으면서 하산하던 김치는 그윽한 숲향이 나

는 계곡에서 발을 멈춘다. 다시 이고 온 술동을 다 비워내고 달빛을 타고 내려왔다니! 이날의 감흥이 가시기 전 그는 여러 편의 시를 남겼다. 그 가운데『백록담』시 전문은 이렇다.

돌칼들이 하늘을 받친 듯 험한 길 자욱  
넝쿨 휘어잡고 곧바로 오르니 해는 지려네  
하늘 위로 부는 바람 산들거려 신발 끝에 향내음  
산 안개 흩날려 밤이면 푸른 물방울  
흰 학의 등지 곁엔 늙은 주목나무들  
검은 솔개 머문 곳에 구름 스쳐 날아가네  
머리를 돌리니 약수가 삼천리나 펼쳐  
굽어보느라니 어느 날에 돌아간다 기약하라  
(번역 김봉옥)

김치에 이어 등반한 이는 당시 그림으로 그린 제주지도 『탐라순력도』를 기획했던 이형상 목사(1653~1733)이다. 그가 한라산에 오른 것은 1702년(숙종28) 3월이었다.

하산길. 이형상은 큰 화탈섬, 작은 화탈섬에 펼쳐지는 신비한 광경을 목격한다. 누군들 항홀경 앞에서는 할 말을 잃게되는 법. 온갖 어휘를 동원하여도 미흡할 뿐이다. 다만 자신이 한없이 작은 존재로 여겨질 일이다.

북쪽 바다 일면은 자수를 놓은 병풍과도 같았다. 떨어지는 노을이 쇠잔한 햇살이 물안개에 가리어 반짝이다 사라졌다. 형형색색이 움직일 때마다 가히 탄성을 보낼 만하였다. 생각하건대, 하늘이 나의 도량이 좁음을 가련히 여기고 내 마음 씀이 소루함을 민망히 여기어서, 이를 큰 바다로써 넓히고 이를 섬세히 새기어 치장함으로써, 나로 하여금 그 변환이 한결같지 않음을 깨우치게 하려는 것일지니, 오늘의 나들이에서는 얻는 바가 이미 많았다.

허나 이렇듯 외지인 관리들을 수행하던 탐라백성들의 노역을 그들은 보았을까. 모를 일이다. 1578년(선조 11) 임제(1548~1587)는 제주 목사로 있던 부친 임진(林晉)을 만나러 제주에 왔다가 한라산을 등반하게 된다. 그는 제주에서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해 『남명소승』이라 했다. 훗날 많은 문장가들이 이 한라산 선배의 글을 참조해 대부분 옮겨놓는다. 그것이 기록의 힘이다. 그리고 그 문장을 뛰어 넘을 수 없음을 많이 통탄해 했다.

문장가 중의 문장가 임제. 그는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갈 즈음 산의 풍운조화가 심한 시기에 드디어 산행을 도모한다. 허나, 한라산 백록담에 이르는 길은 쉽지 않다. 농부가 아무리 부지런해도 반은 하늘이 농사를 짓는다 했듯, 한라산으로 오르는 길 역시 날씨가 절반은 허락해야 했다.

임제도 결국 오르다 중간에서 좌절을 맛봐야 했다. “구름이 짙어 정상에 오르지 못하고 혼자 암에 머물렀다. 지난번 제주성 안에 있을 때, 멀리 한라산을 바라보면 산허리에 흰 구름이 항상 감겨 있었다. 지금 깨달으니, 나도 흰 구름 밖에 있는 것이다.”라고 느낀다. 그러한 산의 날씨 덕에 그는 또 하나의 깨달음을 얻었다. 산의 기운이 하늘만 우러르던 그를 가격한 것이다. 그는 순간 겸허해야 옳았다.

그의 「백운명편(白雲名篇)」을 보자.



백운의 흰 색깔은 비교할 게 없고 백운의 높은 것도 헤아릴 수 없다네. 하계에서는 오직 백운이 높게 보이지만 백운 위에 사람이 있음을 알지 못한다네. 백운 위에 사람은 어찌 스스로 알라? 머리 들어 하늘 문을 바라보니 만 길일세. 활달한 가슴 속에 불평사가 있다면 하늘 문을 두들겨 온통 씻어 내려 버리게나.

또한 산정에서 진정 백록을 본 이가 있던가. 백록을 탄 노인을 본 적이 있었던가. 물론, 전설은 그러했다고 한다. 허나 그 또한 들어서 회자되는 것으로 그쳐야 했다. 임제의 호기심은 노인성에서 머무르지 않는다. 그렇다면, 백록은 어떤가. 그는 그것의 무리를 찾는다.

신선의 산은 만 길이나 높아서 그 모습이 푸르고 깊은 바다에까지 이르네. 그 가운데 학 머리 새(鶴髮)노인이 있어서 노을을 먹으며 흰 사슴을 타고 다닌다네. 길게 두 세 번 휘파람 불자 바다에 뜬 달은 천 개의 봉우리를 비춰주네.

마침내 한라의 절정, 백록담에 도착한 순간이다. 임제는 예리하게 주변 풍경을 기록했다. 그의 시흥이 꿈틀거린다. “구덩이같이 함몰되었고, 돌 사닥다리로 주위를 둘러 싸서 둘레가 7~8리 가량 되었다. 돌 사닥다리에 기대어 아래를 굽어보니, 물은 유리와 같고 깊이는 측량할 수가 없었다. 못 가에는 하얀 모래와 향내 나는 줄기들이 있었다. 티끌 기운이 한 올도 없었다.” 아마 그는 꿀처럼 달디단 그 산의 향기에 취해 중도 하산은 생각도 못했을 것이다. 임제의 미려한 「등한라산기」는 여기서 계속된다.

속세의 풍광은 멀리 삼천리 밖에 떨어져 있었다. 난새 통소 소리를 듣는 듯하고 지초의 수레를 보는 듯하다. 그 굽어 둥그렇게 된 모습과 돌이 쌓인 모양은 마치 무등산(無等山)과 같지만, 높이와 크기는 배나 된다. 세상 사람들이 전하기를 무등산과 한라산을 형제로 삼았다고 하는데 반드시 이 때문일 것이다. 물에 담그면 뜨니 또한 이상한 일이다. 눈으로 보이는 한계를 말한다면, 해와 달이 두루 비치는 곳과 배와 차가 미치지 못하는 데에까지 모두 바라볼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의 시력에 한계가 있어 하늘과 물 사이에 있을 뿐이니 한스럽다. 모든 사람이 말하기를 ‘사람들이 이 곳에 놀러오면 연일 소나기 비가 내리는데 오늘과 같이 맑게 개인 날은 있지 않았습시다.’라고 하였다.

그 날 임제가 취했던 그 만향은 다 어디로 갔을까. 지금도 그 향취는 남아 있을까.

청음 김상헌(1570~1652). 1601년(선조 34) 어명을 받고 제주 뱃길을 탄 그는 험한 제주 해로를 온몸으로 겪어야 했다. 그러면서 그는 뱃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도 놓치지 않고 기록하는 순발력을 발휘했다. 그해 9월, 제주에 들어와 4개월간 살았던 그는 한라산신제를 지내기 위해 등정한다. 금강산과 묘향산이 있다 하나 한라산의 수려함을 독점하지 못한다고 했다.

한라산신제를 올리기 위해 등산한 그는 「등한라산기」를 남겼다. 그의 스승이 되어준 길라잡이는 물론 임제의 『남명소승』. 그는 제문 속에서 한라산 신령께 엮드려 절을 하면서 이렇게 읊는다. “산은 높고 둥글게 바다 가운데 있어, 아래로는 수부(水府)에 도사리고 위로는 운공(雲空)에 닿아, 백령(百靈)이 계시며 모든 산악의 으뜸입니다. 탐라의 진산(鎭山 : 나라 지키는 산)이 되고 땅은 남유(南維)의 끝이 됩니다.”

청음도 시를 남긴다. 그의 장시 「장관편(壯觀篇)」은 이렇게 시작된다.

한라산이 어찌하여 이다지도 웅장한가 / 천년 긴 세월에 남쪽 땅을 지켰네 / 두터운 뿌리는 거오(巨鰲)를 누르고 / 높다란 봉우리는 주작성(朱雀星)을 만지네 / 나라 안 여기 저기 명산 있으니 / 누가 중(仲)과 백(伯)을 삼으려 하느냐 / 남쪽에는 두류산이 있고 / 북쪽에는 장백산이 있다네 / 금강산과 묘향산이 이름이 높지마는 / 기이하고 수려함을 감히 독점 못하리….

청음의 『남사록』은 뱃길에서도 한라산이 나침반이었음을 알려준다. “지금 사세(事勢)는 자유로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것이 한라산인데 만약 하늘이 조금 흐리면 볼 수 없는데 지금 마침 날이 청명하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라는 사공들의 말도 들린다. 한라산에 올라 시인 아닌 이 있으랴. 한라산이 시인을 만들었다. 한라산이 써주는 시를 그대로 옮겨놓기만 해도 시가 되었다. 당대의 글발들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산문을 쏟아내었다. 거기엔 한라산의 지리적 위치와 모양, 관련된 역사문화유산, 유람시의 흥취 등이 유려하다. 일기 형태로 쓴 것들도 보인다.

헨드릭 하멜 일행이 제주에 표착하던 해인 1651년(효종 2) 58세의 나이로 제주목사로 왔던 이원진(李元鎭, 1594~1665)은 자신보다 앞서 다녀간 선배들의 한라산 시를 읽고 그것을 엮어낼 것을 기획한다. 그러한 결과물이 『탐라지』이다.

그는 여기에 이수와의 함께 등반하고 지은 시를 남겼다.

한라산 높은 봉우리가 망향대가 되었으니 천하의 등고(登高)놀이 유독히 장하도다. 오교의 새벽빛은 자라가 이어내고 이호의 가을 빛은 기러기가 끌고 오네. 옷깃을 나누면 삼년별이 되겠는데 관모가 떨어지니 구일배를 사양마세. 이 저녁의 흥겨운 놀이 응당 잊지 못하리니 다른 때 혼몽이 얼마나 많이 돌아오리.

(「동이수의등고(同李繡衣登高)」)

또한 조선 중기의 어사 이경억(李慶億)은 영실에서 비를 만나 지은 시 「靈室優遇」에서 “신선의 땅 둘러보고 심취했는데 / 온 숲의 안개비 부슬부슬 내리네 / 산신이 나를 끌어다 놀려 하지만 / 도롱이를 좋은 내 옷에 덮지마.”라고 영실의 감격을 노래한다.

때는 1487년 정월. 제주 삼읍 추쇄경차관의 명을 받고 풍랑을 피해 순풍을 기다리던 최부(崔籒, 1454~1504)는 마침 제주에 새로 부임하는 목사 허희와 함께 배를 타고 제주로 온다. 그러나 부친상을 당해 다시 배에 오른 지 5리를 지나 폭풍을 만났다. “한라산의 기후가 흐렸다, 비오다 고르지 못하면 틀림없이 폭풍으로 변하는 수가 많으니 도해하는 일은 몹시 위험한 일”이라는 경고를 들으면서 배를 탔던 그는 망망대해에서 표류하게 된다. 이 때부터 두 달 남짓 표류하는 운명에 놓이게 된 그는 중국을 거쳐 조선에 도착하면서 온갖 사투를 벌였지만 저 유명한 『표해록』을 남긴다. 그의 『표해록』은 가히 바다문학의 원조격이다. 문학은 체험이라 했던가. 체험을 능가하는 문학이 나오기란 어렵다.

“맑은 날 한라산 절정에 올라 서남쪽을 바라보면 천리 밖에 한 줄기 흰 모래와 같은 것이 있으니 곧 백해(白海)이다. 나의 본 바로서는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은세계를 이루어 어디가 백해가 되는지 알지 못하였다.”는 구절도 거기에 나온다.

금남 최부는 제주에 있으면서 제주를 소재로 한 「耽羅詩」 35절을 남긴다. 그 35절은 한 소절 한 소절이 모여 서사시를 이룬다. 한라산의 기후를 보고 그날의 상황을 알 수 있었던 때였다.

“한라산 정상의 신령한 백록담은 가물에 마르지 않고 비 내려도 불지 않도다. 천둥벼락 안개 구름 삼시간에 생기니 노는 사람들 누가 감히 신의 위력을 무시하라.”

(최부, 「耽羅詩」 중 / 김봉옥역)

1694년(숙종 20) 제주에 도임하고 1696년에 떠난 『지영록』의 저자 이익태 목사(1633~1704). 그의 시는 신비로움과 유람의 공간으로서의 한라산을 잘 묘사하고 있다. 아마도 그는 좋은 날 산을 올랐을 것이며, 그에게 보여준 한라산은 선계였을 것이다. 그는 그 곳의 신선을 찾아 갔다지 않는가. 그리고 ‘평생에 으뜸가는 상쾌한 관광’이었으니 그 유람의 시 또한 가볍게 다가온다.

秋日辱眞路	丹崖琪樹間
天低白鹿岳	雲鎖赤松間
環海疑無地	救仙喜有山
平生壯觀最	此遊豈等閒

가을 날 신선을 찾아 나선 길은  
아름다운 나무 사이 낭떠러지  
하늘에 머리 숙인 백록담의 산에  
잠긴 구름을 적송자가 가리웠네  
바다에 둘러 있어 없는 듯한 땅  
신선을 찾는 기쁨이 있는 산일세  
평생에 으뜸가는 상쾌한 관광이니  
이번 유람을 어찌 한가롭다 하지 않겠는가  
(이익태, 「한라산」 / 오문복 역)

“일찍이 등산하는 것이 도를 배우는 것과 같다.”고 했던 사람은 「유한라산기(遊漢拏山記)」를 쓴 이원조(李源祚, 1792~1871)였다. 1841년 7월 제주목사로 부임할 때부터 그는 굳게 산행을 도모하였다. “이미 탐라 바다를 건너 와서 한라산을 보지 못하면, 이는 스스로 보지 않으려고 의도한 것”이라며 작정하고 등정을 벌렸다. 부임 5개월 후에 한라산과 조우할 수 있었던 그는 이 기행문을 적고 나서 함께 노닐던 사람들에게 선보이는 여유까지 보여주었다.

내려오는 길. 열정적인 이 문장은 은근히 높은 성찰이 아니고서는 나오기 힘든 글이다. 빼어난 통찰력으로 한라산을 상상력의 공간으로 끌어들인 그의 글은 물밀 듯이 엄습하는 절대 고독 앞에 선 자의 기상으로 빛난다. 내면 풍경마저 포개진 그의 심상을 아래 적는다.

“착한 것을 좇는 것은 산에 오르는 듯하고, 악한 것을 좇음은 산이 무너지는 것과 같소. 착함을 버리고서 악함에 나아가는 것은 그 어려움이 또한 이 같지 않으리오? 이미 다 높은 곳에 도달하였으므로, 밑으로 내려가게 됨이 형세라고 하더라도, 이미 익혀 익숙한 것을 버리고서 새롭고 기이한 것을 좇아 나아가며, 신선과 부처에게서 도를 찾고, 패설에서 문채로움을 삼는 것은, 모두 마음과 힘을 굽어 사용하는 것이라오. 여러분들은 오늘의 유람으로써 경계를 삼으시구려!”라고 하였다.

대정현의 경계에 이르면 이원조는 서남쪽의 큰 바다를 바라다 보았다. 산에서 떠 있는 섬을 바라본다는 것은 놀라운 경험이다. 누군들 그 자리에 서 보라. 섬에서 섬을 보는 것과 같다. 그는 여기서 더 나아간다. 멀리서 보이는 제주의 섬들, 그 섬들에 눈을 맞기지 않을 수 있었

을까. 그는 이렇게 적었다.

가파섬, 송악산, 마라섬, 지귀섬과 같은 여러 섬들이 큰 바다에 떠 있다가 숨어버리는 광경은 자못 기이하였다. 깎아지른 절벽에는 향나무들로 덮여 있었다. 굽은 아름드리 밑동 줄기들이 한쪽으로 쏠리어 굽어져 있었다. 위는 말라 있었고 아래로는 푸른 색깔이었다. 겨울과 봄에 눈에 짓눌리어서 생기가 퍼져 있지 않았다. 그 사이로 철쭉들이 많았다.

목사 이약동(1416~1493). 그는 1470년(성종 1) 제주목사로 바다를 건너온다. 철저하게 부정 부패를 단속하고 공물의 수량을 감하게 해 백성의 부담을 덜어주는 등 선정을 베풀어 칭송을 받았던 인물이다. 임기를 마치고 떠날 때 채찍질 할 때 쓰는 회초리 한 자루를 가지고 가다가 “이것 역시 섬의 물건”이라며 관루에 걸어두고 나갔다는 예화가 전해진다.

曾聞海上岳無頭	州枕青山海帶州
香透疎簾知近橘	風生虛閣覺今秋
伊誰不肯當時樂	却恐多添異日愁
細柳甘裳無箇事	傍人錯道武陵侯

듣건대 바다 위에 머리 없는 산 있단 말  
푸른 산 베개 삼고 바다로 떠 두른 고을  
성긴 발로 향기 베어 굴밭이 가까이 있음을 알겠고  
비인 누각에 바람 스치는 지금은 가을이로세  
누군들 이 때 향락을 즐겨하지 않으리  
훗날 근심이 겹쳐질 것을 두려워하네  
세류영과 감당에서 같이 백성을 생각지도 못했는데  
주위의 사람들을 잘못 알고 무릉후라 이르네  
(이약동, 「홍화각」)

시적 상상력이 넘치는 한시이다. 두무악(頭無岳)은 머리가 없는 산이란 뜻의 한라산을 이른다. ‘푸른 산을 베개 삼고 바다로 떠 두른 고을’이라니!

한라산에 마애명을 남긴 정헌 조정철(靜軒 趙貞喆, 1751~1831)은 제주를 쉽게 잊지 못할 사람이다. 그는 두 번이나 제주에 살려왔다. 한 번은 1771년(정조 1) 홍국영의 세도와 강릉휘 등이 정조를 살해하려고 한 사건에 연루되어 그 해 제주에 유배되었다. 부친상을 당해 상복을 입은 몸으로 유배되었던 그는 유배사상 가장 긴 33년간을 살았던 사람이다.

그 중 28년간이나 제주도에서 절도 유배의 한을 남긴 사대부이다. 그는 제주 유배 때 제주여인 홍윤애와 애뜻한 사랑을 나눈 비련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당시 홍윤애는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이후여서 조정철은 그녀를 위한 시를 짓고 한라산 기슭에 버려졌던 묘를 좋은 곳(옛 전 농로)으로 이장했다고 한다. 현재는 그 자손들이 묘를 유수암리 쪽으로 다시 옮겼다.

魯聖乘 <sub>2</sub> 意	秦皇採藥愁
那會窺是海	猶未倒斯洲
猿謫僊椽重	相看俗事休

君恩隨處大 且莫恨長流

공자는 뗏목타고 바다에 뜨고  
시황은 약초 캐러 동남동녀 보냈네.  
일찍이 이 동해를 지향했건만  
제주엔 그 자취 이르지 않았어라.  
귀양왔으니 신선의 연분 두터웠고  
한라산 마주보니 세속이 사라지네.  
성은이 가는 곳마다 거룩했으니  
멀리 유배됨을 어이 한할손가.  
(조정철, 「한라산」 / 양순필 역)

이 불모의 땅에 갇힌 유배자는 자탄과 함께 임금에게 버림을 받고도 성은에 망극해 하는 심사를 담은 5언율시 「漢拏山」을 썼다. 유배를 당하고도 충정을 잃지 않는 유배인의 마음이 담겨 있다. 삶의 대부분을 격리된 자로 살았던 정헌. 그러나 또 한 번의 제주 인연이 30여 년이 지나서 온다. 1811년(순조11) 제주목사로 부임받아 온 것이다.

七八年來萬里遊 蓬萊餘債又瀛洲  
男兒眼力方無地 仙吏笙歌更有樓  
濔泊寒輝山吐月 依微暝火海通舟  
滄桑欲向麻姑問 不盡燐霞處處浮

칠팔년 동안 만리 밖에 와서 노니니  
봉래산에 빛을 졌는데 또 영주에도  
대장부의 눈으로는 바라볼 곳이 없는데  
신선 같은 관리는 피리 불고 노래할 다락이 있구나  
담박하고 싸늘한 빛은 산이 토해내는 달  
희미하고 어두운 불은 바다를 가고 오는 배  
마고선녀에게 상전벽해에 대해서 묻고 싶는데  
곳곳에 끝이 없이 연하가 떠있으니  
(조정철, 「漢拏山」)

다시 온 제주, 靜軒은 망경루에 올라 한라산을 올려다 본다. ‘담박하고 싸늘한 빛’은 바로 한라산이 ‘토해내는 달’이 아닌가. 조선시대 도포자락 휘날리며 한라산을 올려다보는 관리들의 모습 위로 가난한 탐라의 백성들이 어른거린다.

## 신광수와 한라산

제주에서 금부도사 벼슬을 하고 있던 석북(石北) 신광수(申光洙, 1712~1775). 그의 제주행 바닷길은 험난했다. 폭풍 만나 제주에 흑독한 신고식을 치른다. 그는 이미 제주에 닿기 전 멀

리서 한라산을 바라보며 제주도의 첫 인상을 이렇게 적어 놓았다.

淸淸天水有無間，使者孤舟向百蠻  
一片白雲南極外，崑工道是漢擎山

하늘과 물이 모두 푸르기만 해서  
있는 듯, 없는 듯  
사자가 탄 외로운 배는  
멀리 떨어진 섬을 찾아 왔네.  
한 조각 흰 구름이  
남녘 끝에 걸려 있으니,  
사공이 가리키며  
저게 한라산이라 말하네.  
(신광수, 「至半洋望漢擎山」 / 신석초 역)

무사히 탐라에 도착한 뒤 신광수는 40여 일 동안 관에 머물며 시를 짓기도 했다. 그의 『탐라록』은 제주도의 풍속과 민중의 삶을 읽는 당대의 코드와 같다.

신광수가 그를 찾아 온 조선의 전업화가 최북(崔北, 1712~1786)과 실학의 대가 이익의 제자였던 박수희(朴壽禧)와 함께 1765년(영조 41) 함께 한라산을 등정한 것은 그의 나이 신세 살 때의 일이다. 강세황과 나란히 당대의 대가로 손꼽혔던 최북은 한 쪽 눈을 제 손으로 찢어버린 비운의 화가로, 스스로 한 쪽 귀를 잘라버린 반고흐와 비견된다.

이익의 당부대로 신광수와 박수희는 백성들이 굶주리는데 머리에 조그만 지식이 들었다고 함부로 대하지 말며, 식사는 가난한 백성들이 먹는 잡곡밥을 두 끼 이상 먹지 못하도록 교육시켰고, 그렇게 실천하고 있었다.

신광수는 이미 당대의 참여시인이었다. 외부자의 시선임을 느끼게 하는 작품들이지만, 누렇게 부황든 아낙네들이 나무껍질을 벗기는 생활이 묘사된다. 신광수의 가체시 「한라산가」는 명시로 꼽힌다. 그러나 그는 한라산을 오르고 쓴 것이 아니다. 한라를 눈 앞에 두고도 풍우가 심하게 몰아쳐 올라가 보지 못하고 다만 바라다보면서 쓴 시로 전한다.

“자네 한라산 영기가 언뜰먼뜰 남녘바다에 버티어 서 있는 걸 보지 않았는가. 옛적에 영주라 일컬은 것은 바로 이 땅이라.(…)” 한라산에 오를 일만 생각해도 가슴이 설레던 석북은 그러나 지척에서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중간에서 마음을 접어야 했다. 그 아쉬움이 얼마나 컸겠는가. 그래설까. 그의 시는 반은 자조적이다.

허허, 내가 속인이라 신선이 못되어 이러구려 꿈은 허사가 될 지로다. 선산이 지척이건만 오히려 올라보지 못하거늘 하물며 봉래방장이 아득하여 알 수 없는 일이로다. 풍파는 잇달아 솟구치고 거어(巨漁)는 뒤척인다. 아서라, 차라리 고기잡이배 던지시 저어 강호(江湖)로 돌아가리  
(신광수, 「한라산가」 중 / 신석초 역)

그 때 최북이 설산의 신비로움을 그린 그림 「설산조치도」를 그려 신광수에게 준 것으로 전해진다. 석북과 최북의 따스한 우정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산이 세 고을에 솟아 하늘 속에 꽃혔는데 / 옥황상제가 항상 숨쉬는 소리 들리는 듯 하이”

(「한라산」 중) 라고 하면서 한라산에 대한 예찬을 아끼지 않았다. 훗날 그가 제주를 떠날 때 그동안 받은 봉록(봉급)을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백성들에게 돌려주었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 제주 유림들의 한시 속에 나타난 한라산

19세기 초에서 20세기 초 사이를 살았던 제주의 유림들은 어떻게 한라산을 바라봤을까.

고려 유신으로 조선 건국에 불복해 제주에 들어와 살았던 김만희(金萬希). 그는 한라산을 백이 속제가 불사이군의 절개를 지켜 숨어 살던 서산에 비유하면서 자신도 그와 같은 마음임을 밝힌 시를 지었다. 다음은 오문복이 편역한 『영주풍아』에 소개된 그의 시이다. 한라산에 그의 심상이 투영된 작품이다.

漢山何似古西山 孤竹清風遠莫攀  
海變桑田人已矣 出門欲往小瀛壖

한라산이 어떻게 옛 서산과 같으리  
고죽국 맑은 바람 만질 수 없이 아득함이어  
세상이 뒤바뀐 일 사람들아 말하지 말게  
문 밖을 나서서 작은 영주에라도 가보려 하네  
(金萬希, 「한라산」)

제주 선비들의 눈에도 한라산은 함부로 범접 못할 경외의 존재였던 모양이다.

텅 비인 감실엔 산달만 있고 / 구름 걷힌 골짜기 하늘이 열려 / 스님은 떠나고 불상만 남아  
/ 사람도 없이 들리는 경쇠소리.  
(소림 진사 오태직, 「영실의 맑은 새벽」)

『탐라록』을 보면 이원조가 당시 목사로 왔다가 소림의 시에 화답한 시가 여러 수 있다. 운치 있는 시풍이 느껴진다.

대정향교 유림을 맡았던 조선조(순조)의 강사공(姜師孔)은 “축 나라 길이 험악하여 참성이 잡힐 듯하고 / 여산은 북두성에 닿았다 / 아득히 높이 솟아 / 높이가 얼마나 될까 / 바라볼 만하고 올라봄 직하니 / 한(漢)이라는 한 글자로 이름함이 마땅하다 / 산 다웁고 높기 때문에 / 그렇게 부르는 것이다.”하였다.

‘한라’는 손으로 은하를 잡는다 했던가. 한라산이 얼마나 생각보다 높았으면 이렇게 비쳤을까. 멀리서 볼 때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손에 잡힐 듯하지만 직접 대면하려면 이 산이 참으로 만만치 않다는 것을 느끼게 하기 때문이다.

한라(漢拏)라고 한 것이 그럴 듯하지 않은가 / 맑은 은하수가 스스로 가까워서 / 한라산과 그 사이는 한치도 못 되어서 / 직녀가 머리를 감고/앉아서 쪽 지을 수 있을 듯한 것은 / 저 은하수가 낮게 있는 게 아니라 / 이 산이 높기 때문이라네.

(강사공의 「한라산부(漢拏山賦)」 / 오문복 역)

### 3 제주작가들의 심상공간으로서의 한라산

#### 마음의 고향 혹은 정신의 상징

수많은 시인과 소설가들에게 한라산은 배경이었고, 창작의 원류였으며, 심상의 공간이었다. 그 작품들을 일일이 열거하는 일은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섬 전체가 한라산이란 이름 아래선. 따라서 여기에 인용할 작품들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더구나 한라산 자락에 사는 제주의 시인치고, 한라산을 올랐던 시인들치고 그 산이 왜 시로 다가오지 않았겠는가.

일제강점기였던 1930년대 후반, 이 지역 출신 소설가 이시형(1918~1950)이 그린 「이여도」. 지금은 사라져버린 서부두 방파제에서는 한라산의 다양한 변주를 잘 느낄 수 있다. 이 곳에서 한라산과 제주의 봄을 그린 대목이 나온다. “한라산 정상에는 아직 잔설이 남아 있었으나 보리밭 위를 스쳐 오는 따스한 바람은 사람들의 마음을 풀리게 하였다.” 한라산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푼다는 것은 한라가 바로 정신의 상징이라는 것이다.

한라산이 제주도이고 제주도가 한라산이라는 그 진부한 표현도 제주 시인들은 굳이 감추지 않는다. 제주에서는 정말 그렇다.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 살아가는 일로 하여 / 가슴 쓰릴 때 / 濟州여 / 하루에도 몇 번이고 / 지척에 두고서도 / 山이 그림고 / 바다가 그리워 / 산이여 바다여 라고 부르면 / 제주에서는 그것이 그냥 한라산이 되고 / 제주바다가 되므로

(강통원, 「제주도 3」)

1950년대 『한라산』에서 양중해는 한라의 가슴을 떠나지 못하는 토종 새와 짐승들에서 한라산을 떠나지 않고 사는 자신을 본다.

…오늘은 / 태연스럽게 / 흰 구름의 옷자락을 나부끼시며 / 연파(煙波) 아롱지는 / 수평선에 / 부풀은 사모를 더듬으시는 / 탐라 성주(星主)님… 한라산의 숲 속에는 / 제주도 토종의 새와 짐승들만이 살고 있다. / 아름다운 목소리로 / 비 비 비 짹 짹 짹 / 호이 호이 호 호르륵 / 귀 익은 제주도 사투리로 노래 부르는 새들, / 목덜미 고운 장끼 / 숲 속으로 숨어 버리는 아기 노루 / 몇 백년 동안 / 몇 천년 동안 / 수평선 한 번 넘어보지 못하고 / 제주도 사람이 살아온 눈물과 한숨과 함께 / 대대로 섬을 지켜 온 / 제주도 토종의 새와 짐승들이 나를 반긴다.

(「한라별곡」 중)

한라산은 신생대에 두 차례에 걸친 화산의 장엄 분출을 기록했다. 제주도의 생명 있는 것들은 한라산이 낳고 바다가 지켜줬다. 일본에서 살다온 사람들의 눈에 한라산은 일본의 후지산과 닮았다고 한다. 허나 한라산에는 대륙적 풍모가 있음을 꿰차기도 한다.

사람이 곁에 있어도 그림다 했는가. 한라에 한 번 오른 이들은 다시 그 곳에 가지 못해 안달을 한다. 이 땅의 사람들이 한라에 대한 사랑은 진정성, 그것이다. 때문에 “못견디게 사랑하기에 / 저만치 멀리두고 / 바라보며 바라보며 / 다시 바라보며”(김순이, 「한라산 4」) 산의 이름을 부른다. 그 곳에 가면 과연 무엇이 있어설까. 시인은 안다. 그 곳에 가면 안다. “그 곳에 가면 / 삶에는 불평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 높고 큰 명성이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 알게 됩니다 / 부귀와 가난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 알게됩니다 / 사랑과 미움이 덧없음을 알게 됩니다 / 이 세상의 시간 저쪽에 / 우주의 시간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한라산 5」). 반드시 산은 올라야만 맞인가. 오르지 않아도 맛이있는 산, 한라산이다.

길이 흐를수록 / 환해 오는 네 생각 / 눈 내리는 길목에선 / 굽어 있던 나목들이 / 산굽이 / 넘어와 보니 / 땀발자국 같은 것들.  
(오승철, 「한라산 제2횡단도로 나목들」 전문)

문충성이 노래한 한라산은 원초적인 그리움의 본령이다.

항상 먼 별빛 그리움에 이마 높푸르다 / 술한 폭풍우 가슴에 재우고 / 잠들지 못하는 눈꺼풀도 차곡차곡 / 쌓아 놓자니 만상이 내게도 이르는구나 / 이제 나는 충분히 자유롭다 / 별을 헤아려 노래 부르게 하고 새들을 날려 하늘 깊숙이 되돌아 오게 하는 법을 안다.  
(문충성, 「한라산」)

그렇게 가다 보면 한라산 윗세오름에서 허리띠 푸는 한라산신도 만난다.

윗세오름 파란 시로미 까맣게 익는 날 / 허기진 산비둘기 한 바퀴 돌고 가면 / 역겹의 한라신령님도 허리띠를 푸나니.  
(오영호, 「한라산을 오르며」 중)

한라산은 벗어날 수 없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마음의 지표이다.

## 한라산 절경을 노래함

### 백록담과 영실 그리고 선작지왓

한라산의 절정은 백록담이다. 백록담은 길을 잃은 자들에게 길을 제시하는 열린 공간이었다. 산의 기운이 허파로, 피부 속까지 스며들어 깊은 숨을 쉬게 한다. 살아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황홀해지는, 그런 순간을 맛보게 하는 곳이다.

백록담은 신의 공간이자 초월의 공간이다. 백록담은 꿈을 잃은 자들의 이상향이였다. 백록담에서는 신을 불러도 좋았다. 김종원은 「백록담」에서 그러한 꿈을 노래했다.

입이 없어 할 말을 잊은 건 아니여라. / 차라리 병어리가 되고 싶은 남해의 고아여라. / 고삐 풀린 구름 식솔 거느리고 / 멀리 대륙을 부르는 / 당신은 바로 하늘일 수도 땅일 수도 없는 / 천형의 기다림이어라.

(김종원, 「백록담」 부분)

한라산으로 가는 길. 영실코스는 곳곳에 문학적인 감성이 잠복해 있다. 그 곳의 숨막히게 아름다운 절경과 대비되어 때때로 나란 존재 혹은 인간의 삶은 더없이 참혹한 것이 되고 만다. 영실은 그 자체가 하나의 영감이다. 그래서 시인은 돌그림자를 지켜보러 영실에 오는가.

아직도 / 사람이 돌이 되었다는 것을 아니 믿느냐 / 산 아래를 내려다 보며 / 나는 왜 꿈썩도 않는가 / 나는 결국 돌이 아니다 / 돌이 아니면서 / 일요일이면 영실로 와서 / 샘물을 마시며 / 물 속의 돌그림자나 지켜보다가 / 그냥 앉아 있다가 / 네 시경이면 / 산을 내려 간다.

(한기팔, 「영실에 와서·2」)

영실의 아름다움은 붉은 소나무숲의 초입에서부터 시작된다. 그 길로 오르는 곳곳엔 술한 식물군상들이 산다. 앞만 보고 그것의 아름다움을 놓치고 올라가는 것은 어리석다.

한라산 영실 가는 길가 종나무 서리나무 참나무 먹빛 회색빛 앙상하다.내 아내 협심증 관상동맥 같다. 그 사이 무성한 모세혈관 줄기들. 아내와 처음 왔을 때 중고차는 더 올라가지 못했다.그 아래 20년 삶의 비늘들 빗바랜 산 갈대 수북히 쌓여 있다. 하이드파크 같은 길 혼자 천천히 올라간다. 잠자는 아내 숨소리 가쁘다.

(나기철, 「영실行」)

회색빛 한라산길을 걸어가는 시인은 길가의 그 먹빛 나무에서 협심증 앓는 아내를 떠올린다. 그의 영실행은 표면적으론 신비스럽고 영적인 세계로의 이동같지만 그의 현실의 삶은 그렇지 못하다. 단지 그것을 꿈꿀 뿐이다. 시인들은 한라산이 내뿜는 다채로운 변주를 통해 산의 침묵을, 산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다. 거기서 쇠잔해진 젊은날의 심지를 돌아보게 만든다. 문충성의 시 「겨울 백록담」 앞에 서 보자. 바람 앞에서도 풍화되지 않는 산, 숨엄하게 휘도는 산의 바람은 때때로 이승과 저승의 바람으로 너울거리기도 한다. 수천 수만 갈래로 올라오다 흩어지는 겨울 폭풍설, 백록담에 오르면 삶의 경건함이 자신을 성찰하게 한다. 백록담에서는 뜨거운 현무암의 기운으로 심장까지 두근거린다.

“겨울철 백록담에 올라본 일이 있느냐 한여름 / 西北壁을 타고 내리던 메아리조차 없다 / 숨쉬는 곳이라곤 나 하나 아니 저승의 바람도 있다 / 바람은 산을 베어넘길 듯 창검을 갈고 / 이승과 저승 사이 메아리아 깊숙이 / 冬眠의 깊에 빠졌느냐”라고 하는 시인은 결국 백록담에서 본 것은 “백록담에 와서 탐라가 열리던 / 처음 분화구 바윗덩이들 험떡이는 갈증소리 듣나니 / 영하로 얼어붙는 산길에 길은 열리지만 / 진종일 걸어도 백록 한 마리 보이지 않는다.”고 자탄한다.

철쭉꽃 불타는 선작지왓의 미감 앞에 먼저 무릎 꿇은 이는 ‘오름나그네’ 김종철이었다. 그와 함께 올랐던 시인 고은은 여기서는 “가슴을 응결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가슴이 터져버리기 때문”이라며 호흡을 진정시켜야 했다.

“뭉니뭉니해도 윗세오름은 그 복판에 가로 누운 드넓은 벌판으로 하여 이름이 빛난다. 해발 1,500m에서 1,700m 사이에 전개되는 이런 고원은 다른 어느 산에서도 보지 못했다. 더구나 이맘 때의 늦봄, 진달래꽃 진분홍 바다의 넘실거림에 묻혀 앉으면 그만 미쳐버리고 싶어진다.”고 한 사람은 ‘산사나이’ 김종철이었다. 그는 죽어서도 끝내 그 곳을 떠나지 않고 있다. 그는 『오름나그네』, 『윗세오름』 편에서, 살아서 “지리산의 세석평전이 철쭉과 함께 이름나지만 한라산 선작지왓과 비할 바가 못된다.”고 했다.

봄이면 진달래의 진분홍바다로, 여름이면 질리도록 푸른 초록으로, 가을이면 황량한 무채색으로, 겨울이면 구상나무의 설경으로, 성성한 선작지왓의 존재는 산을 찾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든다. 산이면서 고원이고, 벌판이면서 물이 흐른다는 곳, 야성의 한라대정원.

영실에서 백록담 화구벽이 바로 잡힐 듯 서 있는 곳, 왼쪽으로 윗세오름 세 봉우리가 포개듯 있는, 오른쪽으로 탁 트인 대고원 평야. 밤별들이 꽃잎처럼 황홀하게 쏟아지고 흩어지는 곳. 크고 작은 작지들이 많아 '생작지왓'이라 이름한 곳이다.

한라산의 사계

한라의 사계를 두고 어느 계절을 두둔할 수가 없다. 그것을 편애한다는 것은 그것의 또 다른 매력을 놓치고 만다는 것이므로. 시성 두보가 그랬던가. "산이 퍼렇다 보니 꽃이 불붙는 듯하다(山青花欲然)"라고. 한라의 사계절인데 한눈을 팔 새가 어디 있겠는가. 산사나이들도, 산을 타는 여성들도 하루도 같은 날이 없어서 그를 만나지 않고는 몸살이 난다고 한다. 어느 봄날, 한라산에서는 따스함과 피어린 독백이 들려 온다.

봄날 가슴 한 끝 예감으로 번져나는  
한라산 푸서리에 무자넌 춘란 하나  
누군가 허를 빼물어  
바알간 四月아침  
어머님 기억 속에 가늠되던 그 손짓  
빛돌은 없지마는 아,이 곳일 게다  
솔바람 푸르른 자리  
메아리만 남은 자리  
헛봉분 그 위에도 산돌림은 지나갈까  
나비도 찾지 않네  
는개 이는 숲속에  
반세기 목마른 뜻은 춘란으로 피고 싶다  
(홍성운, 「제주 춘란」)

한라산은 제주도 어디서든 배경이 된다. 그것이 중심이 되어 날씨가 변하고 그것이 중심이 되어 사람들의 일상이 이뤄졌다. 한라산 나무로 집을 지었으며, 한라산의 열매가, 야초가 사람을 살리기도 했다. 그 산이 배경이 되어줄 때 어디서든 한라자락의 유채꽃이나 억새는 더욱 풍부한 운치를 이룬다. 초봄까지 희끗희끗한 한라 설봉을 사람들은 늘 보면서 산다. 비록 오르지 않아도 늘 한라산을 오르며 산다. 제주로 들어와 살면서 제주인이 된 시인의 눈에도 한라산은 온갖 생명들을 키워내는 어머니의 산이다.

젊은 어머니의 산이여  
가마솥 같은 산정  
부드러운 어깨  
넉넉한 품  
수많은 나무와 꽃과 새들을  
안아 먹인다  
(나기철, 「여름 한라산」 중)

그 산은 수많은 목숨들을 보듬어 키우는 산이다. 또 그 산은 “동서남북 어디서 보아도 / 그만큼의 모습 / 보는 이로 하여금 / 그를 닮게 하고 / 또 닮게 한다”(나기철, 「여름 한라산」). 한때의 열정이 다해 슬슬 몸을 비우고 싶어하는 가을산, 온갖 삶이 아로새겨진 가을산은 마음을 걸어 두고 오기에 좋다. 마음의 심한 신열도 산은 부려놓고 가라고 이른다. “저 山엔 / 수많은 他關의 꽃들 / 발 잘 못 디디고 / 뒹굴다”(나기철, 「가을 한라산」). 뒹굴다 흩어지고 있다. 그 가을산에서 시인은 역사의 상처를 들여다본다. “가랑잎 날려 손발 저린 날 / 괴로운 꿈 접어 / 가을산을 오른다 / 도처에 신경 곤두세우는 나무들 / 인적없는 산에서 한나절을 떠난다 / 살기 위해 죽음으로 왔던 사람들의 / 낮고 어두운 목소리 / 짧은 해기우는 山頂 / 南道땅 온통 붉게 물들어 / 핏줄 느낄 때 / 가을 산은 부른다 / 참혹한 세월 가로질러 / 깨어나라 / 잠들지 마라”(김석교, 「가을산」). 그러면서 그 강한 정신을 잃지 말 것을 주문하는 시인도 있다.

억새꽃들아, 일어서라 / 야산(野山) 구름진 바윗틈 / 혹은 “빌레밭” 가시덤불 속 / 어디서든 꽃꽂이 일어서서 / 흔들리거라.  
(김용길, 「제주별곡 - 한라(漢拏)의 울음」 중)

겨울산의 아름다움은 몸소 그 곳에서 몸을 뉘여보지 않은 이는 모른다. 구상나무의 눈꽃을 보라. 누구라도 흘리지 않을 수 있으랴. 그 스산한 풍경과 목신 바람이 소임을 다한 나무들 사이를 스쳐 지나가는 겨울산, 근시의 눈으로도 희부연 설봉, 그 야성의 숲이 이루는 침묵 앞에 시인도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다만 겨울산을 내려오면서 시인은 자신과 마주할 뿐이다. 자신의 내면에도 아름다운 눈꽃송이가 피어 있다는 것, 자신의 안에도 때때로 아름다운 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는 일, 그것을 느낄 뿐이다. 그것은 산이 준 작은 선물이다.

눈썹에도 눈꽃 한 송이씩 달고 산을 내려온다 / 그들은 자신이 눈썹이 / 눈꽃 한 송이씩을 피워내는 줄 알지 못한다 / 상대방의 얼굴을 보고 어, 저 사람의 얼굴엔 / 참 예쁜 눈꽃송이 피었군 / 하고 마음 속으로 부러워할 뿐. / 자기 얼굴에도 아름다운 눈꽃송이 피었는 줄 알지 못한다 / 나도 내 얼굴에 눈꽃송이 재미있게 피었는 줄 알지 못했다 / 때로 나의 안에도 아름다운 내가 있다는 것을 /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은 얼마나 슬픈 일인가.  
(김광렬, 「겨울산을 내려오며」)

겨울 산은 시리도록 아름답다. 적설의 산, 얼음으로 푸른 색이었다. 굽이치며 달리는 백색의 산맥들, 눈 위에 드리워진 나무들의 푸르스름한 그림자, 참나무의 높은 가지들에 새 동지처럼 걸려 있는 겨우살이의 붉은 열매들이 눈을 찌른다. 적송의 붉은 기둥같은 적요함, 신비로운 풍경의 겨울 산을 시인은 걸어간다. 그리고 시인이 본 것은 무엇인가. “눈 내리는 겨울 한라산 / 산행에서 만난 / 한 마리 노루처럼 / 산새처럼 / 다만 열정 하나로 버티면 / 원시림 우거진 / 첩첩한 능선을 넘고 또 넘어 / 내가 힘겹게 다다른 곳은 멀리 수평선이 보이는 / 산허리 / 숲 속의 빈터였다”(강통원, 「겨울 山行에서」). 한라의 설경은 한라산 깊숙이 들어가지 않아도 보인다. 아주 가까운 산자락에서 눈부신 설무를 볼 수 있다. 최현식의 단편소설 「먼 산」 속에 나오는 한 장면. 한라산으로 탐석을 가는

길에 횡단도로로 들어서자 씨락눈이 안개처럼 내리는 산을 보면서 화자가 말한다. “이런 설무는 한라산이 아니면 볼 수가 없지요. 안개의 저 습기 때문에 조난을 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몸에 붙으면 잘 떨어지질 않는다는군요.” 제주의 설경은 그리기가 매우 힘든 소재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나는 말한다. “언어들은 지식입니다만, 한라산의 광선은 편광이어서 풍경 전체가 완전한 백색이거나, 역광인 때는 완전한 회색이 되고 말기 때문에 포인트를 어디에다 뒀야 할지 당황하게 된다는군요.”

폭설의 한라산은 경험하지 않고 쉽게 해석할 수가 없다. 그 겨울의 한라산을 깊은 침묵으로 이끌고 있는 것은 구상나무이다. ‘살아 백 년, 죽어 백 년’ 구상나무의 생에서 우리는 인간이 자연에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를 겸허하게 느낀다.

1천5백여 종 넘게 꽃나무들 사는 할락산  
중허리에 무리 지어 사느니 언제나 파랗게  
고고한 것은 인간들 만드느  
시시한 절개 흉내냄 아니다  
아무 데나 뿌리 내려 살지 않는다 욕심 있는 인간들 모래 파내다  
제 집 정원에 심어 물주고 살기 강요하지만  
그런 사람과는 살지 않는다  
차라리 노랗게 죽어버린다  
(문충성, 「구상나무」 중)

그랬다. 구상나무가 어떤 나무가. 그 푸르름을 베고 누워보라. 그리고 옛 가난한 어부들은 “구상나무 베어 테우 만들고 제주바다 / 험한 바다 물결 재우며”(문충성, 「구상나무」 중) 삶을 살았다. “여름날 할락산에서 하룻밤 지낸 적 있느냐 / 하루가 열리는 장엄한 새벽 보았느냐 / 부서지는 햇살들 구상나무 열매에 걸려 내지르는 보랏빛 소리 들었느냐”(문충성, 「구상나무」 중)고 묻는다. 정말 그래 본 적 있었단가. 나는 나에게 묻는다.

한라산 구상나무는 폭풍설을 거친 이듬해에 말라 죽는 개체가 생긴다고 한다. 세찬 바람에 나무가 흔들리면서 나무를 뒤덮은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뿌리가 뽑히기 때문이다. 고사한 나무들은 쓰러지지 않고 곳곳하게 버티어서 천고의 세월동안 씻기고 흔들리며 결국은 앙상한 가지만 남게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나무를 살아서 백 년 살고 죽어서도 백 년 사는 고사목이라고 하는 것일까.

## 설문대할망의 산, 한라산

한라산은 설문대할망의 집이다. 오백 아들들을 위해 죽을 끓이다가 죽술에 빠져 죽었다는 이야기나, 그녀가 결국 물장울에 빠져 죽었다는 이야기나, 여러 가지 변용을 거치며 생성되어온 이 거대한 할머니의 설화가 살아 있는 곳이 바로 한라산이다.

설문대할망. 어린시절 구비전승되던 이 할머니의 노래를 들은 시인들은 현대시로 「설문대할망」을 재창조하고 불러내었다.

문충성은 시집 『설문대할망』 속에서 그녀의 죽음을 알고 대성통곡하는 영실 오백장군바위로 좌정한 아들들의 눈물을 닦고 있다. “처음 하늘과 땅이 열리던 날에 / 제주섬 솟아나고 / 이

섬에 설문대할망이 살았네……오백 아들은 어머니 죽음 알고 캄캄하게 / 세상살이 절망이여  
허망을 보았네 / 한라산 깊은 골로 들어가서 / 어머니 죽음 목놓아 통곡하고 눈물눈물 모아  
눈물골을 만들어냈느니 / 그 눈물 흘러 정방, 천지연, 천제연 폭포가 되고 통곡하며 통곡하다  
철쭉꽃이 되고 울긋불긋 진달래꽃밭 진달래꽃이 되고 / 어머니만 부르며 어머니만 그리다가  
/ 바위로 굳어져 / 오백 나한이 되고……”(문충성, 「설문대할망」 중에서).

또 다른 설문대할망을 시로 풀어낸 문무병에게 있어서 한라산은 바람이며, 한라산은 조상이다. 한라산이 솟아나고 설문대할망이 태어났다. 그의 유장한 장시 「설문대할망」은 제주섬 역사의 전모를 담아낸다.

잠을 자던 할머니가 눈을 뜨면 아침이 오고  
할머니가 눈을 감으면 밤이 되니,  
사람들은 할머니가 시키는대로  
밤이 되면 눈을 감아 잠을 자고,  
낮이 되면 눈을 뜨고 일어나 일을 했다.  
할머니가 숨을 쉬면 바람이 일고,  
할머니의 입김으로 안개를 만들었다.  
탐라 백성들은 할머니의 부드러운 살 위에  
발을 갈았다.  
(문무병, 「설문대할망」 중에서)

한라산은 설화가 호흡하는 산이다. 한라를 모태로 둔 제주 시인들이기에 삶과 설화를 보는 눈이 유리되지 않았다. 제주 시인들의 시선은 바로 한라와 일체된 마음의 근원을 거기서 찾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마음에 비치는 산의 물상은 세월의 흐름을 타고 심상의 변화를 일으킨다. 어디 고정되어 있는 마음이 있으랴. 그 변화야말로 자연인 산일 테지만, 우리는 산도 변화를 일으킨다고 생각한다.

#### 4 사람의 산, 한라산

한라산은 제주작가의 심상공간에서 무엇인가. 한라산은 온갖 심사를 끌어 안아준다. 한라산이 중심이 되어 날씨가 변하고 그 곳이 중심이 되어 사람들의 일상이 이뤄진다. 한라산의 나무로 산자락 아래 사람들은 집을 지었으며, 한라산의 열매와 야초가 사람을 살리기도 했다. 초봄까지 희끗희끗한 한라 설봉. 그 넉넉함에서 ‘큰바위 얼굴’의 풍모를 느끼기도 한다.

한라산은 사람을 키워낸 산이다. 수많은 탐사가들이 그것의 자양분을 먹고 삶의 길을 일궜다. 섬땅의 쇠테우리들에게 한라산은 하나의 목장이었다. 한라산 자락 아래 사람들에게는 모두 그들의 정원이었다. 때문에 한라산은 사람의 산이었다.

부종휴는 제주식물의 야인이다. 그로 인해 한라산의 식물은 비로소 이름을 얻었고, 제주의 잠자던 동굴이 눈을 뜨기도 했다.

나기철은 시 「부종휴 선생」을 통해서 “그분의 큰 안경이 빛났고 / 한라산처럼 맑고 컸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또한 그분에게선 “한라산 풀잎 스치는 소리만 났다 / 어딘지 쓸쓸하였다 / 그 후 나는 제주의 멋진 사내들이 다 한라산 계곡에서 시로미 익듯 / 영글었다는 것”을 되새긴다.

#### 오성찬의 『한라산』, 그 방목의 공간

한라산이 인간 삶의 공간이라면, 또한 한라산은 소와 말의 공간이기도 하다. 오래 전부터 방목의 공간이었다. 사람들은 그 곳에서 자신을 방목하였다. 섬땅의 쇠테우리들에게 그 산은 하나의 목장이었다. 그 산은 사람의 산이었다. 그 때, 방목하던 소떼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오성찬의 중편 소설 『한라산』은 잃어버린 소를 찾아나선 테우리의 눈으로 생생하게 한라산을 담아낸 작품이다. 소년기를 한라산 기슭에서 테우리로 보냈다는 작가는 이 소설에서 산의 정경을 이렇게 담아내고 있다.

한참 걸어 삼나무 숲을 벗어나자 이번엔 휘출휘출한 서나무 숲이 진달래 철쭉나무들에 섞여 정갈하게 들어서 있었다. 키가 큰 서나무 아래엔 군데군데 잎 넓은 굴거리 나무와 침엽수인 노가리가 서 있어 숲에 더욱 신선한 기운이 돌았다. 삼나무 숲에서보다 낙엽 밟는 소리도 한결 부드러워졌다. 밀림이 깊어지자 소들도 체념을 했는지 덜 두릿 거리고 발걸음도 순해졌다.

그 시절, 방만한 목장의 서사시적 상황이 눈앞에 재현되는 듯하다. 산의 넉넉한 품에서 젖을 먹듯 야초를 먹고 야생으로 크던 자신의 소가 어느날 행방불명되자 소를 찾으러 다니는 센오 서방은 한라산 구석구석을 쫓는다. 소의 방목은 선작지왓까지 이르렀다. 선작지왓의 풍경이 점점이 짙혀 있다.

바라봄의 대상이며 관조의 대상물로서의 한라산이 아니다. 그 산은 살아가는 산이다. 현재적 삶과 떼어 수 없는 존재로 다가오면서 그 산은 작가들에게 구체적인 상징으로 들어오기 시작한다. 삶이 한라산이란 환경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비평가 송상일은 오성찬의 이 소설 「한라산」을 두고 “제주도민의 삶과 한라산의 바로 그런 측면을 그린 작품이다. 여기서 한라산은 빨치산의 아지트가 아니라, 방목하는 산이다. 그리고 방목은 제주도민에게 삶의 중요한 일부였다.”라고 한 평론(『문학과 비평』(1990), 봄호)에서 거론

했다.

소를 잃고 몇 달씩 산 속을 헤매는 센오서방에게 산은, “거대한 산, 광활한 밀림, 이 모든 것이 순응하며 살아가는 이 섭리, 여기에는 뭔가 사람 힘이 못미치는 멀고 높은 것이 있다고 느껴지는” 그런 존재로 다가온다. 그것은 역사 이전의, 그럼에도 분명 삶의 절실한 부분을 이루는 체험 - 이를테면 제주도민만의 운명 체험과도 같은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오성찬의 한라산은 “다래뿐만 아니라 으름 념쿨도 여러 무더기가 교목 위로 높이 뻗어 있는” 가을산이며, “가끔 노루나 오소리들이 튀어나와 사람을 놀라게 하고” 있거나, “직박구리 무리들이 빼악 뺑 목청을 돋구어 울며”, “동박새들도 고운 소리로 울며 냇가의 상록수 사이를 돌아다니는” 겨울 산이다.

“지상 1천9백5십 미터, ‘길마턱’위에 서자 산 아래 전경이 한눈에 굽어보였다. 면양 무리 같은 흰구름장이 상여가 지나가며 흘려 놓은 만장처럼 산의 이마를 두르고 있었다. 그 아래 확 단풍이 든 밀림이 마침 일출봉(日出峰) 옆으로 바다 위 구름을 덮고 올라오는 햇살을 받아 주황빛으로 타기 시작했다. 부챗살 햇빛을 받고 있는 오목 오목 자화산(子火山)들, 그 그리매도 상서로웠다. 백록담 안의 소떼들은 느지막이 숲속에서 기어나와서는 느릿느릿 물가의 이슬 머금은 풀을 뜯기 시작했다.”

(오성찬 소설 「한라산」 중)

센오 서방은 밀림 속에서 다래, 으름을 따먹기도 하고 시로미를 따먹기도 하면서 산열매에 취해 길을 헤매기도 했다. “소 가죽을 갓 벗겨 뒤집어 놓은 듯 시뻘건 산딸 무더기”를 보고는 “잘 든 단풍으로 착각”해 처녀 젖꼭지 같은 자잘한 열매들을 입 안에 털어놓기도 한다. 한라산의 생태계와 수풀은 또 자칫 방향을 잃게 만들기로 한다.

“그런데 그는 얼마 더 안 올라가 교목숲 아래에 뺑뺑하게 들어선 관목의 혼효림(混濤林)을 만났다. 팡팡나무와 털진달래, 보리수나무들이 한데 섞여 촘촘하게 가시를 세우고 있었다. 한라산의 관목숲은 잘못 들었다가는 벗어나기가 무척 힘들고 혼이 난다는 걸 모르는 바 아니었다. 그러나 아무리 기웃거리 찾아봐도 좀체 뚫고 나갈 트인 구멍을 찾아낼 수 없었다. 산딸나무 꼭대기에 올라 바라본 ‘선작지마루’가 바로 눈 앞인데 돌아가다가는 또 엉뚱한 데로 들지도 모른다.” 그는 그 산에서 느낀다. “거대한 산, 광활한 밀림, 이 모든 것들이 순응하며 살아가는 이 섭리, 여기에는 뭔가 사람 힘이 못 미치는 멀고 높은 것이 있다.”고 느낀다. “빈 밀림 속을 혼자서 헤매고 있으면 등 뒤에 문득문득 거대한 존재의 눈길이 느껴지곤”하였다는 센오 서방이다.

아마 누구든 높은 산 중에 홀로 서 보라. 삶의 고의가 아닌 어긋남을 느끼는 것은 비단 센오 서방 만이겠는가. 어디선가 가느다란 인간의 존재를 지켜보고 있을 ‘존재의 눈길’은 어디 그 테우리만 느낄 것인가.

## 한라산의 얼굴

한라산은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 그 얼굴이 다르다. 어떤 때는 한없이 높게만 보이고 어떤 때는 길게 보이는가 하면 어떤 때는 한없이 평화롭기만 하다. 그리고 어떤 때는 진정 슬픔에 겨워 어깨를 흐느키는 것 같다. 아마 바라보는 자의 마음의 심상과 무관하지 않을 터이다.

제주의 첫 관문을 통과하려면 한라산과 경배해야 한다. 바닷길을 헤쳐온 수많은 작가들이 한



라산과의 조우를 베풀었다. 날씨 깨끗한 날 바다에서 맞는, 와락 달려드는 한라산의 얼굴은 누구에게나 서늘한 감동을 준다.

애월·한림 사람들은 그 곳에서 본 산을, 구좌·성산 사람들은 그들이 선 곳에서의 한라산을, 모슬포 사람들은 아득한 한라산을, 위미·서귀 사람들은 남쪽 한라산에서 후덕한 할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린다. 어느 곳에선들 한라산의 얼굴이 변하겠는가. 한라산의 눈동자가 변하겠는가. 다만 나의 눈이 변하는 것이다.

영혼의 사진가 김영갑은 한라산 자락을 떠나지 못하고 홀로 살다 갔다. 한라산은 그의 영원한 고향이었다. 그는 타관에서 온 사람이었으나 한라산의 품에서 살다 갔다. 한라산에 낮게 옆드린 그는 구석구석 ‘삽시간의 황홀’을 포착해냈다. 그의 렌즈에 붙잡힌 한라산과 함께 실린 그의 산문을 옮긴다.

나에게 있어 한라산은 전체가 명상센터이다. 나는 어느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이곳저곳 떠돌아 다니며 사진을 핑계삼아 명상을 한다. 수행자처럼 엄숙하게 대자연의 소식을 기다린다. 기다린다. 기다림은 내 자신을 정화시키기 위한 정신이다. 깊은 생각에 잠겨 내면의 소리에 귀기울인다.

(김영갑, 『삽시간에 붙잡힌 한라산의 황홀』 중)

제주시 광평동(넙은드르)에서 태어난 제주의 민속학자 현용준. 그의 수필집 『한라산 오르듯이』를 보면, 이렇듯 한라산은 자신이 서 있는 지점에 따라 각기 다르고 아름답다는 것을 보여준다. 보는 마음과 눈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 사람의 삶도 그러하겠으나 자연도 그러하다. 물론 한라산은 자신이 바라보는 지점에서 이미 얼굴이 바뀐다. 때문에 누구의 말이 옳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읽을 일이다. 제주 사람들은 자기 고향에서 바라보는 한라산을 가장 아름다운 얼굴로 친다. 왜 그렇지 않으랴. 모든 아름다움에도 편애가 있는 법. 그 또한 자존이 아니겠는가.

현용준은 “넙은드르 입구에서 남쪽을 바라보면 한라산이 차분하고 어질게 서 있다. 한라산은 여기에서 보는 것이 제일 아름답다.”고 단언한다. 그것은 저마다 향수가 작용한 것일 수도 있다. 허나 그는 “냉정히 객관적으로 말해서 한라산은 넙은드르에서 보는 것이 최고로 아름답다. 그 꼭대기는 마치 일본의 후지산 꼭대기처럼 생겼고, 양쪽 동서로 그 줄기가 뻗어 내려갔는데 그 균형이 딱 잡혀 있다. 거기다가 그 꼭대기 앞에는 큰도리가 둥그스름하게 받혀져 있어 산이 안정감을 주고, 선량하게 보인다.”고 강조한다. 물론 동의하지 않는다면 할 수 없겠지만 말이다.

그는 그것의 근거로 오래 잊을 수 없는 자신의 체험을 든다. 그가 만났던 한라산 체험의 일절이다. “산 앞 기슭에는 아흔아홉골과 어승생 오름이 있어서 무미함을 막아주어 그 아름다움을 한층 돋우어 준다. 나는 이런 것이 한라산이로구나 하고 어릴 적부터 항상 생각해 왔다. 그러던 것이 열 살이 되어 처음으로 성안(제주시내) 구경을 했는데, 성안에서 보니 한라산 모습이 생판 달라졌다. 그때서야 한라산 모습은 가는 곳마다 달라짐을 알았지만, 넙은드르의 한라산에 비할 바가 아님을 느꼈다. 그 꼭대기 모습도 단정하지 못하고, 그 꼭대기 앞을 둥그렇게 받쳐 주어야 할 큰도리가 서쪽으로 뻗어내려 보기가 영 흉하다.”고.

다리를 벌린 듯한모습의 한라가 영 눈에 거슬린 모양이다. 그리고 산기슭에 아흔아홉골도 어승생 오름도 없어 끝마무리가 무미건조함을 지적한다. 이러한 근거로 그는 넙은드르에서 보는 한라산이 최고임을 확신하는 것이다. 동의하지 않아도 된다. 정말 그의 표현이 과장인지 아닌지 느끼고 싶은 자, 그냥 그 곳에서 한라를 만나볼 일이다.

## 무너지는 한라산

그 옛날, 신화의 주인공 소천국이 사냥하던 곳, 잃어버린 마소를 찾으러 테우리들이 범벅 도시락을 들고 이 산 저 산 다니던 곳, 집을 지으려고 나무를 하러 가던 곳, 약초 캐던 산, 4·3의 엄청난 피바람으로 잠들 수 없어하던 산, 광풍이 지났으니 이제 한라산은 정녕 평화로운가. 그 자애의 산은 그러나, 이제 예전 같지 않다. 피난처이도 하고 기쁨을 주었던 역사의 산이었으나 언제부턴가 수많은 인간의 망치가 그를 뭉개고 있다.

한라산, 그는 가끔 울음 운다. 시인은 한라의 울음소리를 듣는다. 수많은 발길이 그를 뭉개고 있는 한라, 사람들은 오래도록 한라산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았다.

“한때 한라산의 하나였던 제주섬의 한라산 / 이 산에 케이블 카를 설치하겠다고 돈벌이꾼들 / 관광 개발이란 멋진 이름 내세워 / 우리의 山神 쫓아내겠다고 시대도 있었지.”라고 고발한다. 그러나 한라산에 대한 기대는 저버릴 수 없다. 왜냐? “한라산은 우리들 삶의 꿈이요 / 그 꿈의 마지막인 것을.”(문충성, 「징징징 漢拏山은 울음 울고」 중) 시인은 안다.

그렇게 편하게 만들고 개발하려 들수록 “징징징 한라산이 울음운다.”는 것이다. 나는 이 시처럼 한라산의 가슴이 짓이겨지는 순간을 수없이 보았다.

한라산은 다시 관광개발이란 명분을 달고 가슴에 못질을 당할 위기를 여러 차례 겪어야 했다. 또한 지금도 수없이 한라산 자락의 오름들이 제 모습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그것을 바라보는 시인은 고통스럽다.

패인 상처마다 덮어줄 흙을 나르는 / 깊은 숲 고요를 깨는 모노레일 오르내리는 소리에 / 노루들 뒷발질하며 쏜살같이 사라진다.

(오영호, 「한라산을 오르며」 중)

어디 이렇게 무너지는 것이 한라의 흉가슴뿐이라. 한라가 키워낸 굴도, 마소떼의 그림 같은 모습들도 제주도의 국제적인 개발 바람 위에서는 위태롭다. 제주가 제주다운 것은 원초적인 생명력이 살아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살아 움직이지 않는다면 제주는 빈 껍데기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한라의 운명을 걱정하는 시인의 시대 인식은 새벽을 여는 한라산을 보면서 더 구체화된다. 우리는 어디까지 한라의 순수가 무너지는 광경을 바라봐야만 하는가. 여기서 시인은 경고한다.

여기 저기 올망졸망 솟은 오름들과 질펀하게 펼쳐진 초원 위에 / 점점이 찍혀 있는 소떼들 / 그 아래로 금빛으로 빛나는 굴밭들이 황폐화된다면 / 쇠고기도 개방되어 / 이미 태반이 외지인의 것이 틀림없는, 저 광활한 목장의 / 마소떼의 그림 같은 모습마저 사라져 버린다면 / 제주 아름다움은 한낱 빈 껍데기 허약한 아름다움일 뿐 / 깊은 슬픔과 / 시름에 잠겨 있는 듯 한라산 정상은 구름에 덮여 있고 / 소솔이 바람에 하얗게 흔들리는 억새꽃 무리들은 / 승천하지 못하고 아직도 바람 따라 구름 따라 떠도는 / 이 땅의 한 많은 영혼들의 통곡인 듯 가슴 섬찔했습니다.

(양정자, 「여명의 한라산」 중)

## 5 한라산, 그 아름다움과 비애

한라산은 아름다움과 비애를 동시에 품고 있다. 그것의 비애는 그것이 가진 역사성이며 민중의 삶이다. 삶의 비의 없이 어떻게 온전한 아름다움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현대사에서 한라는 섬을 전략적 차원의 공간으로 이용하려는 이방인들로 인해 한바탕 속살까지 파헤쳐지는 아픔을 당해야 했다. 일본군의 요새로 이용되기도 한 흔적을 갖고 있다.

섬의 모든 길은 바다로 통했다. 제주도를 전진기지화 하는 데 이용하기 위한 일본의 전략 대상으로 시달려왔다. 현길언의 4·3 장편소설 『한라산』을 보면, 이미 한라산을 교두보로 삼기 위한 타자의 시선이 나온다. 그리고 4·3에 미국이 개입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제주 주둔 58군은 어떤 부대인가? 모두들 호기심을 가지면서 비행기에 탑승했다. 김포를 출발하여 1시간 30분쯤 경과했을 때, 조종사는 지금 제주해협에 들어섰다고 안내 방송을 했다. 그린은 창밖을 내다봤다. 파란 바다가 보였다. ‘한라산이 나타났다.’그린 맞은편에 앉아 있던 한 보도 요원이 소리를 질렀다. 그린도 그 산의 허리부분을 보았다. 망망대해 한가운데 높지 않은 산이 나타났는데, 그 해안 기슭에 하얀 파도가 부서지고 있었다. 제주도는 바로 한라산인 것처럼 느껴졌다. 고도를 낮춘 비행기가 해안선을 따라 날다가 방향을 바꾸자 산 중턱에 자리잡은 초원이 나타났다.” 비행기에서 내려다 본 한라산의 느낌이다.

“한라산은 동남아 직행의 비행기에서 내려다 보는 것도 좋다. 그러나 그 보다는 제부(濟釜) 제목간(濟木間)의 정기항로를 마칠 무렵의 바다 위에서 바라보는 한라산, 그것의 본체를 만나는 일이 무엇보다 행복하다.”고 한 이는 시인 고은이다. 그러나 과연 역사의 산으로 만날 때, 그 때도 이렇듯 행복할까.

한라산에 대한 응시는 미래에 대한 예감을 암시하기도 한다. 한라산은 어쩌면 자신의 운명까지 꿰뚫고 있는 것일까. 이재수의 난을 그린 『변방에 우짖는 새』에서 현기영은 “절해에 우뚝 솟은 한라산에 오고 가는 구름이 다 걸려드는지 제주의 겨울하늘은 음울하게 구름 끼어 있는 날이 많았다.”며 맑은 날을 보기 어려운 한라산의 앞날에 대한 암시를 하고 있다.

### 제주작가들이 본 4·3과 한라산

1948년 4월 3일, 이러한 역사 이전에 한라산은 신비의 영역이었다. 인간과 신들의 산, 평화로운 신화의 세계, 상상력의 극치를 보여주는 한라산 공간은 이 날로 삶과 유형의 극지가 되었다. 한라산의 운명은 비극적으로 변모한다. 무장대 혹은 살기 위해 산으로 간 사람들은 휘몰아치는 숲에서 쫓고 쫓기면서 굴 속에서 침묵의 세월을 보내야 했다.

그 날 이후 한라산은 표의의 산이 아니었다. 그 산은 뽕뽕 언 겨울산의 이미지로, 거친 역새 고원으로, 그 풍경은 풍경을 떠나야 했다.

어찌 작가들이 철쭉꽃 하나라도 그대로 지나칠 수 있었겠는가. 그 처연한 붉음마저 그 날의 선연한 핏자국으로 연상하는 수많은 제주의 시인들은 아름다움의 외피에 가려진 이 산을, 아픈 역사의 산을 글로 치유하려 했다. 위기와 격동의 역사를 타넘어야 했던 산, 그 날 이후 4·3은 살아남은 자들에게, 현시대를 사는 많은 작가들에게 하나의 지층으로 자리한다.

한라산은 이 4·3광풍으로 구금되어야 했다. 그가 비로소 인간이 처놓은 사슬에서 풀려난 것은 1954년 금족령 해제였다. 주로 서정적인 노래를 부르고 있는 한기팔 시인에게도 어느 날의 한라산은 핏자국으로 덮인 역새풀밭이다.

四·三 事態 때

핏자국으로 돌아난 역새풀 밭  
곱게 난 길을 달려서 가면  
더 밝은 곳의 물소리  
바람소리에 귀를 여는 漢拏山.  
한 개의 산이 되기까지  
솟구침이 되기까지  
그대 사는 일보다 서러운  
별하늘 아래  
삭신이 저려서 칼질이 되기까지  
화약냄새가 되기까지.  
(한기팔, 「漢拏山·3」)

수많은 원귀들의 산이 되었다. 하여, 그 해 겨울의 한라산이 어떻게 기억에서 떠나겠는가. 일제강점기와 4·3의 운명을 겪게된 산. 그 때의 진실을 품고 있으나 입을 다문 한라산. 그 산의 아픔에 대해 많은 시인과 소설가들이 통곡을 부여잡고 함께 엮드리기도 했다. 4·3당시 많은 사람들이 입산 했다. 그 사람들은 산사람이 되었다. 그들은 어떤 뚜렷한 목적이 있어서 간 사람들이었을까. 그렇지만도 않았다. 살기 위해서 올라야 했다. 한라산은 4·3의 애통함을, 입산의 문학을 탄생 시켰다.

산으로 간다  
무자 기축년 사월  
사랑을 위해  
산으로 간  
그리운 사람이 그리워  
달 없는 밤  
울망졸망 어린 놈 입을 막고  
산길을 떠난 그리운 사람을 찾아  
산으로 간다  
동박낭 이파리로 허기를 채우고  
죽더라도 피붙이는 지 애비 곁에 있어야 때 거르지 않는다며  
허위적 허위적 산으로 간 후  
반 백년이 다 되도록 소식이 없는  
그 사람을 찾아 산으로 간다  
지금쯤 인적 끊긴 산자락 어드메에  
두 눈 부라리고 살아 여태껏 끝나지 않은 사월에 살아  
대나무 끝을 세우고 있을  
그 사람을 찾아 산으로 간다  
기어코 이루고야 말 사랑을 찾아  
한라산으로 간다

(김수열, 「입산」)

그리고 아무리 피비린내를 품고 있다 하여도 그 산은, 젊디젊은 어머니의 산이다. “어디를 가나 살 끝에 와 닿는 푸른 / 푸른 바다 그 중심에 서느런 눈매로 당당히 선 젊은 산 / 어머니의 산”(김수열, 「저 산처럼」 중)이다.

김용해의 한라산은 거의 절규에 가깝다.

한라산아, 한라산아 / 네 가슴에는 / 저승길이 있구나 / 저승길을 잃어버린 죽음들이 있구나 / 밤만 되면 울부짖는 아우성도 있구나 / / 한라산아 한라산아 / 네 길고 긴 40년 / 그날의 꽃들이 피는구나 / 꽃을 보면서 / 새들이 울고 있구나 / 1948년 길 잃은 새들이 울고 있구나.

(김용해, 「한라산」)

그 날 이후 한라산의 새들이 부르는 노래는 모두 울음이 되었다. 그 소리는 아픈 상처를 달래는 소리이기도 했다.

한라산 잡목숲엔 텃새 한 마리 숨어 산다. / 외가댁 대물림엔 늙어서도 목청이 고운 / 4·3때 청상이 됐던 올해 칠순 이모가 산다. / 산이 산을 막고 무심이 무심을 불러 / 해마다 빠꾸기 소리 제 삼자처럼 듣고 있지만 / 이모님 원통한 숲엔 오뉴월 서리도 내렸으리. / 반백 년 나 앓은 산은 등신처럼 말이 없고 / 꺼꼭 꺼꼭 꺼꼭 꺼꼭 숨어 우는 우리 이모 / 간곡히 제주 사투리로 되려 나를 타이르네.

(고정국, 「한라산 빠꾸기」)

김명식은 연작시집 『한라산에 피는 꽃들』을 통해 모든 꽃들을 4·3의 전사로 승화하고 있다. 그는 무수한 꽃들을 통해 4·3을 증언한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 한라산 쪽으로 더 깊숙이 / 더 올라가자 주장하던 / 떨리는 전사들의 숨소리 / 쟁쟁히 들려오는 목소리 / 마전동에 흠아비꽃 꽃대를 세워 피어난다”(김명식, 「흠아비꽃」)거나 “4·3꽃 한라산 전사들”의 입산은 또 “질경이를 밟으며 / 전사들은 / 산을 / 한라산을 오르고 / 섬을 / 제주 섬을 오른다”(「질경이」). “하나씩 하나씩 옮겨지는 / 상한 육신 / 메밀 쌀죽으로 원기를 돋우고 / 통증과 불안 가시고 나면 / 비로소 깊은 잠 잘 수 있었던 / 한라산 허리에는 / 물매화 해질녘까지 피어나더라”(김명식, 「물매화」)고 탄식한다.

또한 시인들의 의식 속에는 가위 눌리듯이 살아 있는 그 날의 비극사가 못내 떠나지 않는다. “놀라지 마라 / 더러는 움푹 패인 자국을 보더라도 / 한라산 아흔 아홉 골을 돌아온 흔적이니라 / 웃지 마라 웃지 마라 / 얼굴 가득 송송한 수두 자국을 보더라도 / 우영팻 지키며 살아온 세월이니라 / 누가 그러더냐 / 시름만 검게 타고 있다고 / 더 있음과 없음도 모르고 살던 우리이니라 /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속지 말아라 / 모진 바람 꺾어 들고 / 우리 사는 이 골목에 삼촌, 권당(친척을 이르는 말)이니라”(김순남, 「돌담」).

해원 상생. 그 날의 넋들을 달래기 위해 시인은 넋들을 백록담가 혹은 제주바다에 불러 놓고 해원하고 싶어한다. 비념하고 싶어한다.

넋 달래려다 그대는 넋 놓고 / 길 찾으려다 길 잃었네 / 길 찾으려다 그대는 길 잃고 / 넋

달래려다 뉘마저 놓았네 / 아직도 漢拏山麓 해매는 거친 발길 / 불진어 白鹿潭가에 묻어주리 / 불아 濟州 바당에 뿌려주리 / 혼질 두질 들어가니 저승길 분명 / 우리 어멍 무신 날에 날 낳던가 / 靑靑靑 한라의 가슴에 솔씨 한 줌 다시 살아나느니 / 눈 시린 물살 아래 매역씨 두 줌 다시 싹 띄우나니 / 黃鹿 바람 맑은 바람 불어 올 때 / 잃어버린 이름, 그대 이 길로 오라 / 놓아버린 뉘 달래어 어허 뉘들라 / 이여이여 이여이여 受話로만 오십 년 / 숨 죽인 生靈을, 울음 죽인 靈駕를 / 곧은 길에 모두 불러 / 뉘 살아 춤추게 하라”

(김석교, 「뉘 달래려다 그대는 뉘 놓고」)

4·3의 핏자국이 선연하던 한라산의 겨울은 혹독했다. 매운 칼바람 속에서 지독하게 고통스러웠던 것은 아이들이었다. 그 아이들을 필사적으로 살리기 위해 할머니들은 자신의 목숨마저 주고 싶어했다.

추워요 할머니

어진아 이리 온 이 할망이 안아주마

눈 덮인 한라산 살을 에이는

바람은 길을 흐려놓고 아

어디로 가야 하나

할머니 배고파

곡기를 본 지가 얼마인지 어진아

조금만 더 가보자 어딘가에는

사람이 이실거여

양식이 이실거여

졸려 할머니 나 졸려

잠들지 말라 어진아 자면 죽는다

발은 푹푹 빠지고 한 치 앞도 안 보이는데 할망 눈에도 저승 문 턱이여...

(김경훈, 「한라산의 겨울」 중)

장일홍의 희곡 『붉은섬』의 제2장 「입산」은 섬 청년들이 산으로 오를 것이냐 마느냐에 대한 갈등의 순간이 절박하게 그려진다. 다음의 대화가 그렇다.

“청년4 : 놈들은 토끼몰이 식으로 이 섬의 청년들을 한라산으로 내몰고 있어. 수평선으로 간혀 있는 섬에서 우린 어디로 피신해야 하나?”, “청년6 : 어르신네가 입산 금지령을 내린 걸 모르나? 입산하는 자는 마을에서 추방하겠다는 거야.”

한라산 자락으로 뻗어나간 올망졸망 오름들은 그 어미의 품에서 빠져 나가 독립을 선언한 듯 그 자체로 하나의 산을 이뤘다. 한라산을 따라 도열한 크고 작은 오름들을 향한 연정 역시 한라산에 대한 경배인 셈이다. 오름 어느 곳인들 그 해의 피바람이 서리서리 휘감지 않은 곳 있으랴. 그 오름의 꽃향유나 빨기꽃에서는 아리고 아린 비린내가 묻어난다.

첫알오름 / 흰 빨기꽃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지 / 저승에서도 고개를 흔드는 젊은 아버지 / 흰 수염이 휘이휘이 오름을 오르고 있었지 / (百祖) / 팔월 땡볕 아래 / 가슴 속 불기둥이 죄 되던 시절 있었지 / 회오리에 휘말린 아버지들이 / 단음의 비명으로 무릎 꺾였다지 / 서까래

가 무너지고 구들장이 내려앉고 / 알 수 없는 암호처럼 불어닥친 모래바람 / 어느 편에 선들  
세상이 바로 보였을까 / (百祖) / 흰 빨기꽃엔 비린내가 깊이 배었다지 / 아무리 씹어도 잘  
가시지 않는 냄새에는 / 썩어 문드러지지 않는 상처가 있지 / 저 오름 끝 캄캄한 낭떠러지 /  
너덜너덜해진 겉으로 해매는 영혼들이 / 버리듯, 버려지듯 뺏가루를 날리지 / 그 꽃씨 고스란  
히 받아 안은 첫알오름 / 가슴 저릿저릿해지지.  
(정군칠, 「명징한 꽃 - 百祖一孫之墓」)

## 현기영, 기억 속의 한라산

우리 단편 문학사에 남을 빛나는 작품이라는 현기영의 「마지막 테우리」를 읽다 보면 비애와  
미감이 동시에 포개진다. 4·3 공간을 떠날 수 없는 한라산 중산간 초원은 평화의 상징이며 비  
극의 상징이다.

중산간 지대가 피의 냄새로 진동하게 되던 날을 떠올리는 늙은 테우리는 함께 늙어가는 야생  
의 초원을 떠날 수 없어 한다. 일흔여덟 살의 고순만 노인. 그는 쓸쓸하게 해발 800m 고지에  
있는 마을 공동목장의 쇠테우리로 과거사를 벗어나지 못하는 노인이다. 당시 무수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무수한 마소가 전멸되던 그 광기의 4·3에서 살아남았으나 노인은 4·3의 기억에서 헤  
어나지 못한다.

노인은 해변의 인간잡사보다 초원의 야생이 좋았다. 초원은 옛 바람이 그대로 불어와, 법 밖  
에 세월 밖에 존재하는 양 생활이 임의로웠다. 구름 자락이 와닿는 오름 위에서 땀자국 늘어  
붙은 것 같은 해변의 도시와 마을들을 바라보노라면 자신이 마치 다른 나라 백성인 듯이 여겨  
지기도 했다.

(현기영, 「마지막 테우리」 중)

현기영은 그 산의 증언으로 살려놓는다. 다음의 묘사는 더 이상 말이 필요없게 만든다. 당시  
중산간 지대의 오름들에서는 봉화가 타올랐다. 그 오름들은 밖으로는 한라산이 거느린 새끼들  
처럼 평화롭기만 했으나 그것의 속내는 또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중산간지대 이백여 마을이 불에 타면서 한라산은 살육의 피구름으로 덮였다. 수도 없이 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갔다. 남편 내놔라, 아들 내놔라 하더니 급기야는 입산한 남편 대신 아내가  
죽어야 하고, 입산한 아들 대신 에미 애비가 죽어야 하는 잔혹한 대살(代殺)행위가 자행되었  
다. ...입산도 두렵고 마을에 있기도 두려워 어중간한 곳에 피신한 청년들도 입산자로 간주되  
었다. 물로 갇힌 섬중이라 입산이 아니면 숨을 데가 없어, 어제 본 사람 오늘 없고, 아침에 본  
사람 저녁에 없었다. 도처에 떼주검들이 늘비하고 핏물이 고랑을 파고 흘렀다.

(현기영, 「거룩한 생애」 중)

책무처럼 4·3을 쓸 수밖에 없었던 현기영의 오래된 예감은 이미 대학 시절에 예고없이 찾아온  
것이였다. 당시 한라산에 오른 작가는 “거대한 암흑덩어리의 산, 술한 사람들이 비명에 죽어  
간 비극의 산, 그 산 한가운데에 눈썹같은 모닥불을 안고 버티는 ‘나’라는 한 점의 생명, 저승  
에 안착하지 못해 허공 중에 떠도는 그 원혼들이 내 생명을 꺼뜨리려고 무리지어 나를 에워싸

고 있는 것만 같아서”(현기영(1990), 『문학과 비평』, 봄호)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정상에 오르지 않고 하산해 버렸다 한다. 하여 그 날의 경험을 묘사한 단편 작품 「산정을 향하여」를 썼다.

아이들의 눈에도 그해 겨울 이후 한라산은 예전의 한라산이 아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피난을 간 후 그 산은 그냥 그대로의 배경이 될 수 없었다.

“그렇다. 저 한라산과 그 둘레 별판의 눈 속에, 한때 6천 명 이상의 피난민이 숨어 있었다. 한번은 내가 밀기울범벅을 먹기 싫다고 뽕대다가 한라산 눈구덩이 속에 굴고 있는 내 동무 지예와 완식을 생각하라는 어머니의 꾸중이 가슴 뜨끔해진 적이 있었다.”

성장소설 「지상에 손가락 하나」에서 그 시절을 고백한 작가는 “아이들과 놀다가도 문득문득 시선이 산 쪽으로 가곤 했는데 그 때마다 한라산은 수심에 찬 듯 구름 속에 잠겨 있곤” 했던 것을 기억한다.

흰 눈 위에 산지사방으로 달아나는 사람들을 뒤쫓으며 습격자들은 아마 토끼몰이 기분을 만끽했던 모양이다. 습격 때마다 걸음이 늦어 뒤처지는 노인, 어린애, 그리고 어린애가 딸린 여자의 희생이 컸다. 빨리 못 걷는다고 제 새끼를 소 때리듯 때리며 사색이 되어 허둥대다가 총탄에 쓰러진 젊은 아낙들, 쓰러진 어미 곁에서 울고 있는 아이들마저 총검으로 산적 꿰듯 꿰더라 했다. 백설 위에 낭자히 뿌려진 선혈이 소름끼치게 붉더라 했다. 겨우내 수심에 찬 듯 구름 속에 잠겨 있던 한라산….

(현기영, 『지상에 손가락 하나』 중)

한라산은 아주 가까이 있다. 가끔 사람들은 한숨을 쉬며 악산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어떤 날은 그렇지 않다고 한다. 어린 아이의 눈에는 어떻게 비쳤을까.

정상의 멧부리 바로 아래 급경사로 파여내린 탐라계곡, 가까워서 크게 확대되어 보인다. 작은 구름의 움직임도 잘 보인다. 그 계곡에 출몰하는 구름을 본다. 정말 자궁같이 생겼다. 물의 원천이기도 한 그 깊은 자궁에서 구름이 태어나 솟아오르기도 하고, 밖의 구름이 그 안으로 휩쓸려들기도 한다. 제 새끼를 낳았다가 다시 거둬가는 그 자궁을 보면서, 나는 제 새끼들을 잡아먹은 암돼지 같다고, 한라산을 악산(惡山)이라고, 한껏 미워해 본다. 그러나 그 주검들이 어찌 한라산의 잘못일까.

(현기영, 『지상에 손가락 하나』 중)

#### 4.3과 겨울산에서의 생활

4.3 비극의 참혹성을 고발하는 오경훈의 『침묵의 세월』은 무장대에서 연락원으로 활동하는 주인공 고행림을 통해 4.3의 여러 가지 양상과 측면을 다루고 있다. 특히 그가 묘사하는 입산생활은 혹독하고 거칠다.

“산생활은 기다림이 없으면 불가능하다구. 불편한 잠자리, 거칠은 음식, 고독과 외로움, 그 위에 끊임없이 끼어드는 불안은 견뎌내기 어렵다. 나는 신참 동지의 입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



야. 미리 얘기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라고 하면서 “사나이는 창대를 움켜잡아 그것을 몸 쪽으로 당겨 곳곳이 세우면서 말을 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싸워야 한다. 행림도 상대방의 화제에 맞추려고 가벼운 소리를 내었다.”

입산생활에서 여자대원들의 생활까지 담아내고 있는 『침묵의 세월』은 기상, 점호, 훈련, 강의, 식사, 아지트 이동, 막사짓기, 전투 등 산에서의 긴장된 정황을 두루 그리고 있다. 그 대목은 이렇다.

행림은 가는 곳마다 눈을 놀라게 하는 백골과 마주쳤다. 들국화가 시들어가고 있는 언덕에서, 계곡에서, 허연 뼈 위로 낙엽이 떨어지고 있다. 누가 죽인 것인가. 사람의 뼈도 있고 동물의 뼈도 있다. 가축을 몰고 나온 사람들이 가축과 함께 죽은 것으로 보였다. 동물도 사람도 턱을 크게 벌리고 무슨 소리를 외치고 있는 모양이었다.

(오경훈, 『침묵의 세월』 중)

4·3 입산자의 겨울은 참혹했다. 눈 위에 발자국을 남기면 안 되는 것, 그것은 불문율이었다.

겨울 산에서 부청하는 자신의 발자국을 쓸어 감추면서 보행을 계속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냇가에서 언 땅을 파서 귀틀집을 짓고, 그리고 밤에는 활동 전선에 나섰다. 나부끼는 뼈라와 선무 방송의 유혹을 물리치는 일도 쉽지 않았다. 그가 토벌대에게 백기를 드는 행위는 죽은 동지와 무고한 양민 희생자에 대한 배신 행위였다.

(김관후, 「두 노인」 중)

추운 겨울 산에서의 입산생활에 대한 부분이다. 가팔랐던 생의 벼랑을 느끼게 하는 4·3의 정황들이 여기저기서 암반처럼 솟아난다.

눈은 한라산의 고산지대에서도 기온이 급강하하면 비슷한 모습으로 피어났다. 미리 나무에 내려 앉아 있던 이슬이나 습기가 기온이 급강하하면 얼어붙으며 그대로 꽃으로 피어났다. 이런 때 멀리서 바라보면 산은 꼭 부케를 든 신부의 모습과 같다.”

(오성찬, 「겨울 산행」 중)

4·3의 선봉에 이덕구가 사살될 때까지 저항의 근거지로 삼았던 산 속 요새를 눈이 내리는 가운데 찾아가는 이야기인 오성찬의 「겨울산행」에서는 견고한 겨울산의 묘사가 생생하다.

“정갈한 교목 숲에 눈은 이제 시나브로 흩날리고 있었다. 바람이 자니까 추운 느낌도 덜했다. 의연하게 눈덮인 한라산 정상이 ‘나는 모든 역사의 진실을 알고 있다’는 자세로 버티고 있었다. 그러나 산은 그 이상은 아무 말도 하려 들지 않았다.”

그의 소설 속에 등장하는 서나무, 제주조릿대, 보리수, 다래넝쿨, 청미래덩굴 등 수많은 식물들은 을씨년스런 한라의 어둠 속에서도 겨울을 견디고 있다.

김석범 『화산도』의 한라산

제주출신 재일 작가 김석범. 그는 20여 년에 걸친 필생의 역작 4·3장편 『화산도』를 썼다. 1948년 2월을 시점으로 한 『화산도』의 서장(序章)은 ‘한라산을 주봉으로 한 사라봉’의 모습과 바다 풍경을 그리고 있다. “바람이 계속 불어와 아득히 먼 산에서는 또 눈이 내렸다. 하늘을 가득 메운 구름으로 산 중턱까지 덮인 한라산이 광대한 산록이 새하얗게 변했다.”는 서술에서 4·3의 전조를 감지하게 한다.

“신작로에 면한 검은 돌담은 거의 끊어지고 이어져 있었다. 멀리 보이는 밭의 저 너머에는 완만한 경사를 이룬 드넓은 들판이 펼쳐져, 눈덮인 한라산의 웅대한 산록에 겨안겨 있었다.”

김석범은 여기서 한라산의 삼의양오름에서 본 한라산의 자태를 농염하게 그려내고 있다. 산천단 언저리에서 동쪽을 보면 한라산록의 완만한 경사가 드넓은 고원이 되어 끝없이 이어지고 여기저기에 크고 작은 오름들을 볼 수 있다. 이 산천단에서 300~400m 쯤 떨어진 곳에서 삼의양오름이 솟아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오름의 정상에서 산록에 이르기까지 깊이 패어 있는 골짜기에 나무가 뺨뺨이 들이차, 멀리서 바라보면 여자의 음부(陰部)와 아주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었다. 게다가 골짜기의 검붉은 바위 틈에서 샘이 솟고 있기 때문에, 멀리서 바라보면 그 부분이 항상 촉촉이 젖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 상상을 부추기는 또 하나의 근거는 한라산 중앙부의 모양이었다. 정상의 양 옆구리에서 험하게 깎여 천천히 곡선을 그리며 내려오는 깊은 골짜기 사이에 거대한 돌출부가 솟아 있는데, 이 돌출부위 끝이 마침 삼의양오름의 골짜기를 향하고 있는 것이다. 자연의 조화가 이루어낸 절묘한 짜짓기라고나 할까. 그 돌출부와 삼의양오름의 골짜기는 그 모습과 위치가 인간의 소박한 상상력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그림 같은 이 묘사는 얼마나 육감적인가. 작가는 제주에서 직접 4·3을 겪지는 않았다. 일본에서 간접적으로 취재한 내용으로 소설을 쓴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가 입력했던 한라산 묘사는 세밀하다. 작가에게 다가간 한라산은 상상의 원천임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다.

이방근이 아는 사람 가운데, 그런 발상에서 영봉 한라산의 목탄화를 그린 남자가 있다. 한라산의 실제 모습을 상당히 변형시킨 그 그림은 예로틱하기도 하고 웬지 그로테스크하기도 하며, 게다가 유모어까지 풍기고 있었다. 유화도 수채화도 아니고 왜 하필 목탄화인지는 모른다. 그러나 그 흑백의 산풍경이 묘하게 사람을 끌어당기는, 부드럽고 육감적인 감촉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다. 어쨌든 자연을 그렇게 짜맞춰 보는 것은 유쾌한 상상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라산의 거대한 돌출부에 비하면, 높이 6백 미터도 채 안 되는 삼의양 오름의 골짜기는 너무 작아 보여서, 좀 가련한 느낌이 들지 않는 것도 아니다.

(김석범, 『화산도』, 제7장 5절).

외지작가들이 본 4·3과 한라산

한라산은 제주시민만의 전유물인가. 한라산은 민족의 산이다. 한국전쟁에 버금 가는 비극사인

4·3의 한라산은 1948년 월북작가 강승한의 서사시 「한나산」에서 시작된다. 과도적 시공간에서, 제주도 한라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가를 쓰고 있다. 황해도 신천군 석당리 출신이라고 되어 있는 그는 한국전쟁 때 피살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4·3의 발발 때 한라산을 시로 형상화 한 사람은 제주출신이 아닌, 전라남도 영광군의 출신 조운(1900~?)이다. 그의 「유자」 전문은 이렇다.

柚子는 향기롭다 祖國처럼 향기롭다  
이울줄 모르는 잎에 안겨 자랐노니  
가시城 六百里두리 漢拏山을 지킨다

물을 건너오면 탕자된다 하거니와  
물을 건너가면 탕자도 柚子 될지  
밤마다 漢拏山봉우리 별이 불른다노나

“그는 한라산을 오르지 않았을 것이다. 이 시가 쓰여진 시점은 1948년 6월이다. 제주도에서는 4·3의 화염이 진동하던 시기였다. 그리고 남도에 살던 시인은 제주도의 이 난리를 들었을 것”이라고, 한라산 봉우리를 아마 염두에 두었을 것이라고 시인 정양은 적고 있다.

“한라산 봉우리가 아닌, 한라산 봉우리에 내리는 별빛을 바라보면서 한라산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이다. 물을 건너가는 것, 건너가서 ‘이울 줄 모르는 잎에 안겨’ 사는 유자가 되어 가시성(城)을 두르고 한라산을 지키며 조국을 그 향기로 채우고 싶은 화자는 밤마다 한라산 봉우리의 별을 바라보면서 ‘물을 건너가면 탕자도 유자 될지’ 반신 반의(半信半疑)하면서 가능성이 희박한 그 희망을 간절하게 곱씹고 있다.”

정양이 쓴 「시조시인 조운과 탕자의 꿈」(『유심』, 2001, 여름호)의 한 부분이다. 정양의 서술을 읽으면서 「유자」를 읽어보면, 그 뜻이 얼마나 곡진한가를 헤아려 볼 수 있다.

그러한 4·3의 한라산은 40여 년이 지나 이산하의 서사시 「한라산」(1986)으로 탄생했다. 이산하의 고향 역시 제주가 아니다. 그러나 그의 몸과 시대정신은 제주를 배태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의 증거로 그는 장시 「한라산」을 통해 4·3의 전사를 기록하고 있다. 이 시는 이미 탄생부터 구금을 무릅쓰고 나왔다. 그로 인해 혹독한 감옥의 시간을 겪어야 했다. 「한라산」을 쓰고 국가보안법 위반이란 이름으로 감옥살이를 한 것이다. 그 한라산은 “햇바닥을 깨물 통곡 없는 갈 수 없는 땅, 발가락을 자를 분노 없이는 오를 수 없는 산”이었다.

‘와아’하는 함성과 함께 / 한라산 모든 봉우리란 봉우리는 / 분노와 해방의 봉화불이 치솟아 / 착취와 어둠을 삼키고 / 숨죽이던 바다는 온몸으로 철썩대기 시작했다 / 자위대, / 민애청, / 농민동맹, / 여맹원, / 학생동맹, / 소년 선봉대까지… // 죽창과 총을 든 전사들이 / 한라산에서 물밀 듯이 내려와 / 정해진 목표물을 / 하나씩 제거해나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산은 “일자무식한 사람들도 / 하나 둘씩 식량보따리를 싸들고 / 산으로 / 산으로” 들어갔던 산이었으며, “피를 묻고 / 살을 묻고 / 뼈를 묻는 / 흑한의 한라산 / 그 눈덮인 산하”(이산하, 「한라산」)의 한라산이었다.

이후, 4월 제주를 찾은 제주 밖의 시인들에게 한라산은 “미움 돌팔매질 하는 / 풀뿌리 민초들

/ 자유와 알 권리 위해 온 섬 떨치어 / 골골이 울린 함성 / 채 다하지 않은 노래 / 시대의  
벽 허물어 아침을 재촉하니 / 잠들지 말라 한라산 / 오름마다 선혈로 메아리지는 / 피의 달  
4월이 오면”(안도섭, 「한라산」 중)처럼 비감어린 한라산이 되었다.

한서린 땅임을 예감하는 시인은 “이어도라 이어도라 / 알 수 없는 노래 소리뿐 / 해녀는 말  
이 없고 / 옛 유배의 땅 제주 / 4·3사건에 얼룩진 제주 / 흠 한줌도 바람 한 귀도 곱게 잠들  
수 없는 / 사연 다 알고 있으련만 / 주야로 구름 덮어 쓰고 / 말 아니 하는 한라정상 / 지금  
은 휴화산 / 백록담 분화구도 / 만장굴·협재굴도 / 꿀꺽 삼켜버린 제주 백성의 한을 / 입 다  
물고 있네”(정대구, 「제주도의 침묵」 중)라고 노래할수밖에 없다. 비록 제주 바깥에서 온 시인  
들이지만 그들의 눈에 이미 한라산은 서정의 공간만은 아닌 것이다. 그러나 아무래도 외부자  
의 시각에서 본 그 곳은 피상적인 4·3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있다.

## 6 외부인의 눈에 비친 한라산

정지용의 백록담, 그리고 생태계를 노래함

한라의 절정, '백록담'에 대한 절창은 이미 정지용(鄭芝溶 1902~?)에게서 결단났다. 빼어난 감수성이 굽이치는 언어감각으로 조탁한 걸작 「백록담」이 탄생한 것은 1938년 국토순례 길에서였다.

그의 한라산 순례는 시인의 특출한 시적 탐구에 의해 그 시절 한라의 본모습을 그려볼 수 있게 한다. 시 한 편이 그려내는 한라의 풍광은 그야말로 다채롭고 무궁무진하다. 종합적인 드라마를 연출한다. 한 소절 한 소절 긴장과 이완이 이어지는 「백록담」은 이후, 한라산을 오르려는 사람들의 후렴구가 되었다.

그 때 그가 대했던 한라산은 “한눈에 정이 들어 즉시 몸을 맡기도록 믿음직스러운 가슴과 팔을 벌리는 산”이며 그 산은 그에게 “동방화촉에 초야를 새우울 제 바로 모신 님이 수집고 부끄럽고 아직 설어 겨울뿐일러니 그 님의 그 얼굴 그 모습이사 동창이 아주 희자 솟는 해를 품은 듯 와락 사랑롭게 뵈입는 신부와 같이 나는 이날 아침에 평생 그리던 산을 바로 모시게”된 감격의 산이었다. 평화의 산이었다.

10년 후, 한라산 등허리가 채찍질당하는 고통을 예감하지도 않았다. 그 시절, 한라산은 말과 소의 방목과 인간과 짐승과 자연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정경이었다. 그는 거기서 본 것은 온갖 자연이 가꿔 놓은 생태계였다.

한라산 정상 백록담에는 맑고 푸른 물이 있었으며, 그 맑은 물에 하늘이 비치고 있는 것도 보았다. 거기에서 꼬꼬리, 휘파람새, 동백, 풍란, 떡갈나무, 고사리 등등 한라산 여기저기에 널려 있는 생태계를 살려 놓는다. 1946년판(白楊堂版)의 「백록담」 부분을 보자.

絶頂에 가까울수록 백국채 꽃기가 점점 消耗된다. 한마루 오르면 허리가 슬어지고 다시 한마루에서 모가지가 없고 나중에는 얼굴만 가웃 내다본다. 花紋처럼 版 박힌다. 바람이 차기가 함경도끝과 맞서는 데서 백국채 키는 아조 없어지고도 八월 한철엔 흩어진 星辰처럼 爛漫하다. 山그림자 어둑어둑하면 그러지 않아도 백국채 꽃밭에서 별들이 커든다. 제자리에서 별이 옮긴다. 나는 여기서 기진했다.

시인은 가다가 “암고란, 환약같이 어여쁜 열매로 목을 축이고 살어 일어”섰으며 그 곳, “귀신도 쓸쓸하여 살지 않는 한 모롱이”에서 “도채비꽃이 낮에도 혼자 무서워 파랑계” 질리는 모습도 만난다. 마소가 평화롭게 노닐었던 한라산을 그의 시에서 상상하기란 어렵지 않다. “바야흐로 해발 6십척우에서 마소가 사람을 대수롭게 아니 녀기고 산다. 말이 말끼리 소가 소끼리, 망아지가 어미소를 송아지가 어미말을 따르다가 이내 헤어진다.” 시인의 상상력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첫새끼를 낳노라고 암소가 몹시 혼이 났다. 열겔에 山길 百里를 돌아 서귀포로 달아났다. 물도 마르기 전에 어미를 여힌 송아지는 음매~음매~ 울었다. 말을 보고도 등산객을 보고도 마고 매여다렸다. 우리 새끼들도 毛色이 다른 어미한테 맡길 것을 나는 울었다.

시인은 다시 사방에서 나는 산의 소리에 소스라친다.

風蘭이 풍기는 향기, 꼬꼬리 서로 부르는 소리, 제주휘파람새 휘파람부는 소리, 돌에 물이 따로 굴르는 소리, 먼 데서 바다가 구길 때 좌~ 좌~ 솔소리, 물푸레 동백 떡갈나무 속에서 나는 길을 잘못 들었다가 다시 측년출 괴여간 희돌바기 고부랑길로 나섰다. 문득 마조친 아롱점 말이 피하지 않는다.

수많은 식물들도 살고 있는 한라산을 지나서 그는 드디어 백록담 가까이 간다. 그 백록담엔 무엇이 살고 있을까.

고비 고사리 더덕순 도라지꽃 취 삭갓나물 대풀 石耳 별과 같은 방울을 달은 고산식물을 색이며 醉하며 자며 한다. 백록담 조찰한 물을 그리며 산맥우에서 짓는 행렬이 구름보다 장엄하다. 소나기 늦녓 맞으며 무지개에 말리우며 궁둥이에 꽃물 이겨 붙인채로 살이 붓는다.

백록담 맑은 물은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흔들어 놓았다. 적어도 그 시절엔. 신성한 공간의 이미지와 시인의 쓸쓸한 내면풍경이 그대로 백록담 맑은 물에 비친다.

가재도 끄지 않는 백록담 푸른 물에 하늘이 돈다. 불구에 가깝도록 고단한 나의 다리를 돌아소가 갔다. 쫓겨온 실구름 一株에도 백록담은 흐리운다. 나의 얼굴에 한나절 포긴 한라산은 쓸쓸하다. 나는 깨다 졸다 기도조차 잊었더리라.

정지용이 그 산에 어떤 민족적인 의식의 수사를 입혔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순수하게 그는 그 산에 자신을 맡겼다. 그것의 증거는 1938년 조선일보에 발표된 산문에서 보인다. 시는 산문보다 조금 후인 1939년에 발표됐기 때문이다.

산의 매력은 하산할 때까지 이어진다. 그것은 산에서 받은 기운이 오래도록 자신을 맴돌기 때문이 아닐까. 정지용은 한라산 경험을 못내 잊을 수 없었다. 그의 기행산문 「多島海記(다도해기)」 중 다섯 번째 「一片樂土」라는 글이다. 산을 처음 대하고 눈물이 날 정도로 반가웠던 시인에게 한라산은 거룩한 얼굴이다.

…해면에는 아직도 夜色(야색)이 개이지 않았는지 물결이 개온한 아침 얼굴을 보이지 않았지만 한라산 이마는 아름답한 자주빛이며 옅은 보랏빛으로 물들은 것이 더욱 거룩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한라에 대한 선입견을 모두 지워버릴 수밖에 없었다. “제주도는 마침내 한라 영봉의 오롯한 한덩어리에 지나지 않는 곳인데 산이 하두 너그럽고 은혜로워 산록을 둘러 인축(人畜)을 깃들이게 하여 자고로 넷 골을 이루도록 한 것”이라고 자각한다. 그러면서 그는 사람들의 삶에 “돌을 갈아 밭을 이룩하고 우마를 고원에 방목하여 생업을 삼고 그러고도 동녀(童女)까지라도 열길 물 속에 들어 어패와 해조를 낚아 내는 것입니다. 생활과 근로가 이와 같이 명쾌히 분방히 의롭게 영위되는 곳이 다시 있으리까?”라고 한다.

그의 여섯 번째 글 「귀거래(歸去來)」에서는 그 감흥이 비화되어 자못 충만한 여유로 흘러 넘친다.

해발 1950米突(미돌 : 미터)이요 리수(里數)로는 60리가 넘는 산 꼭두에 천고(千古)의 신비를

감추고 있는 백록담 푸르고 맑은 물을 고삐도 없이 유유자적하는 牧牛(목우)들과 함께 마시며 한나절 놀았습니다… 산행 120리에 과도히 피로한 탓이나 아니올지 내려와서 하룻밤을 잘도 잤건마는 축항(築港)부두로 한낮에 돌아다닐 적에도 여태껏 풍란(風蘭)의 향기가 코에 알른거리는 것이고, 입안 가득 고산식물 암고란(岩高欄 : 시로미)열매의 달고 신맛을 느낀다.

(『정지용 전집 2』, p.125.)

그렇게 산에서 내려와 바닷가에 온 시인. 그 자신도 그 산의 기운은 온 몸을 감도는 것에 소스라친다. 바닷가 돌 위에서 눈을 감으면 “그 살찌고 순하고 사람 따르는 고원의 마소들이 나의 뇌수를 꿈과 같이 밟고 지나며” 뽕꼬리와 휘파람새나 “이름도 모를 진기한 새들의 아름다운 소리가” 그의 귀를 소란스럽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산문시 같은 알싸한 이 문학적 향취는 어디서 온 것일까.

정지용의 「백록담」을 깊게 파헤친 비평가 김병택은 「백록담」이 “한마디로 대상이 되는 사물인 자연과 일체를 이루는 경지라고 할 수 있다.”고 하고, “그 자연은 구체적으로 한라산인데, 화자는 그것의 높이와 빼꼭채 꽃기를 반비례의 관계로 파악하는 등 어떠한 주관도 개입되지 않는, 판화와 같은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 시는 백록담을 비롯한 한라산 도처의 신비로운 경관을, 관념을 철저히 배제한 상태에서 보여준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백록담 이상의 높은 공간을 지향하는 의미의 움직임이 전혀 없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기도 하다.”고 평한다.

한라산으로 가는 길은 크고 작은 야생화들도 기웃거리면서 가는 길이다. 박목월의 시 「溪谷」 등은 한라산의 생태계에 대해서 또 다른 인식을 하게 하는 시들이다.

피난기에 제주를 찾았던 박목월. 한라산 숲에 몸을 맡기고, 그의 예민한 눈은 식물에 빼앗긴다.

자밤나무, 노가리, 동백, 조롱, 식나무, 돈나무, 굴거리, 모람, 막상넝쿨, 정가리, 황철목, 팻배나무… 얼키고 설키고 물줄기 따라 골짜기는 바다로 있었는. / 중허리 하얀 돌다리에 말. 溪谷을 굽어보는 나의 分身 비에 젖었다.

(박목월, 「溪谷」)

한라산의 굴거리나무는 언제 봐도 그 푸르름에 질리게 된다. 그 완강한 푸른 빛은 사계절을 망라하는 압도적인 몸을 가졌다. 시인은 아마도 한라산 영실로 가는 길, 굴거리나무 하나가 그늘이 되는 그 산의 목가적인 멋스러움을, 초록의 설화가 얹혀 있는 그 상징을 쉬이 잊을 수 없었을 터이다.

漢拏山 기슭에는 전혀 낮 선 사투리로 나부끼는 풀빛. 빛나는 / 바람. 다만 굴거리 나무와 굴거리 잎새는 내가 접지되는 그날부터 / 나와 親熟한, 다정한 눈짓을 보내고 있었다. 그 어수룩한 정다운 나무를 知天命의 下年에 邂逅했다.

(박목월, 「굴거리나무」)

한라산에는 암매(岩梅)라 부르는 돌매화가 절정으로 가는 길에 산다. 바위에 붙어 떨어지지 않는 키작은 꽃. 그래서 그런지 시인들의 감수성을 촉발시키는 꽃이다. 그것의 순수 앞에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한다.

나의 사랑은 그러고 싶다 / 돌에서 피는 나무처럼 단단하고 싶다 / 들꽃보다 작은 그리움의  
키를 낮추고 / 사람 하나를 사랑한다는 일이 / 높은 산에 저 스스로 씨 뿌리고 / 저 스스로  
자랄 만큼만 자라는 / 그런 그리움이고 싶다 / 돌에서 피는 사랑이고 싶다 / 하얀 마음 붉은  
마음 / 돌 속에 스며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 그런 돌매화나무처럼 / 손톱만한 키로 자라 /  
한라산 백록담의 높이로 있는 / 그런 사랑이고 싶다.  
(원재훈, 「돌매화나무처럼」).

## 서정과 상상력의 공간

1920년대의 제주는 어떤 풍경이었을까. 이 때를 노래한 시가 있다. 풋풋한 정감이 흐른다.  
1925년 3월 『조선문단』 6월호에 실린 신동식(申東植)의 「제주도」.  
평론 「20세기 전반기의 제주문학」에서 이 시를 소개하고 있는 비평가 김영화는 제주의 자연  
과 제주인의 삶을 표현한 것으로 미루어봐서 제주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한다. “제주  
인으로서 그가 보아 온 제주의 자연과 제주인의 삶을 노래한 것인지, 아니면 제주에 여행을  
왔다가 돌아간 후에 그 인상을 쓴 것인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제주적인 요소가  
있는 첫 번째 작품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있다. “한라의 눅눅한 봄”이 검푸  
른 초원과 바다와 조화를 이루고 있는 곳, 그 곳이 제주도이다.

오 - 橘香내 눅눅한 아름다운 섬  
南郷의 그리운 나라 - 아름다운 섬  
漢拏의 눅눅한 峰 솟은 -  
옥어진 雜木의 濃厚한 陰影  
나무마다 피인 가지 各色 꽃  
망아지의 떼 - 그들 내는 아우성 소리  
작난 잘하난 水牛 - 그 무거운  
熱日에 빛나는 검푸른 草原  
고요한 波面에 떠오르는 해녀의 노래  
(하략)

유달리 산을 사랑했던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의 서정시인 신석정(1907~1974)은 전북 부  
안 출신이다. 1950년대 초에 제주를 다녀갔던 그의 「백록담에서」는 그가 얼마나 한라에 마음  
을 앓기고 있었는지를 느끼게 한다.  
제주를 찾아온 수많은 작가들은 바다에서 혹은 상공에서 마주치는 한라영봉에 이미 마음을 앓  
기고 설렌다. 제주에 왔으나 한라산을 오르지 않고는 제주에 왔다갔다 말하지 말라는 것이다.

한라산은  
구름 속에  
좀체  
얼굴을 내놓지 않는다.



176센티미터의 내 키에도 보이고  
걸리는게 하도 많아  
자주 눈을 감아야 하는데,  
아무리 너그러운 1956미터의 키다리고 보면  
때론 지치도록 아니꼬와  
자주 구름으로  
낮을 가릴 수 밖에…  
(하락)

또다른 신석정의 시는 한라산에서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는지를 느끼게 한다. 나무들과 한라산의 이미지, 어둡다를 세 번이나 외친다. 검은 색과 붉은 색의 선명한 대비가, 민족의 산으로서의 의식과 결합한 자연물로서의 한라산이 떠오른다. 역사의 어둠을 헤치고 성성하게 서 있는 한라의 뜨거운 몸을 보는 것 같다. 그 시는 이렇다.

태초였다  
너무 어두웠다

그 무서운 혼돈 속에  
한라산은 서서  
뜨거운 가슴을, 불을 뿜으며  
몸부림쳤다  
“어둡다!”  
“어둡다!”  
“어둡다!”  
한라산의 목멘 소리…

사철 푸른  
굴거리나무로 북가시나무로 빗줄나무로 팡팡나무로 비자나무로  
한 때 상처 입었던 아랫도릴 가리고  
(신석정, 「한라산에 서서」 중 )

미당 서정주(1915~2000)도 한라산에 헌사를 바치지 않을소냐. 그는 살아서 한라산을 사랑했다. 제주를 사랑했다. 원시적 생명력에 눈을 돌려 제주도에 대한 시를 여러 편 남겼다.

빛을 모아 / 해와 달과 별의 염통과 눈의 빛을 모아, / 그대 / 사랑의 마디마디의 金剛石 / 구름 위에 永遠을 비치고, / 바람 비와 번개와 벼락 / 그대의 정수리를 / 수없이 몰아쳐도, / 知慧의 맑은 湖水 / 거기 걸러 담을 뿐, / 물결을 보내, / 어버이의 당부같이 / 끊임없이 사랑의 물결을 보내, / 못 물의 발부리를 / 어루만지고 타이르고 / 타이르고 어루만지고만 있느니. / 그대 어깨 위에 / 소금발처럼 쓰리게 배어 나는 / 하이엔 하이엔 눈 서리의 흔적이며. / 말하지 않는忍苦의 거룩한 裝飾이며. / 우린 다만 머리 숙여 / 그대 찬양할 말을 차마 찾지 못하여라.

(서정주, 「讚歌 - 겨울 漢拏山에 부쳐」 전문)

한라산의 설화는 미당 서정주에겐 한라산 산신녀를 그리게 한다. 그 설화 속의 그녀는 미당 특유의 깨끗한 관능으로 살아 꿈지락거린다. 그에게 설문대할망은 구백억 세, 이마엔 어여쁜 구백억 개 산도화 주름살이 있다. 그렇다면, 그 산신녀는 지금 어디로 갔는가.

잉잉거리는 불고추로 망가진 쑥이파리로  
또 소금덩이로  
서귀포 바닷가에 표착해 있노라니  
漢拏山頂의 山神女  
두레박으로 나를 떠서 길어 올려  
시르미 난초밭에 뉘어 놓고 간지럼을 먹이고  
오줌 누어 목욕시키고  
탐라 계곡 쪽으로 다시 던져 팽개쳐 버리다.  
그네 나이는 九百億歲,  
그 자디잔 九百億 개 山桃花빛,  
이쁜 주름살 속에  
나는 흡수되어 덩굴어 내려가다.  
너무 어두워서 옷은 다 벗어 찢어 햇불 붙여 들고  
기다가 보니 새벽 세 時  
觀音寺 법당 마루에 가까스로 와 눕다.  
누가 언제 무슨 핀셋으로  
九百億 개 그네의 그 山桃花빛 주름살 속에서  
나를 되루 집어내 놓았는지  
나는 겨우 꺼내어진 듯 안 꺼내어진 듯  
이 해 한 달 열흘을 꼬박 누워 시름시름 앓다.  
(서정주, 「漢拏山 山神女 印象」 전문)

제주를 온 몸으로 껴안고 있는 시인 이생진. 그의 시심 역시 한라산에 대한 긍지로 넘친다. 백록담에 올라가 봐야 그의 시가 다가올 일이다.

백록담 서북벽에 / 앉은 사람에게는 바람이 와서 / 날개를 달아 준다 / 무거운 바윗돌 까지도 / 날개를 달고 / 하늘을 한바퀴 빙 돌고 내려와 앉는다 / 뿌리깊은 나무도 푸른 날개를 달아야 하는지 / 그것은 백록담에 올라와서야 알게된다.

(이생진, 「백록담연가」 중)

김광림은 “오월 하순에 / 다홍치마 찢어 발기는 / 한라산 철쭉을 보았다.” 애써 백록담으로 이르는 발길이었다. 그러나 백록담은 쉽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 침묵의 절정은 시인의 의지에 찬 등정에 힘입어 겨우 한자락 새침때는 표정에서 드러난다.

한마루에서  
안개비를 만나고

두 굽이를 돌다가 잎이 막혀  
주저 앉았다  
일어났다  
거듭 거듭 기를 쓰면  
자주 마려운 오줌기  
변덕스런 날씨인데도  
구김살 하나 없이  
새침 때는  
그 모습  
억만의 침묵을 간직한 채  
돌팔매 칠 기력조차 앗아가는  
저게 바로 백록담  
(김광림, 「새침 때는 白鹿潭」)

백록담에 올라서 보라. 그리고 하계를 보라. 백록담이 시샘을 하는 듯 구름을 그려안은 풍경이 보이리라. 바다에 둘러싸인 그 산의 야들야들한 속살은 또 어찌 감회가 새롭지 않을까. 옛적부터 중국인들이 흠모하던 한라산이라 했다. 낭인처럼 떠돌며 산타기를 좋아하던 시성 두보가 백록담에 올랐다면 아마 명구를 남겼을 것이다.

백록담에 오르면 알리. / 거긴 등반의 끝이 아니라 / 새로운 시작임을. / 도달되지 않는 높이  
에 / 산은 또 하나의 / 산을 세워두고 있음을... / 물안개 속으로 파고드는 / 해녀들의 노  
랫소리 멀리 / 무엇이 남아 섬이 되고 / 무엇이 목말라 봉우리를 이루었는지를 / 눈향 섬매  
자 구상 벗어나무들은 / 저마다 모여서서 / 헤아릴 길 없는 깊이의 / 하늘을 우러러 목이 탄  
다.  
(손종호, 「한라산」)

오랜 관조가 느껴지는 구상의 한라산은 실존적이며 철학적이다.

내염(內焰)을 고이 끝낸  
시인의 하품.  
정숙한 지어미의  
희어진 머리.  
태초로부터  
명암(明暗)을 이겨 온  
실존(實存).  
인연의 선악에도  
자유로운 부동(不動).  
국토신(國土神)의 이궁(離宮).  
(구상, 「한라산」 중)

바다의 시를 주로 쓰는 김성식은 ‘옥돔’마저 한라산에서 시작해 백록담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그것 역시 한라의 품을 떠나 마음대로 떠날 수 있을 것인가. “난 아직 / 한라산 그늘을

벗어난 적 없어 / 남지나해 난류에 얹힌 대마 해류따라 / 혹은 황해로 빠지는 조류를 좇아”,  
“이 바다 구석구석을 쟁기질 해 / 그 긴 억 년 세월을 버티어 나갈거야 / 내 꼬리가 백록담  
끝자락 꽃씨가 될 때까지”(「옥돔」)라고 노래한다

한라산 아래서 인간이란 존재는 무엇인가. “하늘 밑의 / 구름을 다스리는 / 한라산에 견주면  
/ 다만 나는 / 개암나무 잎 스치는 / 바람일 뿐.”(설의웅, 한라산)이며 한라산은 이승과 저승  
의 경계일 터이다. “더 오를 수도 / 더 내릴 수도 / 없는 / 벼랑 끝에 서자 / 관음사 쪽에서  
/ 가마귀가 / 죽음을 물고 / 까옥까옥 / 날아왔다 / 이승쪽에 오를 내게 / 도채비꽃이 / 손  
을 내밀고 / 안개들은 / 백록담에 포갠 내 얼굴에 달라붙으며 / 반가워했다.”(설의웅, 「한라  
산」 중)

한라를 만나고 한라를 쓰지 않은 시인은 드물다.

한라산정이 가까워질수록 숨이 가팔라지고, 그만 주저앉아 버리고 싶어질 때, 오로지 정신의  
뼈대 하나로만 살아 있는 것, 오로지 혼 하나로만 버티고 서 있는 듯한 고사목이 눈에 들어온  
다. 그것들은 흡사 비울 것 이미 다 비우고 무엇을 더 바라겠는가 말한다. 4·3장시 「한라산」  
으로 구금되기도 했던 시인은 한참 후일 훨씬 진정된 한라산을 올랐다. 한라산 가는 길에서  
만나는 고사목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의 잊혀져 가는 정신을 만난다. 이산하는 「고사목」에  
서 그러한 감정을 드러내었다.

바로 저기가 정상인데  
그만 주저 앉고 싶을 때  
거기 고사목지대가 있다

무성했던 가지들과  
푸른 잎들 떠나 보내고  
제 몸마저 빠져나가 버린  
오직, 혼으로만 서 있는  
한라산의 고사목들……

천둥 같은 그리움인 듯  
폭설 같은 슬픔인 듯

죽어서도 썩지 않는다.  
(이산하, 「고사목」)

한라의 속살 앞에 선 자, 가슴 속 불덩어리가 삽시간에 끓어오르지 않을 이 어디 있겠는가.  
누구라서, 어떤 강심장이라서 이러한 근원의 새벽빛 앞에서 경외감에 떨지 않겠는가. 아니 시  
가 없어도 되었다. 시가 곧 산이므로.

숲의 옷을 벗어던진 듯한 제주의 오름은 수줍은 듯하면서도 내숭을 떨 듯 당당한 가슴의 곡선  
을 자랑한다. 제주 선의 미학을 보여주는 한라산과 그 자락의 오름에서 시인들은 때로 사람의  
역사를 떠올린다.

가눌 수 없이 타오르는 것들이 오름으로 솟았는가 / 저마다의 가슴에 불길의 봉화 피워올렸던  
섬 / 그 오름 속에 눕는다 / 매달리는 푸른 바람의 하늘은 변함없던 것이냐 / 오름 속에서  
날아오르는 건 새떼들이 아니라 / 언제인가 퍼져나가며 지던 별들의 절망, 별들의 비명들 /  
그 정처없는 아우성이 꽃이 되어 오르는구나 / 키 작은 갯썩부쟁이에서 키 큰 억새들까지 /  
내 기억의 지도에 희미하던 / 별들의 깃발을 든 옛길들이 / 여기 꽃 하나하나의 낱알한 얼굴  
이 되어 피어오르는구나.

(박남준 「그 섬, 오름 속에 일어선다 - 제주에서」 중)

해발 1,950m의 한라산 마루턱에 앉았던 소설가 이병주. 그는 산에 오르면서 맛깔나는 산문을 남겼다. “내사 산을 정복하는 재미보다도 산마루를 타고 앉아서 아래를 바라보는 후련에 오른다. 타는 맛과 정복의 맛을 알기에는 차비부터가 모자라, 산사람에겐 그저 성가신 존재임을 모르지 않는다. 오밀조밀한 제주시가 가물가물 숨바꼭질하는 품이 흡사 세잔느의 그림과 같다.”고 우아하게 묘사한다. 그런 다음 그는 “파아란 백록담에 어리비친 구름이 방싯 눈을 준다. 올챙이가 우글거리는 저 물을 마신 생각을 하니, 새삼스레 구역질이 난다. 그나마 마셔서 조갈을 면한 사실을 까맣게 잊은 요사스런 本能이 미워진다.”고 재빨리 속내를 추스르는 자신을 보는 것이다.

그러나 백록담에서 그러한 감성을 획득하려 가는 길은 가파른 바위를 타고 올라야 한다. 수필가 조명래 역시 백록담을 만나러 가는 길을 그린 수필「그리운 금강산」에서 “사랑하는 임을 만나러 가는 길이 이리도 힘들었을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넘었던 보릿고개 그 언덕이 이만큼 가팔랐을까. 석가가 올랐던 고행의 설산 언덕이나 예수가 십자가를 메고 올랐던 골고다 언덕이 이랬을까.”라며 과장을 한다. 몇 번이나 쉬었다 오르며 힘든 여정임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1936년 10월호에 DK生이란 필명으로 쓴『한라산 모험기』는 운무로 인해 50m 아래서 백록담을 오를 수 없었던 아쉬움이 보인다.

평지에서 쳐다보면 외봉우리 같은 산이 올라와 보니 수십, 수백 봉우리나 되는 듯 운무와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한 봉우리를 넘기면 또 봉우리, 좌우간 산여리를 몇 번을 감고 돌고 해도 항상 구상나무 지대이고 길은 나서지 않는다.

(DK生『한라산 모험기』중)

한라를 향한 연모의 정이 얼마나 깊었으면 제주에 내리는 순간부터 한라로 향하는 것일까. 사람들은 모처럼의 제주행에서 한라산 등정이 빠지면 뭔가 하나를 남기고 가는 심정이라고 말을 한다. 때문에 어떤 작가는 “새벽 비행기에서 내리자, 한라산 등정이 시작되었다. 산이란 이렇게 아름답고, 장엄하고, 숭고하고, 찬란한 것인가? 아름드리 나무들 위에 눈이 쌓여 있고, 가끔 장끼 몇 마리가 하늘을 유유히 날고 있었다. 허벅지까지 빠지는 눈길을 헤치며, 백록담까지의 등정은 어느 것 하나 놓치고 싶지 않은 환상적인 세계였다.”(공석하 수필,『설산조치도』에서)고 단언하는 것이다.

황순원의 단편 「비바리」는 한라산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된다. 그는 1950년대,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제주민의 삶을 그린 이 작품에서 한라산의 느낌을 이렇게 표현한다.

바다 위에서 보면 제주도란 그저 하나의 커다란 산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배를 타고 저쪽 바다 한 끝에 보랏빛으로 채색된 윤곽이 얼룩질라치면 아, 제주도다, 하고 소리들을 지르는 것이지만, 기실 그것은 섬이라기보다는 오른쪽에다 큰 봉우리를 두고 왼쪽으로 낮은 봉우리를

연이어 놓은 하나의 크나큰 산이라는 느낌밖에 주지 않는 것이다. 제주도란 한라산 그것으로 된 화산도인 것이다.

## 고은과 한라산

마침내 한라산은 절망의 노래를 희망의 노래로 바꾸어주고, 마침내 한라산은 삶의 비의를 느낄 줄 아는 인간이야말로 참다운 인간임을 깨우쳐준다는 것인가. 사랑의 절정이 한라산에서 완성되며 한라산에서 시작된 사랑이 한라산에서 절정이 된다.

“한라산 정상에서는 방향이 없는 바람이 사람 사는 따위는 가볍게 날려버리게 부는 때가 많다. 거기서 제주도 전체를 바라보는 일은 제주도의 역사의 여러 부분의 비밀을 알 수 없게 하는 풍경의 개관만이 어떤 적성(敵性)의 시정과 함께 남겨질 뿐이다. 김윤식(金允植), 정지용(鄭芝溶), 이은상(李殷相)의 시도 헛된 것이다. 어떤 감회도 헛된 것”이라고 한 사람은 고은이다. 그는 “정지용의 백록담은 절박하게 종지(終止)되는데, 이런 느낌은 온몸의 고행에 의해서 바라보게 되는 백록담의 깊은 허무 때문이기도 한 것 같다.”고 느끼는 것이다.

제주도의 근원을 추적하며 시적 유량을 했던 적당히 젊은 시인 고은의 제주도 체험은 산문 『제주도』를 남긴다. 이 산문집에서 고은은 1967년부터 3년을 살았던 제주체험을 쏟아부었다.

그는 “우미한 산자락의 우의(羽衣)를 펼치고 있는 한라산은, 이윽고 그의 불의 분노를 죽여서 그 분화구에 이성의 백록담을 물그릇을 인 사람처럼 이고, 제주도와 제주도의 모든 바다에 대한 하나의 신앙을 이루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고은의 말처럼 “한라산은 모든 절망에 대한 하나의 답변”이다. 설문대할망의 한계도 한라산에서 보면 수궁이 간다.

이 속에서 고은은 “산이 깊은 잠 때문에 동등하게 고립되어서 소경이 되어있는 영원의 산을 혼자 바라볼 수 있었다.”고 했다. 그 때 봤던 새벽의 한라산을 두고, “마치 수인(囚人)이 최후의 사약(賜藥)을 받은 것처럼 비장한 수묵(水墨)의 극채(極彩)를 이룬다.”고 했던가.

삶의 황량함을 느끼는 순간, 무작정 오른 한라산. 그것이 간접한 일을 일일이 열거할 수 있을 것인가. 내부자의 시선과 외부자의 시선은 자신의 조리개를 어느만큼 여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내부자가 말하는 그리움의 상징이자 자유의 상징인 한라산은 외부자의 시선과 다르다. 가까이 있는 것은 그만큼 잊기도 쉽다고 했던가. 고향을 떠난 자가 고향을 그리워하듯 한라산을 떠나야 더 한라산이 그립다. 고은은 그런 제주사람들과 한라산을 번갈아 본다. 그리고 한라의 마음과 제주인의 심성을 헤아려본다.

## 제주사람은

한라산이 몽땅 구름에 묻혀야

그때 한라산을 바라본다

그것도 딱 한번 바라보고 그만둬 버린다

정작 한라산 자체가 드러나 있는 때는 그 아름다움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한라산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과연 만년이다

만년을 산 사람이다

이것이 제주사람 본토박이 마음이다

괜히 어제 오늘 건너온 사람들이  
해발 1950미터의 한라산을 어찌구 저찌구 한다  
삼양리 검은 모래야 모래야 너 또한 한라산 아니지  
(고은, 「한라산」)

한라산은 역사와 설화가 우리네 삶처럼 얹힌 땅이다. 새벽마다 한라산을 향해서 절을 하고 신의 도장임을 믿는다. 골골마다 서사 무가소리가 장엄한 달빛을 타고 흐르는 산이다. 서러운 이야기들이 굽이굽이 꿈꾸는 세상을 향해 흐르는 산, 끝없는 인간의 근원적 상상력이 신들의 본풀이 속에 흐른다. 그 무대가 한라산이다.

그는 때때로 제주인들과 교류하는 동안 한라산을 바라보는 제주사람들의 시선에 자신의 시선을 고정시키기도 했다. 그에게 있어 제주사람들은 한라산을 의식하는 일상을 배제하는 삶이다. 거기에 묘한 시선이 쏠린다. “그들이 바다를 바라보면 한라산을 등에 업고, 그들이 한라산을 바라볼 때는 바다의 수평선이 등허리에 걸리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산과 바다를 의식하는 일이 없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다. 왜냐? 제주인들은 구태여 한라산을 의식하지 않는다. 아니다. 그럴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한라산은 삶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무릇 헛되지 않은 것이 어디 있더냐. 한라산은 정신의 생태계이다. 일몰의 순간은 바로 한라산의 고독이 드리워지는 순간일 터이다. 한없이 높은 곳에서 한라산과 일체가 되어 절대 고독을 체험한 사람들에게 삶은 무엇인가. 사람들은 한라산을 중심에 두고 방향을 정하고, 한라산을 좌표로 삼아 집을 찾고, 한라산을 찾아서 그 산자락에서 산자락으로 발을 옮겼다.

#### 이은상의 한글 기행산문

노산 이은상(1903~1983)은 1937년 국토순례길에 올랐던 한라산의 감흥을 유려한 필치로 남겨 놓았다. 그의 기행문 『탐라기행 한라산』은 시와 산문이 어우러져 그 깊은 맛을 감히 흉내 낼 수 없다. 그 촘촘한 묘사는 옛 시인의 감수성이라고 치부해 버릴 수 없는 것이다.

“창창일점한라산(蒼蒼一點漢拏山) 원재홍도 호묘간(遠在洪濤浩渺間), 푸르고 푸른 한 점의 한라산은 멀리 큰 파도 넓고 아득한 사이에 있네”란 권근의 시는 장안에 앉아서 한라산을 생각하면서 부를 노래지, 정작 한라산에 와서는 쓸데없는 노래다. 어찌하여 일점이며 어찌하여 호묘간(넓고 아득한 사이)인지 “울림황로(울창한 산림과 거친 산길)에 들어와 서니, 한라산이란 밟을수록 오를수록 미궁이요, 황홀경임을 어찌하라.”고 반문한다.

정상으로 오르는 동안 뺨골 허연 고사목이 들어왔다. 노산은 이것을 놓치지 않는다. “역사와 비밀과 이 산의 심오한 이취(異趣)는 내가 아느니라 하는 듯한 고목의 마른 등이 고원의 풍우 앞에 옷을 벗고, 살을 벗고, 뼈만 남아도 제 속에 지닌 자량이 남 두려울 것 없고, 부릴 것도 없이 교만하고, 방자하여 길을 막고도 비켜날 줄 모르고, 산나무 중동을 때리고도 천연스러이 누워 있다.”고 탄복한다. 그가 발견한 이 산의 비밀은 어디에 있었을까. 여기 저기 켜어 넘어진 고사목의 등줄기 하나 하나 만지고 놓았을 시인의 모습이 아른 거린다.

하염없이 오르던 노산은 백록담가 초원 한머리에 장막을 치고 일박을 한다. 달이 떠오르고 붉은 혀를 내밀며 타는 장작불을 보면서 그는 산의 밤을 보낸다. 감당할 길 없는 감수성이 몰아치지 않겠는가.

그리고 아침 해를 보는 기쁨도 누린다. 그 산의 달이 내리고 별이 우수수 떨어지는 밤을 보내

고 아침을 맞았던 자, 그의 문장을 빌려와 그 때의 감격을 떠올려도 좋을 것이다.

백공작의 꼬리같이 눈이 부시고 황홀하도록 아침해가 떠오른다. 광명으로 다시 이 세계를 통어(通御, 거느림)하고 편조(遍照, 두루 비춤)하여 자기 뜻대로 또 하루를 굴리시려고, 생명의 주재가 내노라, 위력의 모태도 내노라 하며, 장엄한 산상에 아침해가 떠오른다.

그는 여기서 연암 박지원을 떠올린다. 열하(熱河)를 지날 때 백담을 바라보며 통곡하였다는 것이 생각나 그는 “고함쳐 울고 싶다.”고 느낀다. “장부의 가슴을 품어 풀어 헤치고 만단 고뇌(萬端苦惱: 만갈래의 고뇌)를 여기다 쏟아 놓고서, 하늘과 땅이 마주 울리도록 시원스러이 울고 싶다”고 느낀다. 그러면서 “혼자 처져서 제 혼자서라도 울고 싶다.”고 “통곡의 참뜻을 생각한다.”고 느낀다.

더 무슨 할 말이 필요하랴. 그는 시조 한 편 마음으로 내리 찍으면서 한라산을 떠난다. 그 시는 이렇다.

창파 높은 곳에 / 님이 여기 계시옵기 / 찾아와 그 품 속에 / 안겨보고 가옵나니 / 거룩한 님의 댁(宅)이어 / 평안하랴, 한라산.

(이은상, 「고별의 노래」 중)



## 7 이방인의 눈에 비친 한라산

### 겐테의 기행문을 통해 본 한라산 인식

그렇다면 외국인들은 어떻게 한라산을 바라봤을까. 독일에 처음으로 한라산을 소개한 이는 겐테 박사이다. 지리학자이자 언론인이기도 했던 겐테(1870~1904). 그는 중국을 경유해 1901년 수개월간 한국을 여행하며 보고 느낀 것을 당시 독일 일간지 「쾰니셰 차이퉁」에 1년 1개월간 연재했다.

겐테는 당시 제주를 다녀갔던 왕실 고문 미국인 센즈를 만나 미리 제주도에 대한 예비 지식을 얻는다. 그 때 이재호 목사를 설득해 한라산 등반에 오를 수 있었다. 겐테의 이 등정기는 단순한 여행기가 아닌 당시의 한라산 정황까지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그는 그 때까지 아무도 이방인으로서 등정해 볼 수 없었던 산의 절정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흥분했다.

이렇게 높은 산이 대양(大洋) 가운데 솟아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라! 그런 해양 기상대 위에서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탁 트이는데, 그 정도를 스스로에게도 설명하기가 어렵다. 물론 해변에서도 쉽게 시험해 볼 수 있다. 바닷가에서 모래 언덕이나 등대 위에 올라 보면 가시 반경이 갑자기 커짐을 확인할 수가 있다. 한라산 분화구의 가장자리에 섰을 때에 어떤 느낌인지를 좀 더 근사하게 비교할 수 있으려면, 헬골란트에 있는 암석섬의 30배가 되는 높이를 상상해 보라….

한라산 정상에 서 본 사람은 기억하리라. 그 산 위를 감싸는 운해를, 그 산이 가진 얼굴이 얼마나 천의무봉한지를. 맑은 날만 보여주는 저 제주 해안선, 그 앞의 바위 섬들, 허영게 솟구치는 파도를. 다행히도 겐테는 그 때 한라 정상에서 그러한 온갖 산의 기쁨과 슬픔을 모두 느낄 수 있었던 모양이다.

“한라산 정상으로부터 펼쳐지는 이 굉장한 유화(油畵)를 뿌리치고 내려오기가 쉽지 않았다.”는 겐테. 그는 등정하는 동안 수행굴에서 두 번이나 피신해야 했다. 동굴에서의 고통을 적은 그의 글이다.

밤이 깊어갈수록 점점 더 비참해졌다. 물론 추위가 더 심해졌다. 동이 틀 무렵 이른 아침에 밖의 만물은 서리로 뒤덮여 있었고, 동굴 안에서는 벽과 천장으로부터 물방울이 떨어졌다. 얼음같이 차가운 아주 큼직한 이 물방울이 짧은 간격을 두고 한 방울씩 내 얼굴 위에 떨어졌기 때문에 나는 갑자기 눈을 떴다.

그러고도 산으로 오르는 길은 어려웠다. 영실로 오르는 길에서 누구나 압도되는 상은 오백나한이다. 오랜 풍화작용에 의해서 “절벽, 바위모서리, 낭떠러지 등의 아주 신기한 형태를 띤” 이 오백장군 상. “접근할 수 없는 상태로 솟구쳐올라 있는 그 거대한 절벽은 그 자연미나가 공할 만한 형상이 물론 너무나 거대했기 때문에, 그 안내자는 궁극적인 목표인 진짜 한라산 정상대신 이 절벽으로써 나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았다.”

이제 겐테가 압도됐던 그 1,450m에서 고개를 들어보라. “바다 쪽으로는 시야가 한없이 멀리 전개되고 그윽한 안개의 베일이 이리저리 파도에 일렁이며 형상을 신비롭게 덮어서 한없이 멀리 밀쳐 내는 것처럼 보였기에 그만큼 더 무한한 듯이 보였다.”는 겐테의 시선이 아니더라도

이 곳의 전망은 더할 나위 없다. 겐테는 거기서 조금 더 기다렸던 모양이다.

그러나 정오가 되어 태양이 물 위에 일렁이는 안개의 마지막 흔적들을 빨아들이게 되자 그 경치가 찬란해졌다.

1,950m 정상에 이르렀을 때의 그 환희를 겐테는 이렇게 기록했다. 그의 자부심은 오래 씹어 읽을수록 그 매력이 있다.

비슷한 여건에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하고 감동적인 파노라마가 제주의 한라산처럼 펼쳐지는 곳은 분명 지구상에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한라산은 바다 한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고, 모든 대륙으로부터 100킬로 이상 떨어져 있으며, 아주 가파르고 끝없는 해수면 위로 높이 치솟아 있기 때문에, 그 정상에 서면 시야를 가리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

그는 그 때까지 백인이 올라본 적 없는 산을 정복했다는 기쁨에 몸을 떨었던 것이다.

우리가 처음으로 대양을 대하거나 만년설로 덮여 있는 높은 산맥지대를 보게 될 때, 어떤 예술가가 대단한 말이나 색채나 또는 음조로 우리에게 말을 걸어 올 때, 피라미드나 중국의 거대한 만리장성 등 어마어마한 인류의 걸작품을 처음으로 대할 때에 느끼는 법인데, 그것은 죽을 때까지도 지워지거나 퇴색하지 않을 인상들이다. 그것들은 우리의 뇌리 속에 아주 예리하고 깊숙이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오랜세월이 흐르고 난 뒤, 끝없는 새롭고도 중요한 인상들을 체험하고 난 뒤에 유사한 분위기에 접하게 되면, 그 당시 처음으로 느꼈던 감상이 다시금 움직이게 되고, 당시의 그 강력한 감동이 마치 그것들이 우리의 뇌 속에 그 흔적을 남긴 수많은 다른 체험이나 생각들 혹은 느낌들에 파묻혀 버린 것이 아니라, 바로 어제의 것이라도 되듯이 다시 되살아 날 수 있다.

한라산정에서는 바다를 품어 볼 수 있다. 겐테가 한라산에서 매혹된 것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다음의 문장을 적는다.

도대체 그 누가 이 산 위 공중에서 바다를 구할 것인가? 그것은 이 산 위에서 보이는 그 모든 기이한 것들 중에서 가장 놀라운 현상으로, 마치 태양이 하늘로 올라오기라도 한 듯, 마치 평지 전부가 우당탕 열려서 해수면으로부터 거의 2천미터 위에 서 있는 이 곳에서도 또다시 우리를 우리의 눈이 닿는 데까지 밀어올린 듯,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이 우리의 안계(眼界)를 끌어 올려 준다.

## 8 평화와 통일의 상징, 한라산

백두를 보고난 뒤 / 한라와 삼백육십 다섯 개 / 오름을 보는 / 안개속에서 보는 / 내 눈동자  
/ 저 뒤쪽의 거대한 거대한 망막 위에 / 차례로 쓰여지는 화성(火星)의 이름들 / 이름들 모두  
아래 한결같이 / 흰그늘이 서려 있다. 그렇다 / 어느해 겨울 / 문득 섬에 와 / 눈 쌓인 백록  
담을 본 적이 있다 / 지용과 똑같이 그때 내가 본 것은 / 흰 어둠 / 유화(柳花)가 주몽(朱夢)  
을 잉태한 / 그 햇빛의 그늘 / 고구려 옛 신화 속의 / 그 일영(日影).  
(김지하, 「망막으로부터」 중)

정지용의 「백록담」을 두고 김지하는 “정지용 문학의 최고봉”이라고 단언했다. 그의 시 「망막으로부터」는 정지용의 눈이 그 때 들여다봤던 것을 자신도 보았음을 암시하고 있다.

백두는 한라를 그리워하고 한라는 백두를 그리워한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한라까지는 통일의 또 다른 상징이다. 백두에 오르는 비념에 한라가 있다. 이미 시인 신동엽은 1960년도에 발표한 시 「껍데기는 가라」 중에서 “껍데기는 가라 / 한라에서 백두까지 / 향그러운 흙가슴만 남고 / 그 모오든 쇠붙이는 가라.”고 했다.

2000년 추석절, 분단 후 처음으로 제주를 방문한 북한 인사는 김용순 특사였다. 그는 꼭 한라산에 오르고 싶어했으나 휘몰아치는 비바람 때문에 등정의 꿈을 접어야 했다. 그래도 영실 입구까지 가서 한라의 신령스런 기운을 느낀 김 특사 일행은 제주도에 도착했을 때, “한라산과 백두산이 마음으로 연결되는 것이 바로 통일입니다.”라고 했다.

이 날은 마침 6·15정상회담의 뜻에 따라 조국 통일의 기운을 추진하기 위한 특별기획 ‘백두에서 한라까지’란 타이틀로, 공동 생방송을 내보낸 역사적인 날이기도 하다. 백두산 천지와 한라산 백록담에 서서 남북 텔레비전 합동 촬영반이 두 산과 교신을 하듯 말이다. 백두와 한라는 그토록 통일을 꿈꾼다.

조정래 『태백산맥』 속의 한라산, 그리고 통일 노래

‘반도땅의 첫 머리와 반도땅의 끝머리’에 우뚝 선 두 산의 운명은 아마도 조정래의 말처럼 “우리 민족이 하나인 것을 증거하는 상징이 확실하고, 우리 민족이 하나되고자 하는 염원을 대변하는 상징이 확실하고, 그 어떤 힘으로도 우리 민족을 갈라 놓을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하는 상징이 뚜렷”하다는 말인가.

한라와 백두의 이 절묘한 대비를 묘사한 절창은 아무래도 조정래의 『태백산맥』이 답할 차례이다. 『태백산맥』 제4부 전쟁과 분단은 빨치산 투쟁이 주종을 이룬다. 그 첫머리에 놓인, 깊은 사색의 사유물인 백두에서 한라에 이르는 삽화는 미려하다. 또한 생명체로서의 숭엄함을 느끼게 하면서 장엄하기까지 하다. 어떻게 한라와 백두가 통일을 말하지 않겠는가.

“한라산 백록담에서 한바탕 맴돌이질 친 바람이 산줄기를 타고 내리며 나뭇잎들을 떨구기 시작할 즈음이면 백두산 언저리 북쪽 땅은 벌써 얼음이 꽁꽁 얼고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었다.”의 초입에서부터 한라와 백두는 이미 통일이 된 듯한 느낌이 든다. 좀 더 들어가 보자.

반도 땅에 자리잡은 그 많고 많은 산들이 제각기 그 크기와 모습이 다르되 꼭 닮은 것이 두 개 있으니, 그것은 백두산과 한라산이었다. 두 산은 신비롭게도 똑같이 머리에 물을 담아 이

고 있었다. 그러나 두 산이 지나는 신비스러움은 그 특이한 생김에만 있지 않았다. 그 자리잡음이 더욱 기이했다. 두 산은 반도 땅이 시작되는 첫머리와 반도땅이 끝나는 끝머리에 우뚝우뚝 솟아 하늘을 떠받치고 있었다. 이 어인 조화일까. 우연일까. 필연일까. 그 연고를 아는 이 이 세상에 그 누구일까. 그 두 산의 똑같이 닮은 모습이 신비하고, 그 자리잡음마저 더욱 신비하여 그 연유를 알아내려는 옛 사람들의 애쓴 흔적이 역연하니, 백두산이 담아 인 물을 '천지'라하고, 한라산이 담아 인 물을 '백록담'이라고 한 것이다. 그 두 이름이 갖는 공통점은 '하늘'인 것이다. 그런데 '하늘의 못'라는 뜻인 천지에는 절대한 존재인 하느님이 막연하게 상징되고 있는 데 반하여 '흰 사슴의 못'이라는 백록담에는 하늘에만 산다는 하얀 사슴들이 내려와 목욕하는 터라서 그런 이름이 지어진 것이라는 사연이었다.

(조정래, 『태백산맥』 제8권 중)

작가는 그렇게 구체적인 내용의 전설이 백록담에는 있는데 왜 천지에는 없는지 궁금해 한다. 천지가 상징하는 하느님과 백록담의 하얀 사슴들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스스로 “하느님께서 천지에 하강하시어 목욕을 하셨다거나, 낮을 씻으셨다거나, 발을 씻으셨다거나 하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엮어내는 것은 절대 신성에 대해 불경을 범하는 일이라고 생각한 것은 아니었을까.”(『태백산맥』 제8권) 답을 해보는 것이다.

한라와 백두는 끝없는 전설을 잉태했다. 수많은 이야기들을 어떻게 엮어냈을까. 산이 크고 높을수록 전설은 하늘에 가까운 신비한 내용을 담아낸다. 그것은 인간이 가까이 갈 수 없는 내용들로 채워진다. 산의 그 고귀한 생명체에 대해서는 조정래의 문학 속에서 읽어낼 수 있다. 그 끝과 끝에 우뚝 선 두 산의 운명은 아마도 조정래의 말처럼, “우리민족이 하나인 것을 증거하는 상징이 확실하고, 우리 민족이 하나되고자 하는 염원을 대변하는 상징이 확실하고, 그 어떤 힘으로도 우리 민족을 갈라 놓을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하는 상징이 뚜렷”하다는 것인가.

“어인 연고로 반도 땅은 세계에서 유일하다는 백두산으로 시작되어 그 모양을 그대로 닮은 한라산으로 막음되고 있는가.”

(『태백산맥』 제8권 중)

너무나 닮은 운명을 타고 난 백두산과 한라산은 서로를 닮았다. 서로의 맥이 통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서로를 그리워하기만 하는 운명을 타고났을까. 전쟁과 분단 속에서 그것은 언제나 그 내부를 통해 하나로 이어짐을 뜻하고 있다.

한돌이 작사·작곡을 하고 가수 신형원이 부른 「터」의 2절은 한라와 백두가 만나는 날을 앞당기고 싶은 절절한 심정이 깔려 있다. 통일의 당위에 대해 절절한 가슴으로 솟구치는 목소리인 것이다.

한라산에 올라서서 백두산을 바라보며  
머나먼 고향을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하구나  
백두산의 호랑이야 지금도 살아 있느냐  
살아 있으면 한번쯤은 어흥하고 소리쳐봐라  
얼어붙은 압록강아 한강으로 흘러라  
같이 만나서 큰 바다로 흘러가야 옳지 않겠나  
태극기의 펄럭임과 민족의 커다란 꿈

통일이여 어서 오너라 모두가 기다리네

북쪽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산, 가장 겪어보고 싶어하는 곳이 한라산이다. 남북 교차 관광단이 온다면 아마 그들의 뜨거운 열망은 통일일 것이다. 그러한 통일의 날을 목놓아 기다리는 한라산이다. 그리고 그 날을 젊은 시인도 기다리고 있다.

가본다고 거듭 걱정하다가 / 채이는 일상 핑계 삼다가 / 남북 교차 관광단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 찾아나선 길이었습니다 / 아무렴, 영산(靈山)인데 / 먼저 맛볼 요량으로 / 재촉한  
산행 / 계곡을 타고 내리는 단풍은 / 영실기암 발부리를 적시며 / 강을 이루는데 / 오마던  
손님은 아직 / 오지 않았습시다

(강덕환, 「새천년 가을산」 중)

## 9 한라, 그 마음의 고향

동서로 내리 뺀 한라산의 길고 긴 와상(臥狀)의 실루엣이 다가온다. 누구보다 먼저 사계를 품어 안는 산, 누구보다 예민한 감성으로 풍운조화를 연출하는 산, 부드러운 능선과 칼날 같은 예리함을 어느 날 감추더라도, 그가 우리에게 얼굴을 보여주지 않아도 우리는 그가 우리를 배반하지 않았음을 본다. 또한 그 역시 우리를 볼 것이다. 애처로운 자줏빛의 비감처럼 한라는 그 아름다움과 슬픈 역사의 그늘을 껴안고 있다. 제주에 온 자, 누구든 한라를 사랑하지 않고 배길 수 없으리. 한라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것이 버티고 있는 깊은 고통까지 사랑해야 한다는 것임을 어떻게 잊겠는가.

폭발적인 창조의 근원을 품은 채 세월과 역사를 준비할 줄 아는 산, 숯한 세월 동안 스스로 배태한 아들과 딸을 낳았으며, 그 비장한 세월 동안 헛되이 흠여지는 유산의 아픔을 거치기도 했으며, 한때는 산 자와 살아남은 자의 책무를 느끼게 하던 산, 붉은 색으로 덧칠 되던 산. 장구한 세월 삭풍에 시달리면서도 넉넉한 품을 포기하지 않는 산, 언제나 새끼 오름들을 거느리고 서 있는 산, 한라산이다.

그 너른 가슴은 또 한라산 문학을 낳았고 또 낳아 장구한 산맥을 이룰 것이다.

한라산은 보는 시각에 따라, 보는 위치에 따라 다르다 했다. 무릇 모든 산이 그러하겠으나 한라의 얼굴은 유독 그러하다. 한라의 초입에서부터 한라의 정상에 이르기까지 감흥이 어찌 같겠는가.

그러한 눈으로 봄풀 파릇한 한라의 숲에서 백설로 휘덮인 한라산 문학의 숲을 한바퀴 휘돌아왔다. 한라가 낳아준 문학의 세계를 어떻게 일일이 열거하겠는가.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자연사와 인간사의 생태적 조화를 이루는 산, 그 자체가 노래이다.

분화구가 토해내던 불기둥의 열정이 사그라진 후 이 절정을 오르고 내려간 이 모두 이름 부를 수 없다. 악천후 속 생사를 걸었던 날도 있었을 것이다. 이 산의 끊임없는 존재의 이유를 우리는 감지한다. 여기서 수많은 문장가들이 감수성을 뿜아올렸다. 원초적인 상상력을 한라산 앞에 바쳤다. 신앙 같은, 마음의 고향같은 그런 다함 없는 연정을 그에게 바쳤으리라.

그 옛날 당대의 문장가들이 올랐던 길, 그들이 밟았던 길을, 그들이 하염없이 하계를 내려보며 깊은 사유를 하던 바위를 우리는 밟는다. 거기서 시공을 초월한, 과거와 현대를 잇는 그들 문학의 숨결을 느낀다. 그리고 그에게 빛을 진 자들, 그에게 기꺼이 헌사를 바쳐야 옳다.

지금까지 한라산이 문학의 지형을 이뤄주고 안식을 주었다면, 그를 위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한라의 원형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 문인들은 한라산을 앞으로 어떻게 응시할 것인가. 또한 그 과제는 무엇인가. 갈수록 시대가 부박해질수록 한라를 정신적 생태계의 원형으로 삼고자 하는 이들이 늘어날 것이다. 마음의 고향으로 삼고자 하는 이들이 늘어날 것이다.

신들의 본향이자 피어린 역사의 산으로, 상상의 근원으로, 인간의 산으로 지켜보는 한라산. 그 산은 끊임없는 창작의 원천이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흐르는 맑은 기운에서 희망의 넉출을 잡아당겨 보라. 한라가 부르면 백두가 답을 하고, 백두가 부르면 한라가 답을 할 때, 장엄 한라산 문학의 산맥이 백두를 타 넘을 것이다. 그 날은 기어이 올 것이다.

### 제3장 한라산을 품고 사는 사람들

#### 1 꽃자왈과 제주인의 삶

##### 꽃자왈의 개념과 분포

제주인들의 일상생활에서 ‘꽃자왈’(또는 ‘자왈’)이란 독특한 제주어는 어느 날 갑자기 사용치 않게 된 것으로 느껴진다. 그 시점을 굳이 꼬집어 지적하자면, 1980년대로 돌입하면서부터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때를 전후하여 제주도민들의 일상생활은 거의 모든 상황에서 자연환경에 직접 의존하던 생활패턴이 서서히 막을 내림과 동시에, 주로 물건과 상품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도시생활 혹은 준도시 생활패턴으로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다.

꽃자왈은 표준어에는 나타나지 않는 순수한 제주 지방어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국어사전에서는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없다. 1995년 말에 제주도에서 편집·발행한 『제주어사전』에 따르면, 꽃자왈은 “나무와 덩굴 따위가 마구 엉클어져 수풀같이 어수선하게 된 곳”이라 정의하고 있으며(31쪽), 흔히 축약해서 사용하는 ‘자왈’도 똑같은 의미로 풀이해 놓고 있다(482쪽). 꽃자왈은 ‘꽃’과 ‘자왈’이란 두 단어로 나눌 수 있는데, 같은 문헌에서 ‘꽃’의 의미를 확인해 보면, “산 밑의 숲이 우거진 곳”이라 하여(31쪽), ‘고지’와 같은 뜻으로 풀이하고 있다.

꽃자왈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들이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초목경관(草木景觀)이나 수목경관(樹木景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다시 말해 이러한 해석은 제주도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체험적으로 느껴 온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전적 의미에서 보다 진전된 꽃자왈의 개념은 지리학이나 지질학 분야에서 찾을 수 있다. 2000년 발행된 『북제주군지』에서 송성대는 “꽃자왈은 가시덤불과 나무들이 혼재한 꽃과 토심(土深)이 얇은 황무지인 자왈이 결합된 의미”로 해석한다. 이처럼 지리학적 측면의 개념은 꽃자왈 지대에 나타나는 식생과 토양이라는 두 가지 자연경관요소가 바탕이 되고 있다. 1996년 송시태·고기원·윤선 등 3인의 연구에 의하면, “꽃자왈 지대는 토양의 발달이 매우 빈약할 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잡석과 잡목 및 가시덤불이 한데 어우러져 있어, 경작지로 이용하기 곤란한 쓸모없는 지대를 지칭하는 말”로 화산활동의 영향을 받은 후에 형성된 아주 특이한 지질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하였다.

이상에서 정리한 꽃자왈의 개념과 특성을 전제로 할 때 꽃자왈의 구성요소를 어떻게 설정할 수 있을 것인지를 생각해 보자. 1차적으로는 지질적 조건 또는 지형적 조건이고, 2차적으로는 그러한 조건을 토대로 해서 나타나는 토양적 조건 혹은 식생적 조건이다. 나아가 흔히 꽃자왈 지대라고 할 때 가시적으로 확연히 구분할 수 있는 경계는 모호하지만, 일정한 공간적인 범위를 가리키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광의적으로는 꽃자왈 지대에 속해 있는 여러 가지 부차적 요소, 즉 꽃자왈 지대 내에 독립적으로 존재하거나 바로 그 주변부로 연결되어 나타나는 요소(이것을 3차적 요소라 할 수 있음)까지도 포함해서 다루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꽃자왈을 구성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지형·지질적 요소(1차적 요소)는 잡석(자갈, 암괴 등), 용암류, 스크리아, 화산탄, 화산자갈, 숨골 등이며, 토양적 요소(2차적 요소)에는 화산회(火山灰)와 화산회토(火山灰土)가 포함된다. 식생적 요소(2차적 요소)로는 이끼류, 양치류, 초지성 식물, 화초류, 수목(잡목, 침엽수, 활엽수) 및 가시덤불 등이 속하고, 부차적 요소(3차적 요소)에는 궤(바위그늘, 소형동굴), 용암동굴(중형·대형), 소지류 및 소규모 계곡, 이류구(泥流丘), 오름(측화산), 습지(물웅덩이), 부분적인 초지, 인위적으로 개발

된 경지 등이 포함된다.

곶자왈이 화산활동의 결과 자연적으로 형성된 환경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곶자왈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은 개별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항상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곶자왈 지대에서는 나름대로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다양하고 독특한 생태계 환경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제주도 내에서도 곶자왈 지대는 주로 어디에 분포하며, 어느 정도의 공간적 범위를 가지고 있을까. 곶자왈 지대는 주로 중산간 지역에 초지 및 삼림과 더불어 비교적 넓은 공간적인 범위를 차지하며 전개되어 있다. 2000년 송시태의 박사학위논문에서는 지형도상에서 그 공간적인 분포범위를 산출해 내었다. 그리고 송시태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지역신문사인 『제민일보』에서는 2002년 12월부터 ‘곶자왈 대탐사’를 특별 기획물로 연재하여 55회분을 끝으로 1차 탐사를 완료한 상태이다. 이 특별 기획물은 제주도민들에게 곶자왈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데 필요한 상당히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곶자왈은 통속적으로 일컬어지는 중산간 지역에만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해발 100m 이하의 해안지역에도 상당히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와 같이 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1970년대 이전의 중산간 지역은 해발고도로 볼 때 대략 100~300m 사이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았다. 이것은 중산간 마을들이 해발 100~300m 사이에 많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해발고도로 제주도를 구분할 때는 0~200m 이하를 해안지역, 200~600m 사이를 중산간 지역, 600m 이상을 산간지역으로 구분하는 경우가 많다. 해발 600m 이상의 산간지역에서는 곶자왈의 분포범위가 적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곶자왈은 보통 해발 100m 이상~500m 이하 지역에 분포한다고 지적할 수 있다.

제주도 내에 분포하는 곶자왈을 지역적으로 보면, 크게 ① 구좌~성산 곶자왈 ② 조천~함덕 곶자왈 ③ 애월 곶자왈 ④ 한경~안덕 곶자왈의 4개 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동→서→남서 방향의 순). 이들은 다시 용암류의 흐름에 따라 구좌~성산 곶자왈은 ㉠ 종달~한동 곶자왈 ㉡ 세화 곶자왈 ㉢ 상도~하도 곶자왈 ㉣ 수산 곶자왈로 구분되며, 조천~함덕 곶자왈은 ㉤ 함덕~와산 곶자왈 ㉥ 조천~대흘 곶자왈 ㉦ 선흘 곶자왈로 구분된다. 그리고 한경~안덕 곶자왈은 ㉧ 월림~신평 곶자왈 ㉨ 상창~화순 곶자왈의 2개 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 특히, 이들 곶자왈 중에서도 월림~신평 곶자왈은 총 길이가 12.5km로 도내에서 가장 긴 곶자왈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제주도 지방기념물 제10호인 동백동산이 위치하는 선흘 곶자왈은 선흘 2리에 위치한 서검은오름(454m)에서 흘러나온 용암류로 인하여 형성되었는데, 그 규모는 서검은오름에서 폭 1~2km를 유지하면서 북쪽으로 7km 정도의 범위에 걸쳐 형성된 것으로 지적된다.

## 전통적인 생활양식과 곶자왈

곶자왈 지대의 이용실태를 적극적인 차원에서 검토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점보다도 전통적인 생활양식을 유지하던 과거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다. 제주도민들이 상품경제에 덜 의존하던 시절, 바꿔 말하면 자연환경에 대한 의존도가 높던 1970년대 이전의 가정생활로 돌아가서 논의하는 것이 곶자왈의 이용실태를 훨씬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1970년대 중반 이전의 제주도의 가정생활을 생각해 보자. 하루 한시라도 자연에 의존하지 않고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는가. 그것도 당시 제주시나 서귀읍을 비롯한 일부 도시적 생활을



유지하던 지역 이외의 농어촌 지역에서는 대부분의 자원을 자연으로부터 획득하여 유용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초가을 잇는 띠(茅, 새)를 비롯하여 땔감(지들겻[거, 커], 지들낭), 마소의 풀(출), 농사용 도구나 집안의 일상용품을 만들기 위한 각종 재료, 먹거리용 산나물이나 약용식물 등 그 수와 종류를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이들 자원 중에는 제주도라면 어디에서나 보편적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특별한 장소가 아니면 구할 수 없는 것들도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꽃자왈 지대에서 구할 수 있는 것들은 특별한 용도로 사용할 재료인 경우가 많다. 그것은 꽃자왈 지대가 지니는 특별한 환경적 특성 때문이기도 하다. 몇 가지 사례를 정리해 보기로 하자.

전통적인 제주도의 일상생활에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땔감을 구하는 일이다. 하루 세 끼니의 식사준비를 하는 과정에서는 물론이고, 겨울철 온돌(굴뚝)용 땔감과 우마를 기르는 집안에서는 간혹 우마의 여물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상당량의 땔감이 필요했다. 그래서 각 집안마다 항상 땔감마련에 고심해야 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린 고사리 손으로도 가까운 곳에서 땔감용 솔방울(솔똥)이나 솔잎, 혹은 말라죽은 나뭇가지(삭다리)나 썩은 나무뿌리(낭뿌리)를 주우러 가야만 했다.

그런데 해안마을에서는 해안변이나 가까운 들판에 위치한 야산 혹은 임야로 땔감을 하러 가는 경우가 많았으나, 중산간 마을에서는 주로 부근 임야는 물론, 오름 주변이나 꽃자왈 지대로 들어가 마련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할 수 있다. 어찌 보면 노정(路程)은 다소 험할지 모르나, 땔감을 마련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환경이 되고 있었음에 분명하다. 그래서 해안마을에서도 겨울용 장작이나 집안의 대소사(大小事)를 위한 땔감이 필요할 때면, 집안의 어른들은 도시락까지 준비하여 이른 새벽부터 중산간 지역의 숲 속이나 꽃자왈 지대로 들어가 작업을 하곤 했다. 한번 땔감을 하러 나가면, 충분한 양을 다 채울 때까지 한 장소에서 해결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이곳 저곳으로 돌아다니며 하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등짐으로 지고 올 정도의 양을 다 채우는 데 걸리는 시간도 짧게는 2~3시간 내외에서 길게는 7~8시간 정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꽃자왈 지대에는 삼나무나 소나무 등 특정 식생이 군락을 이루어 자생하는 장소가 있는가 하면, 주변일대가 완전히 가시덤불이나 잡목림을 이루고 있는 장소도 있다. 또한 오름 능선에는 제주도에서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해송(海松, 赤松)을 비롯하여 많은 낙엽수림과 활엽수림이 일정한 공간에 터 잡고 있다. 따라서 중산간 지역이나 꽃자왈 지대에 자리잡은 오름은 땔감 사냥에는 더없이 좋은 표적이 되곤 했다. 물론 그 당시에도 나무를 대대적으로 벌채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적 절차나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그것은 제주도라고 하는 지역적인 환경과 더불어, 모든 가정이 산으로 들로 나가야만 땔감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하는 시대적인 배경이 결과적으로 행정기관의 허락이 없는 벌채를 인정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몰고 간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집안 대소사 때에는 특히 많은 땔감이 필요하다. 일시에 많은 양의 음식을 만들어야 함은 물론이고, 일단 만들어 놓은 음식도 식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땔감을 소비해야만 한다. 이런 배경에서 장작은 필요시에 상품과 같이 판매되기도 했다. 장작은 ‘바리(捶)’라는 단위로 팔고 사는데, 대개 1바리는 장작 30개를 가리킨다. 바리는 마소 한 마리에 실어 나를 수 있는 양을 의미한다. 1바리에서 장작의 규격은 경우에 따라 다소 다르지만, 대개 굵기는 어른의 팔뚝 정도이고 길이는 1자 반(약 45cm) 정도이다. 성봉추(71세, 여)씨의 이야기에 따르면, 1974년 애월면 신엄리에서는 장작 1바리 당 3,000원에 판매되었다고 한다(2004년 2월 15일

인터뷰). 중요한 것은 많은 양의 장작은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없고, 중산간 지역의 임야나 꽃자왈 지대에서 주로 마련했다는 것이다.

<표 3-1>은 1929년도에 조선총독부에서 조사한 자료로서, 당시 제주도 내에서 소비되는 연료를 종류별로 추산하여 정리한 것이다. 이 자료는 당시의 시대상을 잘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자료라 할 수 있다. <표 3-1>에 제시된 많은 양의 장작이나 낙엽, 잡초, 솔잎, 목탄 등을 중산간 지역이나 꽃자왈 지대에서 충당했을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두 번째로 꽃자왈 지대에서 약용식물이나 산나물 혹은 야생열매를 조달하는 경우도 많았다. 비가 온 후, 꽃자왈 지대 내 곳곳에는 일시적으로 물웅덩이가 형성되거나 습기를 머금은 장소가 많이 존재한다. 따라서 그런 장소에는 식용 고사리, 고비(고배기), 양하(양예) 혹은 달래(뽕마농) 등이 집단적으로 자라는 경우가 많다. 봄철에 뜯어온 이들 산나물은 가정마다 한 가지 정도는 반드시 식탁에 오르곤 했다. 특히, 고사리는 많은 양을 채취했다가 오일시장 등에서 팔거나 집안의 제사 등에 긴요하게 사용하기도 했으며, 양하나 달래는 삶아서 무침류 또는 절임류 반찬으로 만들어 먹는 데 유별나게 애용되는 대상이었다. 특히 고사리 꺾는 일은 요즘에도 봄철만 되면 여성들이 망중환을 보낼 수 있는 소일거리가 되고 있듯이, 과거에도 마찬가지로 여성들의 봄철 소일거리 중의 하나였다.

꽃자왈 지대에는 영지버섯이나 표고버섯, 찔, 오갈피, 더덕, 마(麻, 삼마), 쑥, 하늘타리(하늘레기), 인동초(인도꼬장) 등 약용으로 사용되는 식물들도 많다. 이것들은 해안지역의 임야지 등 지에서도 많이 발견되는 것이기는 하나, 꽃자왈과 같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장소는 훨씬 크고 굵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된다. 그래서 봄철 중산간 지역의 들녘에서는 산나물과 야생열매를 따는 남녀노소의 즐거운 비명소리가 들려오곤 했다.

꽃자왈 지대는 이들 외에도 계절에 따라 찔레순(똥고리), 청미래덩굴순(맹게순), 두릅나무순(들굽순) 등 식물의 줄기와 순 그리고 모람, 맥문동 열매(마망구슬), 상동나무의 열매(삼동), 산딸기(탈), 으름(졸갱이), 보리수 열매(볼래 또는 보리볼래), 오미자, 구기자, 시로미 등 상당히 많은 식물의 열매를 거두어들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1996년 김순이의 조사자료에서 야생식물을 이용한 음식의 일부를 열거해 보면, 쑥밥(속밥), 떡쑥밥(본속밥), 조릿대열매밥(대밥), 소나무껍질죽(송피죽), 쑥죽(속죽), 풀죽(들풀+밀가루), 쑥범벅(숫범벅), 느티나무범벅(누룩양범벅), 고사리국, 닭의장풀국(고낭귀국), 질경이국(배체기국), 개자리국(개자리풀+된장), 냉이국(난시국), 두릅나무순무침(들굽순무침), 달래김치(뽕마농김치), 계피장아찌(제피지)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에 제시한 음식의 재료들은 거의 대부분 꽃자왈 지대에서 채취할 수 있음은 더 이상 거론할 여지가 없다.

꽃자왈은 비록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황무지이기는 하나, 이 곳에 자생하고 있는 식물들은 우마의 먹이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계절에 따라서는 가축들이 풍우설(風雨雪)을 피할 수 있는 좋은 장소가 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차원에서 보면, 꽃자왈은 방목공간으로서도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 4.3 사건과 꽃자왈

꽃자왈 지대는 제주도의 4.3 사건과 관련하여 뼈아픈 추억을 간직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꽃자왈 지대에는 그 구성요소에서 살펴보았듯이 숲, 으름, 궤, 동굴, 계곡, 습지 등이 곳곳에 산재하고 있어 일시적으로 몸을 숨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이 중에서도 꽃자왈 지역 내

의 궤와 동굴은 지역주민들도 정확하게 어느 정도가 존재하는지조차 알 수 없을 정도로 그 수가 많다. 이러한 상황은 4·3 사건이 발생했던 1948년으로 기준으로 할 때는 더 더욱 그렇다. 구체적으로 궤자왈 지대에서 있었던 몇 가지 사례를 인용하여 정리해 보자. 먼저 한경~안덕 궤자왈 중 거의 월림~신평 궤자왈과 상창~화순 궤자왈 지역 사이에 자리잡은 동광리의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동광리는 안덕면 북쪽에 위치하는 마을로 4·3 사건이 발생할 당시는 삼밭구석(麻田洞, 당시 45호), 무등이왓(舞童洞, 당시 130여 호), 조수궤(6호), 사장밭(3호) 등의 자연마을이 있었다. 마을의 북서쪽으로는 돌오름(도너리오름, 439.6m)을 기점으로 하여 월림~신평 궤자왈이 전개되고, 동남쪽으로는 상창~화순 궤자왈이 전개되고 있다. 그러므로 주민들은 4·3 사건 당시 난리를 피해 궤자왈 지대로 피신하는 데 매우 유리한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음 내용은 1998년 강태권의 조사의 일부를 인용한 것이다.

① 군인들은 무등이왓에서 학살을 마치고는 학교가 있던 간장리로 왔다. 간장리의 10여 호를 불태운 군인들은 간장리 서쪽에 있는 삼밭구석을 둘러보지도 않고 내려갔으므로 삼밭구석에는 아무런 피해가 없었다. 하지만 삼밭구석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미 마을을 떠나 도너리오름(돌오름) 근처의 궤자왈 속에 숨어 있었다. 동광리의 맨 위쪽에 있던 마을인 조수궤에 살던 사람들은 모두가 인근에 있는 터진궤에 숨었다. 터진궤는 40여 명 가량이 들어갈 수 있는 넓은 굴이었는데, 높은 지형에 자리하고 있긴 하였지만 입구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에도 피난처로 삼았던 것이다. 그 터진궤에는 조수궤 사람들만이 아닌 무등이왓의 사람들도 와 있었다.

② 큰넓궤에 있었던 120여 명의 사람들은 더 이상 갈 곳이 막연해졌다. 게다가 그 해 겨울은 유난히도 추웠고 눈이 많이 내렸다. 옷이나 신발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그들에게 혹한의 눈 덮인 산은 바로 죽음으로 몰아가는 잔인한 학살이나 다름없었다. 큰넓궤 근처의 궤자왈에서 희생된 사람은 임흥선(林興善, 당시 67세) 혼자였다고 한다. 궤자왈에서 죽어 그를 묻을 수 없으니 눈 위에서 굶주린 개들이 시신을 뜯어먹었다는 얘기들이 마을 사람들에게 소문으로 떠돌았으나, 사실을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넓궤를 나와서 돌오름 근처의 초기밭(표고버섯 재배지)으로 갔다.

이상의 인용문에서도 확연히 드러나듯이, 동광리 주민들은 4·3 사건 당시 난리를 피하기 위해 궤자왈을 활용하고 있었다. 즉, ‘도너리오름(돌오름)’과 ‘큰넓궤’는 월림~신평 궤자왈에 속하고 있으며, ‘터진궤’는 상창~화순 궤자왈의 바로 북쪽에서 아주 가까운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큰넓궤’와 ‘터진궤’는 모두 용암동굴이다. 특히, ‘큰넓궤’는 동광리 주민들 120여 명이 50~60일 동안이나 숨어 지냈던 동굴로서, 발굴 당시만 하더라도 4·3 사건 때 사용했던 생활용기들이 굴 내부에 널려 있었다고 한다. 안타까운 사실은 동광리 주민들이 일시적으로 주변부 궤자왈 지대로 난리를 피해 몸을 숨길 수는 있었으나, 4·3의 광풍이 오랫동안 지속된 관계로 인해 결국 160여 명 이상의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었다는 것이다.

한편 동부지역의 궤자왈 지대에서도 4·3 사건 당시 피신처로 이용한 사례가 많이 나타나는데, 특히 가족단위나 작은 규모의 마을단위로 사람들이 몸을 숨기기에는 궤나 동굴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동부지역의 궤자왈 지대나 그 부근의 동굴을 이용하여 몸을 피신했던 사례를 1990년 김동만의 자료를 인용하여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③ 다랑쉬굴 : 1992년 제주 4·3 연구소에 의해 11구의 시신과 많은 피신유물이 발견된 곳. 현

재는 입구가 폐쇄되어 (굴 안을) 답사할 수 없다.

④ 검흠굴 : 덕천마을 위쪽 검흠 지경에 있는 굴로서, 지하 10m 내려간 후에 굴이 형성되어 있음. 굴 속에는 당시 흔적인 방어용 돌무더기와 옹기 파편들이 흩어져 있음.

⑤ 반못굴·뽕뽕디굴 : 선흘리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피신했던 곳. 1948년 10월 27일(음) 토벌대에 발각되어 주민 80여 명이 희생됨.

⑥ 왕모루곶 : 조선시대 제주목에서 정의현으로 가는 길 중간지점에 위치한 동원(東院) 뒤쪽에서 교래리까지 펼쳐진 광활한 곶자왓이다. 지금까지 크게 개발이 되지 않아서 지금도 4·3 당시 천연림의 모습으로 남아 있다. 또한 용암작용이 활발했던 지대이기 때문에, 크고 작은 동굴들이 산재해 있어서 4·3 당시 대토벌 시기에 와산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토벌대의 눈을 피해 피신처로 삼았다.

⑦ 선흘곶 : 1948년 11월 21일 선흘리 일대가 토벌대에 의해 불탄 이후 주민들은 선흘곶에 있는 목시물굴, 도톨굴, 대섭이굴과 웃밤오름 동남쪽의 뽕뽕디굴 등지에 숨어 살았다. 이곳 대섭이굴은 입구가 넓은 굴이다. 따라서 장기간 은신생활을 할 수는 없었고 임시로 몸을 숨기던 곳이었다.

이상과 같이 동부지역의 제한된 몇 사례를 제시하였지만, 이 외에도 4·3 사건과 관련하여 주민들이 곶자왓 지대를 이용했던 사례는 많이 보고되어 있다. 제주도의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은 곶자왓 지대 내에 수많은 궤(인용문 ①~②)와 동굴(인용문 ③~⑦) 또는 인적이 드문 숲(인용문 ⑥)이 분포하고 있어서, 중산간 마을은 물론 해안마을의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배경에는 같은 궤나 동굴이라 할지라도 곶자왓 지대 내에 자리잡은 것들은 주변부가 가시덤불과 숲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발견해 내기가 어렵다는 사실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곶자왓 지대 안에서는 계절에 따른 온갖 식용열매나 과일, 산나물 등을 수시로 공급받을 수 있는 이점도 있다. 말하자면, 주민들은 곶자왓 지대 안에서 ‘있는 그대로’의 자연조건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정광중·유철인)

## 2 약초할머니의 삶과 약초이야기

### 약초를 캐러 다닌 이야기

2005년 현재 여든한 살인 양순자(가명임) 할머니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오일장에서 각종 한약 재료를 팔면서 제주시에서 혼자 살고 있다. 제주시 오일장은 2일과 7일에 장이 서는 2·7장이며, 서귀포시 오일장은 4일과 9일에 장이 서는 4·9장이다.

양순자 할머니는 서른두 살 쯤(1956년)부터 약초를 캐와 팔기 시작하였다. 처음에 어떻게 약초 캐러 갈 생각을 하였는지를 묻자, 약초를 캐러 다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였다.

#### 더덕을 캐기 시작하다

처음에 어떻게 해서 갈 생각을 했는지... 산에 더덕 캐러 가다 보니까. 요기 산 아래 양잠단지[애월읍 광령1리]에 갔는데, 그 때는 집들 없을 때. 내창[넋가]에 이만씩 더덕이 막 많았어. 그거 한 번, 두 번 가서 캐어 와서 판 게 버릇 되었지. 그거 하러 가고만 싶더라구. (양잠단지에) 이젠 집들 지어버려서, 내창 다 막아졌지.

하도 못 사니까, 할일도 없고 하니까. 놈[남] 일도 하러 못 가니까 갔었겠지. 놈 일은 하러 못가, 성질이 이상하게. 그리고 그 때는 멀리 안 가도 있으니까 혼자 양잠단지만 가도 있고, 멀리 안 가도 있으니까.

양잠단지에 처음 갈 때 어떤 할망인지, 사람들 따라서 갔지. 나보다 나이 많은 할망들. 난 애기고. 그 때는 팔지도 모르고, 먹을지도 모르고. 내창에 더덕이 막 많아. 그 때는 (많은 사람들이) 캐는 것도 모르고, 약도 모르고. 그래서 한 짐씩 지어 왔지. 장에 가니까 더덕이라고 하더라고. 캐는 사람도 별로 없고 하니까, 그래서 막 많아! 감자 파듯이 캐왔으니까. 이제는 어디 가서 다섯 뿌리만 캐 와도 좋을 것 같아. 육지 사람들이 막 와버리니까, 이제는 사람 무섭고 약(초)도 없고. 이제는 사람이 무서워, 산에 가면 사람이 무서워. 예고.

요즘엔 밭에 같은 더덕도 전부 파 와버려. 나도 지금 더덕 누가 가져와서 있는데... (산) 더덕 해오면 갖다 달랜 해주게. 그래서 가지고 왔더라고. 그런데 내가 약으로 먹으려고 전복하고 같이 삶아 먹어보니, 이거 원 심심... 산더덕은 입에 넣으면 쓰고, 먹으면 사흘 동안 방귀에서도 더덕 냄새가 나고, 몸에도 더덕 냄새가 나는데, 이걸 하나도 안 나는 거라. “예고, 이년 거짓말 했구나.” 산에 가서, 심은 것 중에 나쁜 것, 산더덕 닮은 것을 다 골라서 나한테 가져온 거라.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

예전엔 저기 송당이나 선흘 쪽에 가면 더덕들이 이만씩 컸는데. 이제는 눈이나 밝고 재수가 좋아야 하나씩 캐지. 서너 번에 이만큼한 것 하나씩 캐면, 팔러온 사람이사 돈 만 원쯤 받지만, 우린 오만 원도 받고 삼만 원도 받을 수 있고. 그러면 일당이 거기서 나와 버리지, 걸리기만 하면. 그거 믿어서 다니는 거주게. 그래서 가시냥 사이고, 골짜기 사이고, 오름에고 다니지, 그거 믿어서. 하나씩 주우면 이게(손가락으로 돈 모양을 만들며) 되니까, 좋은 건 오만 원씩 현다. 한 근에 오만 원도 받고, 삼만 원도 받고, 일당이 잠깐 사이에 나와 버리지. 그래서 나무 밑둥을 파는 거라.

어느 오름엔가 위에 나무가 이 집보다도 크게 덮여져서 밖이 잘 안 보이는데, 그 밑에는 더덕이 이만씩 있는 거라. 그거 막 파면서 같이 간 여자아이한테, “애야, 어디로 나갈 수 있을까, 나 하늘 못 봐서 죽어질 것 같다.” 멍게낭[청미래 덩굴] 뿌리를 이리 자르고 저리 자르고 해도, 어떻게 나갈 구멍이 없더라게. “영~ 하늘 못 보겠다.”, “그래도 나가고 있으세요.”라고

말하면서 (같이 간 여자는) 계속 더덕만 캐는 거라.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에고, 어디 갔어요? 나 나가지 못허くだ.”, “샘~통이다~.” 이제도 그 말 해, “샘~통이다~.”  
그래도 그것이[약초 캐는 것이] 돈 나는 것이라 그치지 못해. 산에서 풀내음살, 약내음살이 그렇게 좋더라. 건강해지고 아픈 데 없고, 그걸 그렇게 하고 싶더라. 어떻게나 풀내가 그렇게 좋은 모양이라, 밥도 달고. 낮에도 더덕 두어 개 캐서 된장 찍어서 먹으면 맛이 정말 좋아. 걱정이 있을까.

정석 비행장 근처 오름들 자락을 휘젓고 다녔지

저기 (정석) 비행장 근처 오름, 거기가 정의오름인가? 그 오름에 가면 이만씩 한 것들[더덕]을 캐는데, 그 때는 산에 지금처럼 풀이 없어, 내창에도 풀이 별로 없고.

약초 캐러 다니는 사람들끼리 (팀을) 짜서 같이 실어다주면 같이 가고, 올 때도 같이 오고 했지만, 이젠 다니는 사람 별로 없고. 그래도 찾길 좋으니까 힘들게는 안 다니주게. 저기 (정석) 비행장은 차로 가다가 내려주랜 해서 내려서 걸어가면 돼. 정의, 저 위에 오름 가운데 있는 비행장. 그 오름들 자락에 가서 다 휘젓고 다녔지.

사람 안 가는 데 없다, 동이고 서고 다 가니까. 발 안 들어간 곳이 없어. 아래[바닷가]도 많고 (바닷가) 돌 옆에 오름들 있는 곳들… 약초는 한라산에 가도… 저기 1100고지로 올라가서 한라산에 가도 지형을 봐야… 오름도 서서 보면 나무로 다 뒤덮여져 있는 곳, 그 중에도 나무가 없는 데가 있잖아. 그런 데 살피면서 들어가야 해. 그리고 큰 나무 아래는 뭐가 없어.

많이 캐었는데, 요샌 하도 주워 먹어버려서… 누룩낭[느릅나무] 뿌리도 하나 주워오면 그것이… (돈이 되요) 고산 위에만 가도. 누룩낭 뿌리 하나 주우면, 그게 서른 근 마흔 근 나오더라. 그러면 파온 사람은 오천 원씩 남기고[받고], (내가) 파는 건 만 원 받아 팔지. 말린 건 이만 원 받고 (팔고), (파온 사람에게) 넘기는[주는] 것은 만오천 원쯤 되게 넘깁니다게.

약초 캐러 제주도 하나 다 돌았지. 해안도로로 다니고, 해안도로 없을 때도 다 다녔어. 요즘에는 차 있으니까 막 돌아 다녀. 막 캐어. 그렇게 다닌 사람들이 다 말해부니까, 다 말해버리지. 잘 가는 곳은… 거기 김녕 위에도 잘 가고, 정석비행장에도 잘 가고. 바당[바다] 근처에도 막 많아. (약초가) 중산간에도 많지만, 바당 쪽에도 많아. 거막오름[거문오름] 아래, 오름 있는 곳에는 다 있더라. 약초 캐 때 벗하고 갈 때도 있고, 혼자 갈 때도 있고. 그 때는 약초 캐러 다니는 사람들 많지 않으니까.

용진각 쪽은 한 번밖에 안 갔어, 천마인가 뭔가 캐러. 가다보면 등산객들 머무는 집 있잖아. 거기 가서 노래 시합하고. 사람 많은 곳만 찾아다니, 그래야 사람들도 보고. 난 백록담은 못 가겠더라. 누가 거기 자연산 당귀가 있다고 하니까 육지 사람하고 같이 갔는데. 거기는 산 흙이니까 붉은 흙. 그 사람이 요만큼 가서 박박 파서 거기 발 짚고 넘어가면, 그것 따라서 갔는데, 올 때는 거기로 올 수가 있어야지. 앞으로 보니까 테역밭[잔디밭]이고 오름이 우뚝 서있어서 무섭더라고. 그 사람은 갔던 곳으로 졸졸 왔는데 나는 못 오겠더라고.

그래서 짐을 아래로 우선 던지고 그냥 미끄러져서 내려오니까 곧장 그 아래까지 내려왔지. 그 후로는 다시는 그 쪽으로 못 간다고. 아이고, 육지 사람들은 잘도 해내더라고, 산지축항 사람들이랑 저기 사람들 여편들 야기 업어서 그 약초 캐러 잘도 갔더라고. 그 여름에 식당 하던 사람들이 다 나왔더라고. 제주사람들은 안 가, 육지 사람들이 가지. 영 보면 다들 강원도여 어디여 돌아다녀난 것들, 그 때는 재배할 줄도 모를 때니까 그것들 잘들 팔아먹었지.

천마여 뭐여 이제는 다 재배하니까, 이제는 재배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도 구경도 못 하고 해오지도 못 하고. 중국산 안 팔면 그 사람들 돈이 되느냐? 거의 거짓말해서 팔아먹지. 우린 할

망들 캐 온 것만 사와서 팔고 그러지.

오일장에서 약초를 팔다

난 더덕 하면서 바로 장사를 했주. 캐어서 (장사하는) 사람들 줘서 돈 받아본 적은 없고, 그대로 팔았지. 다 그대로 팔았어. 그 때는 아무 곳이나 앉으면 장터에서 자리를 잡았지. 아무데나 앉아서 그 목이 괜찮다고 생각되면 거기서 자리 잡아서 팔고 했지. 저기 동쪽의 장에 가도 그렇게, 저기에 가도 그렇게. 여기서 몇 군데나 했는지는 모르고. 가는 데마다, 그 때 장터는 심은 터니까. 우리도 지금 거기는 돈 줘서 산 게 아니지, 심은 터들이지 그냥.

(제주시 오일장에서) 그 약초 허는[파는] 사람들, 전부 내가 장사를 시켜 준 사람들. 게도 한 3~4년에서 5년 되어 가니까, 다 집들 장만했더라. 때도 굶던 사람들이 다 집 마련했지. 집도 정말 좋게 마련했져. 이제는 크게 장사들 벌려 앉으니까, 장사만 허젠 들어앉은 사람도 있고, 캐는 사람은 많지 않은데... 저기 승재하고, 누구하고 산이며 이래저래 막 다녀. 산에 많진 않아도 떨어진 거 주우러 다니지.

(제주시 오일)장에 저쪽 귀퉁이 길 건너에 앉은 큰 아이도 (산에) 가면 더덕을 캐오고. 여러 개 캐오면 어떻게 나한테만 가져와. 그러면 나한테 와서 주지 말고 장사를 하라고 했주게. 장사할 자리가 잘 나오는 게 아니니까, 자리 나면 말해준다고 했지. 예고,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시기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말해주면서 장사를 시킨다고 나한테 막 뭐랜들 허여.

그래도 어떤 할망 자리 나니까 말해주면서, “나 말은 하지 말라. 말 하면 큰일 난다.” 그렇게 해서 한림 할망 자리를 500만 원 주고 샀지. 이젠 길가의 자리는 천만 원도 더 허는디, 잘 샀주게. 그러니까 그 사람네 겁나게 잘 되었지. “너네는 젊으니까, 육지도 가서 물건 해 와서 크게 시작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막 잘 되었지.

막둥이 어명 앉아난 자리 뒤의 아이는 더덕도 잘 캐서 오고 누룩낭도 잘 캐서 오고, 그러니까 돈도 잘 벌어. 그 약초장사하면서 100만 원 안 들어오는 날은 없으니까. 할망들이나 못 하지.

(제주시 오일장에서) 자리 가를 때 할망들은 안쪽에 들어가 버렸지, 일부러 들여놔 부러신디 원, 길가가 잘 판다.

우리 이젠 늙어버려서 할망들 해 온 거나 사고, 신경통 약이나 하나, 둘 팔지만.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지. 할망들한테 찾아와서 사는 사람들은 신경통약 같은 거 사러 오기는 해, 중국 약 안 사고 이거 사려고. 중국 약은 팔면 돈이 많이 남아도, 우리 약은 얼마 남지 않아도... 사는 사람도 어느 게 중국약인지 한국약인지 모르는 거 많아.

비닐로 집을 지어 산에서 살면서 약초를 캐어

곡괭이며, 골괭이[호미]며, 연장 많이 가지고 갑니다. 지는 것에 (연장을) 메어서 다니지. 저기 용진각 갈 때도 전부. 용진각에 처음 갈 때는 길을 잘 모르니까 다른 사람들 하고 가고, 남자들 따라 갔지. 이젠 길을 아니까 벗이랑 가기도 해. 옛날엔 차가 없어서 걸었어, 가는 날 하루, 오는 날 하루.

비닐 4발씩 갖고, 밤에 추우니까 작은 이불 갖고 가면. 동산이나 물이 넘치지 않을 곳에 가서 나뭇가지 꺾어서 사방에 꼭꼭 찔러서 집처럼 짓고 양 쪽에 문을 내서 지냈지. 애기들 데리고 온 사람은... 동문시장 (사람들) 여름에 장사 안 되면 식당의 여자들이 전부 산으로 올라와, 아기들 업고서 산에 올라와. 그러면 아기들도 거기에 눕혀 재우고. 구상낭[구상나무] 꺾어서, 밑에 지푸라기 깔고 비닐 덮어서... (밤 되면) 무서워서 귀신 나온다면 문 옆에는 서로 안 누우려고 가운데로만 누우려고 했주. [웃음]

밥은 된장에 멸치만 있어도 막 맛좋아. 걱정이 없어, 물만 찾으면. 그러면서 살았져. 밝으면 내창에 내려와 밥해 먹고. 밥 해먹는 곳은 다른 곳이 주게, 물 있는 곳. 그때는 올라가면 장날에나 내려왔지, 차가 없으니까. 요즘엔 가는 데 마다 차가 있으니까... 차 없을 때는 다 저서 다녔지. 그 때는 내창에 가면 물이 좋아서 그 물 먹고, 근처에도 빈집들이 있지. 집 지어 놔둬서 올라가면 거기 살다가 내려오고, 살다가 오고 하면서. 그럼 거기에 다 있지. 갈 때 먹을 거 조금 가져가면 거기 다 있으니까.

그 때는 물도 아무데나 가서 먹었지, 이제는 못 먹어. 한라산 물도 막 구정물 되었지, 오염되어서. 이젠 물도 다 빼버려서 없다고 하더라, 아래서 다 빼버려서 (물의 양이) 작아져버렸지. 이제는 웬만한 곳은 다 사람 살아, 그래도 이제는 그런 곳도 살만하여, 차만 있으면.

벗과 같이 다니면서 별 일 다 있었지

난 원래... 성화부락 [제주시 용담2동] 살았어. 성화부락에서 걸어서 한라산 다녔지. 정실로 갈 때는 이리로 가고, 선홀로 갈 때는 저쪽으로 갔주게. 안 돌아다닌 곳이 없주게, 발 가는 데로 갔어. 그러다 내려올 때는 아래쪽으로 오지, 무조건 내려오다 보면 집은 찾아지니까. 오다가 차 있으면 (타고), 차 타면 차비도 안 아까워. 할망들만 갔다가 한 이틀 길 잃어서 해매는 할망들도 있어.

벗도 어디 가버리면 잃어버려서 찾지 못하고. 한번은 셋이 갔는데, 어승생 쪽 내창에서 막내네[강범구] 어명을 잃어버려서 밤새도록 찾아도 못 찾고. 다음날 할 수 없이 그냥 왔어. 그 집 아들에게 말하러 가 보니까, 그 집에 왕 이서. “어떻 와수과?”, “집을 잃어버려서 하다가 내려오다 어떤 남자를 만나 그 사람 따라 왔다.”고. 그 어명도 잘 다녔어.

나도 할망 둘이서 천막 쳐서 누워 잔 적이 있어, 그 할망 죽어버렸지만... 산에서 (어떤) 남자가 해매고 있으니까, 그 때는 산에서 사람 보면 반가웠지, 무섭지 않았지. “예고, 저 사람도 산에 와서 다니고 있네. 저거 누구라?” 만나 보니까 산지축항 사람이라게. “예고, 나 할망네하고 같이 다니쿠다.” 해서 같이 다니고 내려왔지.

언젠가 또 같이 갔는데, 어딘가 약초 캐러 간 사람들, 산에서 집처럼 지어서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 며칠씩 밤 자면서 캐는 거라. 그래서 거기서 자고 했는데. 신을 벗어서 놔두니까 누가 그 신을 신어 가버렸지. 이제 어떻게 이 산중을, 가시랑 속을 맨발로 헤쳐서 나오겠냐? 가지 못하면 산에서 살아야지. 사흘 넘어가니까 먹을 것도 다 떨어져가고, 살 수 있을까라?

아침에 오다 보니까, 저쪽 어딘가 집지어서 사는 사람 있는데, 거기 신이 널어 있더라구. 그거 가져와서, “빨리 이거 신고 내려가야지. 안 그러면 죽어.”라고 말하면서, 신어서 왔지. 내려오다가 사람만 보이면 발만 숨기게 돼, 이렇게. 예고, 도둑놈이 돌개에 우뚝 산덴[도둑놈이 제발 저린다] 헌게, 이거지 원.

예전에는 산에서 사람 보면 반가웠지, 무섭지 않았지. 이젠 무서워서 여자들만은 산에 못 가. 한 3년 전쯤부터 무서워. 산에 가보면 개 기르는 데, 닭 기르는 데, 산 중에도 막 사람 사는 데가 많아. 저긴 왜 불이 켜져 있나 해서 보면, 다 사람 사는 곳이라. 그런 놈들이 모두 나서서 설치는 거 아니. 그런 놈들이 보이면 숨게 되지. 이제는 혼자 못 다녀.

저기 하도 할망, 이제는 죽어부렸주만, 하고 같이 다닐 때, “호미 작은 거 말고 큰 거 끼고 다니라, 이만한 거, 출[풀] 베는 호미!” 싸우지는 못하고 그걸로 착착 나무 베면서 다니다가, 사람만 보이면 [호미를 휘두르는 시늉을 하면서] 영영 하는 거라. “도둑놈이 어디로 오냐.” 하면서 잘 다녔주게.

그러다가 언제 상이족박[생이족박, 백하수오, 새박덩굴] 캐러 산에 가니까, 어떤 육지놈이 할



망한테 와서, “웁서, 나하고 연애하면 돈 3만 원 주겠다.”고 하더라는 것이라. 그래서 “이 백정놈아! 네 어미는 없냐?” 했더니, “요놈의 늙쟁이 여기 누어. 박박 파서 묻어 볼게.” 하더라. 그 때부터 그 할망 무서워서 다시는 혼자 잘 안 다녀.

벗해서 가면 외쳐서 서로 확인 하지. 벗 없을 때 (다른) 사람 보이면 혼자서 “빨리 오라, 빨리 오라.” 하면서 거짓으로 불러. 그러면 (상대방이) “아무것도 어신디 불러?” 그러더라고. 사람들하고 같이 갔다가 헤어져서 다닐 때는 “서낭대신~ 서낭대신~” 노래를 부르기도 했지. 그러면 남들도 나 있는 곳 알고 하나까.

모두가 상이족박 캐러 가는 거라

50대 전후에는 못 가는 데가 없을 때. 용진각 가도, 남자들만큼은 못 해도 많이 해주게. 그 때는 (잘) 걸으니까, 걸으니까. 50대... 70때까지 막 좋아. 70대 때도 저 비행장으로 어디로 안 다닌 데가 없어. 75세쯤 되니까 멀리는 안가도 산에 가서 상이족박 캐지, 더덕도 캐고. 이제는 멀지만, 상이족박 캐는 것은 돈을 더 벌었지. 그래서 이젠 모두가 상이족박 캐러 가는 거라, 모두들.

요즘엔 상이족박 (별로) 없다. 어떤 할망, 아들 차 타고 다니니까, 할망하고 아들하고 가서, 없는데도 어디서 해 오는지, 요만한 거들 해오대. 여름에 한 40만 원어치 그 할망한테 사서 이제껏 들고 다니다 보니까 다 썩어버리고 던져버리고 해서 없어서, 왜 나한테 안 주냐고 물어 보니까, 이 곳까지 오지 못한다고 말하대. 장날 아침 7시쯤 되면, (그)차가 오고 있으면, 다들 거기까지 마중 가서 다 사서 가버리니까, (나한테) 그 곳에 와서 지켜 앉아 기다려야 된다고 말하대.

상이족박 하려고 하면 다리가 끊어질 거여, 막 멀리 돌아다녀야 되니까. 그렇게 해야만 할 수 있으니까. 상이족박은 뿌린데, 이만씩 한 게. 골갱이 하나만 가지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지금도 약초를 캐러 다니고 싶어

에고, 나중에 좀 좋아져서 걸어지면, 더덕 있던 곳에 가야 할 텐데. 저기 할망은 맨날 전화해서 가자고, 바다 근처 (더덕 있는 곳)에 가자고. “웁서게, 누구 안 파서 있는지 가보게.”, “아 파서 걸어지냐?”, “나도 못 걸지만, 차로 가는 곳이니까. 차로 가면 멀리 안 걸으니까.” 어제 장에 갔다 오면서, “내일은 걸을 수 있을까?”, “그러게, 둘러보러 갈까?”라고 말했지.

(더덕은) 있던 곳에 있는 것이니까 잘 살피기만 하면 돼. 저기 비행장 근처나 성읍 쪽으로. 사람 걷는 길에도 있어. 약을 다 알면, 나뭇가지도 잘라 가면 되고, 제피[산초]도 돈이고. 어떤 할망은 어디서 제피 잎사귀 2되쯤 따서, 오만 원씩 십만 원 벌었지. 그것도 할망들은 적지 않은 돈이주게.

그저께 뭐 하러 어디 가보니까 누군가 어디로 가는 거라. “어디래 감서? 난 심장 약해서 도저히 못 움직이는데”, “나도 심장 안 좋았었는데...” 양에간[양하간] 하러 갔다가 그거 해 와서 팔고, 또 막 삶아 먹고, 반찬도 해 먹고, 데쳐서 무쳐먹기도 하고 한 모양이라. “아, 요거 닳은 약이 없습니다. 이게 심장에 최고우다.”, “그런데, 이제 있느냐?”, “가보난 이젠 하나도 어서.”

할망[할머니]들 별 거 다 해 온다, 양에간도 허고, 별 거 다 해. 정의, 대정, 올라가면서도 양에간도 허고 더덕도 파 오고. 산에 가면 이제도 우리하고 가면 차비는 잃지 않주게. 나뭇가지도 해 오면 돈! 누룩낭도 해오면 돈! 더덕도 캐오면 돈! 차비 잃지는 안 해, 그냥 오지는 않으니까.

작년까지는 막둥이 가네[강범구 동생] 차에 가이들하고 길 바른 곳까지 싣고 다녔지. 여기 저기 알려줘도 가이네는 잘 못 하더라고. 그래도 할망들께 의지해서 가면 일당들은 건지니까, 가기만 하면. 가고 오는 게 문제지.

옛날에 벗하고 다니던 할망들 다 죽었지, 잘도 죽어부렸져. 서귀포 가면 할망들이 몰모작[쇠무릎] 해서 지어 와서 주고, 미깡[감귤]도 한 자루 해서 주고 하면서 많이 왔는데. 이제는 하나도 없어. 작년까지 죽으니까 하나도 없어. 이젠 나만 있어. (누가) “할망 단골 안 옵니까?”해도 “단골이야 다 죽어부런.” 할망들은 일흔 넘어 여든이 되어 가면 다 죽어.

## 약초할머니의 삶

양순자 할머니는 1925년 복제주군 애월면(현재 애월읍) 어도리(현재 봉성리)에서 태어나, 열아홉 살 때인 1943년에 같은 동네에 사는 한 살 아래의 부 씨와 결혼을 하였다. 할머니가 스물네 살 때인 4·3 때 당시 경찰이던 남편이 죽자, 스물여섯 살 때 양자를 들였다. 그러나 할머니는 스물아홉 살이나 서른 살에 제주시로 나와 두 번째 남편인 고 씨와 살기 시작하였다. 할머니는 두 번째 남편과의 사이에 아들을 하나 두었다.

살아온 역사를 듣고 싶다고 하자, 할머니는 맨 처음에는 “나 살아온 역사가 전부 없어져 버렸어. 다 잊어버렸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고향과 시집을 묻자, 할머니는 살아온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하였다.

### 4·3사건으로 남편이 죽다

원래 고향이 저기 서쪽, 봉성이라고 하는 곳, 거기 고향이고, 거기서 시집을 갔어. 제일 처음에 경찰관들 시험 봐서 들어갈 때, 딸 아방[아버지]이 들어갔지. 그런데 그 사건[4·3사건]에 살아지겠느냐? 못 살았지. 도그내[외도] 지서에서 당하더라고. 그 때는 경찰관들 시험 봐서 들어갔어, 어렵게들 들어갔어. 예의도 보고, 학식도 보고, 해서 들어갔지. 스물하나에 (경찰에) 들어가서 스물셋에 죽어 부렸주게.

봉성에서 내가 열아홉일 때 결혼하고. 내가 신랑보다 한 살 더 많았지. 봉성에서 (신랑이) 경찰관도 들어가고. 들어가서 한 2~3년 시에 와서 살았지. 그때 못 살아 가지고, 친정아버지는 마을의 이장이고, 이게 살아온 역사라이. 사위는 경찰관 가고, 그러니까 못 살게 된 거.

친정아버지는 양쪽에 몰려가지고 양쪽에서 못 살았어. 그래서 난 무서워서 처음에 살지를 못하게 되니까, 아빠가 어느 틈 봐서 시에 가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예순까지 나가는 딸이 있어, 그 딸하고 시에 와 버렸지. 시에 오니까 가도 못 하고 오도 못 하고, 막다른 골목이 되어 버렸지. 방 하나 빌려서 살다가. (남편은) 시에서 근무하다가 외도를 나가니까 거기서 변을 당해버렸어. 그렇게 당해버리니까 어디 가서 의지할 곳이 없더라고. 아방은 이장이라고 죽여불고 사위는 경찰관이라고 죽여부난 아무도 없어버리니까.

딸이 두 살인가? 세 살이 되지 않았을 때 그 사건이 일어났어. (남편이) 촌에 (가서) 살라고 해서, 시에 저기 동(동문) 지서에 가서, 아기를 내가 업고 왔으니까. 그리고 그 뒷 해에 죽었어, 아방이. 도그내[외도] 지서에 가서 죽었지. 도그내 지서에 막 사람을 내몰아놓은 모양이라. 도그내고, 우렁이[현 외도일동]고, 그 아래로 막 내몰아서 학교 가운데 막 몰아다 놓으니까. (아방이) 계단 위에 서서 연설하고 있으니까, 어디에서 총을 짹 쏘아서.

놈의[다른] 경찰의 총 오발로 그 사람 1명 죽었지, 그 때는. (“제삿날이 언제입니까?) 식계[제

사] 명절 (아들에게) 줘 버리니까 알아지느냐. 아방은 죽은 후 승진했지.

그 때는 죽을 사람이 죽었냐? 학교에도 불 났버리고 죽창으로 찢어버리고 그러더라고, 아무 이유 없이. 그 때 지서는 요기고, 학교는 저기고. 길 하나 사이로 몇몇 사람들을 학교에 잡아다가 꿰어앉히고. 한 열여덟 살쯤 난 아이가 지서 올레[골목]로 가고 있으니까, (아방이) 확 잡아 끌어내서 지서 안 쪽으로 숨기니까 그 애는 살았어. 그래서 그 애가 아방 죽을 때도 잘 돌아보고 하더니, 이제는 죽어버린 모양이라 못 봤어.

그 때 확 잡아끌어서 숨기니까, 토벌대가 기관총으로 “와드드” 해서 학교 마당이 모두 엉망이었지. 그래서 그 애를 살려놓으니까, 그 아이가 “아이고, 어머니, 내가 생전 어머니 살리쿠다.” 하더니 나중에는 못 봤어. 죽어버린 모양이라... 예고, 그 놈의 시국에, 이제 살았으니까 살았지... 시국, 더러운 시국이라.

양자를 들이다

시에 시부모네가 살아 있어도 막 늙어버렸지. 한 5~6개월 (시부모네와 같이) 살았지. 이렇게 (제사) 상을 차렸지. 전복이며 오징어며, (남편) 소상 때도 돌아오니까 시어명네집에 갔지, 이것 저것 갖고서. 그래도 거기서도 못 살고, 여기 가고 저기 가고 하면서.

스물아홉 살 때 아홉 살 난 아들을 (양자로 들였지), 아니 스물아홉이 아니지. (4·3 사건이 일어난 것이) 스물셋인가 스물넷인가쯤 되었을 때지. 내가 중간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살았으니까. 스물여섯 나던 해에 시아주방, 그것도 사춘 시아주방. 시아주방네가 아들 3형제 낳으니까, 아기를 내 앞으로 하나 달라고 했지. 시아방 죽은 지 3년 이상 되지. 아방도 죽었지. 이제 해볼 능력이 없으니까, 아기를 내 앞으로 하나 달라고 했지. 그랬더니 안 된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아방의 대상이 있을 때 9살 난 거 양자로 주더라.

그 부씨 집의 시아주방보고 아들 하나 달라고 한 것은 연금이 나왔거든. 또 (나같은) 작은 며느리도 촌에서는 큰 소도 물려주고 밭도 있고 집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물려주려고. 양자를 아니 세우면 이런 것들이 어느 손에 갈지 모르니까, 양자만 달라고 하소연을 했지.

그래서 양자를 세워서 아들을 세웠지. 그러니까 내가 (시댁을) 나와 버려도 (양자를) 다 돌보고. 그 아홉 살 난 게 커서 장가를 갔지. 연금 타면서 공부도 시키고 시아주방이 다 그걸 해줬지. 서사라 다리 위쪽에 이층집을 짓고 해서 살더라. 그게 이제 (나를) 어명으로 생각해서 찾아보고 하지. 경찰국에서는 호적도 못 넘여가게 해버리고 딱 못 박아서 지켜주니까, 그 아들 믿어 살아도 잘 살았을 텐데, 못 믿어 산 게 억울하지.

(양자 아들) 막 잘 살아, 그 큰 아들네... 큰 아들은 “어머니 나 일 년만 어머니 모시고 살아 봤으면 하는데...”, “그래, 나하고 사나 어명 나대로 사나 마찬가지로.” 일단은 그걸 거스르기가 미안하잖아. “어명이 죽으면 거기 갈 건지 어디 갈 건지...” 한번은 명절날 다 모이니까, 우리 아이들도 다 오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나 죽으면 다투지 말고, 큰아들은 아버지 제사하고, 작은 아들은 어머니 제사하고 의논하면서 형제간이 잘 살라, 빼다귀 놓고 다투지 말라. 다투봤자 필요 없다고 말했지.

형제가 서로 돌아보면서 잘 살아, 질서를 지켜서 잘 돌아보면서 살아. 이제는 형님이라고도 하고, 내가 살아난 역사는 그거여. 그러면서 한라산 천지 다 돌아다니면서... 큰 시아주방이 작년, 재작년 죽고, 동서도 작년에 죽었져. 내가 그냥 내버렸으면 그 재산이 동생네고 여기저기 가버려서 앞을 못 세웠을 텐데. 젊을 때 돌아가고 하면 뭐 할 건데, 딱 쥘겨놓으니까.

그 애 친어머니는 작년에 죽었어. (죽으니까 양자 아들이) “큰형이랑 동생이랑 있으니까, 거기서 알아서 할 겁니다.” 며느리도, “왜 우리가 합니까?”, “너네가 어디로 나왔느냐?” (친어머니

가) 골다공증 걸리니까 병원에서 똥오줌 받으면서, 9년을 그렇게 살았어, 100살 넘도록. “잘 해라, 너네도 같이 해야 한다.” 말했지. 그것도 좀 그런 게 있더군. “(양)어머니가 있는데, 왜 또 우리가 합니까? 남들이 욕한다, 거기[친어머니]도 우리한테 맡기면...”, “그 말이야 맞지만 새끼가 어디로 떨어졌느냐? 그러는 게 아니여.”라고 하면서 욕도 했지만...

아무튼 아들은 형제가 있지. 그 아들 [양자인 큰 아들] 장가보내니까 아기 낳다가 며느리가 죽어버려서, 또 며느리를 해 와서, (아기를) 키우니까. 그게 또 장가를 가서 아파트 해서 살고 있지, 경찰관으로 들어가서... 옛날 같으면 양쪽에서 얻어먹을 뻔 했지. (웃음) 그래도 먹을 게 뭐 있냐, 나 죽어버리면 탈상해버리라 했어. 제사도 없고 명절 할 것도 없고, 다룰 것도 없어.

제주시에 나와 살다

3~4살 난 딸에 그것[양자]에, 정말 못 살았지. 밖에 다니며 일을 하지도 않았으니까, 못 살았어. 아고, 어디 서방이라도 얻어 가버려야지, 못 살겠어, 아이들 때문에. 딸은 나도 갈래, 나도 갈래, 외고 다니고. 아들은 분취[분수]도 몰라, 난 어명한테 갈래, 지네 어명한테 갈래 하고.

그렇게 살다가 하루는..., 그 때는 여자가 홀어명으로 살기가 힘든 때, 막 마음들이 갈라지고 하는 때이니까, 살기가 막 힘들어. 딸하고 아들하고 집에서 문을 돌아가며 꼭꼭 잠갔는데, 누가 문을 뜯고 와서 누우면서 (내) 발목을 잡으니까 움짱달짝 해지느냐? 누구인지 이름을 말하면 내가 양보를 하는데 왜 이름을 안 말하냐고 하면서 싸웠는데...

지집아이 어떤 친구가 들어온 거야. 남자가 아니고 친구라. 밤중에 잠자는데 잡으니까 겁이 나가지고... 친구라. “언니 그렇게 양탈 부릴 줄은 몰랐어요.”, “너 문 어떻게 해서 들어왔냐?” “문이야 언니 잠그는 거 보면...” 촌에는 방문이 이렇게 (쉽게) 열리지잖아.

그 때는 집에 영 못 살아짐직해, 무서워서. 이제 뒤의 발에 변소로 넘어오는 집이 있었는데, 그 변소로 넘어가서 친구네 집에 가서 놀다가 어스름에 오는데, 통시[변소] 쪽에 어떤 놈이 서서 (나를) 잡으려고 하니까, 그게 겁이 나가지고 그 자리서 기절을 해버렸지 않았겠어. 그 놈은 뒤로 돌아서 뒷담을 뛰어넘어 도망가다 이 집[연립주택의 2층]보다 더 높은 곳에서 떨어졌지. 아래로 떨어진 후 집에 가서는 그만 죽어버렸지.

그래서 시아주방보고, 난 이렇게는 못 산다게, 못 사니까. 아기 데리고 3년을 살고, 아기를 그것도 큰 아방의 둘째 아들을 달라고 해서 살았거든. “그러면 어디 가서 살겠소?” 어디 육지에 가서 방적(공장)에라도 가서 살다가, 50대만 넘으면 집에 돌아오겠다고 하니까, 그 말도 맞아 보이지. 같이 살지도 못하고, 당신네가 양보하더라, 양보하니까 나와 버렸지.

처음 (제주시)에 나온 건 (남편이) 경찰관 된 후에. 군인들 많이 들어와 하는 통에 아방이 마을 이장이니까, 거기서 경찰관들이 주둔을 하더라고. 빗창을 들고 이 발구석에서도 죽였지, 저 발 구석에도 죽였지 하니까. 경찰관 있을 때에 시에 가라고 해서 시에 와버렸지.

여기 시에 와서 살았어도 시부모[시아버지]와 시어머니 소상 때도 다 가고 했지. 억울하다는 말도 듣고, 욕도 듣고, 착하다고도 듣고, 그러면서 거기[시맥]를 다녔지. 우리 친정 아방은 이장이라고 죽고, 그러니 뭐 누가 있었겠어? 아무도 없어 버린 거지. 그 해 중간에는 봉성도 가서 살아보고 친정어명도 있으니까. 하여튼 스물아홉인가 서른인가까지 그렇게 하면서 혼자 살았으니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서.

제주시에서 아들 아방하고 살다

그래서 시에 왔는데, 시에 오니까 살아지느냐? 이제 그 때 아들 아방네 만나 살았지. 아들 아

방하고는 그게 스물아홉인가 서른엔가 만나실거여. 그 아방보다 내가 스무살 아래. 오래 살았어, 그래도 아들을 낳아서 열일곱이 되었으니까, 많이 살았주게. (아들이) 열일곱이 되서 (아방이) 돌아가셨으니까. 그 아들을 (내가) 서른넷에 낳았지.

그 때 여기 와서 정뜨르 살 때 집을 빌려 사니까, 주인집이 경찰에 뒤편이라고. 고주임, 고주임 했었지. 주인집이 시아주방 된 거라. 고주임, 그 시아주방은 나랑 동갑이니까 지금도 살아 있지. 이걸 그 집에도 강제로 끌어가서. 이번 가자, 저번 가자, 하다가 가도 못하고, 그때 본 시집이라든 들어갈 것을 가도 못하고.

한 17년 살아신가? 그 아방도 죽어버리고. 아들을 하나 고정도라고 근사하게 낳았져. 그거 의지해서 살았주게. 아무것도 없이 그거 의지해서 살려고 하니까 그 산천지를 얼마나 돌아다니면서 살았겠어?

약초 처음 캐기 전에는 뭐 하면서 먹고 살았는지... 몰라, 어떻게 살았는지. 그래도 남의 일도 안 하고, 남의 일은 하루도 안 가보고. 아, 육지장에 나갔어. 그[두번째] 아방과 살 때 육지장에 갔어. 그 때는 저기 송냉이[용흥리]라고 하는 데에 거기밖에 굴[나스 미깡]을 안 심었어. 송냉이라고 하는 곳에, 엄쟁이[신엄리, 구엄리, 중엄리 3리가 통합됐을 때의 옛이름] 위에, 거기 가서 나무에서 나스 미깡 따와서 육지 가서 팔았지. 육지는 그런 거 없으니까. 거기서 떼어오면, 광주에 가면 바로 팔고 해지던데. 광주리에 담아 가서. 그 때 넘으니까 그 장사도 안 했지. 몇 년 없어서 과일이 막 나오니까.

그 다음에는 미역 하고 가서 팔아오지. 그런데 어느 때인지... 저 부안이라는 곳에 세 명이 미역 갖고 가서 팔았는데, 눈이 굉장히 쌓이니까 거기다 시골이라서 나오지 못했지. 그래서 요만한 방을 빌려 한 달을 살았지. 눈이 녹아야 오니까. 제주도에서는 (부안에) 눈이 왔는지 뭐했는지 모르니까, 제주도에서는 찾으러 왔어. 아방이 찾으러 왔던 것은 기억나.

미역장사 며칠씩 나가면, 차비는 있어야 가는 거 아니야? 상회에 가서 돈을 꺾어서 차비 해서 올라가고 했지. 미역은 등치로 묶어서 갔지. 수금 못하면, 수금하러 가서 며칠 살고 했지. 그러다 받은 곳도 있고, 못 받은 곳도 있고, 그러면서 다닌 거지. 그 때는 그렇게 살아도 아픈 줄도 모르고 했는데 이제는 아파서... 육지 장사를 한 3년 했나? 약초 캐러 다닌 후에는 육지장 안 갔어, 영원히 안 갔어. 약초 캐기 시작하니까 생활은 하게 되더라고, 빛도 난 것도 물고, 아들 공부도 시키고.

아들 아방은 일본에서만 산 사람, 고등학교 졸업 후 해방 전에 일본에 가서 대학을 졸업했지. 일본에서 배운 기술로 용접인가 뭔가 하러 공장을 나갔는데, 아들이 열서너 살 때 다친 후로는 집에서 쉬다가 아들이 열일곱 살일 때 죽었지.

그 아들 하나 믿어서 산 거라

내가 낳은 애는 총 네 개에서 하나 죽고, 세 개! 본 집이 하나, 이 애보다 네다섯 살 위인 누이 하나 죽고, 이 애, 부산 사는 거 하나. 본 집의 딸, 여기 어디 살고, 이 아들 누이는 부산 살고 있지. 세 오누이지게.

우리 아들은 지금, 개띠. 마흔여덟인가? 그거 키우려니까 아방 가버린 후에, 고등학교만이라도... 아들이 그렇게 말하더라고, “어머니 공부를 못 시킬 거면 나 고등학교만 해서 주산방울이나 놓으면서 살겠다.” 하더라고. 그렇게 하라고 해서 (아들이) 상고를 다녀서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자기가 생각해봐도 안 돼지, 안 되니까. “어머니, 나 대학교 가야겠어요.” 대학은 시킬 수 있었겠어? 대학을 시켰으면 큰 사람이 되었을 건데... 전문대학을 시키니까, 전문대학은 시켰지.

내가 막 아파서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게 되어서 (아들) 졸업할 때도 못 가서 보고, 작은 딸은 부산 가서 살아버리고, 큰 딸은 어떻게 하다가 혼자만 둥그렁 신제주 살긴 하는데... 그래도 수술이 잘 되어서 나왔지. (전문)대학을 1년을 다니다가 스물하나에 군인 갔다 오니까 대학은 마저 하고, 그 후에 자기대로 살면서 고생을 했지. 그 아들 하나 믿어서 산 거라.

그 때[아들이 결혼할 때]는 며느리 아방이 경찰관이었어. 저기 연리 사람이더라게, 경찰관. 연애하니까 일곱 살 아래 아이더군, 연애하니까 나 막편지[혼인하기 전에 신랑쪽에서 정식으로 신부집을 찾아갈 때에 가지고 가는 의례적인 문서] 갖고 가니까, 약혼도 하지 말고 결혼부터 하자고 하더라게. 그래서 서른넷에 난 아들이 중학교 2학년? 3학년? 요 신제주 로터리 제일 나중에 지은 무슨 건물, 차타는 곳 쪽에 있는 거기, 9층에 살고 있지, 그게 집이여.

우리 아들도 서른넷에 이 아기를 낳더라, 하나만 낳고 안 낳어. 장가를 안 가서 하도 고르다가, 서울 가서 색시를 데려왔는데, 거기는 두해쯤 살았는데 아기가 없어서, 가라고 했어. 그리고 이 며느리를 만났지.

[사진 속의 며느리를 가리키며] 이 애 아방네는 저기 병원 옆에 살고, 이 애 아방이 경찰관이더라. 이 애 아방은 정년퇴직했어. 이 아기를 그 하르방 집에서 돌봐서 컸지. 집에 가면, 내가 가도 나에게는 안 오고, 하르방이 경찰 옷을 벗어서 서니까, 손을 들고 그 쪽으로 가더라, 안 아달라고. 이제 이것이 막 컸어. 아방[아들]이 보기에는 사람이 막 순한데, 화가 나면 말도 못하는 아이지. (며느리) 이 애는 아주 독하고, 깐깐하지. 경찰관 비서로 있었어. 그런 행실이 있어서 진짜 독해.

에고, 산에 다녀서 이렇게 오래 살아졌나? 땅에 가서 죽어도 잊어버릴 때가 아닌가? 옛날 같으면. 우리 친정어머니는 일흔넷에 죽어버렸는데... 우리 아들 아방은 예순 몇에 죽어버리고. 그 때[수술 받았을 때]도 죽을 때라고 했는데, 그 이후로 몇 년을 더 살았어.

전에는 차 타면 몇 살이우파 물어보는 사람 없었어. 이젠 운전수들, 할머니 몇 살? 하고 꼭 물어봐. 그러면 난 저승사람이지 이승사람은 아니라고 하지. 난 저승사람이니까 듣지 말라고. [웃음] 운전수가 할머니 몇 살이나고 하면 “거 들어서 뭐하게?”, “어떤 하르방 잡으러 오면 잡아 가 버릴까봐서 듣지.”, “할망 잡아다가 뭇 하게?”[웃음]

그래도 어느 세월에 살아진 것도 모르겠고, 이렇게 늙어버릴 줄도 몰랐다. 이제는 이렇게 늙어버린 것이 억울하다. 왜 이렇게 늙었는데고. 이렇게 늙어버릴 것은 생각도 안하고 살았는데...

할머니는 만날 때마다 자기가 낳은 아들 자랑을 늘어놓았다. 아들은 야구찜 가게를 한 10년간 하다가, 2억을 받고 팔았다. 그 후 노래방과 단란주점을 하면서 돈을 잘 벌어, 아파트 9층을 집으로 샀다고 한다. 할머니는 아들이네 “자기네 살 만큼” 돈을 벌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 약초이야기

양순자 할머니는 약초를 캐러 다닌 이야기를 하면서, 또한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중간 중간 할머니가 캐던 약초의 종류와 약초의 효능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다.

더덕은 거저 없어질 때까지 캐지. 나중에는 목장, 새왓[지붕을 일 띠가 나서 자라는 밭], 테역 밭[잔디밭]에 상이족박이라는 것, 요만씩 한 것(을 캐지). 하수오라고, 백하수오라고. 그것도 그 때는 안 캐서 내 버리니까, 모르니까, 그 테역밭에 가서 그거 캐왔지. 이제는 넝쿨 하나에

사람 하나니까, 씨도 그쳐 버렸지, 그건 보약으로 그렇게 좋아, 다리 아픈 것이 없어. 상이족박은 다리통, 신경통에 좋아. 예고, 약장수들 하면서 돈들 벌었지. 그 때는 매해에 하나 두 개 나오고. 또 약장수도 (캐오라고) 잘 시켰지. 이런 거 해다가 팔라고 하면, 없어서 못 사는 것들은 줄줄 나서서 해다가 팔았지.

하수오는 옛날부터 산삼과 견줄 만한 영약으로 알려져 왔다. 최진규의 『약이 되는 우리풀·꽃·나무』 1권(2001 : 242~244)은 옛날 중국의 어느 남쪽 지방에서 전해지고 있는, 하수오의 명칭 유래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하전아(何田兒)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몸이 몹시 허약하여 58살이 되도록 장가도 못 들고 혼자서 살았다. 어느 날 그는 집 뒤에 있는 작은 산에 올라갔다가 이상하게 생긴 넝쿨식물을 보고 흥미를 느꼈다. 두 그루의 넝쿨이 서로 엉켜 마치 사랑을 나누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다. 그는 이 넝쿨식물의 뿌리를 캐어 집으로 돌아와서 친구들한테 보였으나 아무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다. 그는 그 뿌리를 옆에 두고 누웠다가 깜박 잠이 들었다. 그런데 꿈속에 홀연히 머리카락과 수염이 눈처럼 하얀 노인이 나타나더니 그를 불렀다.

“전아! 전아!”

그는 대답을 하려 했지만 말이 잘 나오지 않았다. 우물쭈물하고 있는 사이에 노인이 말했다.

“내가 오늘 산에서 캔 뿌리는 신선이 주는 선약이니 정성스럽게 먹도록 하여라.”

하전아가 꿈에서 깨어 보니 한 밤중이었다. 이상한 꿈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잠을 들었다. 그런데 날이 밝을 때까지 똑같은 꿈을 세 번이나 꾸었다. 예사 꿈이 아니라고 생각한 그는 그 뿌리를 돌절구에 찧어서 가루 내어 하루 세 번, 밥 먹기 전에 먹었다. 한 달쯤을 먹고 나니 몸에 기운이 나고 머리도 맑아졌다. 그는 다시 산에 올라가 그 넝쿨의 뿌리를 많이 캐서 가루로 만들어 두고 일 년을 더 먹었다. 그랬더니 허약하던 몸이 쇠덩어리처럼 단단해지고 기운이 세어졌다. 나이는 비록 60살이 다 됐지만 머리카락이 까맣게 바뀌고 얼굴이 젊은이 같이 바뀌어 보는 사람마다 이상하게 생각했다.

그는 60살에 아내를 맞이하여 아들을 낳고 아들의 이름을 연수라고 지었다. 연수가 건강하게 자라나 어른이 되었을 때 하전아는 아들에게 자신이 먹은 신기한 약초뿌리에 대해 말해 주었다. 그들 세 식구는 산에 올라가 그 넝쿨식물의 뿌리를 캐서 말려 가루 내어두고 날마다 열심히 먹었다. 그랬더니 아들 연수는 백살이 되었어도 머리카락이 까마귀처럼 검은빛이었고 아버지는 160살까지 살았다.

연수가 130살이 되었어도 머리카락이 까맣다고 하여 사람들은 그를 하수오(何首烏)라 불렀다. 그의 성이 하씨이고 머리카락이 까마귀같이 까맣다는 뜻이다. 그 뒤부터 사람들은 이들이 먹던 약초의 뿌리를 하수오라 부르게 되었다.

양순자 할머니는 하수오(상이족박)가 다리통, 신경통에 좋다고 이야기하였다. “상이족박은 다리, 허리 아픈데 좋아. 흰머리가 검어진다니까 젊어지는 거지.” 할머니는 백하수오를 1근에 3만 원, 적하수오는 1근에 2만 원에 팔고 있다. 할머니가 제주시 오일장 가게 앞쪽에 내놓고 파는 약초들은 상이족박을 비롯하여 주로 신경통에 좋은 약초들이다.

가시새라고 부르는 음지냉수하는 1근에 만 원인데, 풍에 좋다고 한다. 저승살이도 1근에 만 원을 받는데, 허리 신경통에 좋은 것이라고 한다. 1근에 3천 원씩 하는 몰모작[쇠무릎]도 신경통에 좋고, 다리 아픈데 좋은 소양이 뿌리도 1근에 3천 원을 받는다. 할머니가 약초의 이름을

알게 된 것은 “아들 아방이 책을 보고 약 이름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다.

최진규의 책에서도 하수오가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해준다고 설명하고 있다(247쪽). 또한 하수오는 신장기능을 튼튼하게 하여 정력을 높이고 머리카락을 검게 하며 병 없이 오래 살게 하는 약초로 이름이 높다고 한다. 하수오는 간장의 기능을 좋게 하여 피곤함을 없애고, 살결을 곱게 하며, 심장을 튼튼하게 하여 신경쇠약이나 불면증 같은 데에도 효과가 있으며, 조혈작용이 뛰어나 빈혈치료에도 좋고 여성의 생리불순, 자궁염, 만성변비 등에도 두루두루 널리 쓰인다고 한다.

양순자 약초할머니가 주로 캐온 약초를 더 알아보자.

많이 캐는 것은 상이죽박하고 더덕하고, 물모작[쇠무릎], 오나리 뿌리[오나릿 불취, 오이풀 뿌리], 출발[출왓, 풀밭, 초지]의 무슨 더덕. 요즘엔 한 근에 만 원 안의 것이 없어. 이제도 할망들, 죽지 못한 할망들이 막 해오지, 중산간에 가서. 그것은 산에 안 가도 있는 것들이니까. 젊은 아이들은 산에 가서 침 뿌리도 다 해 가버리고. 침 뿌리 한 동치면 30근, 40근 나오더라. 식구가 다 나서는 집도 있지, 차로 가면. 할망들은 그렇게 못 하지, 침 뿌리 하나 파도 지어서 오도 못 한다. 차 갖고 간 사람이나 해 오지.

최진규의 『약이 되는 우리풀·꽃·나무』 2권(2001: 204~206)에 의하면, 약초할머니가 많이 캐다는 오이풀 뿌리(오나리 뿌리)는 만성대장염과 화상 치료에 매우 큰 효과가 있다. 오이풀 뿌리를 지유(地榆), 곧 땅 속에 있는 느릅나무라고 하여, 출혈을 멎게 하고 화상과 갖가지 피부병을 고치며 위와 장의 염증을 치료하는 약초로 널리 쓰인다고 한다. 할머니는 오이풀 뿌리가 배 아픈데와 신경통에 좋다고 이야기를 하였다.

할머니가 약초의 효능에 대해 이야기한 내용을 더 살펴보자.

#### 더덕에 얽힌 이야기

더덕은 산의 것을 해다가 이 사람들이, 산의 것을 해다가 끝을 톡톡 두드려서 심으면 되는데. 그것을 몰라서 그냥 심었는데, 그것도 막 크더라게, 이만씩 커.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 오만 원씩 받아서 팔기도 하더라, 나도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돼) 누가 “더덕 얼마?” (냐고 물으면) “남들은 오만 원씩 받는데 삼만 원만 주라.”고 하면, 얼른 가져가.

원당사 다니는 스님이 몸이 약해서, 더덕 요만한 거 두 개 갖다 주니까, “뭐에 먹으면 좋을까요?”, “동(문)시장 가서 큰 전복에 고아 먹으라.”고 하니까, 가서 전복을 사다가 달여 먹었지. 그 후에 보니까 몸이 이만큼 불어났더라게. “다시는 갖고 오지 맙써. 아고, 살이 너무 찌서. 예고, 어떻게 그렇게 살이 찌지는지.” 그러니까 더덕에는 전복하고, 오리하고 궁합이 맞아.

#### 천마와 황기에 얽힌 이야기

요기 어떤 사람은 심장 약해서, 다 죽어가서, (나에게 와서는) “머리 아파서 살지 못허쿠다.” 하니까 “장에 잘 살피면 약이 있을 거요.” 그랬는데 어떤 여자가 천마를 해왔더라고. “어디서 해 와서?”, “백록담 근처에서 마씨.”, “어떻 죽어지지도 않고 해 왔네.”, “한라산 맨날 다니는데 죽기는 무사 죽어.” 그것을 달여 먹더니만 머리 아픈 게 없어졌다고. 이만씩 감자만큼씩 하더라, 다시는 그제 없으니까, 못 먹으니까, 머리도 아프고. 심장도 약해버리고. “어디 없느냐?”, “그거 사러 서울 경동시장이란 어디랑 다 다녀도 없어서…”

그래서 그냥 재배한 거라도 사니까 비린내 나서 못 먹겠더라고. “제주에서 삼춘[약초할머니



본인]한테 산 것은 아무 냄새도 안 나더니만, 그것은 비린내 나서 못 먹겠습디다.” 그래서 누가 찹 하러 갔다가 그것(천마)을 서너 개 해 와서, 그것을 낚다가 주니까 그거 먹고. 백록담 근처에서 황기 이만씩 한 거 해 온 거 주고. 이제는 찹길 나니까 멀지도 않은 모양이라. 여기서 파는 거 보니까 한 근에 팔만 원도 하고, 십만 원도 하고. 그것을 닭에 한 근 놔 더 달여 먹으니까 몸이 이만큼 살찌 버렸어.

나도 그 거 본 후에는 다시는 (황기를) 못 봐. 그런데 작년에 30근 정도를 (누가) 해완, 그래서 (그 사람) 우연히 왔다가 그거 가져가서 살았지. 그런데 최근에 온 거 보니까 사람이 다 죽어가맨. “아이고 죽을 때 다 되었져.”, “아이고, 못 살कु다. 이젠 직장도 놔 불고 죽을 거 같아요.” 그런데 요번날 온 거 보니까, 얼굴이 반들반들. “어떻게 그렇게 좋아졌어?” 그 때 삼촌이 준 황기를 냉동실에 낚다가 그것을 토종닭, 장닭을 큰 놈으로 사다가 달여 먹었더니 살아지더라고. “아이고, 다음에는 그런 황기 구하기도 힘든데… 약 잘 먹어서 구환허라.” 했지.

#### 일엽초에 얹힌 이야기

그래도 나는 돈 생각하다 보니 하나 먹어보지도 못해. 나도 심장이 약해 여기 앉아 있으면 심장이 별력별력하면서 막 뛰고 땀도 잘라잘라 나고. 곧 죽게 되니까 할 수 없이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지. 저기 (외국) 구경도 가야 되는데 심장이 막 뛰니까, 아들이 엑스레이나 찍어보고 가라고. 국내에서는 몰라도 외국 가서 죽으면….

그래서 병원 가니까 심장이 이렇게 부었다고. 그리고 심장에 이만한 거 뿜이 달렸더라 꺼명한 거. (의사가) “저게 극성을 부리쿠다. 뇌로 터지던지, 심장으로 터지던지.” 심장도 터지고 뇌도 터지면 못 살아서 가는 거지. 뭐. 그리고 구경 간 온 후에 구심을 계속 먹었는데 구심을 먹어도 안 좋더라. 그거 먹으면 좋다고 했는데….

어떤 아주망은 약을 사러 꼭 나한테만 와, 다른 곳에 안 가고. 큰 공무원 각시, 선생 각시인데, (그 아주머니가) 심장이 약해서 시에 가도 도저히 못 구환하다가 아방 전근 갈 때 가서 서울 경동시장에 갔는데… 아방 혈압 약을 사러 가니까, 약사가 아방보다 아주머니부터 약을 먼저 먹으라고… “난 약이 없어서 심장을 구환하지 못한다.”고 하니까, (그 약사가) 뭔가를 섞어서 반 재를 지어주니까 그걸 먹었더니 조금 낫더라는 것이라. 그래서 그것을 다섯 재 정도 먹으니까 나았다고. 그런데 그 약재가 뭘지는 잘 모르겠다는 것이라.

(그래서 나는) 자궁에 좋은 일엽초라는 것이 있주게, 산에 나는 거. 그것에 누룩낭[느릅나무] 껍데기에 가시새[파리풀] 뿌리에 놔서 주전자에 끓였지. 죽을 것 같으니까 죽자 사자는 생각으로 그걸 삶아서 컵으로 하나씩 먹었지. 그랬더니 소변을 보면 하늘의 별 같은 뭔가가 막 나오는 거라. 붉은 것도 뭘지, 벌레 같은 게 막 나오고 그게 아직도 나와, 이제껏 먹으니까. (심장이) 와당탕 하던 것은 (먹은 지) 사흘쯤 되니까 조금 나아지는 거 났더라고.

그래서 아들이랑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으니까 (심장에) 꺼명한 거 달려 있던 게 없어, 녹아서 떨어져버렸어. 그래도 (의사에게) 초약 먹었다고는 안하고, 병원장이 “큰 우환은 덜은 거 났다.”고. “한 두 해 전쯤부터 아팠다고.”라고 하니까, “두해랑 마랑 할망 아픈 지는 막 오래수다.” 몰랐지, 일만 하다보니까 속 아픈 지도 몰랐어. “이젠 일 그렇게 해서는 못 삽니다.” 막 오래되었어. 엑스레이를 4번이나 찍었어.

이제는 약 타다가 먹어서 살고 있지. 약도 먹고 그것[초약]도 먹고, 뱃속의 나쁜 것은 아직도 나와. 이제는 조금 좋아졌어, (한동안) 못 살겠더라고 땀이 막 나면서. 그래도 장에는 가니까, 여기[가슴]를 잔뜩 묶으면 모르고, 풀면 (심장이) 탁탁탁. 이제는 조금 수그러들었. 초약은 초약대로 달여 먹고, 약도 한 달치 또 타다가 먹고.

할망 약이 제일 잘 파는 것은, 오래 하니까 오면 아픈 데를 먼저 들으니까, 한라산 꺼 아니면 중국 것은 먹지 말라고 하지. 한라산 약이 워낙 좋으니까, 아기 없는 사람도 아기도 생기고. 그 약[일엽초]은 (사려오는 사람이) 그치지 않아. [텔레비전에 나온 황우석 박사를 가리키며] 저기 (황우석) 박사도 나만큼 박사가 아닐 거여. (아기 낳으려는 사람이) 잘 찾아와.

양순자 약초할머니는 더덕은 보약의 일종이라고 설명하였다. 더덕 큰 것은 햇수가 오래된 것이기에 1근에 5만 원씩 받고 팔고, 작은 것은 1근에 2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한다. 할머니는 머리가 아픈 아주머니에게 천마를 주어 효험을 보았다고 이야기를 하였다. 두통을 비롯한 온갖 뇌질환에 효험이 있다는 천마의 유래에 대해 최진규의 『약이 되는 우리풀·꽃·나무』 2권(2001: 20~22)에서는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신농가(神農袞)는 중국에서 약초가 많이 나기로 이름난 산이다. 중국 사람들이 의약의 신으로 떠받드는 신농씨가 이 산에 살면서 온갖 풀로 의약을 연구했다고 하여 신농가라고 부른다. 옛날에 이 신농가 산기슭에 큰 부자가 살았는데 그 부자집 외동딸이 두통이 몹시 심하였다. 집안 식구들이 크게 걱정하여 온갖 좋은 약을 다 구하여 먹여 보고 이름난 의사를 찾아다니며 치료를 받았으나 별 효험도 없고 두통은 더 심해졌다.

어느 날 밤이었다. 어머니가 딸을 간호하다가 지쳐서 깜박 잠이 들었는데 꿈에 수염이 하얀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말했다.

“네 딸의 병은 신농가의 신마(神馬)가 아니면 고칠 수 없느니라.”

꿈에서 깬 어머니는 걱정이 태산 같았다. 신농가는 몹시 험하고 맹수와 독사가 들끓어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산이었다. 그런데 누가 그 산에 들어가서 신마를 잡아온단 말인가? 고민 끝에 딸의 부모는 방을 써서 붙였다.

“신농가의 신마를 붙잡아 오는 사람과 내 딸을 혼인시키겠노라.”

그러나 목숨을 걸고 신농가에 올라가서 신마를 잡아오겠다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옆 동네에 어려서 부모를 잃고 혼자 가난하게 사는 한 젊은 사냥꾼이 있었다. 이 사냥꾼이 소문을 듣고 딸의 부모를 찾아갔다.

“제가 신농가에 올라가서 신마를 잡아오겠습니다.”

“네 뜻이 장하구나. 부디 꼭 성공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겠다.”

사냥꾼은 험한 고개를 넘고 개울을 건너고 가시덩굴을 헤치고 맹수와 독사와 싸우면서 신농가 깊숙이 들어갔다. 여러 날 산을 뒤졌으나 신마는 보이지 않았다. 어느 날 사냥꾼이 지쳐서 숲 속에서 쉬고 있으려니 푸드득 하는 소리가 나더니 하늘에서 붉은 갈기를 휘날리며 말 한 마리가 숲으로 내려왔다.

“저것이 신마가 틀림없다! 게 쏜거라.”

사냥꾼은 힘껏 달리며 올라미를 던졌으나 신마는 발굽으로 땅바닥을 한번 치더니 붉은 갈기 한 가닥만을 남기고 땅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사냥꾼은 갈기를 따라 땅을 파기 시작했다. 그러나 한참을 파도 신마는 보이지 않고 둥글납작하고 주먹만한 뿌리 같은 것이 하나 나왔는데 그 것은 땅 위에 있던 붉은 갈기와 이어져 있었다.

“신마를 놓친 것이 원통하지만 이거라도 가지고 가야겠다.”

사냥꾼은 딸의 부모를 찾아가 말했다.

“아깝게도 신마를 놓쳤습니다. 대신 신마가 사라진 곳의 땅을 파 보니 이상한 뿌리 같은 게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음, 신마가 남기고 간 것이라면 이것이 두통을 고치는 좋은 약이 될지도 모르겠군. 이것을 내 딸한테 달여 먹여 보겠네.”

과연 그 약은 두통에 신기한 효험이 있어 병이 씻은 듯이 나았다. 약속대로 사냥꾼은 부잣집 외동딸과 결혼하게 되었다.

그 뒤로 그 약초 뿌리를 하늘이 신마를 통해 보내 준 약초라 하여 신마(神馬)라고 부르게 되었는데 차츰 세월이 지나면서 천마(天馬), 또는 천마(天麻)로 부르게 되었다.

양순자 약초할머니의 이야기처럼, 최진규의 책에서도 천마를 뇌질환 계통의 질병에 최고의 신약으로 소개하고 있다(23쪽).

천마는 두통, 중풍, 불면증, 고혈압, 우울증 같은 두뇌 질환에 불가사의하다 할 만큼 뛰어난 효력을 발휘한다. 그뿐만 아니라 위궤양, 간질, 간경화증, 당뇨병, 식중독, 디스크, 백혈병, 암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질병에 두루두루 뛰어난 효력을 발휘한다. 또한 천마는 신경을 튼튼하게 하여 신경쇠약과 불면증을 치료한다. 오래 복용하면 간, 신장, 폐, 대장이 튼튼해지고 살결이 옥같이 고와지며 머리카락이 까맣게 되고 혈액이 깨끗해지며 장수한다. 천마는 청혈, 해독, 소염, 항암 효과가 뛰어나서 사람의 체질에 따라 제대로 쓰기만 하면 거의 만병을 물리칠 수 있다.

약초할머니는 손님의 증상을 치료할 수 있는 적당한 약초를 팔면서도 정작 본인은 돈을 생각해서 약초를 제대로 먹어보지 못했다고 한다. 그렇지만 병원에 가서 심장이 많이 아픈 것을 알고, “죽을 것 같으니까 죽자 사자는 생각으로” 약초를 끓여 먹어 큰 효험을 보았다고 이야기를 하였다. 처음에는 병원의 의사에게 약초를 끓여 먹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할머니가 파는 약초를 알아보기 위해, 오일장에 가서 할머니를 다시 만났을 때에는 의사에게 일엽초 물을 먹는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달리 말하였다. 의사는 처방해 준 약이 혈압약과 심장약이므로, 일엽초 물과 함께 약도 먹어야 한다고 할머니에게 이야기했다고 한다. 일엽초는 민간에서 위암, 자궁암, 유방암 등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왔다(한국토종야생산야초연구소의 약초연구가 전동명, <http://jdm0777.com.ne.kr>).

할머니는 1근에 2만 원 하는 누룩낭[느릅나무] 뿌리 껍데기도 위암에 좋기 때문에, 누룩낭 뿌리 껍데기와 가시새를 같이 넣고 끓이면 좋다고 이야기를 하였다. 누룩낭은 비염에도 좋기 때문에 코나무라고도 부른다고 한다. 할머니는 일엽초가 아기를 못 낳는 사람에게 아이를 낳게 해준다는 이야기를 강조하였다. 암과 월경불순 치료에 효과가 있는 일엽초와 백하수오, 도라지 등을 넣고 끓여 먹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엽초는 1근에 12만 원을 받는 약초로 할머니가 파는 약초 중에서 가장 비싼 약초이다.

한라산으로 오름으로 꽃자왈로 제주도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약초를 캐던 일은 양순자 할머니의 삶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질까. 할머니는 “약초 캐기 시작하니까 생활은 하게 되더라고, 빚도 난 것도 물고, 아들 공부도 시키고”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약초 캐는 일로 충분히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 할머니에게 일차적으로 가장 크다 하겠다.

그러나 “산에서 풀내음살, 약내음살이 그렇게 좋더라게. 건강해지고 아픈데 없고, 그걸 그렇게 하고 싶더라. 어떻게나 풀내가 그렇게 좋은 모양이라, 밥도 달고. 낮에도 더덕 두어 개 캐서

된장 찍어서 먹으면 맛이 정말 좋아. 걱정이 있을까.”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 약초 캐는 일은 4:3으로 복잡하게 꼬인 자신의 삶을 잠시 잊게 만든다는 것이 할머니에게는 더 크게 와닿는 것처럼 보인다.

## 【참고문헌】

### 제1장

김정, 『제주풍토록』(영인본).  
이원진, 『탐라지』(영인본).  
김상헌, 『남사록』(영인본).  
이형상, 『탐라순력도』(영인본).  
제주도(1973), 『제주도 문화재 및 유적 종합 조사 보고서』.  
제주도(1974), 『한라산 천연보호지구 자원 조사 보고서』.  
제주도(1993), 『제주도지』.  
제주도(1994), 『한라산의 영산, 한라산』.  
제주도(1996), 『제주의 방어 유적』.  
제주도(1997), 『제주의 민속』.  
제주도(1998), 『제주의 문화재』(증보판)  
제주도·제주대학교박물관(1996), 『존자암지』.  
제주시·제주동굴연구소(1997), 『제주시 일원 동굴 분포 조사』.  
제주도교육위원회(1986), 『탐라문헌집』.  
국립제주박물관(2003), 『항해와 표류의 역사』.  
제주문화방송(1986), 『조선왕조실록 중 탐라록』.  
제주문화원(2000), 『옛 사람들의 등한라산기』.  
高典籍편찬위원회(2005), 『高典籍誌』.  
김두봉(2003), 『제주도 실기』, 제주우당도서관.  
김천형(2004), 『탐라사료 문헌집』, 도서출판 디딤돌.  
김찬흡(2002), 『제주사 인명 사전』, 제주문화원.

### 제2장

『탐라문헌집』(1976), 제주도교육위원회.  
『옛 사람들의 등 한라산기』(2000), 제주문화원.  
김윤식(1996), 『속음청사』, 제주문화원.  
조정래(1989), 『태백산맥』 제8권.  
고은(1976), 『제주도』, 일지사.  
정지용(1946), 『백록담』, 백양당.  
정지용(1988), 『정지용전집2 산문』, 민음사.  
『문학속의 제주(시선집)』(1997), 제주문화원.  
『문학속의 제주(소설선집)』(1999), 제주문화원.  
『문학속의 제주(수필선집)』(1999), 제주문화원.

오문복 편역(2003), 『三吳詩集』, 제주문화.  
 오문복 편역(2001), 『耽羅詩選』, 제주문화.  
 오문복 편역(2003), 『瀛洲風雅』, 제주문화.  
 김경훈(2003), 『한라산의 겨울』, 삶이 보이는 창.  
 「우리문학의 지지학 한라산편」(1990), 『문학과 비평』.  
 현기영(1994), 「거룩한 생애」, 『마지막 테우리』, 창작과비평사.  
 현기영(1992), 『변방에 우짖는 새』, 창작과 비평사.  
 현기영(1999), 『지상에 손가락 하나』, 실천문학사.  
 김영갑(1997), 『삼시간에 붙잡힌 한라산의 황홀』, 오름 하날.  
 현용준(2003), 수필집 『한라산에 오르듯이』, 각.  
 오경훈(2001), 『침묵의 세월』, 디딤돌.  
 오성찬(1978), 『한라산』, 고려원.  
 오성찬(2004), 『한라구절초』, 푸른사상.  
 현길언(1995), 『한라산』, 문학과 지성사.  
 최부(1989), 최기흥 옮김, 『금남선생 표해록』, 교양사.  
 김수열(2001), 『신호등 쓰러진 길 위에서』, 실천문학사.  
 강통원(1998), 『제주도서설』, 은혜미디어.  
 조운(2000), 『조운시조집』, 작가.  
 김동운(2003), 『4·3의 진실과 문학』, 각.  
 김석범(1988), 『화산도』, 실천문학사.  
 양순필(1992), 『제주유배문학연구』, 제주문화.  
 신광수 저, 『石北詩集』, 신석초 역, 대양서적.  
 김명식(1989), 『한라산에 피는 꽃들』, 우리한몸.  
 『제주문화연구』, 1993, 제주문화.  
 황광수 엮음(1996), 『땅과 사람의 역사』, 실천문학사.  
 안창남 외 지음, 이주수 엮고 씀(2005), 『잃어버린 풍경』, 호미.  
 그 외 개인작품집 참조.

### 제3장

강태권(1998), 「동광리 - 무등이왓, 삼밭구석, 조수괘」, 제주 4·3 제50주년 학술·문화사업추진위원회 편, 『제주 4·3 유적지 기행 : 잃어버린 마을을 찾아서』, 학민사.  
 김동만(1999), 「4·3 유적, 유물의 현황과 그 보존대책」, 『영상으로 보는 제주 역사유적 - 제주 역사유적의 보존, 복원과 그 대책』, 제주 4·3 연구소.  
 김순이(1996), 「구항식물」, 『제주의 민속(IV) : 의생활·식생활·주생활』, 제주도.  
 송성대(2000), 「지리적 기초」, 『북제주군지(상)』, 북제주군.  
 송시태(2000), 「제주도 암괴상 아아용암류의 분포 및 암질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지질학과 박사학위논문.  
 송시태·고기원·윤선(1996), 「제주도 지하수의 함양과 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숨골구조와 곳자왈

지대에 관한 연구(I)], 대한지하수환경학회 1996년도 학술발표회 자료집.  
최진규(2001), 『약이 되는 우리풀·꽃·나무』 1권과 2권, 한문화.

## 【사진 목차】

- <사진 1-1> 목련꽃이 피며 봄은 왔는데, 한라산정에는 잔설이 남아 있다. / 14
- <사진 1-2> 운무에 덮여 베일에 가린 한라산과 아흔아홉골 / 15
- <사진 1-3> 사라악 정상에의 화구호 / 16
- <사진 1-4> 백록담을 둘러싸고 있는 정상체의 모습은 물그릇처럼 높낮이가 뚜렷치 않다. / 19
- <사진 1-5> 한라산 정상부인 남서사면의 풍화작용에 의해 형성된 기암괴석 / 20
- <사진 1-6> 백록담의 깊이와 형태는 옛부터 등정자들은 물론 세인들의 큰 관심 대상이었다. / 23
- <사진 1-7> 2003년 7월 한라일보 한라산 학술 탐사팀과 한라산연구소가 공동 조사한 백록담 담수측정 모습 / 26
- <사진 1-8> 영주십경의 하나인 '영구춘화'로 유명한 방선문(訪仙門) / 30
- <사진 1-9> 신선들이 뱃놀이를 하며 즐기던 곳으로 여겼던 제주시 용연. 선유담(仙遊潭)이라고도 부른다. / 31
- <사진 1-10> 군산오름 능선에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석상 / 32
- <사진 1-11> 수행동에서 2km 남짓 떨어진 곳에 위치한 탑골 / 36
- <사진 1-12> 누운오름 위에 서 있는 거대 암석 / 38
- <사진 1-13> 하천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구린굴 내부 / 40
- <사진 1-14> 구린굴 내부 / 41
- <사진 1-15> 왕관릉 선단부에 위치한 왕관암 / 43
- <사진 1-16> 한라산 정상 북면에서 바라본 제주시가지 모습 / 45
- <사진 1-17> 한라산 정상체 주변의 경관이 웅장하다. / 46
- <사진 1-18> 산별른내와 한라산 정상부 / 48
- <사진 1-19> 산별른내 동굴에서 바라본 만추의 산별른내 정취 / 49
- <사진 1-20> 한라산 정상부 앞에 영실분화구의 형태가 뚜렷하다. / 52
- <사진 1-21> 영실 속의 기암괴석들 / 53
- <사진 1-22> 영실 동남쪽 능선에 위치한 수행굴 입구 / 56
- <사진 1-23> 수행굴 내부에는 시대를 달리하는 각종 유물이 발견됐다. / 58
- <사진 1-24> 겐테 박사와 제주도 방문기 신문 연재 기록 / 60
- <사진 1-25> 수행굴 내부에는 아직도 부서진 온돌자국이 남아 있다. / 61
- <사진 1-26> 남해에 우뚝 솟은 한라산 정상은 사위(四圍)가 탁트여 선인들은 이곳에서 주변지리에 관한 인식을 넓혀 왔다. / 64
- <사진 1-27> 하늘에서 내려다 본 한라산 정상부와 계곡과 능선들 / 65
- <사진 1-28> 구름이 머무는 한라산 / 67
- <사진 1-29> 울창한 숲과 작은 폭포가 내리는 효돈천계곡 / 69
- <사진 1-30> 한라산은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장수를 상징하는 남극 노인성을 바라볼 수 있는 산으로 알려져 있다. / 70
- <사진 1-31> 한라산이 높아 구름들도 산자락에서 쉬고 있는 듯하다. / 72
- <사진 1-32> 영실속의 오백장군, 오백나한들 / 73



- <사진 1-33> 한라산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관심 있는 이들에게 화두를 던진다. / 75
- <사진 1-34> 이원진의 『탐라지』의 ‘산천조’ 부분 / 78
- <사진 1-35> 운무에 덮인 한라산 / 79
- <사진 1-36> 한라산 학술탐사단이 삼각봉을 배경으로 걸어가고 있다. / 83
- <사진 1-37> 기암절벽으로 둘러쳐진 무수천의 계곡 / 86
- <사진 1-38> 백두산 ‘곤장덕’에서 남한 교차방문단에게 유적을 설명하고 있는 북한 안내요원 / 88
- <사진 1-39> 백두산 기슭에 자리잡은 내두촌 사람들 / 89
- <사진 1-40> 한라산 속에는 선인들이 장기간 머물렀던 삶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다.  
/ 91
- <사진 1-41> 『남한박물』에는 한라산의 식생대를 산림대, 왜죽대, 관목림지대로 구분하고 있다. / 93
- <사진 1-42> 효돈천의 울창한 난대림지대 / 94
- <사진 1-43> 병문천 상류지대에 남아있는 거목들 / 95
- <사진 1-44> 지름이 1m 50cm가 넘는 느티나무로 만들어진 남방아 / 98
- <사진 1-45> 성읍리 느티나무 / 99
- <사진 1-46> ‘오름의 왕국’ 제주도 / 100
- <사진 1-47> 한라산 기슭에 모자이크처럼 펼쳐진 밭들 / 101
- <사진 1-48> 선인들은 한라산 동·서·남·북의 풍수를 지형·지세로 풀어내고 있다. / 103
- <사진 2-1> 한라산은 영원한 상상력의 원천이다. / 107
- <사진 2-2> 서귀포시 보목동 해안에 비친 한라산. 신비감을 자아낸다. / 108
- <사진 2-3> 한라산에 대해 글을 쓴 많은 이들은 산이 주는 묘한 매력을 온전히 담지 못함을 자탄했다. / 108
- <사진 2-4> 옛사람들의 글 속에서는 수목담채 같은 한라의 풍취가 살아난다. / 110
- <사진 2-5> 유배인들에게 한라산은 절대고독의 공간이었다. / 111
- <사진 2-6> 한라산 정상체가 풍화되면서 빚어낸 형상들이 산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 119
- <사진 2-7> 한라산의 비경이면서 최대 분화구인 영실은 늘 각양각색의 얼굴을 보여준다. / 131
- <사진 2-8> 한라산정은 손에 잡힐 듯 하지만 만만치 않다. / 134
- <사진 2-9> 구좌읍 송당리에 위치한 다랑쉬 오름에서 본 한라산 원경 / 135
- <사진 2-10> 제주오름 중 가장 아름다운 오름의 하나로 손꼽히는 동검은이오름 / 137
- <사진 2-11> 겨울철 열매가 익어 이국적 정취를 안겨주는 식나무 / 140
- <사진 2-12> 눈 속의 복수초 / 140
- <사진 2-13> 성판악코스 속밭 일대에 펼쳐지는 삼나무숲 / 143
- <사진 2-14> 한라산체의 서북사면. 풍화와 침식이 가속화되고 있다. / 145
- <사진 2-15> 눈에 덮인 둔지봉 전경 / 147
- <사진 2-16> 오름과 삼나무숲은 한겨울에 더욱 색다른 풍광을 빚어낸다. / 150
- <사진 2-17> 한라산체가 풍화·침식되면서 만물상을 보여주고 있다. / 151
- <사진 2-18> 한라산은 노루의 보금자리이다. / 153
- <사진 2-19> 영실계곡에 가을이 찾아들었다. / 154
- <사진 2-20> 제주도는 360여 개의 자화산이 널려 있는 ‘오름의 왕국’이다. / 155

- <사진 2-21> 사철 푸르름을 간직한 선흘리 동백 동산 / 158
- <사진 2-22> 한라산 서남벽의 기암괴석 / 162
- <사진 2-23> 효돈천 발원지대인 한라산 서남벽 일대 / 166
- <사진 2-24> 늦가을 산별른내에 떨어진 낙엽 / 169
- <사진 2-25> 오름 곳곳에서 세월의 흔적을 느끼게 하는 동자석을 만날 수 있다. / 171
- <사진 2-26> 한라산과 오름은 어디서든 다정다감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보인다. / 176
- <사진 2-27> 수정란풀 / 179
- <사진 2-28> 으름난초 / 180
- <사진 2-29> 윗세오름으로 가는 영실길 / 197
- <사진 2-30> 산의 곳곳에서는 신기한 돌의 형상들을 만날 수 있다. / 198
- <사진 2-31> 영실 입구의 소나무 / 199
- <사진 2-32> 한라산 서남벽에 펼쳐진 구상나무 군락지대 / 200
- <사진 2-33> 백두는 한라를, 한라는 백두를 그리워한다. / 203
- <사진 2-34> 여느 산처럼 한라산의 빼어난 경승은 계곡에 감춰져 있다. / 204
- <사진 2-35> 한라와 백두는 국토의 양끝에 위치한 특성으로 조국 통일의 화두를 던진다. / 204
- <사진 2-36> 한라산은 끝없는 전설을 잉태하고 있다. / 205
- <사진 3-1> 꽃자왈 지대의 경관(Ⅰ) / 214
- <사진 3-2> 꽃자왈 지대의 경관(Ⅱ) / 215
- <사진 3-3> 세화리 다랑쉬굴 주변 / 224
- <사진 3-4> 꽃자왈 지대 내의 동굴(대접이굴) / 224
- <사진 3-5> 정석비행장(표선면 교래리) 근처의 오름 Ⅰ / 228
- <사진 3-6> 정석비행장(표선면 교래리) 근처의 오름 Ⅱ / 229
- <사진 3-7> 상이족박(백하수오) / 234
- <사진 3-8> 일엽초 / 249
- <사진 3-9> 제주시 오일장의 양순자 약초할머니 / 253

## 【그림 목차】

- <그림 1-1> 『탐라방영총도』에 나타난 칠성도 / 34

## 【표 목차】

<표 1-1> 연대별 백록담 수위 및 형태 기록 / 24

<표 3-1> 1929년경 제주도 내에서 소비되는 연료의 종류와 추정 소비량 / 219

